

국립국어원 2009-01-52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140-14

## 제 출 문

2009년도

##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용역”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합니다.

연구 책임자 : 곽 충 구  
연구 보조원 : 김 수 현, 박 용 대

조사 지역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2009년 12월 19일

연구책임자 : 곽충구(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2009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이 보고서는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들로부터 조사한 구술발화(4시간 분량), 음운, 어휘, 문법 자료를 수록하였다. 이 조사는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 시간은 총 58시간 49분이다. 이 자료는 키르기스스탄의 한인들이 말하는 한국어(고려말)의 실체를 잘 보여 줄 것이다. 또한 고려말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동으로는 중국, 북으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하고 있다. 이곳에는 약 2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한인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온 사람들로서 이주 초기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다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키르기스스탄의 한인들은 수도인 비슈케크와 그 인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키르기스 한인들은 자신들을 ‘고려사람’이라 부르고 자신들의 모국어를 고려말이라 부른다. 70세 이상의 한인들은 유창하게 모국어를 구사하지만, 그 아래 세대는 고려말을 구사하지 못한다. 60대는 모국어 구사가 가능하지만 매우 서툴며 고려말로 말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 한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한국어 화자를 만나면 떠들떠들 고려말을 구사하지만 고려사람과는 언제나 러시아어를 구사한다. 50대 이하의 거의 모국어를 상실하여 일상적으로 러시아어를 구사한다. 노인들은 자신들끼리 모이면 대체로 고려말로 대화를 한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자손들이 러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쓴다.

조사자는 비슈케크에 거주하는 6인의 한인을 면담하고 그 중 3인을 제보자로 삼았다.

주제보자 \*\*\* 씨의 선대는 함북 온성군 남양면으로 육진방언권에 속하고, 부제보자 박\*

\* 씨의 선대거주지는 함북 부령으로 육진방언권과 비육진방언권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박\*\*\* 씨의 선대 거주지는 함북 길주로서 사읍방언권에 속하지만, 위 3인이 말하는 고려말은 원적지의 방언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이 세 제보자가 말하는 고려말은 함북의 하위 지역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것으로서 코이네적인 성격이 강하다. 종결어미는 대체로 함북 육진방언형이나 음운체계나 그 특징은 동북방언(비육진방언)과 비슷하다.

주요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이주, 고려사람, 고려말, 육진방언, 동북방언

2009년도

##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 목 차

1. 조사 과정 .....	3
----------------	---

2. 전사 원칙 .....	9
----------------	---

####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	12
-------------------	----

제 2 편 어 휘 .....	123
-----------------	-----

제 3 편 음 운 .....	175
-----------------	-----

제 4 편 문 법 .....	205
-----------------	-----

#### 4. 제출 자료(별첨)

(1) 지역어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 전량

(2) 전사된 지역어 조사 질문지 원본 및 제보자 조사표

(3)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4)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5) 보존용 48,000hz 웨이브 파일, 작업용 16,000hz 웨이브 파일, 전사 trs 파일

(6) 지역어 조사 사진 파일(제보자 및 보조제보자 얼굴과 전신, 조사장면, 조사 장소, 마을 전경, 조사 항목 등)

(7) 보고서 100부 및 원본 파일

(8) 구술 발화 발간용 파일

# 1. 조사 과정

## 1.1. 조사 지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 공화국 비슈케크(Бишкек)시 피쉬펙스카야(Пишпекская) 디미트라바 \*\* 번지.

## 1.2. 조사 지점 개관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동으로는 중국, 북으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하고 있다. 목축을 하고 곡물 면화 생산을 한다. 수도는 비슈케크이다. 비슈케크는 이전에 푸룬제라 하였으나 독립국가연합 출범 이후 이름을 바꾸었다. 중앙아시아의 대도시가 그렇듯이 오래된 가로수들이 거리에 즐비하다.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다. 이 나라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처럼 다인종국가이다. 이곳에는 약 2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한인은 대체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당초 한인들이 집거하는 곳이나 집단농장에서 조사하기로 하였으나 그런 곳이 없어 비슈케크에서 조사하게 되었다. 한인들은 비슈케크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그 자손들은 대체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살고 있다. 이주 초기에 한인 집단농장이 만들어진 바가 없어 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없다 한다. 또한 비슈케크 내에서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키르기스스탄에는 7, 8개의 고려노인단이 있었으나 4개의 노인단이 통합하여 '무궁화'라는 새 노인단을 만들고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별반 활동이 없다 한다.

## 1.3. 조사 지역의 고려말과 그 사용 정황

한국어(고려말)은 대체로 70세 이상이 사용한다. 노인들은 자신들끼리 모이면 대체로 고려말로 대화를 한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자손들이 러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어를 쓴다.

조사자는 비슈케크에 거주하는 6인의 한인을 면담하였다. 3인은 한국교육원의 조\*\* 원장이 소개한 분들이고 3인은 현지 선교사 방시몬 목사와 고려인협회 총무 남\*\*\* 씨가 소개한 사람들이다. 남자가 4인 여자가 2인이다. 이들 노인은 모두 비육진방언을 구사하였는데, 1인(남자)은 표준어 중절어미를 썼다. 6인 중에서 3인을 제보자로 삼았는데 주제보자 \*\*\* 씨는 선대 거주지가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이며(남편의 선대거주지는 함북 부령군), 보조 제보자 박\*\* 씨는 선대거주지는 함경북도 부령군, 또 다른 보조제보자 박\*\*\* 씨는 함경북도 길주군

이다. \*\*\* 씨의 선대는 육진방언권, 박옥순 씨의 선대거주지 함북 부령은 육진방언권과 비육진방언권의 경계 지역, 박\*\*\* 씨의 선대 거주지는 전형적인 사읍방언권(길주, 명천, 학성 등)이지만 세 제보자는 모두 전형적인 고려말 화자였다. 종결어미는 대체로 육진방언형이나 음운체계나 그 특징은 함북 남부 지역어(비육진방언)와 같다.

주제보자인 \*\*\* 할머니는 함께 동거하는 손녀 내외와는 러시아 어를 쓴다 한다. 그러나 이따금 고려말을 쓰기도 하였는데, 어린 증손녀는 언제나 러시아 어로 말하였지만 할머니의 고려말을 이해하는 듯하였다. \*\*\* 할머니의 아들과 딸은 모두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며 이들은 일상적으로 러시아 어를 구사한다. 그러나 키르기스의 어머니를 만나면 고려말로 대화한다 한다. 부제보자인 박\*\* 할머니의 자손은 육십 초반 이하지만 고려말을 몰라 어머니와는 러시아 어로 대화를 한다. 부제보자인 박\*\*\* 할아버지도 사정은 같다. 요컨대, 70세 이상의 고려인들은 고려말을 쓰지만 60대 이하는 일상적으로 러시아 어를 쓴다. 대체로 60 이하는 모국어에 상실해 가고 있다.

## 1.4. 조사 기간 및 조사 진행 과정

2009. 7. 6.~ 2009. 7. 16.(출장 기간: 2009. 7. 2.~7. 17.)

7월 2일 : 인천 공항 출발(17시),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 도착(현지 시간 21시 35분)

7월 3일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마나스 공항 도착(현지 시간 3시 5분). 오전에 방\*\* 목사사의 안내로 고려인 협회 총무 남\*\*\* 할머니(68세) 댁에서 제보자 면담. 오후에 비슈케크 한국교육원 조\*\* 원장의 소개로 3인을 면담. 박\*\*\* (84세)씨를 제보자로 정함.

7월 4일 : 조사 준비 및 휴식.

7월 5일 : 박\*\*\*씨가 건강 문제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 하여 새로 제보자를 물색함. 오후에 방시문 목사의 소개로 안\*\* (81세)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면담 후 제보자로 선정함.

7월 6일 : 구술 발화 조사.

7월 7일 : 제보자의 고려 노인단 모임 참석으로 오후부터 구술 발화 조사.

7월 8일 : 구술 발화 조사, 어휘 항목 조사. 조사를 마친 후, 보조 제보자 선정을 위해 제보자 안\*\* 씨가 소개한 강릉 김씨(85세)를 면접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치아 결손이 많아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까닭에 보조제보자 선정을 포기.

7월 9일 : 어휘 항목 조사.

7월 10일 : 어휘 항목 조사.

7월 11일 : 어휘 항목 조사, 음운 항목 조사.

7월 12일 : 제보자의 종교 행사 참석으로 조사가 어렵게 되어 박\*\*\*씨를 모시고 구술 발화, 어휘 항목, 구술 발화 및 어휘 항목 보충 조사 실시.

7월 13일 : 음운 항목 조사.

7월 14일 : 음운 항목 조사, 문법 항목 조사.

7월 15일 : 문법 항목 조사.

7월 16일 : 제보자의 시누이 박\*\* 할머니(84세)를 모시고 구술 발화 조사.

7월 17일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마나스 공항 출발(현지 시간 4시 5분)

## 1.5. 제보자

### (1) 주 제보자

- 이름 : 안 \*\*
- 성별 : 여
- 나이 : 81세(1929년, \*월 \*일생)
- 출생지 : 러시아 연해주 수이훈 관구 하마탕수두거
- 거주지 : 강제 이주 전 : 연해주 수이훈 관구 하마탕수두거, \*\*\*\* (\*\*\* )  
현재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 레닌스키 마라파 \*\*번지
- 선대 거주지 : 함경북도 온성군(穩城郡) 남양면(南陽面). 조부모 때 이주함.
- 직업 : 없음
- 경력 : 농업, 극장 매표원
- 학력 : 4학년 수료
- 병역 : 해당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 현지에서 목회 활동하는 방\*\* 선교사가 소개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음성이 낭랑하고 맑은 편.

### (2) 보조 제보자 1

- 이름 : 박 \*\*\*
- 성별 : 남
- 나이 : 84세(1926년, 음력 \*\*월 \*\*일생)
- 출생지 :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 거주지 : 강제 이주 전 :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현재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
- 선대 거주지 : 함경북도 길주군(吉州郡). 조부모 때 이주함.
- 직업 : 없음
- 경력 : 운동 선수

- 학력 : 초등학교 졸업
- 병역 :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 한국교육원의 조\*\* 원장이 고려노인단의 추천으로 소개.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이 명료한 편이나 몸이 불편하여 맑지 않음.

(3) 보조 제보자 2

- 이름 : 박 \*\*
- 성별 : 여
- 나이 : 84세(1926년생)
- 출생지 :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 거주지 : 강제 이주 전 : 러시아 연해주  
현재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
- 선대 거주지 : 함경북도 부령군(富寧郡)
- 직업 : 없음
- 경력 : 농업
- 학력 : 초등학교
- 병역 :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 제보자 안\*\*의 손위 시누이. 안\*\*의 소개로 만나서 구술발화(원  
동에서의 생활사, 이주로부터 중앙아시아 정착 과정)을 조사.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음성이 흐린 편이나 발음이 비교적 정확하며 크고 우렁참.

### 1.6. 조사자

- (1) 이름 : 곽충구(서강대학교 교수)/ 김수현(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 (2) 조사 일시 : 2009년 7월 6일~7월 16일
- (3) 조사 장소 : ①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 공화국 비슈케크(Бишкек)시 피쉬펙스카야(Пишпекская) 디미트라바 \*\*번지(조사자의 숙소).  
②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 공화국 비슈케크(Бишкек)시 레닌스키 마라따 \*\*번지(주 제보자의 집).
- (4) 조사 내용
  - ① 구술발화 파일(8개): AUZ\_TS\_01~AKZ\_TS\_08
  - ② 어휘 파일(9개): AUZ\_TS\_09~AUZ\_TS\_17
  - ③ 음운 파일(4개): AKR\_BS\_20~AKR\_BS\_23
  - ④ 문법 파일(3개): AKR\_BS\_24~AKR\_BS\_26
  - ⑤ 보충 조사 파일(2개): AKR\_BS\_18(구술 발화, 어휘 보충), AKR\_BS\_19(구술 발화 보충)

연번	파일	녹음 시간	조사 항목	주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1	AKR_BS_01	2:55:08	구술 발화 (이주사, 구술 발화 항목 전반)		곽충구 김수현	2009. 7. 6.
2	AKR_BS_02	2:21:09	구술 발화 1.1.~1.7.1.		곽충구 김수현	2009. 7. 6.
3	AKR_BS_03	22:45	구술 발화 1.7.1.~1.7.2.		곽충구 김수현	2009. 7. 6.
4	AKR_BS_04	2:51:22	구술 발화 1.3.~1.8.		곽충구 김수현	2009. 7. 7.
5	AKR_BS_05	49:26	구술 발화 1.6.		곽충구 김수현	2009. 7. 8.
6	AKR_BS_06	53:54	구술 발화 1.8.3.		곽충구 김수현	2009. 7. 8.
7	AKR_BS_07	1:26:52	구술 발화 이주사		곽충구 김수현	2009. 7. 12.
8	AKR_BS_08	2:38:58	구술 발화 이주사		곽충구 김수현	2009. 7. 16.
9	AKR_BS_09	1:14:51	어휘 20101~20211-0-2		곽충구 김수현	2009. 7. 8.
10	AKR_BS_10	3:28:24	어휘 20212~20842		곽충구 김수현	2009. 7. 8.
11	AKR_BS_11	3:20:54	어휘 20901~21244-3		곽충구 김수현	2009. 7. 9.
12	AKR_BS_12	3:34:31	어휘 21245~21719		곽충구 김수현	2009. 7. 9.
13	AKR_BS_13	1:57:44	어휘 21720~21937		곽충구 김수현	2009. 7. 10.
14	AKR_BS_14	2:18:43	어휘 22001~22258		곽충구 김수현	2009. 7. 10.
15	AKR_BS_15	2:32:19	어휘 22301~22514		곽충구 김수현	2009. 7. 10.
16	AKR_BS_16	3:29:12	어휘 22515~23027		곽충구 김수현	2009. 7. 11.
17	AKR_BS_17	3:08:30	어휘 23101~23441		곽충구 김수현	2009. 7. 12.
18	AKR_BS_18	38:10	구술 발화, 어휘 보충 조사		곽충구 김수현	2009. 7. 12.
19	AKR_BS_19	26:00	구술 발화 보충 조사		곽충구 김수현	2009. 7. 11.
20	AKR_BS_20	30:09	음운 31001~31022		곽충구 김수현	2009. 7. 11.
21	AKR_BS_21	4:26:07	음운 31023~32090		곽충구 김수현	2009. 7. 13.
22	AKR_BS_22	1:34:11	음운 32091~32174		곽충구 김수현	2009. 7. 13.

23	AKR_BS_23	5:00:36	음운 32175~32362		곽충구 김수현	2009. 7. 14.
24	AKR_BS_24	1:52:53	문법 40101~40230		곽충구 김수현	2009. 7. 14.
25	AKR_BS_25	1:59:02	문법 40231~40502		곽충구 김수현	2009. 7. 15.
26	AKR_BS_26	2:48:05	문법 40601~41116		곽충구 김수현	2009. 7. 15.
합계		58:49:10				

## 1.7. 전사

(1) 1차 전사(2009년 7월~8월, 조사지에서 전사, 8월-9월 전사)

구술발화 : 곽충구

어휘 : 김수현

음운 : 김수현, 박용대

문법 : 김수현, 박용대

(2) 1차 점검(2009년 10월)

구술발화 : 곽충구

어휘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음운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문법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3) 2차 점검(2009년 11월)

구술발화 : 곽충구

어휘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음운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문법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4) 3차 점검(2009년 12월)

구술발화 : 곽충구, 김수현

어휘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음운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문법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 2. 전사 원칙

###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형태음소 전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형, 활용형, 파생어, 합성어 내부의 형태소 경계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단, 형태소 내부는 음소 전사를 하였다.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발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 안에 한글 또는 음성 기호로써 발음을 표시하였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주 제보자), '#1'(보조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실물은 존재하나 러시아 어로 답변한 경우, 조사지역의 방언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 ⑧ 조사지역에서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어형을 제시하고 그 쓰임을 확인한 후 그 방언형 앞에 ‘→’ 표시를 하였다.
- ⑨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 ⑩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⑪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⑫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 3. 전사 자료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i]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이’와 ‘으’의 중간음은 ‘-i’로 전사하였다. 예: 괴래, 괴별. 그러나 본래의 음가를 지닌 경우도 있다. 예: 짐식(짐승-이)
-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④ 상승조, 하강조, 저장조를 동반하는 긴 소리는 동일 모음을 반복 표기하였다. 예: 해애타(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 제1편 구술 발화

### 1. 이주 전의 원동 시절, 중앙아시아에서의 삶

10201 @ 아매! 그러면 저 원동 얘기를 좀 여쭙보겠습꾸마.{할머니! 그러면 저 원동(遠東) 시절의 이야기를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10201 # 아, 원동[vəndon]에서는 내 어: 그 하마탕쑤두거라는 데서 내 탄생했지.{아, 원동에서는 내가 그 하마탕쑤두거라는 데서 태어났지.}

10201 # 그래 거기서 우리 아, 아버지는 그 저기 재비농새르, 재빌르 이래 농새르 해서는 먹구 살구.{그래 거기서 우리 아버지는 저기 자작농(自作農)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고.}

10201 # 이렇기 그랬지.{이렇게 그랬지.}

10201 # 그 답에는 거기서 어따(əto) 하마탕쑤두거 수이폰스끼 라이온(Суифунский рай он)에서는 내 네 살 땀했어.{그 다음에는 거기서 음 하마탕쑤두거가 있는 수이훈 관구(管區)에서는 내가 네 살이 되었었어.}

10201 # 네 살 땀는데 예떠(əto) 하, 예떠(əto) 기계 구루물레 구루물레라구서리 그렇기 애:기르 우리 아매 한 한어머니 내가 애:기르 하지.{네 살이 되었는데 음, 하마탕쑤두거, 음 그 기계 구루물레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말씀을 하지.}

10201 # 그런 구루물레라는 데르 삼십삼년도에 네 살 땀지.{그런 구루물레라는 데에서, 1933년도에 내가 네 살이 되었지.}

10201 # 그때 모::지리 승년이 들었지.{그 때 몹시 흥년이 들었지.}

10201 # 기래 그 거기서 떠나서 구루물레서 떠나서 하아, 저기 거기로 왔지.{그래 거기 (하마탕쑤두거)에서 떠나서 구루물레서 (하마탕쑤두거를) 떠나서 저기 거기로 왔지.}

10201 # 예따(əto) 저기 구루, 어따(əto) 하마탕쑤두거라는 데서 떠나서 구루물레라는 데르 왔지.{음 저기 구루물레, 음, 하마탕쑤두거라는 데를 떠나서 구루물레라는 곳으로 왔지.}

10201 # 그래 와서 어, 거기 와서 거기서는 꼬호츄(қолхоз)데, 기래 거기서는 꼬호즈(қолхоз) 일하기만 하무, 감제질두 하구 그담에 예따(əto) 싸하르(сахар) 잇자?{그렇게 와서 거기 와서, 거기는 집단농장이데, 그래 거기서는 집단농장에서 일을 하기만 하면 감자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음 설탕 있지?}

10201 @ 음.{음.}

10201 @1 예.{예.}

10201 # 사하르(сахар)질두 하구.{사탕수수 농사도 짓고.}

10201 # 기래무 가슬이 임하무 감제두 타구 어 싸하르(сахар)두 커우대들이르 커우대르 한 커우대쑤 두 커우대쑤 이렇기 타지.{그렇게 농사를 지어 가을이 되면 감자도 타고 설탕도 자루 들이로 자루로 한 자루씩 두 자루씩 이렇게 타지.}

10201 # 기래구 감제는 동삼 먹을 거 타구.{그리고 감자는 겨울에 먹을 것을 타고.}

10201 # 같그, 채밀이 저어서 채밀 같그두 이래 주지.{가루를, 밀 농사를 지어서 밀가루도 이렇게 주지.}

10201 # 우리네 원동서 그런 예따(əto) 입쌀으 못 났어.{우리네 원동서 그런 음 입쌀을 못 보았어.}

10201 # 어 피난으, 피난으 아오?{어 피, 피를 아오?}

10201 @ 네! 아오.{네! 아오.}

10201 # 어 피난으 먹구 살았어, 그 쌀, 밥우 먹구 살았지.{어 피를 먹고 살았어, 그 찰쌀, 피밥을 먹고 살았지.}

10201 # 기래 그 구루물레라는 데 와서는 꼬호즈(қолхоз) 들어서 거기 와서 살았짐.{그래 그 구루물레라는 데 와서는 집단농장에 들어서 거기 와서 살았지 뭐.}

10201 # 기래 사는데 거기는 저쪽에 네레가서는 초이지만해두 우리네는 이쪽에 올, 산변죽택이에 올라와서는 어: 다스 호이 살았됐어.{그래 사는데 거기는 저쪽에 내려가면 촌이지만 우리네는 이쪽에 올라와 산기슭에 올라와서는 다섯 호(戶)가 살았어.}

10201 # 다스 호이 사는데 다스 호에 선새임이 한내 살구 그담에 우리 내 우리 빠빠 아버지 누비 동새에 들어 살구.{다섯 호가 살았는데 선생이 하나 살고 그 다음에 우리 나 아버지, 누이 동생 들어 살고.}

10201 # 기래구 한 분네는 누긴지 내 기억지 못하겠어.{그리고 한 분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겠어.}

10201 # 기래 다섯 분이 살았됐어.{그래 다섯 분이 살았었어.}

10201 # 기래구 어: 거기서 또 네 해 살았지.{그리고 어 거기서 또 네 해를 살았지.}

10201 # 네 해르 살았됐어.{네 해를 살았었어.}

10201 # 네 해르 살구 삼십칠년도에 이기르 돌온다::구 그러지.{네 해를 살고 1937년도에 여기로 들어온다고 그러지.}

10201 # 기래네 내 그때 여덟살{여덟살} 때 땀했어.{그런데 내가 그 때 여덟 살 때었어.}

10201 # 그 때는 우리 해~이 잇었됐어.{그때는 우리 형이 있었어.}

10201 # 우리 한어머니 잇구 우리 빠, 아버지 어머니 잇구 해~이 잇구 내 잇구 우리 동새:오래비 잇었됐어. 동새:.{우리 할머니가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있고 형이 있고 내가 있고 우리 남동생이 있었어. 동생.}

10201 @ 동새:오래비.{남자 동생.}

10201 # 오 오래비 잇어…….{동, 동생이 있어…….}

10201 # 기래 저저 여섯이 땀했어.{그래 그저 여섯이 되었어.}

10201 # 기래 여섯이 대서 거기서 어 사연 잇다가 네 해르 거기서 살구.{그래 여섯이 되어서 거기서 음 4년을 잇다가 네 해를 거기서 살고.}

10201 # 그래다가 우리 이 여기르 썩 다 온다구서르 그렇게 말하지.{그러다가 우리 이 여기로 썩 다 온다고 그렇게 말하지.}

10201 # 그래 그때 우리네 한어머니랑 모:지리 올었됐어.{그래 그때 우리는 할머니와 몹시 올었어.}

10201 # 거기 떠나니까데 야~, 이러짐.{거기를 떠나니까 응. 이러지 뭐.}

10201 # 아이 이 노시아르 돌온단 말 아이하구 야~ 이 까자끄스탄으로 돌온다구 그렇기 그러짐.{아니, 이 러시아로 들어온다는 말을 안 하고 응 이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온다고 그렇



게 그러지 뭐.}

10201 # 그래 그때 우리 한어머니 얘:기르 하지.{그래 그 때 우리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지.}

10201 # 어디메르 가는가: 하이까네 어디메르 간다구 아이 하구서리 떠날 적에는 아무 데두 간단 말 아이 하구 썩 우리 조선사름덜으 실킨다구.{어디로 가는가 한니까 어디로 간다고 안 하고서, 떠날 적에는 아무 데도 간단 말을 안 하고 썩 우리 조선사람들을 차에 실린다고.}

10201 # 이릉기 말하지.{이렇게 말하지.}

10201 # 그래 차츰차츰 오다가서리 그것두 우리 한어머니 말하는 게구 내 들ᄁ다나이.{그래 차츰차츰 오다가, 그것도 우리 할머니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을 듣다 보니.}

10201 # 그래 그러지.{그래 그러지.}

10201 # 어 그렇게, 이 죽, 이거 좋아민, 좋아~이라구 하오? 여기르? 그래구.{어 그렇게, 이거 좋아아시아라고 하오? 여기를 그러고.}

10201 @ 중앙아시아.{중앙아시아.}

10201 # 중앙아시아로 들어온다구 이릉기 말하이 우리 한어머니 그렇기 얘:기 하지.{중앙아시아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하니, 우리 할머니가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지.}

10201 # 그래서 우리 여길 들어와서, 들을 적에 모:지리 메 우리 영감 알앗짐.{그래서 우리 여기를 들어와서, 들어올 적에 몹시 (고생한 사실을) 우리 영감이 잘 알았지.}

10201 # 몇 해 몇 달 들어온 온 거 썩. 거저 어느 날 어트기 들은 거 썩 알지.{어느 해에 어느 달에 들어온 것을 썩. 그저 어느 날 어떻게 들어온 거 썩 알지.}

10201 # 나는 그저 들ᄁ구두 기억이 못했단 말이지.{나는 그저 듣고도 기억을 못했던 말이지.}

10201 @ 어릴 때라.{어릴 때라.}

10201 # 아이! 이기 와서.{아니! 여기 와서.}

10201 @ 아, 여기서.{아, 여기서.}

10201 # 여기와서. 저기 소강추이가 얘:기르 하는 거 내 들으메서두 그저 기억치 못했던 말이. {원동이 아니고 여기 와서. 저기 내 남편이 소강춘 교수와 이야기하는 것을 내 들으면서도 그저 기억하지 못했던 말이오.}

10201 # 우리 둘을 적에 몇 달 메출으 들어오구 한 그런 거. 메출으 들어왔다는 거 어 소강추이가 얘:기 하지.{우리가 원동에서 중앙아시아로 들어올 적에 몇 달 며칠을 들어오고 한 그런 것. 며칠을 들어왔다는 것을 (남편이) 소강춘 교수와 얘기를 하지.}

10201 # 기래두 내 그저 기억지 못했던 말이지.{그래도 내 그저 기억하지 못했던 말이지.}

10201 # 그러나 나는 몇 달 메출 들어온 거 나는 모르겠어.{그러나 나 자신은 원동에서 여기로 몇 달 몇 일 동안 들어왔는지 나는 모르겠어.}

10201 @ 그러면은.{그러면은.}

10201 # 들을 적에 들어올 적에는 차에 오는게 정말 바빠 들어왔어.{들어올 적에 들어올 적에는 차에 실려 왔는데 정말 힘들게 들어왔어.}

10201 @ 그건 이따 여쭙 보구요.{그건 이따가 여쭙어 보구요.}

10201 # 어~.{응.}

10201 @ 그러면은 그때 아메 원도에 게실 때.{그러면은 그때 할머니가 원동에 게실 때.}

10201 # 어~.{응.}

10201 @ 예, 원동에 게실 때 그 마을은 어티기 생겼슴둥?{예, 원동에 게실 때 그 마을은 어떻게

게 생겼었습니까?}

10201 # 마을으는 이릉기 생겼어.{마을은 이렇게 생겼어.}

10201 # 다스 호이 사는데 산변죽텍이 이릉게 사~이지.{다섯 호가 사는데 산기슭에, 이렇게 산이지.}

10201 # 사인테 이릉기 보기마 하무 사~이 이릉기 이 이릉기 평든::한 사이 잇는데 야 이 산변죽텍이에 따이 있지.{산인테 이렇게 보기만 하면 산이 이렇게 이 이렇게 밋밋한 산이 있는데 웅 이 산기슭에 땅이 있지.}

10201 # 거기다가서리 코~오 시무구 감자 시무구 옥수꾸 시무구, 옥수끼 무시 한국에서는 옥수꾸 무시기라 하오?{거기다가 콩을 심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옥수수는 뭐 한국에서는 옥수수를 무엇이라 하오?}

10201 @ 옥시끼라 하압꾸마.{옥수수라 합니다.}

10201 # 옥수끼 아, 옥수꾸 시무구.{옥수수 아, 옥수수를 심고.}

10201 # 그래 그저 그러한 채소덜으 심어서 배채랑 까지랑 고초랑 싱거, 심어서.{그래 그저 그러한 채소들을 심어서 배추랑 가지랑 고추랑 심, 심어서.}

10201 # 그 산변죽텍이 비오무 그저 농새질해서 그래.{그 산기슭에 비가 오면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10201 # 재빗거 따아 파선 그래선 먹구 살구.{자기 땅을 파고 그래서는 먹고 살고.}

10201 # 기래구 우리 어: 원도에서 살 적에는 세 한 마리 잇엇됐어.{그리고 우리 원동에서 살 적에는 소가 한 마리 있었어.}

10201 # 어, 젓으 짜는 쉼 잇구.{어, 젓을 짜는 소가 있구.}

10201 # 야~이 다섯 마리 잇엇어.{양(羊)이 다섯 마리가 있었어.}

10201 # 기래구 어 그런거 우리 아부지 타구 땡기는 말이 한 마리 잇엇됐어.{그리고 어 그런 거, 우리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말이 한 마리 있었어.}

10201 @ 아아! 그렇슴둥?{아! 그렇습니까?}

10201 # 말이 잇엇됐어.{말이 있었어.}

10201 # 기랜거 그 세랑 말이랑 둘을 적에 그 사름덜이 썩 가져갑데.{그런데 그 소랑 말이랑 여기로 들어올 적에 그 사람들이 썩 가져가데.}

10201 # 우리 말이두 가져가구 세두 가져가구 야~이두 가져가구 썩 가져갑데.{우리 말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고 양도 가져가고 썩 가져가데.}

10201 # 기래구 그거는 우리 한어머니 그러는 게, 에 돈으 주더라지.{그리고 그거는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에 돈을 주더라지.}

10201 # 기래 우리 한어머니 내가 얘기르 하는데 이러지 머.{그래 우리 할머니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지 뭐.}

10201 # 돈으 열세천을 여기르 둘을 적에 열세천으 돈으 이 허리에 띠구 왔다이까네 영계 사름덜 그러지 들어와서 우리 사름덜 이릉기 말하지.{돈을 13,000루불을 여기로 들어올 적에 13,000루불의 돈을 이 허리에 차고 왔다고 한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러지,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10201 # 야! 그거 돈으 마이 가지구 왔다구서리.{야! 거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10201 # 기래 말이랑 세이 야~이 잇다나이.{그래 말이랑 소, 양이 있다 보니.}

10201 # 야아! 오리랑 닭이랑 많았어.{야! 오리랑 닭이랑 많았어.}

10201 # 대애지는 그: 노시앗사람덜이 잡아서 통채다가서리 싹 절거서 간 이룽기 불에다가서리 야~ 그렇게 기래서 어 통채다 열어서 저어서 그래 그거 가지구 여기 들어와서 그거 우리 먹었댜어.{돼지는 그 러시아사람들이 잡아서 통에다가 싹 절이어서 이렇게 불에다가 웅 그을려서 통에다 넣어서 저서 그래 그거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그거 우리 먹었어.}

10201 @ 그러면은.{그러면은.}

10201 # 그래 한 한어머니 기렇게 애:기르 하지.{그래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10201 # 들어와서 칠년도에 들어와서 그 동삼으느 국 팔십, 칠십 어저느 칠십 어따(это) 삼십 칠년도에 들어와서 삼십팔년도에는 기래두 일없게 살았다구.{여기로 들어와서 1937년도에 들어와서 그 겨울은 칠십 이제는 칠십 음 1937년도에 들어와서 1938년도에는 그래도 켜챇게 살았다고.}

10201 # 원동서 가지고 들어온 돈에, 먹을 거에 가지구 들어와서 이룽기 살았다지.{원동서 가지고 들어온 돈에, 먹을 것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살았다지.}

10201 # 기래구 구연도부터는 별:어야 살지.{그리고 1939년부터는 별:어야 살지.}

10201 # 기래 우리 아버지 조끔씨 벌어서.{그래 우리 아버지 조금씩 벌어서.}

10201 # 기래 가지고 온 돈이 그렇게 마:이 모자란다지.{그래 가지고 온 돈이 그렇게 많이 모자랐다지.}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우리 한어버이, 한어머니 기래구 애:기르 하지.{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10201 # 기래 그 돈으 가지구서리 살다가 우리 아버지 조끔씨 일해서 벌어서 우리 오기는, 크 줄오르다르 들어왔댜어.{그래 그 돈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아버지 조금씩 일해서 벌어서, 우리 오기는 크줄오르다로 들어왔었어.}

10201 @ 아! 까자끄스탄.{아! 카자흐스탄.}

10201 # 아, 거기르 들어와서 경계와서 어: 출나바리크라구서리 그런 게 또 잇었댜소.{거기로 들어와서 거기에 와서 음 출나바리크라고 그런 데가 또 있었소.}

10201 # 고로드(город)서 조끔 나가서.{도시에서 조금 나가서.}

10201 # 기랜데 우리 기게 \*\*살로에 들어오다나이 가매서리 아 부리우지.{그런데 우리가 그게 살로에 들어오다 보니 기차가 지나가면서 사람을 부리지.}

10201 # 칠리(Чилли)다 부리우구.{칠리(Чилли)에다 부리고.}

10201 # 어, 그담에 바이비치다가 부리우구.{어, 그 다음에 바이비치에다가 부리고.}

10201 # 그래 부리우매서리 가서 우리네는 크줄오르다(Кызылорда)가서리 땡 바곤(вагон)으 네레와 논 거느 내 기억지 못하겠어.{그렇게 부리면서 가서 우리네는 크줄오르다(Кызылорда)에다가 (부렸는데) 객차 몇 량의 사람을 내려놓았는지 내가 기억을 못 하겠어.}

10201 # 기래 여기 아는 사람덜이 그거 아는 사람덜이 노인단으 가기만 하무 잇소.{그래 여기 아는 사람들이 그거 아는 사람들이 노인단에 가기만 하면 잇소.}

10201 # 기래 엇그제 노인단으 가이까테 한아버지 한내 그래 애:기르 하지.{그래 엇그제 노인단에 가니까 할아버지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10201 # 에따(это) 우리네두 크줄오르다(Кызылорда)에 와 네랫다구.{음 우리네도 크줄오르다(Кызылорда)에 와서 내렸다고.}

10201 # 그래구 애:기르 하지.{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10201 # 그 사람덜으내 내보구 한내라두 이새~이다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영감가 동쟁이다나 이 알지.{그 사람들은 나보다도 한 살이라도 손위이다 보니, 우리 아버지 우리 영감과 동갑이다 보니 알지.}

10201 # 기래 우리네는 그래 와서 출나가리크라는 데는 막 쓸어 열었던 팔이지. 사람덜으. {그래 우리네는 그렇게 와서 출나가리크라는 데는 막 쓸어 넣었던 팔이지. 사람들.}

10201 # 그저 정말 증시이르 쓸어 열는 거 처리 쓸어 열었댜어.{그저 정말 짐승을 쓸어 넣는 것처럼 쓸어넣었어.}

10201 # 거기 사람덜이 마:이 죽었어.{거기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10201 # 우리네는 아매 잇다나이 한어머니 잇다나이 인, 그 크줄오르다 어 사범대학이라는 그런 게 잇었댜어.{우리네는 할머니가 있다 보니 할머니가 있다 보니, 그 크줄오르다 사범대학이라는 그런 곳이 있었어.}

10201 @ 아압꾸마.{압니다.}

10201 # 아, 아오?{아, 아오?}

10201 @ 예.{예.}

10201 # 아아! 그 사범대학이 켄린도리(коридор)에서 살았댜어.{아! 그 사범대학 복도에서 살았댜어.}

10201 # 그 이룽기 들어가는 카이. 이룽기 어 사람 그 청년덜으느 글으 이르구 들어오매서두 그 청년덜이 글 이르는 청년덜이. 나아 먹은 거는 우리 영감이 말하는 게 어 큰일으 조끔 하는 거는 싹 붙들어 가져갔다는 게지. 들어오매서리. 기래구 우리 나이 어리구 그런 사람덜으는 그렇기, 우리 아버지랑 무식하지, 우리 아버지랑, 기라다니까테 그저 아이 붙들어갔지, 아무데두. 그래 거저 여기 들어와서두 고상 모지 했어 모지. 우리네는 원도, 원도에서두 원동 변경에서도 잘 사지는 못했어. 잘 사지는 못했어.{그 이렇게 들어가는 칸. 이렇게 어 사람 그 청년들은 공부를 하고 원동에서 들어오면서. 그 청년들이 공부하는 청년들이. 나이를 먹은 사람은 우리 영감이 말하는데 어 큰일을 조금 하는 것들은 싹 붙들어 갔다는 게지. 원동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우리처럼 나이가 어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아버지랑 무식하지, 우리 아버지랑, 그렇다 보니 그저 안 붙들어갔지, 아무 데도. 그래 그저 여기 들어와서도 고생을 몹시 했어 몹시. 우리네도 원동, 원동에서도 원동 변경(邊疆)에서도 잘 살지는 못했어. 잘 살지는 못했어.}

10201 @ 그럼 아매!{그럼 할머니!}

10201 # 응.{응.}

10201 @ 그 원동에서.{그 원동에서.}

10201 # 응.{응.}

10201 @ 에, 그 어저께도 쯤 여쭙 뵈었는데 그 까레이(Корея) 어디에서 언제 뉘기 원동으르 왔슴둥?{에, 그 어저께도 쯤 여쭙어 보았는데 그 한국 어디에서 언제 누가 원동으로 왔습니까?}

10201 # 우리 한어머니, 한어머니가 한아버지 왔지.{우리 할머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왔지.}

10201 @ 음, 어디서?{음, 어디서?}

10201 # 어:, 한북 북동 내메라는 데서. 내메라는 데서 왔지. 한국 북동 내메라는 데서 왔지. 우리 한어머니가 한아버지. 거기서 들어왔지. 기래 들어와실 적에, 그때 한국북도에서 우

리 아버지 낫지. 기래 우리 아버지르 한나 업구 여길 들어왔지. 한나 업구.{어, 함경북도 남양(南陽)이라는 데서. 남양이라는 데서 왔지. 함경북도 남양이라는 데서 왔지.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 거기서 들어왔지. 그래 들어왔을 적에, 그때 함경북도에서 우리 아버지 태어났지. 그래 우리 아버지를 하나 없고 여기를 들어왔지. 하나 업고.}

10201 @ 한나 업고 원동으로 들어오셨지.{하나 업고 원동으로 들어오셨지.}

10201 # 원도르 들어왔지. 기래 들어와서 우리 어 한어머니, 예: 한아버지 잇구. 그 담에, 한, 우 우리 아버지 예 잇구, 우리 아버지 누비 잇구 동세애 잇구 그 담에 또 누비 둘이 잇엇덜어. 그 동세 아렐르 누비 또 두올이. 그래 다숫이, 다숫이 댕덜어. 누비 둘에 동세애. 그래 있어 다숫이 댕지. 다숫이 데구. 기래구서리 그 노시아로 들어왔지. 그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하마탕쑤두거라는 데르.{원동으로 들어왔지. 그래 들어와서 우리 할머니, 예 할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있고, 우리 아버지 누이가 있고, 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이가 둘이 있었어. 그 동생 아래로 또 누이 둘이 있었고. 그래 다섯이, 다섯이 되었덜어. 누이 둘에 동생. 그렇게 있어서 다섯 호가 되었지. 다섯이 되고. 그리고서 러시아로 들어왔지. 들어와서 거기 와서 그 하마탕쑤두거라는 데로.}

10201 @ 아가 말씀하셨쥬.{아가 말씀하셨쥬.}

10201 # 어, 어 그 하마탕쑤두거라는 데르 들어왔지.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구루물레라는 데르 와서 우리, 우리 아버지 하마탕쑤두거서 장가르 갔어. 우리 어머니는 어디메 비 비전이라구, 번도에서 비전이라는 고로드(город) 빈전이랍데. 그래 우리 한어머니 애:기르 하이 내 들었지. 기래두 우리 헤이두 이 애:기르 자서:히 못하제이오? 나네 한어머니가 그양: 같이 잇다나이 내 이거 자서:니 들었지. 우리 헤인, 상세났어. 우리 오형제오. 아 아들이 한난 게 우리 얼마나 아들이 한난게 상세나구. 우리 오형제 이때까지 사다가 헤이가 넷째 동세 상세났어. 개 우리 서이 지방 있어. 갠데 내 한내 여기 있어. 개구 들우는 까프까즈(Кавказ)에 있어.{어 그 하마탕쑤두거라는 데를 들어왔지.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구루물레라는 데를 와서 우리, 우리 아버지 하마탕쑤두거에서 장가를 갔어. 우리 어머니는 어디 비전이라고, 원동에서 비전이라는 도시, 비전이라고 하데. 그래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하니 내가 들었지. 그래도 우리 형도 이 얘기를 자세히 못하는데, 나는 할머니와 계속 같이 있다 보니 내 이거 자세히 들었지. 우리 형은 돌아가셨어. 우리 오남매오. 아들이 하나인데 우리 어머니 아들이 하나인데 돌아가고. 우리 오남매 이때까지 살다가 형과 동생이 돌아갔어. 그래 우리 셋이 지금 있어. 그런데 나 하나가 여기 있어. 그리고 둘은 카프카스에 있어.}

10201 @ 까프까즈(Кавказ)에.{카프카스에.}

10201 # 어, 까프까즈(Кавказ)에 살다가.{어, 카프카스에 살다가.}

10201 @ 어째 멀리 가셨슴둥?{어째 멀리 가셨습니까?}

10201 # 그렇기 이세르 해에 갔지, 우리 어머니. 기래구서리 에 내 아래 동세: 내보구 일곱 해 야늬해 지해오.{그렇게 이사를 해 갔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에 내 아래 동생이 나보다 일곱 해, 여덟 해 아래오.}

10201 @ 오래비라구 그러셨지.{오라비라고 그러셨지.}

10201 # 아이 동세.{아니, 여동생.}

10201 @ 남, 남자.{남, 남자.}

10201 # 여자!{여자!}

10201 @ 아, 여자.{아, 여자.}

10201 # 야~. 기래 야늬해 [야드패] 지해 동세애 지방 원동서 둘을 적에 탄생해서 두 달인가 들어왔지 여기르. 개 그게 일흔 두 살. 일흔 두살 데오. 기래구 영계 들어와서 한내 또 낫덜어. 기래 난 게 그거는 예순 둘이. 예순 둘이. 어저는 그 까프까즈(Кавказ) 잇다가서 리 모스크바르 갔어. 모스크바 가서 거기 가 일 벌:어서. 어어 기게 어디메라던가? 경계다가 집우 싸구 지방 거기서 모스크바 거기서 사오. 거기서 사오. 기래 드문:드문 전화르 하오. 기래 들으무 내 가슴이 그렇게 좋제이오. 난 또 여기 한내다나이.{응. 그래 여덟 해 아래 동생이 지금 원동에서 들어올 적에 탄생해서 두 달인가 되어서 여기로(중앙아시아)로 들어왔지. 그래 지금 72세. 72세 되오.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 또 낫지. 그래 난 것이 예순 두 살. 예순 두 살. 이제는 그 까프까즈에서 잇다가 모스크바로 갔어. 모스크바에 가서 거기 가 일을 해 벌:어서. 어 그게 어디라던가? 거기다가 집을 사고 지금 거기서 모스크바 거기서 사오. 거기서 사오. 그래 드문드문 전화를 하오. 그래 목소리를 들으면 내 가슴이 그렇게 좋지 않소. 난 또 여기 (혼자) 하나이다 보니.}

10201 @ 뭐 전화를 하시무 데지요 뭐.{뭐 전화를 하시면 되지요, 뭐.}

10201 # 그래 전화르 하지. 야~ 전화르 하오. 기래 거저 우리 형제간으는 그래 다숫이 거저 잇다가 형두 나이 있어 상세났어. 야든 여섯, 이른 여섯에 상세났어, 헤~이. 헤~이네 자식두 여기 있소.{그래 전화를 하지. 응 전화를 하오. 그래 그저 우리 형제간은 그렇게 다섯이 그저 잇다가 형도 나이가 있어 돌아가셨어. 여든 여섯, 이른 여섯에 돌아가셨어, 형이. 형이네 자식도 여기 있소.}

10201 @ 이쪽에?{이쪽에?}

10201 # 어~.{응.}

10201 @ 끼르끼즈스탄에?(키르기스스탄에?)

10201 # 어~.{응.}

10201 @ 아. 그럼 아매 원동에 게실 때에 어: 그 아매가 사시던 하마탕쑤두거 그 주변 지역에는 우리 한인들이 사는 한인촌이 없었슴둥? 다른 마을이 없었슴둥?{아. 그럼 할머니 원동에 게실 때 어 그 할머니가 사시던 하마탕쑤두거 그 주변 지역에는 우리 한인들이 사는 한인촌이 없었습니까? 다른 마을이 없었습니까?}

10201 # 다른 마을이 없구, 거기서 지나가무 어: 그런 어 그거 우리네는 하마탕쑤두거라지마네 두 거기는 또 지나가서 우리 삼추이랑 경계가서 글으 일졌어. 그 거기…….{다른 마을이 없고, 거기를 지나가면 응 그런 어 그거 우리는 하마탕쑤두거라고 하지만도 거기는 또 지나가서 우리 삼촌이랑 거기에 가서 공부를 했어. 그 거기…….}

10201 @ 어디가서?{어디가서 공부를 했습니까?}

10201 # 어…….{어…….}

10201 @ 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토크?}

10201 # 원도서 야 우리 하마탕쑤두거르 지나가기마 하무 타두거라 하얏데, 타두거라구. 그 타두거란 데 가서 어어 우리 삼추이랑 글으 일것덜어. 그 담에 글으 이르다가서리 우리 삼추이는 우리네르 떠나서 어디메르 왔는가:이 에따 우리집에서 나와서 우리 아매랑 잇는 데 서방두 아이가구 어디메르 갖는가이, 에따(это) 기게…… 그거 어디메라 하던가 기억치 못하겠다……. 칸다로제노브까(кондратеновка)라구 했어. 칸다로제노브까(кондратеновка)! 그 칸다로제노브까(кондратеновка)는 기게 에따(это) 아…… 우스리스크(уссу

рий ск)요.{원동에서 응 우리 하마탕수두거를 지나가기만 하면 타두거라 하는 곳이 있데, 타두거라고. 그 타두거란 데 가서 응 우리 삼촌이랑 공부를 했어.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우리 삼촌은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왔는가 하니, 음 그게…… 그거 어디라 하딘가 기억하지 못하겠다……. 칸다로체노브까(кондратеновка)라고 했어. 칸다로체노브까(кондратеновка)! 그 칸다로체노브까(кондратеновка)는 음…… 우스리스크(уссурийск)요.}

10201 @ 아이구! 위인테.{아이구! 그곳은 블라디보스토크 위인테.}

10201 # 야~ 우스리스크(уссурийск). 어 거기 그러 우리 삼추이네는 거기서 살았지. 기래구 장가르 가서 아덜 서, 둘으 테리구 여기르 들어왔지. 우리 삼추이랑으는 어 아덜 둘이 싹 일찍이 상세나구. 시방 내 제:일 오래: 사오. 내 제일 오래 사오.{응 우스리스크(уссурийск). 어 거기 그리고 우리 삼촌네는 어 거기서 살았지. 그리고 장가를 가서 아이들 셋, 둘을 테리고 여기 중앙아시아로 들어왔지. 우리 삼촌네는 어 아이들 둘이 싹 일찍 죽고. 시방 내가 제일 오래 사오. 내가 제일 오래 사오.}

10201 @ 음. 그러면은 아매 그 원동에 게실 때에 그:: 다른 그 친척은 없었슴둥?{음 그러면 할머니 그 원동에 게실 때 그 다른 친척은 없었습니까?}

10201 # 친척은 톨리, 톨리꼬(толико) 그저 우리 음 어 삼추이 잇구 어 그저 아버지 누비 두 우 서이 잇구. 아 그저 그래 있었지. 그래구서 그저 친척이 그래 사다가 그래 사다가서리 그 친척이 다아 같이 들어왔지.{친척은 오직 그저 우리 삼촌이 있고 그저 아버지 누이가 둘 셋이 있고. 아 그저 그렇게 있었지. 그러고서 그저 친척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 친척이 다 같이 중앙아시아로 들어왔지.}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다아 같이. 그러나 삼추이 딸루 들어왔어. 어 삼추으는 그런 거 우스리ски(уссурийск) 잇다나йка다 딸루 들어와서 어. 우리네는 크줄오르다 네리구, 삼추이는 까르막치라는 데. 거기 가서 조금 더 가서 네렛지.{다 같이. 그러나 삼촌은 따로 들어왔어. 어 삼촌은 그런 거 우스리스크에 있다 보니 따로 들어와서 어. 우리네는 크줄오르다에서 내리고 삼촌은 까르막치라는 데서 내리고. 거기 가서 조금 더 가서 내렸지.}

10201 @ 거기가 우즈벡스탄임둥?(거기가 우즈베키스탄입니까?)

10201 # 까자끄스탄. 크줄오르다(Қызылорда)에서 조곰 더 지나가서. 그래 네렛지.{카자흐스탄. 크줄오르다(Қызылорда)에서 조금 더 지나가서 까르막치가 있지.}

10201 @ 그러면은 그 아매 어머니는 그 까레이(Корея) 어디서 들어오셨슴둥? 어머니쪽은?{그러면 그 할머니 어머니는 그 한국의 어디서 들어오셨습니까? 어머니쪽은?}

10201 # 우리 어 엄 내 어마이 그 그쪽에서는 어디메서(+[ədimesə]) 어: 비전이라는 데서.{우리 어 엄 내 어머니 그 쪽에서는 어디서인가 하면 어 비전이라는 데서.}

10201 @ 비전.{비전.}

10201 # 우리 마마는 열내매[열래매]. 열내매[열래매]오. 열내맨테[열래맨테] 들어오기는 어디르 들어왔는가 하이 이 까자흐스탄 알마타 잇재오?, 알마파, 저, 저기, 그 알마파서 그게 어 디멘가 우슈토베라는 데르 왔어.{우리 어머니는 10남매. 10남매이오. 10남매인데 들어오기는 어디로 들어왔는가 하니 이 카자흐스탄 알마타 잇잖소?, 알마티, 저, 저기, 그 알마티서 그게 어디인가 하면 우슈토베라는 데로 왔어.}

10201 @ 그렇지. 아아! 우슈토베.{그렇지. 아아! 우슈토베.}

10201 # 싹 우리 이 사름덜이 실게서 싹 까자끄스탄으로 들어오구 우즈벡스탄으르 들어왔지. 기엔테 우리네는 싹 까자흐스탄에서 네렛다. 우리 어 어머니 형제간두 열내매[열래매] 싹 우슈토베서 싹 네렛단 말이오. 기래두 우리 어머니는 제비 동새가는 못찾았됐어. 못 찾구 잇다가서리 그 담에 우리 삼추이, 내 삼추이 우리 어머니르 찾게 뗏지. 개 찾아서 그 사름덜이 싹 정게르 실게서 음 우슈토베르 왔다가 그 사름덜이 싹 까프까즈(Кавказ)르 들어갔어. 싹 까프까즈(Кавказ) 가서 우리 삼촌네 거기서 싹 상세났어. 기래두 마감에 마마르 어 육십육년도에 마마르 테레다가서리 거기 가서 우리 마마르 상세났지.{싹 우리 사람들이 차에 실려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오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왔지. 그런데 우리네는 싹 카자흐스탄에서 내렸다. 우리 어머니 형제간도 열 남매(인데) 싹 우슈토베에서 싹 내렸단 말이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자기 동생과는 못 찾았어. 못 찾고 잇다가서 그 다음에 우리 삼촌이, 내 삼촌이 우리 어머니를 찾게 되었지. 그래 찾아서 그 사람들이 싹 거기로 실려서 음 우슈토베로 왔다가 그 사람들이 모두 카프카즈로 들어갔어. 모두 카프카즈로 가서 우리 삼촌네는 거기서 싹 돌아가셨어. 그래도 마지막에 어머니를 어 1966년도에 어머니를 데려갔는데 거기 가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10201 @ 그럼, 그 아까 여쭙밧었는데, 그 아매 그 마마 있재임둥? 마마는 아까 말씀하시기르 까레이:::(Корея){그럼, 아까 여쭙어 보았는데, 그 할머니 어머니가 있잖습니까? 할머니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국…….}

10201 # 우리 마마네는.{우리 어머니네는.}

10201 @ 까레이(Корея) 어디라구 그러셨지?{한국의 어디라고 그러셨지?}

10201 # 모르지. 우리 우리마마네 패덜으는 나는 한나투 모르지. 기래구 우리 빠빠(папа)네 패덜으는 우리 애매 말하다나이 그게 기억이 텐단 말이지.{모르지. 우리 우리 어머니쪽 패들은 나는 하나도 모르지. 그리고 아버지 패들은, 우리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다 보니 내가 그계(선대 거주지) 기억이 된단 말이지.}

10201 @ 다(да), 다(да).(예, 예.)

10201 # 우리 마마네 패덜두 그전에 이 원동 변강에서 아이 살구 싹 저 조선에서 잇다가서리 들어왔겠지.{우리 어머니 패들도 그전에 이 원동 변강에서 안 살고 싹 조선에서 잇다가 들어왔겠지.}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응. 그러나 그 우리 마마 그짜 할미덜은 내 모르다나니 내 그 우리 마마 나르 나서, 나르 나서 어, 그 마마집으르 갔다와서 갔다오구 그 담에는 종무소식이 데구, 이 싹게 들어와서 알았다지. 실ᄇ게 들어와서 알았다지. 어디메르 온 거 알았다지. 기애구 우리, 그래두 그때는 우리 이 빠스쁘르뜨(паспорт)르 아오?{응. 그러나 그 우리 어머니 그쪽 할머니들은 내가 모르다 보니 내 그 우리 어머니 나를 나서, 나를 나서 어, 그 어머니 집에 갔다 와서 갔다 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종무소식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 중앙아시아로 실려 들어와서야 알았다지. 실려 들어와서 알았다지. 어디로 온 거 알았다지. 그리고 우리, 그래두 그때는 우리 이 신분증이라는 것을 아오?}

10201 @ 네! 빠스쁘르뜨(паспорт){네! ‘빠스쁘르뜨(паспорт)’가 무엇인지 압니다.}

10201 # 빠스쁘르뜨(паспорт)르 우리네르 아이 줬오. 어느 해꺼지 우리네게 빠스쁘르뜨(паспорт) 없었는가 야~, 어: 내 저 까프까즈(Кавказ) 우리 마마 가실 적에 그계 칠십년도이 났어. 칠십년도에 대서 내 거기서 나오자 하니까테, 바꾸(Баку)라는 데 기계 바꾸(Баку).

{신분증을 안 주었오. 어느 해까지 우리네에게 신분증이 없었는가 하면 응, 어 저 카프카즈 우리 어머니 갔을 적에 그게 1977년도가 되었어. 77년도가 되어서 내가 거기서 나오자 하나까, 바쿠라는 데, 그게 바쿠.}

10201 @ 음.{음.}

10201 # 거기서 나오자 하나까테 **паспорт**(passport) 찾짐. 우리네는 **документ**(документ) 없다구. 기레문 못 간다구. 가진 것지만두 나 못 온다지. 이쪽으 따시켄트 못 나온다지. 기레 내 이랬지. 내 그때 노시아 말으 몰랐어, 지내. 기레 노시아말으 모르다나이, 어 아 이 나느 니 말해두 내 모른다구. 그 **милиция**(милиция) 잇제오? **милиция**(милиция) 붙들어서 나르 데레가지. 기레 니 말해두 내 모 알아듣는다구. 나느 조선말르 내 이래지. 니 말해두 내 모 알아듣는다구. 무슨 말인거. 나느 이 내 말밖엔 나느 더는 모른다구. 기에니까 데 **기레** 가라구. 기에 어덜 가는가구. 따시켄트 간다구. 기레 **билет**(билет)르 주라구서 리 글으 써줍데. 기래서 그 비행길 사 나와서 비행기 글으 떼가지구서르 게 따시켄트르 왔지. 기레 거저 모른다는 게 똑 제일이더라 말이지. 아 나느 너어 말으 하나투 모른다구. 조선말르 그래지. 너어 말으 모른다구. (웃음) 기레 나르 보내짐. 그래구서리 내 그때 몇 살 댔는가이 마흔 다섯 살 댔어. 마흔 다섯 살 댔어. 칠십년도이까데, 네에트(нет!), 내 그 칠십년도이 마흔 다섯살이 어::, 일흔 아홉해에 내 **선**: 살이 댔지. 기레니까테 시 마흔 한 살이 댔땀어 그때. [x칠십x]도에 마흔 한 살이 댔땀어.{거기서 나오자 하니 신분증을 보이라고 하지 뭐. 우리네는 문서가 없다고 하나까, 그러면 못 간다고 하지. 가기는 했지만 못 나온다지. 이쪽을, 타슈켄트로 못 나온다지. 그래 내가 이랬지. 내 그때 러시아 말으 몰랐어, 아주. 그래 러시아 말으 모르다 보니, 어 ‘아니! 나느 네가 말해도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 경찰이 있잖소? 경찰이 붙들어서 나를 데려가지. 그래 네가 말을 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했지. 나느

조선말로 그러지. 너희 말을 내가 모른다고. 무슨 말인 것을. 나느 이 내 말밖에는 더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럼 가라고. 그래 어디를 가는가 하고 (경찰이 묻지). (그럼 나느) 타슈켄트 간다고 (하지). 그래 비행기 표를 주라고서 글으 써 주더군. 그래서 그 비행기 항공사에 가서 비행기 증명서를 떼어 가지고서 그래 타슈켄트로 왔지. 그래 그거 모른다고 하는 게 똑 제일이더라 말이지. 아 나느 너희 말을 하나도 모른다고. 조선말로 그러지. 너희 말을 모른다고. (웃음) 그래 나를 보내지 뭐. 그리하고서 내 그때 몇 살이 되었는가 하면 마흔 다섯 살이 댔어. 마흔 다섯 살이 댔어. 1970년도이니까, 아니!, 내 그 마흔 다섯 살 어, 1979년에 내가 **선** 살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마흔 한 살이 댔었어 그때. [x70년x]도에 마흔 한 살이 댔었어.}

10201 @ 마흔한살.{마흔 한살.}

10201 # 야~. 기에 내 나느 말으 모른다구 기레니까테 나르 건네와 놓더라지. 비행기 **билет**(билет)르 떼라고 글자 주니까테 그거 가지구 가서 비행사 가서 글으 떼가지구 집우르 왔지. 내 마마집으 갔다가. 나느 따쉬켄트에 살구 마마는 **капказ**에 살구. 어, 기래서. 마마 불라갔다가서리 기레 그거 그렇게 왔지.{응. 그래 내 나느 (너희) 말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를 건네놓더군. 비행기 표를 끊으라고 (경찰이) 글으 써 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비행기 항공사에 가서 증명서를 떼어 가지고 집으로 왔지. 내 어머니 집에 갔다가. 나느 타슈켄트에 살고 어머니는 카프카즈에 살고. 그래서. 어머니 보러 갔다가 그래 그거 그렇게 왔지.}

10201 @ 잘 하셨죠, 그래두. 그럼 아매.{잘 하셨죠, 그래두. 그럼 아매.}

10201 # 기래구…….{그리고…….}

10307 @ 음. 예, 아매! 그러면은 그 어 원동에 게실 때에 예 하마탕수두거에서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걸 많이 심었습둥?{음. 예, 할머니! 그러면 그 원동에 게실 때에 예 하마탕수두거에서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걸 많이 심었습니까?}

10307 # 경계서두 피난으 시무지.{거기서도 피를 심지.}

10308 @ 음. 그거 어더게 농사를 짓습둥 피난으?{음. 그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피를?}

10308 # 나느 모르게. 피난으 어떻게 하는, 징는지두 모르지. 그게 아무래 예: 내 이쪽으 구루물레라는 데서 와서 그거 농새질하는 거 보니 그때는 벌써 내 어전으 다섯 살이 대엿갓지. 다섯살 대실 적에, 네 살에 떠났지. 다섯 살 대에실 적에 농새질 하는 걸 보니 싹 빌루 하던구마느.{나느 모르지. 피농사를 어떻게 하는(지), 짓는지도 모르지. 그게 아마도 예 내 이쪽 구루물레라는 데서 와서 그거 농새질하는 거 보니 그때는 벌써 내 이젠 다섯 살이 되었갓지. 다섯 살 되었을 적에, 네 살에 떠났지. 다섯 살 되었을 때 농새질하는 것을 보니 싹 비로 하던구먼.}

10308 @ 뭐?{무엇으로?}

10308 # 비, 빌루. 그 에따(это) 비 오재이오? 비 오기마 하루 농새 데구 비 마이 오무 농새르 아이 데지. 그렇기 농새질의 해서 그 피난으 먹었지.{비, 비로. 그 음 비가 오잖소? 비가 오기만 하면 농사가 되고 비가 많이 오면 농사가 안 되지.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그 피를 먹었지.}

10919 @ 음. 그러면은 인제 음: 그때:는 사냥 같은 건 아니 했습둥?{음. 그러면 이제 음 그때는 사냥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10919 # 무시기?{뭐라고?}

10919 @ 그 산에 가서 이룽기 총을 쏘서 짐스으 잡는 거.{그 산에 가서 이렇게 총을 쏘서 짐승을 잡는 거.}

10919 # 그런 건 난 모르오. 야 모르지. 그런 거느 우리 아버지 모르더라.{그런 건 난 모르오. 응 모르지. 그런 것은 우리 아버지 할 줄을 모르더라.}

10102 @ 그 아매 구루물레 근처에 머 **높**:운 산이나 이 레까(лека).{그 할머니 ‘구루물레’ 근처에 뭐 놓은 산이나 이 강.}

10102 # 야~.{응.}

10102 @ 그런 것들은 없었습둥?(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10102 # 물으느 에따(это) 그저 삼치 네레가압데. 삼치물이. 기레 네레가는데 그게 어디메르 네레가느지. 기레 네레가는데 그 삼치물으 받아서 우리 먹지. 삼치물으 받아서 그렇기 먹구.{물은 그저 샘물이 내려가데. 샘물이. 그래 내려가는데 그게 어디로 내려가느지.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 샘물을 받아서 우리 먹지. 샘물을 받아서 그렇게 먹구.}

10201 # 기래구서리 어: 그전에는 우리 원동에 이실 적에는 어 노시앗사름이 잇어두 저쪽에 네레가서 잇구 그래두 그 사름덜가 같이 대면해 말두 못하구. 모 해밧어. 우리 **пап**(папa)는 그 사름덜가 같이 일하지. 일하다나이. 기래 우리 **пап**(папa)는 기레 노시앗말으 하지. 그 사름덜가 같이. 기래두 우리네는 아매 같이 잇다나йка테 노시앗말이라는 거 모 해밧지. 그래 **다스호**이 잇다나이, **다스 호**이. 그저 이룽게, 우리네두 이룽기 **차절**이[차절이] 멀었땀어. 기래구나 이 차라는 거 아이 배밧땀어. 이래 이진 사이 **뺑**: 돌과 이게 끼

르끼즈치리 사이 땡: 돌가 잇구 이룻기 그 산뵤죽대기에[상뵤죽뵤계] 사다나이 네리바다 보무 그 아래는 그저 평안:한 그런 따입데. 우리 내 아아 때 보니. 기래 우리 마마 꼬호즈(колюоз) 일할 적에 감제질하구 그럴 적에는 감제르 다아 징구, 사하르(сахар), 그런 그런 무꾸, 사하르(сахар)무꾸 징지. 기래 무꾸 징기만 하무 그 무꾸 저어서는 거 어드메 실어가는지 실어가선 사하르(сахар) 커우대들이르 해에서 주짐. 켄데 싸하르(сахар) 싹 이런 게란 말이오. 주먹대 같은 싸하르(сахар)오. 시방으는 갈기싸하르(сахар) 에이오? 켄데 그전에는 주먹대 같은 싸하르(сахар)지. 기래 거저 그런 거 타 주구. 기래구 피난으, 성매르 아오? 성매?(그리고 어 그전에는 우리 원동에 있을 적에는 어 러시아인이 있어도 저쪽에 내려가서 있고, 그래도 그 사람들과 같이 대면해 말도 못 하고. 못 해보았어.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지. 일하다 보니.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러시아 말을 하지. 그 러시아사람들과 서로. 그렇지만 해도 우리네는 할머니와 같이 있다 보니 러시아말이라는 것을 못 해 보았지. 그래 다섯 호가 있다 보니, 다섯 호. 그저 이렇게, 우리네도 이렇게 찾질이 멸었었어. 그리고 차라는 것은 안 배웠었어. 이렇게 이진 산이 땡 둘러서 이게 키르기스처럼 산이 땡 둘러 있고 이렇게 산 가장자리 언덕에 살다 보니 내려다보면 그 아래는 그저 평편한 땅이데. 우리, 내가 아이 때 보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가 집단농장에서 일할 적에 감자 농사를 짓고 그럴 적에는 감자를 다 짓고, 설탕, 그런 사탕무, 사탕무 농사를 짓지. 그래 무 농사를 짓기만 하면 그 무 농사를 지어서는 거 어디로 실어가는지 실어가서는 설탕을 부대에 넣어서 주지 뭐. 그런데 농사는 싹 설탕 같은 것이란 말이오. 주먹덩이만한 사탕무이오. 시방은 가루설탕이 아니오? 그런데 그전에는 주먹덩이 같은 설탕이지. 그래 그저 그런 거 타서 주고. 그리고 피, 연자방아를 아오? 연자방아?)

10201 @ 아압꾸마.{압니다.}

10201 # 우리네는 그전에는, 시방 이래 메르니짜(мельница)서 가르, 갈고두 내구 쌀두 내구 이리저? 그전에는 우리 재비 성매 잇었었어. 기래 말으 메와서 그 성매다가서리 그 피난으 쫓짐. 기래 그 피난으 쪼어서는 우리 거저 밥우 그렇기 먹구. 치우라 우리네는 뻥으 먹었어. 그거 어 우리 마우재덜이 집우 잠인 게 두 칸으 살았어. 기래 한 칸으 이마:이 이래 크구 거기다 구들의 농구, 온들의 농구. 한 칸으는 장판 이룻기 농구. 거기 이래 뻘치(печь), 그거 그거 한국사람들은 뭐라구 말하는지 모르게. 거기 뻘치(печь)에다가서리 야. 그런데다가서 떡으 굽소. 뻥으 굽짐. 거기다가서르 불우 때기마 하무 그기 이룻기 에따 구들치리 따따:사구, 기래 우리네 아매 한어머니 예: 헤~이 내 거기서 그렇기 자구. 거 우리 아버지 내 오랍아는 그 구들에서 자구 이룻기 야~. 그룻기 그룻기 살았었어, 우리.{우리네는 그전에는, 시방 이렇게 제분기(製粉機)을 가지고서 가루도 내고 쌀도 내고 이리저? 그전에는 우리 자기 연자방아가 있었어. 그래 말을 메워서 그 연자방아에다가 그 피를 쫓지 뭐. 그래 그 피를 쫓어서 우리 그저 밥을 그렇게 먹고. 대부분 우리네는 땡을 먹었어. 그거 우리 어 러시아 사람이 집을 지은 것인데 두 칸 방을 가지고 살았어. 그래 한 칸은 이만큼 이렇게 크고 거기다 구들을 놓고, 온들을 놓고. 한 칸은 장판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 이렇게 땡을 굽는 난로?, 그거 한국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를 게야. 거기 땡굽는 난로에다가 응. 그런데다가 땡을 굽소. 땡을 굽짐. 거기다가 불을 때기만 하면 그래 이렇게 음 구들처럼 따뜻하고, 그래 우리네 할머니, 예, 형, 내가 거기서 그렇게 자고. 거 우리 아버지 내 남동생은 그 구들에서자고 이렇게 응. 그렇게 그렇게 살았

어, 우리.}

10605 @ 그러면 그 때 (기침) 그, 이 밥우 하는 데 있대임둥?(그러면 그때 (기침) 그, 이 밥을 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10605 # 밥우는 가매애다 하압데.{밥은 술에다 하데.}

10605 @ 가매애다 하쥬.{술에다 하쥬.}

10605 # 가매애다 밥우 하구.{술에다 밥을 하고.}

10605 @ 그러면 이 불으 때는 뭐라구 했슴둥?(그러면 이 불을 때는 곳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0605 # 불으 [x때르느x] 구들에서 불으 때지. 이 구들이 [x인따무x] 거기다 불우 때이구서르 끓이지. 낭그는 사선낭기라구 하압데. 그 우리 한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사선낭그 그 발췌 가슬이무 그거 지우지. 그거 제에 지와서는 그거 가져다가서는 야아! 많이 가리우 그거. 기래구 불우 때구서리 기래구 잇는게. 집우는 차집제했어. 아이 차집야. 기에 집우는 무스거 쫓었는가이. 노시앗사람들이 잠인 집인게 야 이 밑을르 이렇게 이 토맥이르 이룻기 해서 이룻기 높우기 했슴데. 기래구서리 싹 집이 이렇소. 무티집인게, 무티집인게, 안으는 싹 바람질하구, 한질르느 낭그 있 낭기 싹 배구 그렇기 살았었어.{불을 때는 것은 방바닥에서 불을 때지. 이 방바닥이 있다면 거기다 불을 때고 밥을 짓지. 나무는 ‘사선낭기’(장작)이라고 하데. 그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지. 장작을, 벌췌 가을이면 그거 베어서 넘기지. 그거 지고 와서는 그거 가져다가 야! 많이 쌓아 놓소 장작을. 그리고 불을 때고서 그래고 있는데(방에 있는데). 집은 차갑지 않았어. 안 차가워. 그래 집은 무엇으로 지었는가 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짓은 것이 응 이 밑은 나뭇토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게 했데. 그리고서 싹 집이 이렇소. 통나무집인데, 통나무집인데, 안은 싹 벽을 흙으로 바르고, 한데는 나뭇잎, 나무를 싹 베고 그렇게 살았었어.}

10605 @ 그럼 이룻기 불을 때는 데는 무스거라구 했슴둥? 부수개라구 했슴둥?(그럼 이렇게 불을 때는 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수개’라고 했습니까?)

10605 # 부수개라구.{‘부수개’라고.}

10605 @ 뵤어개라구 했슴둥?(‘뵤어개’라고 했습니까?)

10605 # 부수개라 했어. 야~ 뵤어개라 아이하구 부수개라구서. 그렇기 말했, 야~ 그렇기 말했어.{‘부수개’라고 했어. 응 ‘뵤어개’라고 아니 하고 ‘부수개’라고 했어. 그렇게 말했, 응 그렇게 말했어.}

10605 @ 그러면 이룻기 불우 때면은.{그러면 이렇게 불을 때면.}

10605 # 거기다가서 가매르 걸었지.{거기다가 술을 걸었지.}

10605 @ 가매르 걸었지.{술을 걸었지.}

10605 # 가매르 걸구 거기서는 어 밥두 하구 장물두 하구 그렇기, 그렇기 하구. 야~ 그렇기 기래구 호박이랑 쪼제이오?(술을 걸고 거기서는 어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응 그렇게 그리하고 호박을 쪼잖소?)

=아매!{할머니!}(+제보자의 증손녀)

# 아!{어!}

=모췌노 꾸샤췌(можно кушать)!{와서 식사하세요!}(+제보자의 증손녀)

# 아! 나느 먹었다.{아! 나느 먹었다.}

=무이 하췌 꾸샤췌(мы хотим кушать).{우리 밥 먹고 싶어요.}(+제보자의 증손녀)

# 아, 먹어라! 먹어라!{아, 먹어라! 먹어라!}

=꾸이 류끄(Куи Люк).{잡수세요.}(+제보자의 증손녀)

# 아, 아매 잡수라구 하제이오?{아, (증손녀가) 할머니 진지를 잡수시라고 하잖소?}

@ 잡수라구.{잡수시라고.}

# 야~, 꼭 이래 시걱간 시걱 때 돌아오무. 아이 내 물을 대기마 하무, 아이 ‘다바이 꾸샤찌(давай кушать)!’, ‘빠이쑤 꾸샤찌(пойдем кушать)!’ 이라고. (웃음) 기래매 기래오.{꼭 이렇게 끼니때가 돌아오면. 아니 내가 손에 물을 대기만 하면, ‘아이 식사하세요! 와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하오. (웃음) 그러며 그러오.}

10605 @ 음. 그러면.{음. 그러면.}

10605 # 그렇기 살았어.{그렇게 살았어.}

10605 @ 예. 그러면은 예: 이제 사선낭그 이만한 거 갖다 때 불으 때이구 예 그러면은 그 때면은 이 이 불길이 이렇:게 지나가가지구.{예. 그러면 예 이제 장작을 이만한 것을 갖다 불을 때고 예 그러면 불을 때면 이 불길이 이렇게 지나가서.}

10605 # 구둘이 다아 따따::사지 그렇기.{방바닥이 다 따뜻하지 그렇게.}

10605 @ 따따사쵸.{따뜻하지요.}

10605 # 응.{응.}

10605 @ 그러구 나서 인제 저 집 뒤에 뭐가 이렇게 막 나오재임둥?{그리고 나서 인제 저 집 뒤에서 무엇이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10605 # 야~ 그래.{응 그래.}

10605 @ 그걸 뭐라구 함둥? 내굴이라구 함둥?{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굴’(연기)이라고 합니까?}

10605 # 그런 내굴이 나가는 데는 구새라 했어.{그런 연기가 나가는 데는 ‘구새’(굴뚝)라고 했어.}

10605 @ 아, 구새라구.{아, ‘구새’(굴뚝)라고.}

10605 # 어, 구새라 했어, 어.{응, ‘구새’(굴뚝)라 했어, 응.}

10605 @ 그럼 아매 고 집에서 구새두 있구: 고담 아까 말씀하신 부수깨두 있구.{그럼 할머니 고 집에 굴뚝도 있고 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엌도 있고.}

10605 # 야~.{응.}

10605 @ 또 구둘두 있게임둥?{또 방바닥도 있겠습니까?}

10605 # 야~. 기래.{응. 그래.}

10605 @ 그거 말구 이제 그 이름 좀 가르켜 주웁소. 뭐 부수깨다 온, 구둘이다 이렇게 뵈 집…….{그거 말고 이제 그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부수깨’(부엌)이다, ‘구둘’(방바닥)이다 이렇게 뵈 집…….}

10605 # 야~. 우리네는 에따(это) 구둘에다 불으 때애지 어 부수깨에다 불우 때문 구둘이 다 아 온돌이 따따:사지. 온돌이 따따:사구. 기래구 그 어간에 뻘치(печь), 그것두 그거 노서 아 사름덜은 뻘치(печь)라지. 조선사람덜으느 무시기라구 내 말하는지…….{응. 우리네는 음 구둘에다 불을 때지 부엌 아궁이에다 불을 때면 방바닥이 다 온돌이 따뜻하지. 온돌이 따뜻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난로, 그것도 그거 러시아 사람들은 페치카(벽난로)라 하지. 조선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내 모르고…….}

10605 @ 그게 원래 없습꾸마. 우리 조선사람들에게느.{그게 원래 없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

에게는.}

10605 # 없지. 그런 뻘치(печь) 마우재 뻘치(печь)지. 그런데, 그것두 또췌(тоже) 불우 때기마 하무 온돌처르 따따:사지. 그 우이, 그 우이 이룽기 크우. 그 뻘치(печь)두 크지. 기래 거기다 불우 때기마 하무 감자두 꺾아서 어: 그런 추 시……, 시방으느 우리네 여기서는 추 그나(чугна)라 하지. 그런 가매라구. 가매. 가매에다 그거 감제르 꺾아서 그 우에다 뒀에 놓기만 하무 기게 물, 물우 붓어서 거기다 놓기만 하무 그제 제재빌르 끓어서 게 썩 익는단 말이지. 호박두 물두 아이 붓구 물으 아이 붓구 호박으 그 뻘치(печь)다 뒀에놓지 아왕겠어. 기래무 그렇기 잘 끓어진단 말이지. 그렇기 우리네. 원도선 여기서는 이래 그 저 고, 고기랑 이룽기 먹구 살지. 원도서는 거저 재비 대애지르 잡우무 먹지, 에 어 고기르 어디가서 바. 여기서는 바자르(базар)라 하제이오? 자~이라 하지. 한국사름덜은 자~이라 하지 나~. 그거 바자르(базар) 나~ 자~이라 하지. 우리네는 그전에는 그 자~에 가서 싸오는 법이 없구 집에서 재래와선 닭두 잡구 닭으두 잡구 오리두 오리두 잡구. 기래 먹기 싶우무 야~아 잡아서 먹구. 그래 먹지 재래와서는 야~, 기래지 에따(это) 자~에 가서 싸오는 법으 없짐.{없지. 그런 난로 러시아 사람 난로지. 그런 거, 그것도 역시 불을 때기만 하면 온돌처럼 따뜻하지. 그 위, 그 위가 이렇게 크오. 그 난로도 크지. 그럼 거기다 불을 때기만 하면 감자도 꺾아서 그런 철제 솥……, 시방은 우리네 여기서는 ‘추구나’(철제 솥)라 하지. 그런 솥이라고. 솥. 솥에다 그거 감자를 꺾아서 그 위에다 들어 놓기만 하면 그제 물, 물을 부어서 거기다 놓기만 하면 그제 제 스스로 끓어서 그제 썩 익는단 말이지. 호박도 물도 안 붓고 물을 안 붓고 호박을 그 난로에다 들어 놓지 않겠어? 그러면 그렇게 잘 끓어진단 말이지. 그렇게 우리네 해 먹고 살지. 원동에서는 여기서는 이래 그 저 고, 고기랑 이렇게 먹고 살지. 원동에서는 그저 자기 돼지를 잡으면 그때서야 고기를 먹지, 어 어디서 고기 구경을 해. 여기서는 ‘바자르’(시장)라 하잖소? 장이라 하지. 한국사람들은 장이라 하지 응. 그거 ‘바자르’ 응 그것을 ‘장’이라 하지. 우리는 그전에는 그 장에 가서 사오는 법이 없고 집에서 길러서 닭도 잡고 닭도 잡고 오리도 오리도 잡고. 그래 먹고 싶으면 양(羊)을 잡아서 먹고. 그래서 먹지, 길러서는 응. 그리하지 음 장에 가서 사오는 법은 없지 뵈.}

10605 @ 없지.{없지.}

10605 # 없짐.{없지 뵈.}

10201 @ 그러면은 예. 음:. 그 원동에, 원동에서요. 원동에서 아매 그 동미들은 없었습둥?{그러면 예. 음. 그 원동에, 원동에서요. 원동에서 할머니 동무들은 없었습니까?}

10201 # 동미덜은 우리 사촌덜은 잇었지. 우리 사촌덜 음, 음, 어따(это) 우리 어: 뻘뻘(пая) 누비 딸이. 우리 해~이 제일: 어어: 이십륙년 육년새: 거저 이십칠년새:나 데오. 게 우리게 제일 나이 잇었지. 기래구 또 우리 아부지 누비 딸이 이십팔년새:. 베라라구 했어. 우리 해~이는 순옥이라구 하구. 기래구 우리 딸아재 딸아재 우리 뻘뻘(пая) 만누베 딸으느 아들으느 을세[을씨]이라 했어. 기래 이십칠년새:..{동무들은 우리 사촌들은 잇었지. 우리 사촌들이 음, 음 우리 아버지 누이 딸이. 우리 형이 제일 위인데 음 1926년, 26년 생이거나 그저 1927년 생이 되오. 게 우리 중에서 제일 나이가 잇었지.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누이 딸이 1928년 생이고. 이름을 ‘베라’라고 했어. 우리 형은 순옥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맏고모 맏고모 우리 아버지 만누이 딸은 아들은 을성이라 했어. 그렇게 1927년 생.}

10201 @ 을?{을?}

10201 # 을세[을쎄]. 기래구 어 또 둘째 아들으는 청세라구 했어. 기래 그 사름우는 어: 이십육년새:, 어: 청세. 기래구 을세는 이십칠년새구 이거는 이십 육년새:구. 기래구 우리 해~이느 이십육년새:구. 연연새:오. 그 그래서 우리 사촌찌리 이래 놀지. 어:: 남우 아덜으는 없었, 다스 호인테 남우 아덜으는 없었됐어 나~. 그랬됐어.{을성이.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청성이라고 했어. 그래 그 사람은 1926년 생, 청성. 그리고 을성이는 1927년 생이고 이거는 1926년 생이고. 그리고 우리 형은 1926년 생이고. 연년생이오. 그 그래서 우리 사촌끼리 이렇게 놀지. 남의 아이들은 없었, 다섯 호인테 남의 아이들은 없었됐어 응. 그랬됐어.}

10804 @ 그럼 무스거 하구 놀았습둥?{그럼 무엇을 하고 놀았습니까?}

10804 # 아이, 거저 낮이무 거저 갔다 왔다. 그런 무시기 그전에는 어 바꿈제놀음하제두, 시바은 별란게 다아 잊지, 그전에는 옥수끼 잊제이오? 옥수꾸 먹구서는 옥시패제기 잊제이오. 고거 이렇게 실으 이렇게 빼서서 머리르 맨들어서 꾸꿀라(кыкля)르 해서르 그래 가지구 놀구. 어 그런거 낭그 깎아서는 여름에는 낭그 깎아서는 그래 그거 가지구서리 에 못, 그런 거 따에다가서르 몰치기르 하메서리.{아이, 그저 낮이면 그저 갔다 왔다. 그런 뭐 그전에는 소꿉질을 하려고 해도, 지금은 별난 것이 다 있지만, 그전에는 옥수수가 있잖소? 옥수수를 먹고서 옥수수자루가 있잖소. 고거 이렇게 실을 이렇게 빼서 머리를 만들어서 인형(人形)을 해서 그거 가지고 놀고. 그런 거 나무를 깎아서는 여름에는 나무를 깎아서 그래 그거 가지고서 에, 그런 거 땅에다가서 못치기를 하면서 놀고.}

10804 @ 못치기.{못치기.}

10804 # 야~. 그렇게 하메 놀구. 고거 나이 어리다나이 거저 그래구서리 야~ 놀았지. 그래 고 때 그래 기억이 댜단 말이지. 고 그전에는 어디메서 그 시방 가지고 노는 놀음감이 있어! 없:지 무슨. 기래구서리 어 동삼이무 거저 기래구서리 놀구.{응. 그렇게 하며 놀고. 고거 나이가 어리다 보니 그거 그렇게 하고 응 놀았지. 그래 고 때 기억이 난단 말이지. 고 그전에는 어디서 그 시방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이 있어! 없지 뭐. 그리고 겨울이면 그저 그렇게 하고 놀고.}

10201 # 그담에 여름에 나가서느 고 산변죽텍이 풀덜이 많지. 에따(это) 그런 달리두 엔: 일찍이 달리 나암나. 그 달리두 가서 켈라 갔다가 산으르 갔다가 오기마 하무 우리 동상아덜이 기래짐. 어이구! 산으르 갔다 온 거르 하늘에 갔다왔다지. 어 하늘에 갔다오이까테 배고푸다구. 기래 기래 어느 해겠는가이, 예: 삼십, 삼십오연도에 땃됐어. 기애 그때두 삼년도에 먹을 게 없다나이. 송년이 드다나이 어: 사연도에 오연도애두 먹을 게 없어서 무스거 먹었는가 하이 시태라구서리 아오? 시태라구.{그 다음에 여름에 나가서느 고 산 가장자리 언덕에 풀이 많지. 음 그런 달래도 가장 일찍 달래가 나오지. 그 달래도 가서 캐러 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오기만 하면 우리 동생 아이들이 그러지 뭐. 어이구! 산으로 갔다 온 것을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지. 하늘에 갔다 오니까 배고프다고. 그래 그래 어느 해이겠는가 하면, 예 삼 십 1935년도가 땃됐어. 그래 그때도 1933년도에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 흥년이 들다 보니 1934년도 1935년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었는가 하니 ‘시태’[나맥(裸麥)]라고 아오? ‘시태’라고.}

10201 @ 모르겠습꾸마.{모르겠습니다.}

10201 # 그런 거 썸서. 기래 땃지. 뜬 것두 그거 떡으 해서 그거 우리네 먹었지. 그 해느 어

동삼에는 먹을 게, 여름에는 나가무 호박 시무구 무스거 심어서느 그거 먹지. 그러나 동삼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래 그 시태갈기랑 그래 먹었지. 치우라 쌀으는 입쌀으는 없구 그저 조이가 그저 갈고 먹었됐어, 우리네.{그런 거 썸서. 그래 땃지. 뜬 것도 그거 떡을 해서 그거 우리네 먹었지. 그 해는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어, 여름에는 나가면 호박도 심고 무엇을 심어서는 그거 먹지. 그러나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나맥의 가루랑 그런 것을 먹었지. 대부분 쌀은 입쌀은 없고 그저 조와 그저 가루를 먹었됐어, 우리네.}

10201 @ 아매 그 시태는 무스거 무스 무스거 가지구 만듭둥?{할머니 그 ‘시태’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만듭니까?}

10201 # 그것두 이릉기 아 자라오. 채밀이 잊제이오? 채밀이쳐르 자라옴테.{그것도 이렇게 발에서 자라오. 밀이 있잖소? 밀처럼 자라네.}

10201 @ 음.{음.}

10201 # 기밀이, 시태, 아 유밀이. 그런 게 있어. 유밀이라는 거는 어 기밀이 유밀이느 말으 맥 입테, 그전에. 기래 기래두 일찍이 하마탕쑤두거서 이쪽으르 구루물레라는 테로 오이 기래두 머거리 잊었던 말이지. 기래 우리 동상아덜이 이릉기 산에 갔다오기마 산에 갔다오 무 그래 썸다 자자부레 우리 자자부르했지. 기래 하늘에 갔다왔다지. 산으르 산에 갔다오기마 하무 우리 하늘에 갔다오이 배고푸다구. (웃음) 기래 우리 한어머니 기래구 애:기르 하지 또. 기래 애:기르 하지. 기래 우리 내 그거 들지. 기래무 그 시 시태갈고 뜬 거 먹으 무 또 먹을 적에는 그릉기 맛있게 먹지. 그러나 아 먹기마 하무 아덜이 데서 속이 아이 좋아서 썸 게우짐. 게 먹구. 그릉기 우리 구차하게 살았어. 옛:날이 우리 모:지리 구차하게, 내 나서 잘 산 때 없었됐어. 내 살아서느 잘 산 때 한번두 없었됐어.{귀리, 호밀, 나맥(裸麥). 그런 것이 있어. 나맥이라는 것은 음 귀리, 나맥은 말에게 먹이테, 그전에. 그래 그래도 일찍 하마탕쑤두거에서 이쪽으로 구루물레라는 테로 오니까 그래도 식량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 우리 동생 아이들이 이렇게 산에 갔다 오기만 하면 산에 갔다 오면 그래 썸 다 자질구레하지. 그랩 하늘에 갔다 왔다 하지. 산으로 산에 갔다 오기만 하면 우리 하늘에 갔다 오니 배고프다고. (웃음) 그래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 우리 내 그 말씀하는 것을 듣지. 그러면 그 호밀 가루를 뜬 것을 먹으면 또 먹을 적에는 그렇게 맛있게 먹지. 그러나 먹기만 하면 아이들이 되어서 속이 안 좋아서 썸 게우지 뭐. 그거 먹고. 그렇게 우리는 구차하게 살았어. 옛날 우리는 몹시 구차하게, 내 나서 잘 산 적이 없었됐어.}

10201 @ 직금 직금은 아매.{직금 직금은 할머니.}

10201 # 아이구!{아이구!}

10201 @ 잘 살제임둥?{잘 살겠습니까?}

10201 # 지금도 잘 못 사오다.{지금도 잘 못 삽니다.}

10201 # 그담에는 이 원동서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이까테 우리 아버지 그담에는 집질했어. 집우 절어서 어전으 원동서 들어와서는 어전으 더 애:기 없구. 여기 들어와서느 어 야들 살에 들어와 크즐오르다에 네레서 그래 우리 아버지 줌 (기침) 가지고 온 돈 다아 먹구. (기침) 기래 아버지 별:어서 조끔썸 살았지. 기래 사다나이 (기침) 들어와서두 거저 먹을 거느 부족아구. 이 옷이 썸:이 바쁜 게 이 옷이 땃됐어. 그전에는 상점에 형것이 그립았됐어. 기래 원동서 들어올 적에 형것이, 이부자리두 해에 가지구 오구. (기침) 원동에서



들어올 적에 그 원동 소캐는 좋은 게 댕땀어. 어떤 소캐든지 거기 소오느 그게 어디메 소인지 모르나 소이불 해에서 가지구 들어온 게 (기침) 그래 우티느 우리 마마 구루물레 농평이라는 데 가서는 어 대애지두 잡아 가지구 가구 싸하르(caxap)두 가지구 가구 그래 가지구 가서 팔아 가지구 와선 형겅으 싸가지구는 거기서 아무래 기계 삼점이 잇던 모애 이야. 기계 거기에서 상점에서 형겅으 싸가지구 온 거 입구서리 원도으르 들어왔지. 원도 서 여기르 들어왔지. 게 그 형겅이 옷이 조끔 잇었지.{그 다음에는 이 원동에서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는 집을 짓는 일을 했어. 집을 지어서 이제는 원동에서 들어와서는 이제는 더 할 얘기가 없고. 여기 들어와서는 여덟 살에 들어와 크즐 오르다에서 내려서 그래 우리 아버지 좀 (기침) 가지고 온 돈을 다 쓰고. (기침) 그래 우리 아버지 벌어서 조끔씩 살았지. 그리해서 살다 보니 (기침) 들어와서도 그저 먹을 것은 부족하고. 이 옷이 사기 힘든 것이 이 옷이 땀땀어. 그전에는 상점에 천이 없어서 아쉬웠었어. 그래 원동에서 들어올 적에 천이, 이부자리도 해 가지고 오고. (기침) 원동에서 들어올 적에 그 원동 숨은 좋은 것이었었어. 어떤 숨이든지 거기 숨은 그게 어디에서 난 숨인지는 모르나 숨이불을 해서 가지고 들어온 것이 (기침), 그래 옷은 우리 어머니 구루물레 농평이라는 데 가서는 음 돼지도 잡아 가지고 가고 설탕도 가지고 가고 그리해서 가지고 가서 팔아 가지고 와서는 천을 사 가지고는 거기서 아마도 그게 삼점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 거기 가서 상점에서 사 가지고 온 거 원동에서 가지고 들어왔지. 원동에서 여기로 가지고 들어왔지. 그래 그 천이 옷이 조끔 있었지.}

10201 @ 음.{음.}

10201 # 아! 그래 여기 들어와서는 아이 어디메서 그런 형겅이두, 여기 우리 크즐오르다서 들어와서 팔래 삼점이 잇었던지 없었던지 그것두 난 잘 기억이 아이 테오. 기래 우리 아버지 (기침) 팔년도에는 어쨌던지 내 기억지 못하겠어. 구연도에는 우리 아버지 집질해서 구연도에는 우리 꼬호즈(кo.лхoз)르 나갔어 어전으. 아아! 나오기 전에 우리 어디메서 살았는가 하이 가르막치라는 데서 땃굴으 파구 따아 짚이 파구 원동서 들어와서 크즐오르다서 와서 그 가르막치라는 데 와서 모도 사름덜이 따아 짚우게 짚우게 파구 거기 들어와서 기계 어전으 팔연도이 땀땀어. 어, 삼십팔연도에 땃굴으 짚우기 파구 거기에서 살았어. 기래 사는데 어: 거기다두 또식(тоже) 구둘으 놓습데. 구둘으 놓는데 핏재~이 어디메 있어? 시방 이 핏자이라는 게 없지. 기래 우리 아버지 가서 깔으 뻘에 왔어. 깔으느 거기 많습데. 기래 뻘에다가 그 깔으 이릉기 이계서 야 흙에다 이계서 야~ 온돌으 놓는데 그 깔으 이릉기 놓구서리 그 따아 파구 그런 거 고래르, 고래르 알기오?{아! 그래 여기 들어와서는 아니 어디서 그런 천도, 여기 우리 크즐오르다에서 들어와서 어쨌든 삼점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그것도 난 잘 기억이 안 나오. 그래 우리 아버지 (기침) 1938년도에는 어쨌던지 내 기억을 하지 못하겠어. 1939년도에는 우리 아버지 집을 지어서 1939년도에는 우리가 집단농장으로 나갔어, 이젠. 아! 나오기 전에 우리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가르막치라는 데서 땅굴을 파고 땅을 깊이 파고 원동에서 들어와서 크즐오르다에서 와서 그 가르막치라는 데 와서 모두 사름덜이 땅을 깊이 깊이 파고 거기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래 이제 1938년도가 땀땀어. 어, 1938년도에 땅굴을 깊이 파고 거기 와서 살았어. 그래 사는데 거기다도 역시 구들을 놓데. 구들을 놓는데 벽돌이 어디 있어? 시방 볼 수 있는 이 벽돌이라는 것이 없지. 그래 우리 아버지 가서 갈대를 베어 왔어. 갈대는 거기 많데. 그래 베어다가 그 갈대를 이렇게 이겨서 웅 흙에다 이겨서 웅 온돌을 놓는데 그 갈대를 이

렇게 놓고서 그 땅을 파고 그런 거 고래를, '고래'라는 말을 알만 하오?}

10201 @ 음.{음.}

10201 # 그 따아 파구 구둘으 놓는데 고래 있어야 테지. 그 고래르 따아 짚우게 이릉기 파구 그 우에다느 어빠(это) 깔르 흙으 이계서 그 우우 이릉기 땃짐. 그래 내 기억이 테우. 기래 하 기계 요마:나나 땀땀어 그저. 식구 우리 서이 너이 땀지. 아매끼지 다숫이, 여숫이, 일곱이 요런 칸에서 한칸에서 살았지. 기래 그거 구둘으 놓구 그 구둘에서 사는데 그 문우느 널 시 없다. 그 문으르 들어가는 문우느 이 땅밑을르 이릉기 들어가지마내두 한지르 보자무 유리, 유리차으느 그거 어: 까자끄덜인데 가서 우리 아버지 가서 얻어땃단 말이지, 유리차야. 기래 그 유리창 이 집이 꼭대기다 유리차~아 한단 말이지.{그 땅을 파고 구들을 놓는데 고래가 있어야 되지. 그 고래를 땅을 깊게 이렇게 파고 그 위에다느 음 갈대로 흙을 이겨서 그 위를 이렇게 덮지 뭐. 그래 내가 기억을 하오. 그래 그래 요만큼이나 되었겠어 그저. 식구 우리 셋 넷이 되었지. 할머니까지 다섯, 여섯, 일곱이 요런 칸에서 한 칸에서 살았지. 그래 그거 구들을 놓고 그 구둘에서 사는데 그 문은 널 수가 없지.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 땅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마는 한테를 보려면 유리, 유리창은 그거 카자호 사람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가서 얻어왔단 말이지, 유리창을. 그래 그 유리창 이 집의 꼭대기에다 유리창을 낸단 말이지.}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기래 저저 잘못 거르<sup>ㅁ</sup> 기마 하루 그 집에 빠진달 쉬두 잇었지. 용말기랑 싹 깔르 양기 용말기랑 땀땀어. 그래 내 기억이 텐단 말이지. 고게 야 내 야들 살인데 기계 기억이 테오. 기래 그래 따꾸막에서 살다가 그담에는 구연도에 땀땀어. 구연도에 우리 아버지 집우 질구 우리 한어머니 잇다나니까테 우리 엔: 첫점을르 그 집우 짙은 데. 집두 오래: 잘 었땀어. 우리 아버지 맹기메서리. 그 집우 오래 절어서 싹다 그 집우 정일 적에는 페르 잘었땀어. 왕게 흙으 이릉게 페르 맨들어서 기래 집우 절었땀어. 기래 그것두 내사 보지 못하다나이 모르지. 우리 한어머니 그래구 말하지. 그 어 아버지 와서 애:기르 한다지. 그 땀자아 절어서 기래 집우 한 사름이, 어간이, 집이 식기 많아무 투 칸으 주구. 식기 작으무 한 칸으 주구.{그래 그저 잘못 건기만 하면 그 집에 빠질 수도 있었지. 용마루랑 싹 갈대로 이렇게 용마루를 했었어. 그래 내 기억이 난단 말이지. 고게 웅 내 여덟 살인데 그래 기억이 나오. 그래 움집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1939년도가 되었지. 39년도에 우리 아버지 집을 짓고 우리 할머니가 있다 보니까 우리 맨 첫째로 그 집을 지은 데로 갔지. 집도 오래 지었어. 우리 아버지가 다니면서. 그 집을 오래 지었는데, 싹 다 그 집을 지을 적에는 페로 지었어. 이렇게 흙을 이렇게 페를 만들어서 그리해서 집을 지었어. 그래 그것도 나야 보지 못하다 보니 모르지. 우리 할머니가 그렇다고 말하니까 알지. 아버지가 와서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지. 그 땀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을 한(=지은) 사람이, 공간이, 집에 식구가 많으면 두 칸을 주고. 식구가 작으면 한 칸을 주고.}

10201 @ 으음.{음.}

10201 # 그렇기. 우리 한어머니 잇다나이, 우리네느 엔: 첫점 그 집우르 나갔땀어. 기계 그래 어느 해겠는가 하이, 삼십팔년도에 저 절어서 삼십구연도에 어전으 집우루 아 거기서 먼테르 잣소. 꺨로페르르 말하무, 나느 엠매 꺨로페따르인거 기억지 못하겠어. 기래 그렇기 먼테르 가서 그 집우 촌으 맨들어서 나~ 기계 그 초이 시방두 있소. 그 초~이 시방두 있어.{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있다 보니, 우리네는 맨 첫 번째로 그 집으로 이사를 해 갔

어. 그게 그게 어느 해인가 하면, 1938년도에 집을 지어서 1939년도에 이젠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먼 데로 갔소. 킬로메터로 말하면, 나는 얼마(=몇) 킬로메터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어. 그래 그렇게 먼 데로 가서 그 집을 지어 촌(村)을 만들어서 응, 그 촌이 지방도 있소. 그 촌이 지방도 있어.}

10201 @ 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201 # 지방 가르막치라는 데 그 크즐오르진스끼 오블라스쨌(область) 가르막친스끼이 라이온(рай он). 라이온(рай он) 가르막친스끼이 라이온(рай он)으. 기랜데 그 라이온(рай он)에 우리 첫점, 내 지방 내마이 나 먹은 사람이 다아 죽다나이 영게 내 동미 남자(처음) 잇소. 가아는 기래두 가는 이림이 아 춘화라 합니. 김춘화라구. 이따가 어느 때 안또노브까에 가 있어. 가아는 내 아매 그 꼬호즈(колюз) 들어와서 그 들어오기 전에는 가아덜 이랑 만나지 못했소. 어디에서 사는지 썩 다아 따꾸막이다나이 가아덜이랑 못 봤었어. 그러구 들어와서 이 꼬호즈(колюз)르 어전 꼬호즈(колюз) 조적이 댕땀어. 꼬호즈(колюз) 큰 꼬호즈(колюз), 트레치인테르나치오날드(Третий интернационалд)라구서 그 룡기 사지에서 몰아든 꼬호즈(колюз)라구 트레치인테르나치온날라라구 꼬호즈 이름 절었었어. 그래 그 꼬호즈(колюз) 와서 어 우리 어전은 살기 댕집. 어전 우리 아매랑. 그기 어전 기게 예:: 삼십구연도에 댕땀어. 삼십구연도에 꼬호즈(колюз)에 들어왔었어. {지방 가르막치라는 데 그 크즐오르다 주(州)의 가르막치 군(郡). 군(郡) 가르막치 군(郡)을. 그런데 그 군에 우리가 첫 번째로, 내가 지방 나만큼 나이 먹은 사람이 다 죽다 보니 여기에 내 동무 남자가 있소. 그 아이는 그래도, 그 아이는 이름이 춘화라 하지. 김춘화라고. 이따가 어느 때 안또노브까에 가 있어. 그 아이는 내가 아이 때 그 집단농장에 들어와서 그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소. 어디서 사는지 썩 다 움집이다 보니 그 아이들을 못 봤었어. 그래 그 집단농장에 와서 우리 이제는 살게 되었지 뭐. 집단농장 큰 집단농장, ‘트레치인테르나치오날드 콜호스’라고서, 그렇게 사방(四方)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만든 집단농장이라고 해서 ‘트레치인테르나치오날드 콜호스’라고 집단농장의 이름을 지었어. 그래 그 집단농장에 와서 우리 이제는 살게 되었지 뭐. 이젠 우리 할머니랑. 그게 이젠 그게 예 1939년도가 되지. 1939년도에 그 집단농장에 들어왔어.}

10201 @ 음.{음.}

10201 # 기래 트레치인테르나치오날, 헤제~이 채정핵이라구 그 만저는 어따(это) 강(姜), 강개, 깐이라구서 그양 강개, 강개 그렇기 말했땀어. 그 선세임이두 이림이 헤장질하다가 이 강정핵이느 부헤장질 했땀어. 기게 내 기억이 땀어. 어전의 구연도에 내 열 살이 땀땀어. 열 살이래두 내 글으 모 일었어. 한바이두 모일것소 그 열 살인데. 기게 어전의 구연도이 땀는데 기엔데 그 꼴호즈(колюз) 들어오는데, 강표돌이, 이제 이제 기억이 땀어, 강표돌이라구서리. 에따(это) 우리 꼬호즈 헤장질 했지. 기래구 부헤장질으느 어: 그 채정핵이 부헤장질했어. 기에 그 부헤재~이두 거 그게 어느 해겠는가? 사십, 이제 여기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무 신문사에서 그 사람 이름이…… 내 그거 모르겠어. 따, 그 정핵이 딸으느 어 김신 에따(это) 채진하라구 했어. 그 진하 남편으느 저 책에 쓴 게 있어. 그 책에 썼어. 그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이 가스아바이무 그 에따(это) 그 이 책으 보무 그 책에 있소. 기래 나느 이 꼬호즈(колюз) 얘기르 어전의 하제:두 내가 어숙비숙한 사람이 톨리코(только) 안또노프까 춘하밖에 없어. 다아 상새났어. 다아 상새나구, 가: 내보구 한 살 지하오. 자아. 기래 가아는 기래두 어 어시덜이 이찍이 에미, 어: 아흔 한나에 상새

났소. 아흔 한내. 기래 야덜이 사행제 땀는데, 야 한내 살았어. 다아 다아 상새났어. 기에 안또노프까르 가기만 하무 야, 거기 가서 내, 내 거기 가서 지방 화토르 노오. (웃음) 기래 무 가아르 만나지. 기래 얘기르 하지. 니가 내밖에[내가빠께] 없다. 꼬호즈(колюз) 사람이 다아 죽었다구 니가 내가밖에[내가빠께] 없다구. 그래 그 얘:기르 하짐.{그래 트레치인테르나치오날 집단농장 회장이 차정핵이라고 하는데, 그 먼저는 강(姜), 성이 강가, 강이라 고 그냥 ‘강가’, ‘강가’ 그렇게 말했어. 그 선생님도 이름이 회장질하다가 이 강정핵이라는 사람이 부회장을 했었어. 그게 내 기억이 되었어. 이젠 1939년도에 내가 열 살이었어. 열 살이라고 해도 나는 공부를 못 했어. 한 학년도 못 다녔소 그 열 살인데도. 그게 이제 39년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집단농장에 들어왔는데, 강표돌, 이제 이제 기억이 땀어, 강표돌이라고. 음 그 분이 우리 농장의 회장을 했지. 그리고 부회장직은 그 차정핵이라는 분이 했지. 그래 그 부회장도 거 그게 어느 해던가? 1940년, 이제 여기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신문사에서 일하는 그 사람 이름이…… 내 그거 모르겠어. 그 차정핵의 딸은 음 김진 음 차진하라고 했어. 차진하 남편은 저 책에 쓴 것이 있어. 그 책에 썼어. 그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이 장인(丈人)이면 그 음 그 이 책을 보면 그 책에 있소. 그래 나는 이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와 하려 해도 나와 어숙비숙한 사람이 오직 안또노브까에 사는 춘하밖에 없어. 다 죽었어. 다 죽고, 그 아이(춘화)는 나보다 한 살 밑이오. 저 아이(춘화)는. 그래 그 아이는 그래도 부모님이 일찍 에 어머니가 음 아흔 하나에 돌아가셨어. 그래 안또노브까를 가기만 하면 응, 거기 가서 나, 나는 거기 가서 지금도 화투를 가지고 노오. (웃음) 그러면 그 아리를 만나지. 그럼 이야기를 하지. 너와 나밖에 없다. 집단농장에서 살던 사람이 다 죽고 너와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지 뭐.}

@ 기래 아매 따암둥?(그래 할머니 화투를 놀아서 돈을 따니까?)

# 야~.{응.}

@ 화투르 놀무 따움둥 잃, 잃음둥?(화투를 놀면 돈을 따니까? 잃습니까?)

# 아 기래두, 기래두 내 치우라 따오. 기래 난 적소. 엠매르 잃었다. 엠매르 먹었다. 썩 적소. (웃음) 기래 적어서느 기래 안죽으느 아이 잃었소. 아이 잃었소. 화토르 놀아서.{아 그러면, 그래도 내가 대부분 따오. 그래 난 적소. 얼마를 잃었다. 얼마를 먹었다. 썩 적소. (웃음) 그 래 적는데 그래 아직은 안 잃었소. 안 잃었소. 화투를 놀아서.}

10801 @ 그럼 아매! 다시 원동으로 가서.{그럼 할머니! 다시 원동으로 가서.}

10801 # 원동 와서.{원동으로 돌아와서.}

10801 @ 원동으르 와서 예, 설날, 에 노보이год(Новый год){원동으로 와서 예, 설날, 에 설날.}

10801 # 아, 설에, 설에.{아, 설에, 설에.}

10801 @ 예. 설에 무스거 했었습둥?(예. 설에 무엇을 했었습니까?)

10801 # 우리 여기서?(우리 여기 키르기스에서?)

10801 @ 원동에서.{원동에서.}

10801 # 원동에서 나느 설에 설날으 세는 거 난 한 번도 못 땀어. 못 땀어. 아! 어째 우리 한 어머니랑 설으 센다는 말이 없구 거 날방두 무슨 잘 아는 같지 않았어. 기래기라 우리 한, 내 나이 이룽기 잇다해두 정말인지 아인지 잘 모르우. 우리 그전에는 이룽기 깔린다르(календарь)라는 게 오늘 메출이오. 오늘 메출이오. 이게 난 나이르느 잇은 갈제인소.

기래기라 그건 모르지. 한어머니 내가 그 애:기는 아이 했어. 우리 원동서 들어와서는 날 씨르 딱딱 알았지. 원동에서는 그런 날씨두 안 같지 않소. 기래기라 우리 한어머니 그렇기 말하지. 큰지 아버지 에 어따 송군이 낫다지. 큰 큰지 아즈바니 아 아 저기 우리 한어머니 기래지. 큰지 아주반님이 송군이 낫는데 아이 가아 언적에 낫던가? 기라니까테, 아니 말래, 큰집 아아아 아버지 어, 마당질한 날에 낫는데. 기래니까테 낫살으 몰라. 아, 큰지 아별, 아버지 언적에 마당질해했던지 아, 그거 어떻게 알겠어. 기래다나이 가아 나아 알겠어? 가아 오느날 탄생한 거 알겠어? 그랬단 말이지.{원동에서 나는 설에 설날을 쇠는 거 난 한 번도 못 봤어. 못 봤어. 아! 어째 우리 할머니랑 설을 쇠한다는 말이 없고 거 날 짜두 뭐 잘 아는 것 같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 내 나이가 이렇게 있다 해도 (그 나이가) 정말 맞는 나이인지 아닌지 말 모르오. 우리 그전에는 이렇게 달력이라는 것이 오늘 며칠이오. 오늘 며칠이오. 이게 난 나이로는 잊은 것 같지 않소. 그래서 그건 모르지. 할머니가 나에게 그 이야기는 안 했어. 우리 원동에서 들어와서는 날짜를 딱딱 알았지. 원동에서는 그런 날짜도 안 것 같지 않소. 그래서 우리 할머니 그렇게 말하지. 큰집 아버지 에 어 손자가 태어났다지. 크 큰집 아저씨네 아이가 어 어떻게고 저기 우리 할머니가 그러지. 큰집 아주반님이 손자가 태어났는데, 아니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던가?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큰집 아버지 어, 마당질할 때 낫는데. 그러니까 나잇살을 몰라. 아, 큰집 아버지 언제 마당질했는지 아,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다 보니 그 아이 나이를 알겠어? 그 아이 어느 날 탄생한 거 알 수 있겠어? 그랬단 말이지.}

10801 @ 예.{예.}

10801 # 개니까테. 한, 저 원동 변경에서는 똑똑한 사름덜으는 날짜르 알아두 우리 한어머니랑 그 날짜르 우리네랑 그 날짜르 기억지 못했어. 그랬됐어. 그렇기 살았됐지. 기래니까테 거저 시발르 말하무., 어 저어기 어 예브리덜이 사는 그 사름덜처리 뽕구 땡기는 사름덜처리 그렇기 거저 제예구 그렇기나 살았됐어 우리네. 그렇기 살았됐어.{그러니까. 저 원동 변경(邊疆)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은 날짜를 알아도 우리 할머니랑 그 날짜를 우리네랑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어. 그랬됐어. 그렇게 살았됐지. 그러니까 그저 시방으로 말하면, 어 저기 어 유태인들이 사는, 그 사람들처럼 벗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저 겨우 그렇게나 살았됐어 우리네가. 그렇게 미개하게 살았됐어.}

10801 @ 그럼 아매!{그럼 할머니!}

10801 # 아~.{응.}

10801 @ 여기 들어와서는 설에 무슨거 했습둥?{여기 중앙아시아에 들어와서는 설에 무엇을 했습니까?}

10801 # 아, 여기 들어와서는 설으 잘 세엠크.{아, 여기 들어와서는 설을 잘 쇠데.}

10801 @ 어떻게 했습둥? 무슨 임석으 하구 무슨 놀이르 했습둥?{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음식을 하고 무슨 놀이를 했습니까?}

10801 # 임석으느, 그래 우리 한어머니 그러지. 기래 우리 여기서 설으 쉼 적에는 원도서 들어와서 설 쉼 적에는 그때는 아버지랑 베질했지.{음식은, 그래 우리 할머니가 그러지. 그래 우리 여기서 설을 쉼 적에는 원동서 들어와서 설을 쉼 적에는 그 때는 아버지가 벼농사를 지었지.}

10801 @ 음.{음.}

10201 # 어, 어느 해부터 베질했는가 하이 예, 삼십구연도부터는 베질했지.{어, 어느 해부터 벼

농사를 지었는가 하면 예, 1939년도부터는 벼농사를 했지.}

10201 @ 아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201 # 아~ 베질 했어. 그래 베질 해서는 밥우 먹었지. 기래구 밥우 먹구. 야아!{응 벼농사를 지었어. 벼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었지. 그리고 밥을 먹고. 야!}

10201 @ 이팝우 잠수셨겠네.{쌀밥을 잠수셨겠네.}

10201 # 이팝우. 그 때사 입쌀이라는 거 처암 밧됐어. 처암 밧됐어, 입쌀으. 기래구 어: 까자크덜이 떡으 굵어서 떡으 굵데. 그 사름덜으는 시바으는 여기다가 탄드르(тандыр)라는 게 있어. 이래 불에서 굵제이오? 그전에는 아이 그러구 이렇게 이렇게 따아 파오. 따아 파구 서리 그 따에다가 나~ 재철이, 재철이르 아오?{쌀밥을. 그때야 쌀밥이라는 거 처음 보았됐어. 처음 보았됐어, 입쌀을. 그리고 어 카자흐인들이 빵을 구워서 빵을 굵데. 그 사람들은 시방은 여기다가 ‘탄드르’라는 빵을 굵는 화덕이 있어. 이렇게 불여서 굵지 않소? 그런데 그전에는 안 그러구 이렇게 이렇게 땅을 파오. 땅을 파고서 그 땅에다가 응 쟁개비, 쟁개비를 아오?}

10201 @ 예.{예.}

10201 # 재철이르 거기다 떡으 담소. 기에무 그 대철에 꼴독: 차기마 하무 그 재철으 세또 낭 그 아이 기래구 세또오 불우 놓소. 거기다가. 이러:하게 굴으 파구 따아 굴으 파구. 기래구 그거 세또 불우 그거 어 다아 불으무 그게 떡이 다아 뿔어 올라오무 그 재철으 거기다 놓지. 그 세또 불이 붙는 데다. 덜어내구 그 세또 불으 그 재철 우에다 또 올레놓소. 올레놓구 흙으 또 덮소. 흙으 덮어서 기래 엠매: 시가이 데기마 하무 그거 내오. 기래무 빵 그렇기 잘 텐단 말이지. 그렇기. 그렇기 굵어서 떡으는 까자크덜이 괴래 굵어서 우리네르 주구. 우리네는 밥우 먹구. 그 사름덜이 떡으 가져오기마 하무. 기래 떡두 싸먹구. 버얼다 나이 그 때는 이래 일으 하기마 하무 돈으 쫓댓어. 어 돈으 쫓댓어. 기렘 돈으 주무 우리 떡으 싸먹었어.{쟁개비 거기다 빵을 담소. 그러면 그 쟁개비에 가득 차기만 하면 그 쟁개비를 쇠뚝, 나무를 안 그러고, 쇠뚝 불을 놓소. 거기다가. 이렇게 굴을 파고 땅에다 굴을 파고. 그리고 그거 쇠뚝 불을 피우고 그거 어 다 불으면 그게 빵이 다 불어나 올라오면(부풀어 오르면) 그 쟁개비를 거기다 놓지. 그 쇠뚝 불이 붙는 데다. 덜어내고 그 쇠뚝 불을 그 쟁개비 위에다 또 올려 놓소. 올려놓고 흙을 또 덮소. 흙을 덮어서 그래 얼마간(어느 정도) 시간이 되기만 하면 그것을 내오. 그러면 빵이 그렇게 잘 된단 말이지. 그렇게 했지. 그렇게 구워서 빵은 카자흐인들이 그렇게 구워서 우리에게 주고. 우리네는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은 빵을 가져오기만 하면. 그래 빵도 사 먹고. 돈을 벌다 보니. 그때는 이렇게 일을 하기만 하면 돈을 주었어. 어 돈을 주었어. 그러면 돈을 주면 우리 빵을 사 먹었어.}

10801 @ 음. 그래, 그러면 여기 우리 예: 고렷사람덜이 여기 와서 설날에는 예 어떤 놀이르 하하암둥? 어떤 놀음으 하하암둥?{음. 그래, 그러면 여기 우리 예 고려 사람들이 여기 중앙아시아에 와서 설날에는 어떤 놀이를 합니까?}

10801 # 아아 놀음이 없었됐어 그때느. 그때는 우리 어, 놀웁이 없었됐어.{ 놀이가 없었어 그때는. 그때는 우리 어, 놀이가 없었어.}

10201 # 뽕또모 쉬또(потому что) 그때느 우리 원도서 들어와서 전, 와서 전제~이 인차 낫어. 마흔 한해에 전제~이 인차 낫됐어. 구연도에 쌀으 먹구. 어 사십일년에 사십일년에 전제가 나다나이 그: 농새르 쥘어서는 기래두 사십일년도꺼지는 우리 기래두 밥우 먹었

됐어. 밥우 먹구. 기래구 사십, 사십이연 사십이연에는 또 좀 일없었지. 삼년에는 더 말  
 마! 내 울었됐어. 그 때느. 사십삼년에는 내 그때 몇 살인가 하이 열 네 살 땡됐어.{아 왜  
 냐하면 그 후에 그때는 우리 원동에서 들어와서 전, 와서 전쟁이 이내 났어. 1941년에 전  
 쟁이 이내 났어. 1939년도에 쌀을 먹고. 어 1941년에 1941년에 전쟁이 나다 보니 그 농사  
 를 지어서는, 그래도 1941년도까지는 우리 그래도 밥을 먹었어. 밥을 먹고. 그리고 1942  
 년, 1942년에는 또 좀 괜찮았지. 1943년에는 더 말마! 내 울었됐어. 그때는. 1943년에는  
 내 그때가 몇 살인가 하니 열 네 살이었어.}

10201 @ 그렇죠. 예, 예.{그렇죠. 예, 예.}

10201 # 열네살 됐어. 구연, 이십구연이이까데. 야아! 모질이 고새~: 했어.{열 네 살 됐어. 내가  
 태어난 해가 1929년이니까. 야! 몐시 고생을 했어.}

10201 @ 음. 그래 어떻게 하셨습둥?{음. 그래 어떻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10201 # 기래구 우리 아바이는 우리 뻘뻘(папа)는 사십일년에 그 푸루두보이(трудоовой)라는  
 데. 푸루두보이(трудоовой) 갔어. 거저 전제~이 나이 조선사름우르 전자~아 아이 보냈  
 어. 한창두 아이 보냈어. 썸 푸루두보이(трудоовой) 보냈어. 거기 가서 어 일하게서리 그  
 랫지. 기래니까데 우리 어티기 구차했겄어. 버는 사람이 없지. 마마(мама) 혼자 벌지. 기  
 래 우리 모:지리 고새~했어. 우리 아메랑. 삼년도에는 내 이릉기 군대르 우리 아메 실으,  
 우리 아메 옛날에 배르 쫓지. 개 그 배르 짜다나이 그 씨르 잘 비뻬어. 기래 그, 그 털이  
 르 군대서 가져오. 국가서 가져오지. 기래 가져오기마 하무 그거 우리 아메 비짐. 그 베  
 에서 내 툄 줄 몰랐됐어 첫감에. 내 열네살 땡소 나~. 개 툄 줄 몰라서 그거 그 절에 사  
 름게서 틀어서 배웠짐. 기래 그거 틀어서 가지가기맘 이릉기 트우. 장갑우 틀데 솟가락이  
 한내 이개 둘이 세 데기. 그 총메이르 하는 사름덜이 장갑 쟈게서리 기래구 노스끼(носк  
 и)르 틀었지. 노스끼(носки)는 한 커레 떡으 뻬으 굶어서 한 길로 반으 주우. 기래구 장  
 갑우는 한 길로르 주지. 한길로 주지. 기래 그거 그 전에는 이 전기드이 어디메 있어, 없  
 지. 낮에는 툄기 훑지. 그거 베와서두 잘 틀었됐어. 열네살인게 잘 틀었됐어. 기래 틀어서  
 그래 군대르 보내무 그래 떡이 동삼에는 오구. 여림에는 세투리르 뜯어서 먹었지.{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1941년에 그 전쟁 노무(勞務)로 나갔어. 전쟁 노무로 나갔  
 어. 그저 전쟁이 나니 조선 사람을 전쟁에는 안 보냈어. 전쟁이 한창 적일 때에도 안 보  
 냈어. 썸 노무로 내보냈어. 거기 가서 일하게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구차했겄어.  
 버는 사람이 없지. 어머니가 혼자 벌지. 그래 우리 몐시 고생을 했어. 우리 할머니랑.  
 1943연도에는 내가 이렇게 군대를, 우리 할머니가 실을,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베를 쫓  
 지. 그래 그 베를 짜다 보니 그 실을 잘 비뻬어. 그래 그, 그 털을 군대에서 가져오오. 국  
 가에서 가져오지. 그래 가져오기만 하면 그거 우리 할머니가 그 실을 꼬지 뭐. 그 꼬아서  
 (양말을) 툄 줄 몰랐어, 처음에는. 내 열 네 살이 되었소 응. 그래 양말을 툄 줄을 몰라서  
 그거 그 걸 사람에게서 틀어서 배웠지 뭐. 그래 그거 틀어서 가져가기만 하면 이렇게 트  
 오. 장갑을 툄 때 손가락이 하나가 이개 둘이 셋이 되게. 그 총을 메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장갑을 끼게 그러고서 양말을 틀었지. 양말은 한 켤레, 뻬을, 뻬을 구워서 한 켤로그  
 램 반을 주오. 그리고 장갑은 1켤로그램을 주지. 1켤로그램을 주지. 그래 그거 그전에는  
 이 전깃등(전깃불)이 어디 있어, 없지. 낮에는 툄기 쉽지. 그거 배워서 잘 틀었어. 열 네  
 살인 것이 잘 틀었어. 그래 틀어서 그래 군대로 보내면 뻬이 겨울에는 오고. 여림에는 썸  
 바귀를 뜯어서 먹었지.}

10201 @ 아이구!{아이고!}

10201 # 세, 여림에는 그거 아이 툄기게 하오. 그 털이 없소. 아이 기래디. 여림에는 장갑으 아  
 이 썸구 노스끼(носки)르 아이 신구[신꾸] 그렇게이오? 그 형겅을르 어 국가서 형겅으  
 썸서 기래 이거 감발으 해서 신발으 신구[신꾸] 기래구서리 전자아 하지. 게 여림에는 썸  
 투리르 먹구 살구. 그 바에 켜 거 그런 거 이 그전에는 우리 마마랑은 야~ 점다나이 배  
 발에서 일했됐어. 그 베르 한나투 이릉기 농가 아이주우. 썸 국가르 땡에가지. 기래구 그  
 제르 이렇게 농가주우. 그래 마감에는 그제두 없었됐어. 기래.{썸(바귀), 여림에는 그거 안  
 툄게 하오. 그 털이 없소. 안 툄게 하지. 여림에는 장갑을 안 끼고 양말을 안 신고 그렇  
 잤소? 그 천으로 어 국가에서 천을 주어서 그래 이거 감발(발감개)를 해서 신발을 신고  
 그리하고서 전쟁을 하지. 그래 여림에는 썸바귀를 먹고 살고. 그 방아에 쫓은 거 그런 거  
 이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랑은 응 쫓다 보니 논에서 일을 했어. 그 벼를 하나도 이렇게  
 안 나누어 주오. 썸 국가로 들어 가지. 그리고 그 겨울 이렇게 나누어 주오. 그래 마치  
 막에는 그 겨도 없었됐어. 그래.}

10513 @ 그럼 아메 그 아까 그 세투리 있제임둥?{그럼 할머니 그 아까 썸바귀가 있잖습니까?}

10513 # 야~.{응.}

10513 @ 그 세투리를 어떻게 해서 잡수셨습둥?{그 썸바귀를 어떻게 해서 잡수셨습니까?}

10513 # 세투리르 어쩜 줄 아오? 첫감에는 에따(это) 채밀이 있제이오? 채밀을르 자~아 했소.  
 {썸바귀를 어떻게 했는지 아오? 처음에는 음 밀이 있잖소? 밀로 장(醬)을 했소.}

10513 @ 장?{장?}

10513 # 자~. 기래 그 자에다서리 메와서 기래구 우리 한어머니 예:, 그 채밀르 간장두 했소.  
 간자~아 해서 그 간자~에다두 메와 먹구. 자~에다두 볶아 먹구.{장. 그래 그 장에다가 무  
 쳐서 그리하고 우리 할머니 예, 그 밀로 간장도 했소. 간장을 해서 그 간장에다가도 무쳐  
 먹고. 장에다도 무쳐 먹고.}

10513 @ 아, 세투리만.{아, 썸바귀만.}

10513 # 세투리, 세투리마 기래 거저 제르 제르 주무 그 제두 볶아두 닭아서 먹구.{썸바귀, 썸  
 바귀만 그래 그거 겨울, 겨울 주면 그 겨도 무쳐도 볶아서도 먹고.}

10513 @ 어떻게 닭아서.{어떻게 볶아서.}

10513 # 그 닭아서 에따(это) 물에다 풀어서 그렇기 먹었됐어.{그 볶아서 음 물에다 풀어서 그  
 령게 먹었됐어.}

10513 @ 아, 제를 닭아서.{아, 겨울 볶아서.}

10201 # 사십삼년도에, 사십삼년도이요. 그때는 우리 모:지리 구차했어. 우리 뻘뻘(папа)두 없  
 지. 모지리 구차했어. 기래 우리 뻘뻘(папа) 사십사연도에 에따(это) 동미 모:지리 앓게  
 데이, 내 춘화라하제앓소? 그지 아버지 우리 앓게 데이까데 보냈습데 우리 아버지르 그  
 달아 보냈습데. 기래 사십사연도에 야아! 우리네 먹을 고사:으느 더 말 못하게 했소. 기래  
 내 동미덜가 애기르 하무 동미덜두 우오. 내 구차한 애기르 하기마 하무 동미덜두 우오.  
 그렇기 구차하게 살았소, 우리네.{1943년도에, 1943년도이요. 그 때는 우리 몐시 구차했  
 어. 우리 아버지도 없지. 몐시 구차했어. 그래 우리 아버지 1944년도에 음 동무가 몐시  
 앓게 되니, 내가 전에 춘화라 하지 앓았소? 그 집 아버지가 앓게 되니 우리 아버지를 달  
 아 보냈데. 그래 1944년도에 야! 우리네 먹을 고상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했소. 그래 내  
 동무들과 이야기를 하면 동무들이 우오. 내 구차한 애기를 하기만 하면 우오. 그렇게 구

차하게 살았소, 우리네.}

10201 # 기래구 어전으 사연도에 그저 풀으 뜯어먹구. 기래 어째 우리네 살라구 그러는지 버  
슷이두 또 잇엇댔어. 시방 그 버슷이 여기서 모:지리 비싸오. 흰 버슷이 야~ 따아 들썹::  
하구 올라오무 흰 버슷이 봄날에는 그 버슷이 그렇기 잘 나왔댔어. 기래 그 버슷으 캐서  
먹구. 그 세투리르 캐어먹구, 그담에는 여기는 마쉬르 벵이는, 그저는 한국사람덜이 그  
크, 우리네는 여기서 클레베리(клевер)라 하오. 클레베리(клевер)라 하오. 개 한국사람  
덜 그저 마쉬르 벵이는 그 풀으 무시기라 할까.{그리고 이제 1944년도에 그저 풀을 뜯어  
먹고. 그래 어째 우리네 살라고 그랬는지 버섯도 또 잇엇어. 시방 그 버섯이 여기서 아주  
비싸오. 흰 버섯이 응, 땅을 들썹하고 올라오는 흰 버섯이 봄날에는 그 버섯이 그렇게 잘  
나왔댔어. 그래 그 버섯을 캐서 먹고. 그 썸바귀를 캐서 먹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마소  
를 먹이는, 그것은 한국사람들이 그 크, 우리네 여기서 클레베리라 하오. 클레베리라 하  
오. 그래 한국사람들이 그저 마소를 먹이는 그 풀을 무엇이랴 할까?}

10201 @ 클레베르(клевер), 저는 모르겠습꾸마.{클레베리, 저는 모르겠습니다.}

10201 #클레베리(клевер)라구서리. 한국사람덜이 여기와서 클레베리(клевер)질두 하오. 그 마  
시풀 질기두 한국사람덜이 여와. 멧 객따르(гектар)르 가지구 작년에두 하합데. 한국사람  
덜이라구 하메서리 우리 손재 와 말합데. 게 그저 풀두 요리:할 적에는 그저 캐서 기계  
쓰겁두대엿어.{클라베리라고서. 한국사람들이 여기 와서 클레베리를 키우는 일도 하오.  
한국사람들이 여기 와 그 마소 먹이는 풀을 기르기도 하는데 몇 헥타르를 가지고 작년에  
도 하데. 한국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손자가 와서 말하데. 게 그저 풀도 요리할 적에  
는 그저 캐서 먹어 보면 그게 쓰지도 않았어.}

10201 @ 예.{예.}

10201 # 아이 쓰겁지.{안 쓰지.}

10201 @ 아이 쓰겁쥬.{안 쥬쥬}

10201 # 세투리는 모:지 쓰겁지.{썸바귀는 몹시 쓰지.}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기래 버슷두 캐어먹구. 그저 기래. 기래 그전에는 개 채밀이 있어서 채밀두 자~아 해  
서 먹구 기랬지. 아 그담에는 사십사연도에느, 내 야아! 우리 어머니랑 썸 이래 채밀르  
먹구 살길래바 우리 그 넷째 동새:르 데리구 식다이르 가오. 거기가서 일하구서리느 거기  
서느 어따(это) 무스거 벵이는가이 코~오 잇재이우, 메지.{그래 버섯도 캐 먹고. 그저 그  
래. 그래 그전에는 그래 밀이 있어서 밀도 장을 해서 먹고 그랬지. 아 그 다음에는 1944  
년도에는, 내 야! 우리 어머니랑 썸 이렇게 스스로 먹고 살기에 우리 그 넷째 동생을 데  
리고 식당으로 가오. 거기 가서 일하고서 거기서는 음 무엇을 먹이는가 하면 콩이 있잖  
소, 메주.}

10201 @ 음.{음.}

10201 # 메지 어. (한숨).{메주 응. (한숨).}

10201 @ 아까 아매 그 사십사년 고거 얘기하시다가 나가셨거든요. 예. 그때.{아까 할머니 그  
1944년도 그저 얘기를 하시다가 나가셨거든요. 예. 그 때.}

10201 # 사연에 썸 우리네 해~이느. 내 아랫동새:르 데리구 어 또가이(тыгаш =동물이 많은  
숲)라구서리 그런 데르 갔어.{1944년도에 썸 우리 형은 내 아랫동생을 데리고 어 또가이  
라고서 그런 데를 갔어.}

10201 @ 또가이.{또가이.}

10201 # 또가이라구서 게 양 페르마(ферма)지. 양 페르마(ферма)라구. 야아 이릉기 자래우는  
그 페르마(ферма) 가서 어 식모질을 하구 동새애르 데리구. 기래구 나는 또 딸르 가서  
어따(это) 먹구 살자구서리 딸르 가서 일하지. 기래 우리 마마(мама)라느 또 다른 데서  
일하구. 어 빠빠(папа)느 발써 그래 왔다가서리 칠리(Чилли)라는 데르 도마~아 했어.  
사십사연도에 도마~아 해갓지 칠리라는 데르. 기래 거기르 간 담에 우리 식귀 내 해~이  
내 동새: 그래 발써 그 어:: 사십일년도에 우리 오래비 말고기르 먹구 쓰러 죽엇댔어. 어  
그때 구차하다나이까데 말고기르 먹구서리 기래구 죽엇댔어. 기래 에 우리 어저느 여동  
생덜이 너이 잇지.{또가이라고서 그게 양(羊)을 키우는 농장이지. 양을 키우는 농장이라  
고. 양을 이렇게 키우는 그 농장에 가서 어 식모질을 하고 동생을 데리고. 그리고 나는  
또 따로 가서 음 먹고 살자고서 따로 가서 일하지. 그래 우리 마마는 또 다른 데서 일하  
고. 음 아버지는 별써 그래 왔다가서 칠리라는 데로 도망을 했어. 1944년도에 도망을 해  
갓지. 칠리라는 데로. 그래 거기르 간 다음에 우리 식구가 내 형, 나, 동생이 있고, 그때  
별써 그 어 1941년도에 우리 오라비 말고기를 먹고 쓰러져 죽엇어. 응 그때 구차하다 보  
니 말고기를 먹고서 그리고 죽엇어. 그래 에 우리 이제는 여동생들이 넷이 잇지.}

10201 @ 음. 그래, 음. 그러면은 아매 아까 그 제가 설날에 에 무스거 하셨느냐구 물어봤제임  
둥?{음. 그래, 음. 그러면 할머니 아까 그 제가 설날에 에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어보았잖  
습니까?}

10201 # 야~!{응!}

10201 @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십년대에 아주 힘든 그걸 다아 지나고 그 다음에 인제 예:: 좀  
고ړ사람들이 살만하게 됐을 때.{예. 그러니까 이제 1940년대에 아주 힘든 그걸 다 지나  
고 그 다음에 인제 에 좀 고려 사람들이 살 만하게 되었을 때.}

10201 # 어우! 오십년도까지 바뻐어.{어우! 1950년도까지 힘들엇어.}

10201 @ 음. 왜 무스거 또 바쁜 일이 있었습둥?{음. 왜 무슨 또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10201 # 아이 이 국가에서 그런 게 없지 무슨. 오십년도까지는 가연 바뻐어. 구차한 건 모지리  
구차했어. 그저 딱 그저 그런 거 월급생활해서 별무 월급생활해서 똑같이 그저. 마이 별  
무 마~이 타구. 작게 별무 작게 타구 그랬지.{아이 이 국가에서 그런 게 없지 뭐. 1950년  
도까지는 정말 바뻐어. 구차한 건 몹시 구차했어. 그저 딱 그저 그런 월급생활을 해서 별  
면 월급생활을 해서 똑같이 그저. 많이 별면 많이 타고. 적게 별면 적게 타고 그랬지.}

10801 @ 그러문 그러무 지금까지 설날:은 없었습둥?{그러면 그러면 지금까지 설날은 없었습니  
까?}

10801 # 없엇지. 없엇지. 없엇지.{없엇지. 없엇지. 없엇지.}

10802 @ 그럼 유꾸치기 이런 것두 없었습둥?{그럼 윗놀이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10802 # 어이구! (쑈) 없엇어.{어이구! (쑈) 없엇어.}

10802 @ 유꾸치기는 아암둥?{윗놀이는 압니까?}

10802 # 모르우 그때는, 유꾸치구 우리네 모르우.{모르오 그때는, 윗놀이 우리네 모르오.}

10802 @ 지금두?{지금도?}

10802 # 직금두 모르우.{지금도 모르오.}

10802 @ 이릉기 던지구.{이렇게 던지고.}

10802 # 야. 모르오.{응. 모르오.}

10802 @ 아.{아.}

10802 # 그래 어, 그 시방 모르우.{그래 어, 그 시방 모르오.}

10201 # 기래구 사십사연도에 내 어떻게 구차했든지 난 팔르 가서 지금 사는데 에 그, 그전에 그 우리 부리가드(бригада) 부리가드(бригада)르 브리가드(бригада) 가서 어, 무스거 짙는가이 채밀으 짙소. 채밀으.{그래 시방 모르오. 그리고 1944년도에 내 어떻게 구차했든지 난 따로 나가서 지금 사는 데 에 그, 그전에 그 우리 작업반, 작업반, 작업반에 가서 어, 무엇을 농사 짓는가 하니 밀농사를 짓소. 밀을.}

10310 @ 그거 어떻게 짓습둥?(그거 어떻게 짓습니까?)

10310 # 채밀으느 어따(это) 물으 아이 대구 물으 베처리 물이 없지. 그저 물으 거저 한번 대기마 하무 일리(или) 비오나 한 번 대기마 하무 거저 채밀이 대지. 기래구 지재이, 지재이르 시무구. 이랜대 내 귀게 어느 달이겠는가 내 귀게 기억이 텐단 말이지. 에:: 사월이 사월이 애이갓소? 사월이기마 하무 발써 나가서 어따(это) 채밀이랑 시무오, 카자흐스탄에서는. 기래 그거 발서리르 하지. 그거 풀으 싹 그거 거두구야 따이 매미우지. 따이 그게 발이 대지. 그거 풀으 싹악 거더서.{밀은 음 물을 안 대고 물을, 벼처럼 물이 없지. 그저 물을 한 번 대기만 하면 혹은 비가 오거나 한 번 대기만 하면 그저 밀이 되지. 그리고 기장, 기장을 심고. 이랬는데 내 그게 어느 달이겠는가 내 그게 기억이 된단 말이지. 에 4월, 4월이잖소? 4월이 되면 벌써 나가서 밀을 심소, 카자흐스탄에서는. 그래 그거 발서리를 하지. 그거 풀을 싹 거두어야만 땅이 가지런히 되지. 땅이 그게 발이 되지. 그거 풀을 싹 거두어서.}

10201 # 기래 내 그 때 사연도이까테 내 열다섯살이 땃땃어. 열다섯살인데 어 우티 형겅이 없어서 야~ 무스거 그 실으 비빈 장갑 틀구 질으무 그 실으 부베: 쓴 걸르 내 적삼이가 초매르 들어 입엇땃어. 그 실으 부베:서 또 어 내 또 재빌르 궁니르 헛소. 궁니르 해에서 에 내 이거 질은 실으 가지구서리 에따(это) 아매두 노스끼두 들어 낫구. 기래 그저 그저기 우리 선새임이 잇엇땃어. 고때 어 우리 고저 뻘르 끝라스(первый класс) 이를 적에지. 그런 선새임이 잇엇땃어. 그 사름덜으느 개애두 조곰 일없게 살아서 에따(это) 채소질하메서리 야 그래 살아서 내 푸빠이개(фуфайка) 들어서 주무 싸래기르 한 구르시까(кружка)씨 받으매 그래매서 내 그때 그 푸 푸빠이개(фуфайка) 들어서 옷으 들어서 기애 주무 개애두 썰래기 입쌀 싸래기르 한 구루시까(кружка)르 받았단 말ियो. 사십, 기게 사십사연도에 땃땃어. 그담에 나두 들어 입구 어저는 먹을 먹자구서리 어전 봄이 땃는데 싹 제식제식하오. 기래 우리 아매는 집에 있구. 집에서 어 꼬호즈(колхоз)서 그런 거 몰로꼬(молоко)르 몰로꼬(молоко)르 반 리터르(литр)씨 주지. 기래구 제르 주지. 기래 우리 아매는 그 제가 몰로꼬(молоко)르 잡습구. 기래구 마마두 가서 그 아께 그분 내 말하다 말았어. 코오 갈아서 야~ 코~오 갈아서 그거 어따(это) 끓이우. 시방 대에지두 그거 먹겠는지 말겠는지 모르겠어. 거기다가서르 무스거 영는지 아오? 또 클레베르 열소. 쿵:죽에다 클레베리르 또 열소.{그래 내 그 때 1944년도니까 내 열 다섯 살이 되었어. 열 다섯 살인데 어 옷을 지을 천이 없어서 웅 무슨 그 실을 끈 장갑을 짜고 남으면 그 실을 비벼서 쓴 것으로 내 적삼과 치마를 짜서 입엇었어. 그 실을 비벼서 또 어 내 또 손수 생각을 했소. 생각을 해서 에 내 이거 남은 실을 가지고 음 할머니 양말도 짜 놓았고. 그래 그저 그 저기 우리 선생님이 잇엇땃어. 고 때 어 우리 그저 일학년 공부를 할 적이지. 그런 선생님이 잇엇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켜찮게 살아서 음 채소 농사도 하면서

웅 그렇게 살아서 내가 스웨터를 틀어서 주면 싸라기를 한 겹씩 받으며 그러면서 나는 그 때 스웨터를 틀어서, 옷을 틀어서 그래 주면 그래도 싸라기 입쌀 싸라기를 한 겹씩 받았단 말ियो. 그제 1944년도였었어. 그 다음에 나도 (스웨터를) 틀어 입고 이젠 먹을, 먹자고서 이젠 봄이 땃는데 싹 \*제식제식하오. 그래 우리 할머니는 집에 있고. 집에서 웅 콜호스에서 그런 거 우유를 우유를 반 리터씩 주지. 그리고 거를 주지. 그래 우리 할머니는 그 겨와 우유를 잡습고. 그리고 어머니도 가서 그 아까 그 분 내 말하다가 말았어. 그 쿵을 갈아서 웅 쿵을 갈아서 그거 음 끓ियो. 시방 돼지도 그거 먹겠는지 말겠는지 모르겠어. 거기다가 뿔 넣었는지 아오? 또 클레베리를 넣소. 쿵:죽에다가 클레베리를 또 넣소.}

10201 @ 클레비?(클레베리틀?)

10201 # 데와서 클레베리 풀우. 데와서 그래서 거기다 열어서 요런 사발에다 마이두 아이 주오. 노르마(норма) 잇소. 요런 사발이. 고 사발에 한나씨 주오. 기래 야르 데리구 가무 아아게두 반 사발이 자라이게두 한 사발이 그렇기 주지. 나느 또 오분할랄이 쌀으 양백그램(грамм)에, 쌀이나 쌀이우? 그: 제에 그 담에 그 싸래기 그런 거 양백그램(грамм)우 오분할랄에 그거 일하는 사름이라구 거기서 주우, 끓이우. 한자리에 두 때르 먹소. 개아춤 먹구 일하라 나가지. 정스, 저녁으 들어와서 먹구 정심이라는 건 없구. 기래 그 어전 발서리르 이래 하는데 내 우티르 뻗어서 낭구 우에다 올레났지. 기래 저 저기 우리 집안 안개 집안 아재 기래지. 야! 따샤 네 우티르 바라. 야아 기차다! 저거 니 다시 입을 갈제잉다. 아재! 어째 기래우? 야! 이라고 할, 어째 그전에 보에노이부레미야(военное время) 이 그렇기 첫소? 이라고 할 쉬 없엇땃소. 사름게 이 나느 야 열 다섯살까지 이 머리르 못 재래와밧소. 거저 싹 깎았지. 뻘:뻘이 깎앗땃소. 이 너무 쳐서 야아! 기래 그거 야 그 낭게다 놓오네르 초매가 적삼우 불으 달아났소. 기래이까테 내게 우티 없지. 옷이 없짐 무슨. 기라 그전에 우리 아바이, 내 아버지 조고리 잇엇땃어. 그 조고리 한나 입우무 뿔 데르 다아 땃겅어. 내 그 집우르 아이 들, 촌으르 아이 들어왔소. 그 브리가드(бригада)에서 거저 얻으매 그래구 살앗땃어. 그래 그 담에느 채밀 다아 내 에따(это) 그거 채밀밭으 밭갈이르 하오. 토락토르 와서 밭갈이르 할 적에 그거 내 세르 타구 땡기메서리 걸기르 놓소 내. 기래 야! 아 때두 야 조곰 이렇게 살았어. 선스나 같엿어. 그 그렇기 내 살았땃어.[데쳐서 클레베리 풀을. 데쳐서 그래서 거기다 넣어서 요런 사발에다 많이도 안 주오. 기준량이 잇소. 요런 사발. 고 사발에다 하나씩 주오. 그래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아이에게도 반 사발, 성인에게도 한 사발 그렇게 주지. 나는 또 온종일 쌀을 200그램에, 쌀이나 쌀 같은 쌀이오? 그 겨에 그 다음에 그 싸래기 그런 거 200그램을 온종일 그거 일하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주오, 끓ियो. 한 자리에서 두 때를 먹소. 그래 아침에 먹고 일하러 나가지. 점심, 저녁을 들어와서 먹고 점심이라는 것은 없고. 그래 그 이제 발서리를 이래 하는데 내 옷을 벗어서 나무의 위에다 올려 놓았지. 그래 저 저기 우리 집안 안(安)가 성을 가진 집안 아주머니가 그러지. 야! 따샤 네 옷을 봐라. 야! 기차다. 저거 네 다시 입을 것 같지 않다. 아주머니! 어째 그러오? 야! 이라고 할, 어째 그전에 전쟁 시기에 이가 그렇게 첫소? 이가 너무나 많아서 이라고 할 수 없엇소. 사람에게 이 나느 웅 열 다섯 살까지 이 머리를 못 길러 보았소. 그저 싹 깎았지. 뻘:뻘히 깎앗땃소. 이가 너무 쳐서 야! 그래 그거 야 그 나무에다 놓으면 치마와 적삼에다 불을 놓았소. 그러니까 내게 옷이 없지. 옷이 없지 뭐 무슨. 그래 그전에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저고리가 잇엇땃어. 그 저고리 하나 입으면 별 곳을 다 다녔어. 내 그 집으로 아니 들, 촌(村)으로 안 들어왔

소. 그 작업반에서 그저 얻어 먹으며 그렇게 살았어. 그래 그 다음에는 밀을 다 내 음 그거 밀밭을 밭갈이를 하오. 트랙터가 와서 밭갈이를 할 적에 그거 내 소를 타고 다니면서 씨레질을 하오 내가. 그래 야! 아이 때도 웅 조금 이렇게 살았소. 머슴아이 같았소. 그 그렇게 내가 살았소.}

10201 @ 세르 땀음등?{소를 땀습니까?}

10201 # 세르 타구 걸기르 그 밭으 대애구 놓지 무. 어전 옷은 없지. 거저 저녁이무 모기 너무 많아서. 거저 아버지 빠빠(папа) 내 아버지 조고리 쓰기마 하루 거저 기라구 땀기지. 기래 그 답에스 브리가드(бригада) 사름덜이 마::이 왓댓어. 그 어저는 어: 채밀이르 그거 어전으 시무는 때무 사름덜이 마:이 오오. 기래 마이 와서. 기래 일으는 어저는 야:덜 일 야:덜이 그래 내 뉘기 잇었는가이 그 브리가드(бригада)에 내 잇구 그답에 유라라구 잇었소. 유라라구. 기래 유라 잇구. 그답에 올라라구 잇었어. 이 사름덜이 다야 죽구 내 한 내 살았단 말이오. 다야 죽었어. 없어. 기래 서이서 어전으 그 거기서 지금 양백그램(грамм)씩 주구 맥이는데 그 제에 쌀으 그런 거 못 쓰는 거기 사발에 요마이 큰데다가 야~에따(это) 그거 마이 끓이다나йка때 물으는 보왔댓어. 거기다가서리 야 그 에따(это) 클레베리 잇재이오? 그거 테운 거 그거 에따(это) 한 제에기씨 이릉기 요막씨 큰 제에기 주우. 기래 거기다 놔아서 먹짐. 그래 그거 할랄에 두 번씩 먹소. 기래 그답에스 우리 어전 가슬이 땀소, 어전으. 그래 가슬이 땀는데. 아이! 이래지. 브라가질 와서. 야 따썩! 너는 어전으 집우르 들어가야겠는데. 나는 어전으 마마랑 빠빠 썩 칠리(Чилли)르 달아나구 없지무. 한어머니랑 썩 갔어. 기래 내 잇구 우리 헤~이 잇구 내 지하동새: 잇구. 기래 구는 없었지. 아이 나는 들어 아이 가갯다구. 내 여기 잇갯다구.{소를 타고 그 밭에다 씨레질을 하지 뭐. 이젠 옷은 없지. 그저 저녁이면 모기가 너무 많아서. 그저 아버지 내 아버지 저고리 입기만 하면 그저 그러고 다니지. 그래 그 다음에는 작업반 사람들이 많이 왔댓어. 그 이젠은 어 밀을 그거 이젠 심는 때면 사람들이 많이 오오. 그래 많이 와서. 그래 일은 이젠 아이들 일 아이들이 내 누가 있었는가 하면 작업반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라라고 있었어. 유라라고. 그래 유라 있고. 그 다음에 올라라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 하나 살았단 말이오. 다 죽었어. 없어. 그래 셋이서 이젠 그 거기서 지금 200그램씩 주고 먹이는데 그 겨[糠]에 쌀을 그런 거 못 쓰는 거기 사발에 요만큼 큰 데다가 웅 음 그거 많이 끓이다 보니까 물은 보왔댓어. 거기다가서 웅 그 음 클레베리 잇잖소? 그거 데친 거 그거 음 한 덩어리씩 이렇게 요만큼씩 큰 덩어리를 주오. 그래 거기다 놓아서 먹지 뭐. 그래 그거 하루에 두 번씩 먹소. 그래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젠 가슬이 되었소, 이젠. 그래 가슬이 되었는데. 아니! 이러지. 작업반에 와서. 야! 따샤 너는 이젠 집으로 들어가야겠는데. 나는 이젠 어머니랑 아버지 썩 칠리로 달아나고 없지. 할머니랑 썩 갔어. 그래 내가 있고 우리 형이 있고 내 손아래 동생이 있고. 그러고는 없었지.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내 여기 있겠다고.}

10201 # 아 기래 일은 없지. 기래 이래짐. 브리가질, 야! 네 아츨이무 일찌가이 저 세르 개애다 맥이라구. 기래 세르 어 여섯 말으 그게 거기서 브리가드에서 일하는 게지. 여섯 말으 가지구 아츨에 일찍이 가지. 아츨에 일찍이 메기구야 어: 아츨먹올라 들어올 적은 그거 데다가 일으 시키지. 그래 아츨에 모:지리 일찍이 나가오. 기래 나가서 그 세르 네, 여섯 마리르 토로시르 서메 그답에 그거 내다 맥이메 기래구서리 거기서 죽을 얻어 먹짐. 도이나 주오? 거저 그 죽이나 한 그릇으 얻어 먹길래 거기 가서 일하짐. 그렇기 살았소. 기

래 아츨 나가기만 하루 또 세르 내다놓구서리 아안게 더 헤에갯어. 열다섯살인게 야. 그 빠빠 저고리 페놓구서리 놀우무 홀 자 버리무 세덜이 풀으 따라서 간단 말이오. 아, 깨나 보무 세덜이 한나투 없짐.{아 그래 일은 없지. 그래 이러지 뭐. 작업반 일, 야! 네 아침이면 일찌감치 저 소를 가져다 먹이라고. 그래 소를 어 여섯 마리를 거두는 것이, 그게 거기서 작업반에서 일하는 것이지. 여섯 마리를 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가지. 아침에 일찍이 먹고서야 어 아침을 먹으러 들어올 적에는 그거 들어오다가 일을 시키지. 그래 아침에 아주 일찍 나가오. 그래 나가서 그 소를 네, 여섯 마리를 나란히 세우며 그 다음에 그거 내다가 먹이며 그리하고서 거기서 죽을 얻어 먹지 뭐. 돈이나 주오? 그저 그 죽이나 한 그릇을 얻어 먹기에 거기 가서 일하지 뭐. 그렇게 살았소. 그래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또 소를 내다 놓고서 아이인 것이 더 뭘 헤아리겠어. 열 다섯 살인 것이 웅. 그 아버지 저고리를 펴 놓고서 홀 자 버리면 소들이 풀을 따라서 간단 말이오. 아, 깨어나 보면 소들이 하나도 없지 뭐.}

10201 # 그답에스 신발이 어디메 있어. 그 깔발에서두 신발이 없이 밭으 땀구서 땀기짐. 그 세덜으 가서 얻어바서 물구 들어오. 늦으무 들어오무 책이나 듣지 무. 기래 그거 얻어바서느 물고 들어와서 여섯 말으 데리고 들어오오. 들어와서느 그거 또 메와서느 또 일하지 무 일꾼, 자란이덜이. 자란이덜이 일한다는 게 썩 여자덜이 일하오. 아버지덜은 한나투 없지 프르드보이(трудова)이 가구 썩 여자덜이 일하지. 그 세르 가지구 여자덜이 썩 일하지 무. 그릉기 일했댓어. 기래 어트기 고사했는, 그릉기 먹으메서리 그릉기 살아서 어저는 그게: 가슬이 데서 야~, 나르 이래짐. 너는 어찌겠냐. 마마두 없지 빠빠두 없지. 아아매두 없지, 헤이는 또가이라는 데르 가서 유가르 데리구 우리 순엑이 거기에서 먹구 살지.{그 다음에는 신발이 어디 있어. 그 갈대밭에서도 신발이 없이 밭을 벗고서 다니지 뭐. 그 소들을 가서 찾아서 물고 들어오오. 늦게 들어오면 책망이나 듣지 뭐. 그래 그거 찾아서느 물고 들어와서 여섯 마리를 데리고 들어오오. 끌어와서느 그거 또 메워서는 또 일하지 뭐 일꾼, 어른들이. 어른들이 일한다는 것이 썩 여자들이 일하오. 아버지들은 하나도 없지. 노무(勞務)를 나고 썩 여자들이 일하지. 그 소를 가지고 여자들이 썩 일하지 뭐. 그렇게 일했됐소. 그래 어떻게 고생했는(지),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서 이젠 그게 가슬이 되어서 웅, 나에게 이러지 뭐. 너는 어찌하겠냐. 어머니도 없지 아버지도 없지. 아, 할머니도 없지, 형은 또가이라는 데로 가서 유가를 데리고 우리 순욱이가 거기 가서 먹고 살지.}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기래무 네 저기 저 아바이 같이 저 아바이 채밀밭에다가 물으 대구 어 그런다구. 기래무 어 거기르 네 가갯는가구. 가갯다구. 기래 나는 혼자 가라는가구. 네 저 아바이가 혼자 가라구. 야! 가갯다구 거 가서. 어 기랩 거기 가서 또 맥이는 가구. 그 쌍배기만 하루 먹는 게 주재래기란 말이오. 기래 내 가갯다구. 기래 가서 거기에서 한 달으 내 아바이가 돌이서 잇었소. 아바이가 돌 한 달 잇다가 아바이 그러지. 채밀이 어저는 누롱누롱: 한테 그 아바이는 그 채밀이 지키지. 그 까자끄촌이다나йка때. 그건 저 까자끄덜이 도둑질해 가두 그 아바이.{네 저기 저 할아버지와 같이 저 할아버지와 밀밭을 가서 어 물을 대고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를 네 가갯는가 하고. 그래서 가갯다고. 그래 나는 혼자 가라는가고. 네 할아버지와 혼자 가라고. 야! 가갯다고 거기서. 그럼 또 거기 가서 먹여 주는가 하고. 그 \*\*이만 하면 먹는 것을 주자 하는 것이란 말이오. 그래 내 가갯다고. 내 가서

거기 가서 한 달을 내 할아버지와 둘이서 있었어. 할아버지와 한 달 있다가, 할아버지가 그러지. 밀이 이제는 누룽누룽한테 그 할아버지는 그 밀을 지키지. 그 카자흐촌이다 보니. 그건 카자흐인들이 도둑질해 가도 그 아바이.}

10201 # 기래 그 아바이가 둘이 있는데 아바이 가기만 하루 조곰 채밀이 조곰 누룽누룽:한 거 조곰 더 잘 익은 거 그거, 이렇게.{그래 그 할아버지와 둘이 있는데 할아버지 가기만 하면 조곰 누룽누룽한 거 조곰 더 잘 익은 거 그거, 이렇게.}

@ 아매 보고 싶어서.{(제보자의 둘째 증손녀를 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 컴퓨터 놀기 못한다구. 그 놀음 이그라(игра)르 노는 거 그거 못 놀게 한다구.{(첫째 증손녀가) 컴퓨터로 놀게 못 한다고. 그 놀이, 놀이를 하는 거(컴퓨터 게임) 그거 못 놀게 한다고.}

10201 # 기래 그 아바이 그거 익은 거 이래 꼬네에서 툽:툽 이듬에서 잘 익은 거 꼬네:서. 기래서 가제다가서리 야 고거 이룽기 한테 묶어서는 야 그거 불으 달기마 하루 그 채밀 이색이 싹 이룽기 익소. 기래무 그거 나르 개애다 주짐. 이거 네 오온헤르 네 어저께냐! 기래 그 아바이가 둘이 먹게서리 쌀으 그 제에 싸래기 그런 거 죽으 씨먹으라고서리 보낸단 말이오. 기래 그 아바이 괴래지. 죽으 쭈기마 하루 나르 더 먹으라 하지. 그 아바이는 좀 적게 먹구 나르 더 먹으라구 하지. 기래 한 달으. 그 채밀이 그거 우리 조선사람들은 쌀개라구 하오. 채밀 이래 단으 묶어서 그거 불우 달기마 하루 고게 싹 익어서는 야 고게 채밀 고게 툽툽툽 하고 나온단 말이 야. 그거 부시와서 그거 먹소. 그래 먹다가서리 한 달 있다가서리 야 괴래 막으 친 게 야 맛굴막우 친 게 거기두 이부자리라는 게 없소. 어따(это) 뱃짚우 가져오. 기래무 그 뱃짚우 이래 농구서리 경계서 우리 내 아부지 저고리 쓰구서리 거기서 자오. 베개두 없구 그런테서 자지.{그래 그 할아버지 그거 익은 거 이렇게 툽툽 끊어서 잘 익은 거 꺼내서. 그래서 가져다가 고거 이렇게 한테 묶어서는 그거 불을 붙이기만 하면 그 밀 이삭이 싹 이렇게 익소. 그러면 그거 나에게 가져다 주지 뭐. 이거 네 온종일 어저께냐! 그래 그 할아버지와 둘이 먹게 쌀을 그 거에 싸라기 그런 거 죽을 쑂어 먹으라고 보낸단 말이오. 그래 그 할아버지 그러지. 죽을 쭈기만 하면 나에게 더 먹으라고 하지. 그 할아버지는 좀 적게 먹고 나에게 더 먹으라고 하지. 그래 한 달을 (지내고). 밀이 그거 우리 조선사람들은 쌀개라고 하오. 밀을 이렇게 단을 묶어서 그거 불을 붙이기만 하면 고게 싹 익어서는 응 밀 고게 툽툽툽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오 응. 그거 털어서 그걸 먹소. 그래 먹다가 한 달 있다가 응 그래 막을 친 것이 응 땅굴 막을 친 것이 거기도 이부자리라는 것이 없소. 음 뱃짚을 가져오오. 그러면 그 뱃짚을 이렇게 놓고서 거기서 우리 내 아버지 저고리를 입고서 거기서 자오. 베개도 없구 그런테서 자지.}

10201 @ 예.{예.}

10201 # 그래 내 불싸~하던 모양이야, 그 아바이. 기래, 야! 네 집우루 가겠냐 일리(или) 내 가라냐? 어:이, 나는 그 이 쉼스또이아울(шестой аул)이라구 까자끄초이 있지. 아우! 나는 지나 못 가겠다구. 개덜이나 많지 나는 걸어 그렇기 못 가겠다구. 나는 여기, 아바이 네일이 오겠는가구. 내 네일이 꼭 오겠다구. 기래 아바이 가라구. 기랩 내 여기 있겠다구. 아::이! 거기서 혼자 자자~이 그 미연한 벌판에 막으 하나 쳤는데 혼자 자자이 승내이두 많지. 승내이 소리두 나지. 아이! 밤우 못가겠소. 그런테서 자자이까테 못가겠습데. 기래 하룻밤우 거저 정말 아바이 오기르 지다리지. 그 기래 그 아바이는 야 그 싸래기르 또

닭우 어 염티 마~이 가지구 풀두 뜯어 가지구 괴래구서리 왔습데. 소곰도 가지구. 기래 와서 아이! 그 유라라는 여자르, 고 내 동미 데, 내보구 한 살 지하오. 야! 내가 동깁이오가. 그런거 테리구서. 아이! 아바이 야르 어째 테리구 왔는가. 우리네 먹을 것두. 야 먹을 꺼까지 타가지구 왔다구. 노르마(норма)르 타가지구 왔다구. 너이 네 동미르 하라구 테리구 왔다구. 그래 그때 기래 가: 같이 가슬꺼지 잊어서 기래 식료도 거기서 꼬호즈(колхоз)서 보내구. 아이! 우티르 꼬호즈(колхоз)서 했:다는 게 셋하얀 야 그런 싸찌나(сати)라구 있소. 좀 씨이찌(ситец)보구 더 두껍은 거. 그런 걸르 초매 적삼 해서 나르 준게 이가 어떻게 많았던지. 그거 개엔애 물에다가 씻으니까테 야~ 돌으 농구 돌으 농구 그거 두드려 씻소. 이 너무:: 많아서. 그거꺼지 췌에뿌리무 내 입을 게 없짐.{그래 내가 불쌍하던 모양이야, 그 할아버지. 그래, 야! 네 집으로 가겠냐 아니면 내가 가라? 어이, 나는 그 이 ‘쉴스또이아울’이라고 카자흐촌이 있지. 아이구! 나는 그 마을을 못 지나가겠다고. 개들이 많지 하여 나는 걸어서 그렇게 못 가겠다고. 나는 여기, 할아버지 내일 오겠는가 하니 내 내일 꼭 오겠다고. 그래 할아버지보고 가라고. 그럼 내 여기에 있겠다고. 아이! 거기서 혼자 자자니 그 허허벌판에 막을 하나 쳤는데 혼자 자자니 승냥이도 많지. 승냥이 소리도 나지. 아이! 밤을 못 자겠소. 그런테서 자자 하니까 못 자겠데. 그래 하룻밤을 그저정말 할아버지 오기를 기다리지. 그래 그 할아버지는 응 그 싸라기를 또 닭의 염통을 많이 가지고 풀도 많이 뜯어 가지고 그래고서 왔데. 소금도 가지고. 그래 와서 아이! 그 유라라는 여자를, 고 내 동무 되는, 나보다 한 살 아래오. 아 참! 나와 동깁이오 그 아이. 그런 아이를 테리고 왔지. 아니! 할아버지 이 아이를 어째 테리고 왔는가. 우리네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아이 먹을 것까지 타 가지고 왔다고. 배급을 타 가지고 왔다고. 너 이 아이를 네 동무를 삼으라고 테리고 왔다고. 그래 그때 그래 같이 가을까지 잊어서 그래 식료도 거기서 콜호스에서 보내고. 아니! 옷을 콜호스에서 했다는 것이 새하얀 응 그런 공단(貢緞)이라고 있소. 좀 사라사보다 더 두꺼운 거. 그런 것으로 치마 적삼을 해서 나에게 준 것이 이가 어떻게 많았던지. 그거 냇물에다가 씻으니까 야 돌을 놓고 돌을 놓고 그거 두드려 씻소. 이가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내버리면 내가 입을 것이 없지 뭐.

10201 @ 없지.{없지.}

10201 # 기래 그런 거 꼬호즈(колхоз)서 해에서 가져다가서리 나르 입했었어. 기애 그 유라라는 아와 나르 그래 꼬호즈(колхоз)서 우티르 해 입해서 나르 돌:으 동미르 해에 있오라구. 그래도 어똥기 이 치는지 기차지. 기래 이 머리 난 한나투, 가아두 머리 없구 나두 그랬었어. 가:두 어저는 열다섯살이구 나두 열 다섯 살 땃었어. 기란테 그렇기 이 쳐서 그 개엔애 나와서, 야! 돌에 이래 농구 돌가 돌으 두디리오. 이래. 이런 이런 혼술기랑 야~ 이 어떻게 치는지 그 돌가 돌으 두드려서 그 이르 다아 죽이지. 죽이기기마 하루 야~ 그 물에다 헤우문 껌지 둥::두 떠내려 간단 말이지. 기래 이제 으슬한 말이 애이오? 어떻게 으슬한 말이오.{그래 그런 거 콜호스에서 해서 가져다가 나에게 입했었어. 그래 그 유라라는 아이와 나를 그래 콜호스에서 옷을 해 입혀서 나를 두 사람을 동무를 해서 있으라고. 그래도 어떻게 이가 치는지 기가 막히지. 그래 이 머리털이, 나는 하나도, 그 아이도 머리털이 없고 나도 그랬었어. 그 아이도 이제는 열 다섯 살이고 나도 열 다섯 살 땃었어. 그런데 그렇게 이가 쳐서 그 냇물에 나와서, 야! 돌에 이렇게 놓고 돌가 돌을 두드리오. 이래. 이런 이런 혼 술기랑 응 이가 어떻게 치는지 그 돌가 돌을 두드려서 그 이를 다 죽이지. 죽이기만 하면 응 물에다 행구면 이 껌질이 둥둥 떠내려 간단 말이지.



그래 이게 께름칙한 말이 아니오? 얼마나 께름칙한 말이오.}

10201 @ 으쓱하지.{께름칙하지.}

10201 # 그래. 그렇게 내 살아갔단 말이오. 기랜게 아이! 팔십 먹도록두 내 아이 죽소. 어째 아이 죽을까? 날래 죽었으무 좋겠소 날래.{그래. 그렇게 내가 살아갔단 말이오. 그런데 아이! 팔 십을 먹도록 어째 나는 안 죽소, 어째 안 죽을까? 얼른 죽었으면 좋겠소 얼른.}

10201 @ (웃음) 아, 그때 힘들게 사셨으니까 지금 하느님이 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는 거지.{(웃음) 아, 그때 힘들게 사셨으니까 지금 하느님이 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는 거지.}

10201 # 아이구! (혀차는 소리) 내 사는게 난 요구이 없소. 내 이릉기 살아서 야아! 좋은 거 보겠는가. 좋은 거 못 보오. 무슨 좋은 거 보겠소. 내 그렇기 살아서 거기서 나~ 떠나서 어전 가슬이 댓는데, 아이구! 가슬이 댓는데 집우르 어전 오게 댓어. 가슬으 다아 하구 집우루 오게 댓어. 갠데 우리네두 헤~이두 들어오게 데엿소. 갠데 집우 주웁데. 집우 주구 어전 가슬이니까테 채밀이 잇어서 야! 채밀으 갈아서 싸래기 잇제이오? 그 싸래기르 우리네르 둘이서 죽으 썩 먹으라구 쫘어. 서이서. 기래 나~ 마마라구 이새르 가구 적에 가매랑 다아 팔아먹구 거저 그런 거 에따(это) 머리테 그전에 잇엇뎌어 야~. 그 머리테두 마마랑 가메서리 아무 것도 없어서 무스거 그랜 줄 아오? 그 머리테 달비르 팔아 그 담에 에따(это) 마선 하나 가지구 간 거 그거 마선 떡으 이릉기 뺌 이릉기 까짜꼬덜 굽제이오? 그거 두 개 마선이 그제 좋은 게 댓뎌어. 그 마선의 팔아서 뺌으 두 개르 싸 가지구 기래 차에 칠리르 가는데, 달아나 가는데, 우리 마마두 달아났소, 밤에. 걸어서 달아났는데. 아이구! 돈이 없지. 기래 그 마선의 팔아 달비르 팔아 기래 먹으메서리 칠리라는 데르. 또 가다가는 또바리니 마신(товарная машина) 바고니(вагон) 잇제이오 그른게. 그전에서사 객차라는 게 없지. 또와리니바고니(товарный вагон) 거짜에 앉아 또 거기서 툇기와서느 또 네리와서느 또 거기서느 한테서 밤 자구 기래구서리 또 가지.{아이구! (혀차는 소리) 내가 사는 것이 나는 욕구가 없소. 내 이렇게 살아서 야! 좋은 거 보겠는가. 좋은 거 못 보오. 무슨 좋은 거 보겠소. 내 그렇게 살아서 거기서 응 떠나서 이젠 가슬이 되었는데, 아이구! 가슬이 되었는데 집으로 이젠 가게 되었어. 가슬을 다 하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 그런데 우리네 형도 들어오게 되었오. 그런데 집을 주데. 집을 주고 이젠 가슬이니까 밀이 익어서 야! 밀을 갈아서 싸라기 있잖소? 그 싸래기를 우리에게 둘이서 죽을 썬어 먹으라고 주었어. 셋이서. 그래 응 어머니가 이사를 가고 갈 적에 솔이랑 다 팔아 먹고 그거 그런 거 응 머리채 다리를 팔아 그 다음에 응 재봉틀 하나 가지고 간 거 그거 재봉틀 빵을 이렇게 카자흐인들이 굽잖소? 그거 배봉틀 두 대, 그제 좋은 것이었어. 그 재봉틀을 팔아서 빵을 두 개를 사 가지고 그래 차에 앉아 칠리르 가는데, 달아나 가는데, 우리 어머니도 달아났소, 밤에. 걸어서 달아났는데. 아이구! 돈이 없지. 그래 그 재봉틀을 팔아 다리를 팔아 그렇게 먹으면서 칠리라는 데로. 또 가다가는 화차(貨車) 있잖소 그런 게. 그전에야 객차라는 것이 없지. 화차 거기에 앉아, 또 거기서 쫘겨나서 또 내려서는 또 거기서는 한테서 잠을 자고 또 그래고서 또 가지.}

10201 @ 그래서 아까는 에:: 마선 윙게 팔아서 에 그거 가지구.{그래서 아까는 에 재봉틀을 이렇게 팔아서 에 그거 가지고.}

10201 # 야~ 그래서 그거 팔아 가지구 칠리라는데르, 그 칠리라는 데 도시오. 그것두 또취(то же) 까자끄스판이지.{응 그래서 그거 팔아 가지고 칠리라는 데를, 그 칠리라는 데가 도시

오. 그것도 역시 카자흐스탄이지.}

10201 @ 걸루 가셨다구 그랬지요? 거기까지 하셨습니다.{거기로 가셨다고 그랬지요? 거기까지 하셨습니다.}

10201 # 아~ 기래 거기 가서, 어 그제 사십오연도이 뎌뎌어. 사십오연도에, 야아! 세사에 구차하기두 구차했어 우리네:. 사십오연도꺼지 우리네 그렇기 푼푸~이 먹지 못하고 그렇기 살았뎌어. 그래구, 그래구 칠리라는 데르 우리 선달이 데~이까테. (구술자의 허리와 등을 주물러 드림) 야! 일없소. 일없소. 내 허리느 아이 아푸우. 기래 에따(это) 선달이 뎌는데 에 국가 저 에 꼬호즈(колхоз)서 우리네르 신발으 싸서 신기구 그 담에 옷으 썩 두겹운 옷으 썩 해에서 입히구. 기래구 어따(это) 돈으 쫘서 어저느 어머니한테르 가라구서리. 기래 우리 서이서 칠리(Чили)라는 데르 차에 앉아서 노스돈으 물구 그때느 돈으 물구 서리 기래 차에 앉아서 칠리라는 데르 왔지. 칠리인데르 와두 그런 거 아드레스(адрес)르 모르구 어디메서 마마 사는지 어디메서 어머니 사는지 그거 모르구 기래구서리 왔지. 오~이 칠리라는 데르 오~이까테 우리 한 꼬호즈(колхоз)서 사던 사름 만났지. 스파쯔(станция)서. 스파쯔(станция)서 홀 네리이 그런 사름 만났단 말이지. 기래 만나서 그 사름가 어 우리 헤이 물어뎌지. 우리 빠빠란 여기르 왔는데 어 어디메서 사는지 모르겠다구. 어 너어 빠빠란느 어 저, 저기 꼬호즈(колхоз) 볼세비크라는 데서 산다구.{응 그래 거기 가서, 어 그제 1945년도였었어. 1945년도에, 야! 세상에 구차하기도 구차했어 우리네. 1945년도까지 우리네 그렇게 넉넉하게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뎌어. 그리고, 그리고 칠리라는 데를 우리 선달이 되니까. (구술자의 허리와 등을 주물러 드리니까) 야! 괜참소. 괜참소. 내 허리는 안 아프오. 그래 응 선달이 되었는데 에 국가 저 콜호스에서 우리들에게 신발을 사서 신기고 그 다음에 옷을 두겨운 옷을 썩 해서 입히고. 그리고 응 돈을 주어서 이젠 어머니한테로 가라고서. 그래 우리 셋이서 칠리라는 데를 차에 앉아서 찾삿을 물고 그때느 돈을 돈을 물고서 그래 차에 앉아서 칠리라는 데를 왔지. 칠리라는 데로 와도 그런 거 주소를 모르고 어디서 어머니가 사는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그거 모르고 그래고서 왔지. 오니 칠리라는 데를 오니까 우리 한 콜호스에서 사던 사름을 만났지. 정거장에서. 정거장에서 홀 내리니 그런 사름을 만났지. 그래 만나서 그 사름에게 어 우리 형이 물어 보았지. 우리 아버지가 여기를 왔는데 어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어 너희 아버지는 어 저, 저기 콜호스 볼세비키 콜호스라는 데서 산다고.}

10201 @ 아하!{아하!}

10201 # 볼세비크, 칠리 꼬호즈(колхоз) 볼세비크라는 센테(центр)에서 산다구. 기래 거기르 아츰에 와 또 네레서 그 사름덜이 가자구. 가서 어 아츰 정슴 이릉기 먹구 그담에 떠나 가라구서리. 여기서 머재이: 스파쯔(станция)서 걸어서, 그전에는 이릉기 마서이 없엇뎌어. 세술기 잇엇뎌어. 세술기 잇구 말술기 잇구. 기래구 이 마시나(машина)라는 건 위시이(вообще) 없엇뎌어.{볼세비크, 칠리 볼세비크라는 센터에서 산다고. 그래 거기를 아침에 와 또 내려서 그 사름들이 가자고. 가서 어 아침 점슴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떠나가라고서. 여기서 멀지 않은 정거장에서 걸어서, 그전에는 이렇게 자동차가 없었어. 쇠수레가 있었어. 쇠수레 잇고 말수레 잇고. 그리고 이 자동차라는 건 원래 없엇뎌어.}

10201 @ 그렇습지 그 때느.{그렇지요 그 때느.}

10201 # 어 없엇뎌어. 나~. 기게 어: 사십오연도에 뎌어 나~. 기게 선달 스무날이 뎌뎌어. 내 기억이 데오. 그제 잇어두 아이 지오. 기래 선달 스무날인데 그 집이 들어가서 어 아츰

삼아 정음 삼아 기래 먹구 기래구 거기서 나와서 걸어서 불세비키라는 데르 왔지. 기래 오~이까테 우리 빠빠르 그 꼬호즈(КОЛХОЗ)서 받을 적에 그러더라지. 어:: 식새르 잘하는 가:구. 마:이 잡섯는가구 물어보더라지. 아이 어디메서 잡섯겠어. 어디메서 있어서 무스거 잡섯겠어. 개 그 칠리라는데서는 어:: 소리르 들었지 모르지만 해두 옛날에, 기계 옛말이 있어. 그 거기서 김만섬이라는 사람이 베질으 잘해서. 어어: 엘린 훈제르 땃다구서리, 그 룡기. 거기서느 베질으 해서 쌀으, 우리 가~이까 쌀으 먹습데, 밥우 먹습데. 우리네는 이날 이때까지 싸래기 제르 먹었었어. 오십년도 오십 에떠(это) 사십오연도까지 우리네느 제르 먹다가 그 꼬호즈(КОЛХОЗ)서 떠났었어. 아아:! 기래구 칠리라는 데르 거기서 들어오 이까테 마마랑 빠빠랑 그 꼬호즈(КОЛХОЗ) 싸에서 살구, 어디메 사는가~이 브리가드 나가서 죄에:꼬판 깔 깔뚝집이 고린테서.{어 없었었어. 응. 그레 어 1945년도였어 응. 그레 선달 스무날이었었어. 내 기억이 되오. 그게 안 잊히지오. 그레 선달 스무날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어 아침 삼아 점심 삼아 그렇게 먹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걸어서 불세비키라는 데를 왔지. 그레 오니까 우리 아버지를 그 콜호스에서 받을 적에 그러더라지. 어 식사를 잘 하는가 하고. 많이 잡수었는가 하고 물어보더라지. 아니 어디서 잡수셨겠어. 어디서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잡수셨겠어. 그레 그 칠리라는 데서, 어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해도 옛날에, 그레 옛말이 있어. 그 거기서 김만섬이라는 사람이 벼농사를 잘해서. 어 레닌 훈장을 땃다고서, 그렇게. 거기서는 벼농사를 해서 쌀을, 우리가 가니까 쌀을 먹데, 밥을 먹데. 우리네는 이날 이때까지 싸라기 겨를 먹었었어. 1950년도 50 음 1945년도까지 우리네는 겨를 먹다가 그 콜호스에서 떠났어. 아! 그리고 칠리라는 데를 거기서 들어오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 콜호스 집에서 살고, 어디에 사는가 하면 작업반에 나가서 조끄판 갈대집 고린 데서.}

10201 @ 무슨 집?{무슨 집?}

10201 # 깔 깔르 집우 정은 그런 데서 사얌데. 브리가드 나가 우리 아매느 바이르 찌어서 딜 이대구. 우리 마마느 베밭에서 일하구. 기래 빠빠두 거기서 어 베밭에서 일하구. 기래서 브리가드서 일해서. 어 그때느 밥우 한 사람께 요런 사발이 있소. 고 사발 대에서 한 사람께 한 사발씨. 일하는 사람우느 더 큰 사발에 주구 일 아이 하는 사람우느 작은 사발에다 주구 어, 그렇기 그때느 그렇기 기랬었어. 기래 거기와는느 밥우 먹었지. 기래 우리 아매 그 브리가드서 일하는 사람덜으 밥우 맥이느라구 바이르 쥘지. 바이 둘으 걸구서리 에떠(это) 쥘지 뤼. 바아 쥘는 사람덜이 여래지. 기래 찌서 그 브리가드 사람덜 맥이는데. 기래 내 아매가 이랬지. 아매! 그 내백제르 보드라운 제르 아매 그거 딜에오오. 우리 닭아 먹어 보기오. 야아! 사람이 입이 무섭단 말이오. 그 그 아시제르 야~ 닭아서 절구에 쥘어서 썰눈에다가 먹던게 그 엔: 보드라운 제사 같기 같으지. 같기 같으지.{갈, 갈대로 집을 지은 그런 데서 살데. 작업반 나가 우리 할머니는 방아를 쥘어서 들이대고. 우리 어머니는 논에서 일하고. 그레 아버지도 거기서 어 논에서 일하고. 그래서 작업반에서 일해서. 거 그때느 밥을 한 사람에게 요런 사발이 있소. 고 사발로 되어서 한 사람에게 한 사발씩. 일하는 사람은 더 큰 사발에 주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작은 사발에다 주고 그렇게 그때느 그랬어. 그레 거기 와서는 밥을 먹었지. 그레 우리 할머니 그 작업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느라고 방아를 쥘지. 방아 둘을 걸고서 음 쥘지 뤼. 방아 쥘는 사람들이 여럿이지. 그렇게 쥘어서 그 작업반 사람들을 먹이는데. 그레 내 할머니에게 이랬지. 할머니! 썰겨를 보드러운 겨를 할머니가 그 들어오오. 우리 북아서 먹어 봅시다.

야! 사람이 입이 무섭단 말이오. 그 그 왕겨를 야! 북아서 절구에 쥘어서 썰눈에다가 먹던 것이었으니 그 보드러운 겨야 가루 같지. 가루 같지.}

10201 @ 나백제가 그렇지.{썰겨가 그렇지.}

10201 # 야~ 기랜게 그 제르 닭아서 밥에 놓아 먹자니 쓰겁단 말이지. 밥우 먹다가 그 제르 너무 기계 기, 기해서 그 밥에다가서리 그거 북아서 닭아서 북아서 먹자하니까데 씹쌀한 맛이 난단 말이지. 기래 내서 아매! 어째서 우리 그 두 벌 제르 닭아서 절기에 쥘어서 음 그렇게 물에다 풀어 먹을 적엔 기계 고소::하고 그렇기 맛이 있었는데. 아이 이 좋은 제 섯하얀 제 어째 닭아서 먹자이 어째 씹쌀한 맛이 난다구서리. 너네 밥우 먹다가 그거 먹어서 기래 그렇다구. 그렇기두 살아 땃었던 말이오. 기래 이기 아매덜이 많소. 한어마니덜이 많소. 내쳐르 고상한 건 이 여기.{응 그런데 그 겨를 북아서 밥에 놓아 먹자 하니 쓰단 말이지. 밥을 먹다가 너무 (썰이) 그레 귀, 귀해서 그 밥에다가서 그거(썰겨) 무쳐서 북아서 무쳐서 먹자 하니까 씹쌀한 맛이 난단 말이지. 그레 꺼내서 할머니! 어째서 우리 그 두 벌 쥘은 겨를 북아서 절구에 쥘어서 음 그렇게 물에다 풀어 먹을 적에는 그레 고소하고 그렇게 맛이 있었는데. 아 이 좋은 겨 새하얀 겨를 어째 북아서 먹자하니 어째 씹쌀한 맛이 난다고서. 너희 밥을 먹다가 그거 먹어서 그레 그렇다고. 그렇게도 살아 땃단 말이오. 그레 이곳에 할머니들이 많소. 할머니들이 많소. 나처럼 고생한 사람은 이 여기.}

10201 @ 별루 없습지.{별로 없지오.}

10201 # 없소! 없소! 기랜게 마냐(Маня=Маша)라구 잊지. 기애 그 마냐(Маня) 우리 노인단에서 개 애:기르 하지. 애:기르 하йка데 이리오. 야아 저 따째 어째 내가 같이 그렇기 고사아 했소. 야아! 저 따째 내 그룽기 고사아 했다구. 나느 어저느 어 열두 살이 땃다구. 기랜데 형겅이 없어서 그 기계 무시기라구 말하까? 얍다:만 그 시바~오느 우리 시향세라구 하오, 그거. 그런 걸르 나르 우리 어머니 초매르 해 쫓다구. 기래 이 속에 바지는 없었다구. 기애두 그런 거 입구 땡긴다구. 아이! 선스나덜이 이래지. 저거는 어째 가브리 아이 입구 땡기는가 하구. 그렇기 말했다구. 그 마냐 어찌다가 내가 같으기 구차했던 말이우. 겐데 그 마냐느 작년에 그러께 상세났어. 아: 칠십이 조금 넘어 상세났소.{없소! 없소! 그런데 마냐라고 있지. 그레 그 마냐 우리 노인단에서 이야기를 하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리오. 야아 저 따샤 어째 나와 같이 그렇게 고생을 했소. 야! 저 따샤가 나처럼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나는 이제느 열 두 살이 되었다고. 그런데 천이 없어서 그 그레 무엇이라고 말할까? 알파란 그 시방은 우리 '시향세'라고 하오, 그것을. 그런 것으로 나에게 치마를 해 주었다고. 그레 이 속에 바지는 없었다고. 그레도 그런 거 입고 다닌다고. 아니! 머슴아이들이 이러지. 저거는 어째 바지를 안 입고 다니는가 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 마냐 어찌다가 나와 같게 구차했던 말이오. 그런데 그 마냐는 작년 그러께에 죽었어. 아 칠십이 조금 넘어 죽었소.}

10201 @ 어째 그렇게.{어째 그렇게.}

10201 # 그래서 기래지. 나르 이렇게, 야아! 내쳐리 고상한거[고사항거]. 나느 어저느 어따 세에라구 하겠다구. 제 세에라구 하겠다구. 내쳐르 고상한 거. 그렇기 그여자 해에 동세에 이래다가서리 그 여자 상세났소. 그여자느. 기랜게 나느 그렇게 구차하구 풀우 먹구 그레 두 안죽은 아 벼원에 내게 이 책이 없소. 벼원을 아이 가오. 아파두 아이 가우 나느. 어 정가이 아파서는 벼원을 아이 가오. 야덜은 약으 먹으라구. 약으 먹으라구. 내 약으 아이

먹소. 조마네 약으 아이 먹소, 내. 기래 아프무 어디서 풀우 뜯어 먹어무 이 풀이 좋은 게라무 그 풀우 뜯어서 우레서 먹어두 약은 아이 먹소.{그래서 그래지. 야! 나에게 이렇게, 야! 나처럼 고생한 사람. 나는 이제는 형이라고 하겠다고. 자기 형이라고 하겠다고. 나처럼 고생한 사람. 그렇게 그 여자 형 동생 이러다가 그 여자 죽었소. 그 여자는. 그런 데 나는 그렇게 구차하고 풀을 먹고 그래도 아직은, 아, 병원에 내게 이 책[진료부(診療簿)]이 없소. 병원을 안 가오. 아파도 안 가오, 나는. 어지간히 아파서는 병원을 안 가오. 이 아이들은 약을 먹으라고 하지. 약을 먹으라고. 내가 약을 안 먹소. 좀처럼 약을 안 먹소, 내. 그래 아프면 어디서 풀을 뜯어 먹으면 이 풀이 좋은 것이라면 그 풀을 뜯어서 우려서 먹어도 약은 안 먹소.}

@ 아매 조금 아까 이 형것이, 시향세라구 그러셨습둥?{할머니! 조금 아까 이 천이 '시향세'라고 하셨습니까?}

# 야 시향세.{시향세.}

@ 시향세.{시향세.}

# 시향세 기계 어떤 형것인가 가만 요거 빼오. 내 가져다 베울게 있소.{‘시향세’ 그것이 어떤 천인지 가만 요거 빼오. 내가 가져가다 보일 게 있소.}

@1 아!{아!}

10801 @ 음. 으음. 그러면은 그럼 아매 예: 단옷날은 무스거 하셨습둥? 여기서. 단이, 단잇날은?{음. 으음. 그러면은 그럼 할머니 예 단옷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단오, 단옷날은?}

10801 # 시방, 시방 단옷날이무 어:: 그 우리 에따(это) 조선사람덜이 싹 모다서 여기 에따(это) 어:: 싹보리스(сон борис)라구서리. 싹보리스(сон борис)라구 여기 에따(это) 조선 헤재~이던지 어티기 난 그거 말으 하기 바뿌오. 그 우리 조선사람덜이 싹 그 사름게 거저 기래. 그 사름이 어 재비 그 더 벨리아이스(белый аист)라 하오, 그거. 기래 거기서 한 오백명씨 모두우. 어: 한 오백명씨 사적에서 와서 기래 오구 단오를 자알 세에. 기랜게 올해 단오르 못 세엿어. 작년에꺼지 그렇기 잘 세엿했어.{시방, 시방 단옷날이면 어 그 우리 음 조선사람들이 싹 모여서 여기 음 어 손(孫) 보리스. 손(孫) 보리스라고 여기 음 조선 회장이던지 어떻게 난 그거 말을 하기 힘드오. 그 우리 조선사람들이 싹 그 사람에게 그저 그래. 그 사람이 어 자기 그 더 '벨리아이스'[=학(鶴)]이라 하오, 그거. 그래 거기서 한 오백 명씩 모이오. 어 한 오백 명씩 사방에서 와서 그래 오고 단오를 잘 쇠어. 그 런데 올해 단오를 못 쇠었어. 작년까지 그렇게 잘 쇠었했어.}

10801 @ 무스거 하구 노음두?{무엇을 하고 놀니까?}

10801 # 기래구서 이렇기 그릇에다가서 싹 밥우 해에서 요렇기 싹, 싹 제마당 밥우 해에서 그렇기 딱 주구. 기래구 거기 해엿이랑 싹 거기다 담아서 요래 그릇에다 담아서 기래서 농가서 기래서 백이우. 먹구. 기래구서리 물두 주우. 기래구서 선물두 주우. 선물두 에따(это) 부채랑. 그래. 작년, 작년에는 부채르 좋은 거 받았했어. 그렇기 선물두 주구, 그래오. {그래고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싹 밥을 해서 요렇게 싹, 싹 저마다 밥을 해서 그렇게 딱 주고. 그리고 거기 반찬이랑 싹 거기다 담아서 요렇게 그릇에다 담아서 그래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먹이오. 먹고. 그리고 물도 주오. 그리고 선물도 주오. 선물도 음 부채랑. 그 래. 작년, 작년에는 부채를 좋은 거 받았어. 그렇게 선물도 주고 그러오.}

10801 @ 그러면 이렇게 뭘 여자덜이 뭘 타는 거 있재임둥? 줄으 매구서 그런 건 아이 하암

둥?{그러면 이렇게 뭘 여자들이 뭘 타는 거 있잖습니까? 줄을 매고서 그런 건 안 합니까?}

10801 # 야, 그건 그거 없어. 야~ 그거 굴기 없어.{야, 그건 그거 없어. 그거 그네가 없어.}

10801 @ 아, 굴기.{아, 그네.}

10801 # 야~ 굴기 없어. 여기 그렇기 그저 모다서는 에따(это).{응 그네가 없어. 여기 그렇게 그저 모여서는 음.}

10801 @ 그 누가 하무 좋을텐데.{그 누가 그네를 매면 좋을 텐데.}

10801 # 아~.{응.}

10801 @ 이렇게 해서 굴기 매문.{이렇게 해서 그네를 매면.}

10801 # 널두 없어. 널 뛰는 게. 그전에는 야! 에 에따(это) 그 켄뜨르(центр)라는 데 있어, 이 름이. 거기 조선사람덜이 켄뜨르라구서리. 저 저기 뽀로샤(площадка) 장채이오? 여기 큰 뽀로샤 장소. 거기 켄뜨르 있어. 조선. 거기서 에따(это) 널두 뛰구 굴기두 매구 그랬했어. 어느해 한 번으는. 기래구 시방은 저기 가서느 널두 뛰는 게 없구 굴기 뛰는 게 없구 그저 노래르 부루구 그저 기랩데.{널도 없어. 널 뛰는 것이. 그전에는 야! 에 음 그 센터라는 데가 있어, 이름이. 거기 조선사람들 센터라고서. 저 저기 경기장을 짓잖소? 여기 큰 경기장을 짓소. 거기 센터가 있어. 조선. 거기서 음 널도 뛰고 그네도 매고 그랬했어. 어느 해 한 번은. 그리고 시방은 저기 가서는 널도 뛰는 사람이 없고 그네를 뛰는 사람도 없고 그저 노래를 부르고 그거 그러데.}

10801 @ 그러면은 아매 그 초괘일이나 취석 때는 머 머 아이 했습둥?{그러면 할머니 그 초괘일이나 추석 때는 뭘 뭘 안 했습니까?}

10801 # 치석에는, 어 치석에는 치석에는 산으르 갖다 오구 그저 그래오. 산으르 가오.{추석에는, 어 추석에는 추석에는 산소에 갔다 오고 그저 그래오. 산소를 가오.}

10801 @ 아 산으르.{아 산소로.}

10801 # 치석에는. 아, 치석에는. 한식에두 산으르 가구. 여기서느 그럼데. 응.{추석에는. 응, 추석에는. 한식에도 산소로 가고. 여기서느 그러데. 응.}

10801 @ 한식에두.{한식에도.}

10801 # 한식에두 가구 치석에두 가구 그렇기 가압데. 산으로 가오. 산으르 가기마 하무 음식 이랑 자알 채레 가지구 가오.{한식에도 가고 추석에도 가고 그렇게 가데. 산소로 가오. 산소로 가기만 하면 음식이랑 잘 차려 가지고 가오.}

10801 @ 무슨 음식을 채레가지구 가암둥?{무슨 음식을 차려가지고 갑니까?}

10801 # 임석올르 그저 밥두 해에 가지구 가구 여러가지 해엿이두 가지구 가구 어: 패실두 가지구 가구, 고기두 가지구 가구 물고기두 가지구 가구 무스거 마~이 가지구 가오. 기래 올해는 한식에 조영식이 왔습데. 조영식이 와서 우리 그거 싹 그 임석이 채린 게랑 잡소라이까테 거저 딱 한 가지 고저 췌에 잡습구 더 아이 잡습습데. 야~ 기래 와서 사진 하나 찍었어. 찍었했어. 우리 아들이 산에 와서 사진 찍어. 기래 우리 아바이 사망했다이까 데 야! 그 산두 가 바야 테지 하매서 기래더이. 기래 거저 우리 아바이는 딱 질역에 있다 나이까테 거저 가고 오는 사름이 다 보오.{음식으로 그저 밥도 해서 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반찬도 가지고 가고 어 과일도 가지고 가고, 고기도 가지고 가고 물고기도 가지고 가고 뭘 많이 가지고 가오. 기래 올해는 한식에 조영식 원장이 왔데. 조영식 원장이 와서 우리 그거 싹 그 음식 차린 것이랑 잡수라 하니까 그저 딱 한 가지 그저 집어 잡숫고 더

안 잡수시데. 응 그래 와서 사진 하나 찍었어. 찍었됐어. 우리 아들이 산소에 와서 사진 찍어. 그래 우리 영감이 사망했다 하니까 아! 그 산소도 가 봐야 되지 하면서 그러더니.

그래 그제 우리 영감은 딱 길가에 있다 보니까 그제 가고 오는 사람이 다 보요.}

@ 음. 거기는 그: 우리 고렷사람들이 이룻기 쪽: 다아 모여 있슴둥?{음 거기는 그 우리 고렷 사람들이 이렇게 쪽 다 모여 있습니까?}

# 싹 고렷, 조 조선사람들이. 싹 조선사람들이. 타국사람들이 거기 없어. 우리 아들이 아바이 있는데는 타국 사람이 없어. 호옥시 잇구 싹 조선사람들이. 그렇기 잇소.{싹 고렷, 조 조선사람들이. 싹 조선사람들이. 타국 사람들이 거기 없어. 우리 아들과 영감이 있는데는 타국 사람들이 없어. 혹시 있고 싹 조선사람들이 있지. 그렇게 잇소.}

@ 여기는 아매, 여기서는 고렷사람이라구 말을 많이 함둥 조선사람이라구 말을 많이 함둥?{여기는 할머니, 여기서는 ‘고렷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까 ‘조선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까?}

# 조선사람이라구 혹시 하구 고렷사람이라구 치우라 하구.{조선사람이라고 혹시 하고 ‘고렷사람’이라고 전적으로 하고.}

@ 치우라 하구.{전적으로 하고.}

# 아, 치우라 하구.{음, 전적으로 하고.}

@ 음.{음.}

# 아.{음.}

@ 음.{음.}

# 기라구 여기서 어: 노시아사람들의 노시아사람이라구 아이 부르는 사람이 적소. 부르는 사람이 적소. 게 그제 마우제라 하지. 그래 마우제라구 하지. 그제 그렇기 부르오.{그리고 여기서 어 러시아 사람들은 ‘노시아 사람’이라고 안 부르는 사람이 적소. 부르는 사람이 적소. 그래 그제 ‘마우제’라 하지. 그래 마우제라고 하지. 그제 그렇게 부르오.}

@ 그럼 끼다이는 뭐라구 부릅둥?{그럼 중국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 어 끼다이는 중국사람들이라구. 기라구 일본사람들이라 하구.{어 중국사람은 ‘중국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일본사람들’이라 하고.}

@ 음.{음.}

# 그렇기 말하오.{그렇게 말하오.}

@ 야쁜스끼.{일본인.}

# 야~.{음.}

@ 일본사람들이라구.{‘일본사람들’이라고.}

# 야~. 일본사람들이라 하구.{음. ‘일본사람들’이라 하고.}

@ 으음.{으음.}

# 그렇기 말하오. 여기서. 기래두 우리네 쌀이 중국에서 어지서 우리 쌀이 알게 밥우 해서 먹지. 어 중국에서 쌀이 없으무 없소. 기래구서르 까자흐스탄에서 시방 쌀이 들어오는 게 모: 지리 몹쓸 쌀이 들어오오, 거기선. 맛이 없어. 기래구 시바~으느 올부터는 노시아쌀이 들옴데.{그렇게 말하오. 여기서. 그래도 우리네 쌀이 중국에서 어디서 우리 쌀이 이렇게 와서 밥을 해서 먹지. 어 중국에서 쌀이 없으면 없소.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시방 쌀이 들어오는 것이 몹시 몹쓸 쌀이 들어오오, 거기서는. 맛이 없어. 그리고 시방은 올부터는 러시아 쌀이 들어오테.}

@ 으음.{음.}

# 기래 우리네는 야덜이 이라지. 아매! 통쌀으 싹지 마구 싹래기르 싹자구. 야! 통쌀으 싹라! 기래두 통쌀 밥우 하재왕구 어찌 맨 그런 거 싹래기르 먹겠는가. 나야 싹래기 맛이 없다. 아매! 통쌀으 싹자무 비싸오. 통쌀은 한 커우대에 스물 다섯 킬로에 어 이천 삼백 원 내~이구. 싹래기느 신: 킬로에 일천 일백 저기 닷, 신 냥. 기래 이번에 아~들이 내 두루:두루 그제 돈으 잇던 돈으 주메서리 이랬지. 기랩 이거 가지구 이제 뻔싹 올라가무 다아 올라간다구. 쌀두 올라가구 지름두 올라가구 다아 올라간다구, 기래이 싹자구. 기래 아매 통쌀은 한 커우대만 싹기오. 기래구 싹래기 싹자구. 야! 싹래기 맛이 없다. 아 맛이 없어두 일없소. 우리는 좋아하오. 저네는 좋아한다지. 기래매 싹자지. 기래 싹래기 한 커우대 쌀으 한 커우대 통쌀이 한 커우대 같기 한 커우대. 기래 싹매서리 어전 이래무 우리 한해, 일년을 먹는다. 일년을 먹짐 그래구.{그래 우리네는 이 아이들이 이라지. 할머니! 통쌀을 사지 말고 싹라기를 사자고. 야! 통쌀을 사라! 그래도 통쌀 밥을 하지 않고 어찌 맨 그런 거 싹라기를 먹겠는가. 나야 싹라기 맛이 없다. 할머니! 통쌀을 사려면 비싸오. 통쌀은 한 자루에 25킬로그램에 어 2,350냥이고. 싹라기는 50킬로그램에 1,150냥이고. 그래 이번에 아이들이 내 두루 두루 그제 돈을 잇던 돈을 주면서 이랬지. 그럼 이거 가지고 (사라고). 이제 연금이 올라가면 물가(物價)가 다 올라간다고. 쌀도 올라가고 기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고, 그러니 사자고. 그래 할머니 통쌀은 한 자루만 삼시다. 그리고 싹라기를 사자고. 야! 싹라기 맛이 없다. 아, 맛이 없어도 괜찮소. 우리는 좋아하오. 자기네는 좋아한다지. 그러면서 사자고 하지. 그래 싹라기 한 자루, 쌀을 한 자루 통쌀이 한 자루, 가루가 한 자루. 그렇게 사면서 이제 이러면 우리 한 해, 일년을 먹는다고. 일년을 먹지 뭐 그러고.}

10203 @ 그럼 아매 그러면 좀 즐거운 얘기를 좀 여쭙 보겠습꾸마. 그럼 아매 그: 아바니를 어떻게 만나서 언제 에 저 이 결혼했슴둥?{그럼 할머니 그러면 좀 즐거운 얘기를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서 언제 에 저 결혼을 했습니까?}

10201 # 칠리서, 내 칠리라는 데서.{칠리서, 내가 칠리라는 데서.}

10201 @ 아가 말씀하셧죠.{아가 말씀하셧지요.}

10201 # 어 칠리라는 데서, 내 우리 삼추이 따쉬겐뜨서 살앗지, 삼추이. 뽀뽀 동새애 사는데. 우리 칠리서두 잘 못 살았됐어. 기래 칠리서 살메서리 에 야! 에 우리 어 따시겐트 어: 그때 꼬호즈(колюз) 텃됐어. 개 꼬호즈(колюз)는 새아가덜이 이룻기 아이 입는다구. 우티르 잘: 입는다구 기래지. 아! 그레이 우리네는사 거기서 칠리서두 구차하다나이 우티르 잘 모 입었지. 기래 그전에 잘 모 입다나이. 내 그때 어: 사십팔년도에 따시겐트로 왔소. 사십팔년도에 열아홉살에 텃됐어. 사십팔년도에 내 열 아홉 살이 댕어. 열아홉살에 내 봄에 왔소. 어느 달에 온거 내 기억치 못하겠어.{어 칠리라는 데서, 내 우리 삼춘이 타슈켄트에서 살았지, 삼춘이. 아버지 동생이 사는데. 우리 칠리서도 잘 못 살았됐어. 그래 칠리서 살면서 에 야! 에 우리 어 타슈켄트 어 그 때 콜호스가 되엿었어. 그래 콜호스는 처녀들이 이렇게 옷을 안 입는다고. 옷을 잘 입는다고 그러지. 아! 그러니 우리네는야 거기서 칠리에서도 구차하다 보니 옷을 잘 못 입었지. 그래 그전에 잘 못 입다 보니. 내가 그 때 어 1948년도에 타슈켄트로 왔소. 1948년도에 열 아홉 살이 되었어. 1948년도에 내가 열 아홉 살이 되었어. 열 아홉 살에 내가 봄에 왔소. 어느 달에 왔는지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어.}

10201 @ 음.{음.}

10201 # 봄에 왔소. 기레 봄에 와서 어: 우리 삼춘이 이래지 마. 여기와서 별기마 하무 어: 네 웃으느 해 입을 쉬 잇다구. 따시켄뜨는 형겅이두 많구 어: 사는 것두 어 체르 아이 먹구 쌀으 먹구 어: 같기두 좋은 같그 먹구 따시켄뜨서는 그래. 개 그래 옛날에 어: 그전에 우리 따시켄뜨서 살 적에 어 그룽기 말했어. 저 까자끄스탄 살적에 저 따시켄뜨는 어: 락도 시라구. 락이 많다나이 락도시라구. 그룽기 이름 절엇댓어. 따시켄뜨르. 기레 가자구 나르. 내 그때 열아홉살인 거. 야! 가자 가서 네 가 잇으무 어 우리 헤~이느 시집가다나이어 남퍼이가 같이 거기 쭈미나리끄라는 데서 살앗댓어. 기레 네 가자. 가서 거기 가서 니 웃으 벌이르 해라. 기레 삼춘 따라서 거기르 왔지, 열아홉살인게. 기레 집에서 입던 우티느 어: 파이난 거 입구 땡겅댓어. 파이 나서 이래 집운 것두 입구. 기레. 기레 나르 여길 온다 해서 따시켄뜨르 온다 해서 뿔라찌르(платье), 마뿌치(матрац=요, лапоть=나무겅질 신, 짚신)르 두 개르 우리 마마 해에서 기레 나르 입해서 기레 보냈지. 기레구 낡은 우티르 가지구 기레구서리 따시켄뜨르 열아홉살인게 왔어. 기레 와서 따시켄트 봄에 와서 그으 봄울르 어 노빌지지니(новая жизнь)라는 테르 내 갔어. 부존이라는 꼬호즈(колхоз)로 오기는 부존이라는 꼬호즈(колхоз)르 왔댓어.{봄에 왔소. 그래 봄에 와서 어 우리 삼춘이 이러지 뉘. 여기 와서 별기만 하면 어 네 웃은 해 입을 수가 있다고. 타슈켄트는 천도 많고 어 사는 것도 어 겨를 안 먹고 쌀을 먹고 어 가루도 좋은 가루를 먹고 타슈켄트는 그래. 그래 옛날에 어 그전에 우리 옛날에 타슈켄트에서 살 적에 그렇게 말했어. 저 카자흐스탄에 살 적에 저 타슈켄트는 빵 도시라고. 빵이 많다 보니 빵 도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어. 타슈켄트를. 그래 가자고. 내 그 때 열 아홉 살인데. 야! 가자 가서 네 가 가 있으면 어 우리 형은 어 시집을 가다 보니 어 남편과 같이 거기 쭈미나리끄라는 데서 살앗댓어. 그래 너 가자. 가서 거기 가서 네 웃 벌이를 해라. 그래 삼춘을 따라서 거기를 갔지, 열 아홉 살인 것이. 그래 집에서 입던 웃은 어 헤어진 거 입고 다녔었어. 헤어져서 이렇게 기운 것도 입고. 그래. 그래 나를 여기를 온다 해서 타슈켄트로 온다고 해서 원피스, 신을 두 개를 우리 어머니가 해서 그렇게 해서 나를 입혀서 보냈지. 그리고 낡은 옷을 가지고 그리하고서 타슈켄트를 열 아홉 살 먹은 것이 왔어. 그래 와서, 타슈켄트를 봄에 와서 그 봄에 노보이즈지니(새로운 삶)이라는 데로 내가 갔어. 부존이라는 콜호스로, 오기는 부존 콜호스로 왔었어.}

10201 @ 부존?{부존?}

10201 # 부존이. 부존이르 와서 거기서 봄에 인차 나르 꼬호즈(колхоз)르 테레갑테. 노호브라는 꼬호즈(колхоз)르. 기레 테레갔는데 거기서 새아가덜이 많엿소. 우리 새아가덜이 따: 이 베질으 했댓어. 베질해서. 기렌데 내 나땡기는 우티느 하나 댕어 나~. 아 형겅은 이럼 이 마이라 했어. 마이라구서리. 그렇기. 그래 뿔라찌르 두벌으 두울이 해 입구 왔는데, 한 나 뿔라찌르 입구 일할라 자꾸 땡기다나이어 이 잔더리에 이게 다아 땀에 이에서 파이 나서 형겅이 그전에는 없엇댓어 나~. 집어 입재두 없엇댓어 형겅이, 어디메서. 기레 내 동미 박마르세라구 잇었지. 그 마르세 그러지. 야! 네 이제 이 처매 뿔라찌 다 파이났는데 니 우리 아버지 적삼 입구 땡게라. 기레 기레문 나르 달라구. 기레 그 적삼우 야~. 어, 그 마르셀르나(марсeлeнa) 나르 적삼우 그 마르셀르나두 내가 동겅이우. 죽었소 가야두 죽었소. 가야느 일찍이 죽었소. 가야느 신 살 전에 죽엇댓어. 가야느 잘 살앗댓어. 기레 나르 거저 그래 이래 무시기 잇으무 밭으두 정슴 싸가지구 가무 나르 맥이구. 나는 기레

부존이란 꼬호즈(колхоз)르 와서 야~ 어따(это) 그 헤재~이 나르 아매네 집에 아바이 아매 잇는 그 집에다 한 칸에다가 나르 그런 집우 주움테. 기레 나느 그 집이서 사십 어:: 팔년도에 와서 거기에서 내 농세질으 하매 베밭에서 일하매 거기서 살앗댓어. 재빌르. 에따(это) 그전에는 이룽기 사람이 일하지 아윙겅소? 노르마(норма)르 주오. 쌀으 엠매씨 이룽기 노르마르 주오. 기레 같그두 엠매씨 주구 노르마르 주구. 단건 없엇댓어. 싸하르(caxap)라는 건 없엇댓어. 거저 같그 주구 쌀으 주구. 어따(это) 그래 자이랑 이런 거느 우리 삼춘덱이 자이랑 줘. 기레 그저 무스 밥우 해두 그 자에다 거저 먹지 다른 거느 먹을 게 없엇댓어. 그룽기 살앗댓어, 내. 기레 아츨이무 일할라 가자무 그: 마르세랑 둘이서 베밭으 가자기마 하무 가야느 잘 사다나йка테 에 잘 먹구 가지. 나는: 그 췌인집 밭에 능금나기 이에 잇지 야~. 이쪽:이 데오 기게. 그 능금이 셋하얀 능금이. 거기다가 락으 한, 한 쪼배기르 가지구 그 능금 한나 떼에 먹구 기레구 일할라 가지. 일할라 갈 적에 그렇기 일할라 갔댓어. 내 그때 열아홉살이땡댓어.{부존. 부존으로 와서 거기서 봄에 이내 나를 콜호스로 데려가테. 노호브라는 콜호스로. 그래 데려갔는데 거기에 처녀들이 많았어. 우리 처녀들이 많이 벼농사를 지었댓어. 벼농사를 지어서. 그런데 내가 나다니는 웃은 하나였어 응. 아 친은 이름이 ‘마이’라 했어. ‘마이’라고서. 그렇게. 그래 원피스를 두 벌을 둘이 해 입고 왔는데, 하나 원피스를 입고 일을 하러 자꾸 다니다 보니 이 잔등에 이게 다 땀에 이래서 헤어져서 친이 그전에는 없었어 응. 기위 입자고 해도 없었어, 친이 어디서. 그래 내 동무 박마르세라고 있었지. 그 마르세 그러지. 야! 네가 이제 치마 원피스 다 헤어졌는데 네 우리 아버지 적삼을 입고 다녀라. 그래, 그래서 나를 달라고. 그래 그 적삼을 응. 어, 그 마르셀르나가 나에게 적삼을 (주었지) 그 마르셀르나도 나와 동갑이오. 죽었소 그 아이도 죽었소. 그 아이는 일찍 죽었소. 그 아이는 신 살 때 죽었어. 그 아이는 잘 살았어. 그래 나에게 이렇게 무엇이 있으면 밭으로 점심을 싸 가지고 가면 나를 먹이고. 나는 그래 부존이라는 콜호스로 와서 응 음 그 회장이 나를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잇는 그 집의 방 한 칸에다가, 나에게 그런 집을 주테. 그래 나는 그 집에서 1948년도에 와서 거기 와서 내 농사일을 하며 논에서 일하며 거기서 살았어. 내 스스로. 음 그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일하지 않겅소? 배급을 주오. 쌀을 얼마씩 이렇게 배급을 주오. 그래 가루도 얼마씩 배급을 주고. 단 건 없었어. 설탕이라는 것은 없었어. 그저 가루를 주고 쌀을 주고. 음 그래 장이랑 이런 것은 우리 삼춘덱이 장이랑 줘. 그래 그저 뉘 밭을 해도 그 장에다 그저 먹지 다른 것은 먹을 것이 없었어. 그렇게 살았어, 내가. 그래 아침이면 일하러 가자면 그 마르세랑 둘이서 논을 가자 하기만 하면 그 아이는 잘 사니까 에 잘 먹고 가지. 나는 그 주인집 밭에 능금나무가 있지 응. 일찍이 되오 그게. 그 능금이, 새하얀 능금이. 거기다가 빵을 한, 한 조각을 가지고 그 능금 하나 따 먹고 그리고 일하러 가지. 일하러 갈 적에 그렇게 일하러 갔었어. 내가 그때 열 아홉 살이였었어.}

10201 @ 그런데 거기서 새아가덜이 무스거 일으 했슴둥? 베밭에서?[그런데 처녀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10201 # 거저 베밭에서 싹 일하지.{그저 논에서 싹 일하지.}

10201 @ 그러니까 베밭에서 무스거 할 일이 있슴둥?[그러니까 논에서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10201 # 지슴매지. 지심이 매지.{김매지. 김을 매지.}

10201 @ 아, 지슴.{아, 김매기를.}

10201 # 아~ 지슴으 매지. 그 베발에르 썩 심어 놓구선 지슴. 새아가덜이 그때는 많앿땀어. 열 아홉뿔 땀땀어. 그래 그 새아아덜은 나는 내 혼자구 가아덜은 어시덜 다아 잇구. 개 정 슴우는 가아덜 잘 썩 가지구 가서 나르 잘 뻬이오. 개구 저녁에 올 적에느 어따(это) 짚 은 입석으 나르 주우. 네 가지구 가서 저녁 먹으라 이래구서 나르 주지. 기래무 어떤 적 에느 그거 먹구 자구. 이튿날 아침이무 그 능금에다가서리 뻬으 한조배기 먹구 일할라 가구 그렇기 살앿땀어.{응 김을 매지. 그 논에서 썩 심어 놓고서 김. 처녀들이 그 때는 많았었어. 열 아홉 뿔씩 되었었어. 그래 그 처녀들은, 나는 나 혼자고, 그 아이들은 부모 가 다 있고. 그래 점심은 그 아이들 잘 썩 가지고 가서 나를 잘 먹이오. 그리고 저녁에 올 적에는 음 남은 음식을 나에게 주오. 네가 가지고 가서 저녁을 먹으라고 이래고서 나 에게 주지. 그러면 어떤 때는 그거 먹고 자고. 이튿날 아침이면 그 능금에다가 빵을 한 조각을 먹고 일하러 가고 그렇게 살앿었어.}

10203 @ 음.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영감님을 만나셨습둥?{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 다가 어떻게 영감님을 만나셨습니까?}

10203 # 어어, 그때는 그래구 그때 내 어전으 스물 그해 농새르 해서 쌀, 이렇게 베르 저서 쌀 으 우리 삼춘댁이 바이 그전에는 에따(это) 메르니짜(мельница)라는 게 없구 썩 바이다 쥘소. 기래 바이다 썩어서 나르 그 쌀으 썩 팔아서, 썩 팔아서 나르 수건두 싸라구 돈으 주구 어 신발두 싸라구 줘. 돈으 주구 그거 팔아서. 기래 그땀에 내 옷이 깨까::뻬땀어. 그 집운 우티 집운 우티르 입구서리 그양 땀기다. 기래 우리 동미아덜이 이래지. 야아! 어찌기 니 다른 옷이 없는가구. 기래 그 마르세르라는 옷이 잇어두 내 그땀 컷어 키. 내 어찌 시방 어찌 늙으이 키 좀 작아졌어.{어, 그 때는 그러고 그 때 내가 이젠 스물, 그 해 농사를 해서 쌀, 이렇게 벼농사를 지어서 쌀을, 우리 삼춘댁이 방아, 그전에는 음 연 자방앗간이라는 것이 없고 썩 디딜방아에다 쥘소. 그래 방아에다 쥘어서 나에게, 그 쌀을 썩 팔아서, 썩 팔아서 나에게 수건도 사라고 돈을 주고 어 신발도 사라고 줘. 돈을 주고, 그거 팔아서. 그래 그땀에 내 옷이 깨끗했었어. 그 기운 옷, 기운 옷을 입고서 그냥 다니 다가. 그래 우리 동무 아이들이 이러지. 야! 어떻게 너는 다른 옷이 없는가 하고. 그래 그 마르세르라는 옷이 있어도, 내 그땀 컷어 키가. 내 어찌 시방 어찌 늙으니까 키가 좀 작 아졌어.}

10203 @ 쫄어들었지.{줄어들었지.}

10203 # 야아, 작아, 기래 내 키 좀 컷지. 좀 실했댔소. 그렇기 잘 아이 먹어도 내 이롱기 약하 재잇땀어. 기래, 기래 이래지. 야! 내 옷이 네게 맞았으무 내 너르 아이 주겠는가구. 다른 아덜두 구차하다나이 가아덜두 그렇기 옷이 없었땀어. 이 야느 이 마르세르나는 조끔 이 롱기 사다나이 옷이 잇어서 나르 입히자두 어 아이 땀단 말이오. 입힐 게 없어. 기래 재 비 애비 우티르 늘상 적삼우 나르 주짐. 기애 그거 입구 일할라 땀게 맞땀어. 기래 그저 어 그해 그래 벌어서 쌀으 타서 베르 타서 쥘어서 기래 옷이랑 해에서 입구. 그 답에느 내 조끔 땀땀어. 놀라랑 땀땀어. 그전에는 옷이 없다나이 어디메르 구락부랑 못 땀게땀 어. 끼노(кино)랑 못 땀게땀어. 옷이 없다나이 내 무스거 입구 땀기꺾어. 신발이두 없었 땀어. 신발이느 우리네 무스거 신은 줄 아오? 그전에는 신발 발으 뻬구 땀기꺾지. 그러나 이 이제와서는 사십팔년도에 와서는 어따(это) 그런 거 어 마шина(машина) 바키 잇제이 오? 마шина(машина) 바키르 그거 꺾질을 발가서 나~ 엔: 꺾에 꺾지르 쥘에뿌리구 그 안 에 꺾지 얇은 게 잇소. 그거 그래서 도레기처리 해에서 그런 신발이 야~ 도레기처르 해

에서 그런 신발 신구 놀라 땀게두 그 신발 신구 땀기구 일하라 땀게두 그 신발으 신구 땀기구. 그래두 발바닥이 일없었어. 그 신발 신구 땀기이 발바닥이 그렇게 새카맣제얏소. 그전에는 아아 땀느 이 발이나 무시기나 없었댔소 새카맣지. 그렇지. 어저느 내 열아홉살 먹으이까데 그런 신발 신구. 어: 발이 어지럽제얏땀어. 기래구 그 답에 그거 팔년도에 벌 어서 신발두 싸구 어:: 옷이두 형겅으 싸서 옷이두 해 입구. 그 답에 열아홉살이 땀땀어. 열아홉살 땀는데 어저느 기게 어: 팔년도에 구연도이까데 스무살이 땀땀어. 구연도에 내 스무살 먹었어. 스무 살 먹으이 이제 완으로 목하 목하 잇제이오? 우리 꼬호즈(колюз)느 목하 없지. 목하 발으르 땀기꺾지, 먼데랑. 개 어전 스물살 대실 적에 머리 질었땀어. 어 전 열 다스에 자른 머리 어전 질어서 이라:하게 네레왔지. 야아! 그땀두 이 잇었땀어. 옷 으 오 온전히 이 해 입어두 옷이 이 잇었땀어. 그렇게 그 잘 입는다 해두 구차하지. 그래 두 어시 없다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지 예잉구 내 혼자 사노라이 예: 스무살 대실 적에 예: 좀 우리 삼춘네 집에 이시메 이쥘에두 이시메 꼬호즈(колюз)느 개두 부춘에 우리 삼춘 잇는 데서 이시메 동살에는 거기가 잇구, 볼에느 또 이쥘에 와서 어: 목하발에 서두 일하구 베발에서두 일하구. 그렇기 일해서 기애두 어 그런 거 식료랑 개두 이롱기 쥘땀어, 그래 먹으라구. 그래 기래메서두 개:두 옷으두 우리 집안 아재라구 또 잇었땀어. 원도서부터 같이 잇던 사제 그 노보즈니 와서. 그 아재 나르 이롱기 우에 우티구 주구 그땀땀어. 기래서 그 옷으 그래 입구 그래두 어: 구락부랑 땀거 그 끼노(кино)랑 땀게 그 래 땀어. 기란데 우리 내 어전으 스무살 땀지 야~ 스무살 땀는데 우리 영감이 해~이 목 하발에 가서 이래짐. 야! 따샤, 내 너르 제시, 그럴 적에 나는 우리 영감 못 땀어. 우리 영감으느 어:: 그땀 파시켄트서 어: 글으 일꺾어. 저 그런 거 한 해짜리 에 끼노(кино) 쥘 꾸니꿈(техникум), 이 쥘꾸니꿈(техникум) 아이오. 우치, 시방으느 우칠리시(училищ e)라구 하지 그저 우칠리시(училище)라구. 그거 끼노(кино)르 배우느 이 그런 글으 일 꺾지. 기래 한 해 짜리 이르구서리 에…….{야! 작아. 내가 키가 좀 컷지. 좀 실했댔소. 그 랑게 잘 안 먹어도 내가 이렇게 약하지는 앗았었어. 그래 그래 이러지. 야! 내 옷이 네게 맞았으면 너에게 안 주겠는가 하고. 다른 아이들도 구차하다 보니 그 아이들도 그렇게 옷이 없었어. 이 아이는, 이 마르세르나는 조끔 이렇게 살다 보니 옷이 잇어서 나를 입히 자고 해도 어 안 되었던 말이오. 입힐 것이 없어. 그래 자기 아버지 옷을 늘상 적삼을 나 에게 주지 땀. 그래 그거 입고 일하러 다녀 보았어. 그 해 벌어서 쌀을 타서 벼를 타서 쥘어서 그래 옷이랑 해서 입고 그 다음에는 고끔 다녔어. 놀라랑 다녔어. 그전에는 옷이 없다 보니 어디 클럽을 못 다녀 땀어. 극장이랑 못 다녀 땀어. 옷이 없다 보니 무엇을 입 고 다니꺾어. 신발도 없었어. 신발은 우리네 무엇을 신은 줄 아오? 그전에는 발을 벗고 다녔지. 그러나 이제 와서는 1948년도에 와서는 음 그런 거 어 자동차 바퀴 잇잖소? 자 동차 바퀴를 그거 꺾질을 발라서 응 가장 겹의 꺾질을 내버리고 그 안에 꺾질 얇은 것이 잇소. 그거 그래서 다로기처럼 해서, 그런 신발 응 다로기처럼 해서 그런 신발을 신고 놀 러 다녀도 그 신발 신고 다니고, 일하러 다녀도 그 신발을 신고 다니고. 그래도 발바닥이 꺾잖았었어. 그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발바닥이 그렇게 새카맣지 앗았소. 그전에는 아이 때는 이 발이나 무엇이나 구분이 없었소, 새카맣지. 그렇지. 이제는 내가 열아홉 살 먹으 니까 그런 신발 신고. 어 발이 지저분하지 앗았어. 그 다음에 1948년도에 벌어서 신발도 사고 어 옷도 천을 사서 옷도 해 입고. 그 다음에는 열아홉 살이 되었땀어. 열아홉 살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 1948년도에서 1949년도가 되니까 스무 살이 되었어. 1949년도

에 내가 스무 살 먹었어. 목화밭을 다니지, 먼 곳으로. 그래 이젠 스무살 되었을 적에 머리가 길었잖아. 이제 열다섯에 기른 머리가 이젠 이렇게 내려왔지. 야! 그 때도 이가 있었어. 옷을 온전히 해 입어도 옷에 이가 있었어. 그렇게 그 잘 입는다고 해도 구차하지. 그래도 부모가 없다 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지 않고 나 혼자 사노라니 에 스무 살이 되었을 적에 에 좀 우리 삼촌네 집에 있으며 또 이쪽에도 있으며 콜호스는 그래도 부존에 우리 삼촌 있는 데서 있으며 겨울에는 거기에 가 있고, 봄에는 이쪽에 와서 어 목화밭에서 일하고 논에서도 일하고. 그렇게 일해서 그래도 어 그런 거 식료(食料)랑 그래도 이렇게 주었었어,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서도 그래도 옷도 우리 입안 아주머니라고 또 있었어. 원동서부터 같이 있던 사제 그 노보즈니 와서. 그 아주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위에 옷을 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옷을 그렇게 입고 그래도 어 클럽이랑 다녀 그 극장이랑 다녀 그렇게 해 봤어. 그런데 우리 내 이젠 스무 살이 되었지 응. 스무 살이 있었는데 우리 영감 형이 목화밭에 가서 이러지 뭐. 야! 따사, 내가 너를 제수(弟嫂)를 삼겠다고, 그럴 적에 나는 우리 영감을 못 보았어. 우리 영감은 어 그때 타슈켄트에서 공부를 했어. 그런 거, 한 해짜리 에 영화 전문학교, 이 전문학교 아니오. 지금은 ‘우칠리시(전문학교)’라고 하지. 그거 ‘우칠리시’라고. 영화를 배우는 이 그런 공부를 했지. 그래 한 해짜리 공부를 하고서 에…….}

10203 @ 책에서 봤습니까. 그 얘기 쟤끔 있습니까.{책에서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쏘끔 있습니다.}

10203 # 책에 있지. 그래 잇을 게오. 그 께끄니끄(техникум) 이르구 저기 우칠리시 이르구 그 답에는 어 우리 꼬호즈(Кохоз)르 왔지. 거기 해~이 잇었지. 기래 해~이가 같이 일하자구서리 거기르 왔지. 개 우리 시혜~이 그양 이래지. 따사! 내 너르 어따(это) 제시르 삼겠다. 우리 동세에 잇다구서리. 기래 기래두 내 옷이 없지 어디르 땡기지 못하지. 신발이 없지. 기래두 새애기 옷이 잇구 신발이 좋구 그래구야 어디르 놀라가서 기래두 어드메 총각아덜두 보구 이러지. 그래두 그때꺼지 내 총각아덜으 못밧밧어. 스무살 땡는데 내 총각아덜 못밧어. 한번두. 아 땡기지 않다나이 내 어드서 보겠어. 그저 일할라 갔다 오무집이구 집에서 또 일할라 가구 그저 그랬지. 그란데 음. 우리 영감이 쉰: 해, 신: 해에 아 우리 시, 시혜~이 저 따샤에게르 내 꼭 가야텐다구. 따샤에게르 가에 텐다구. 새애기 착실하다구. 기래 신 해에 에이! 나느 그렇기 못간다구. 아이 가다구 내. 우리 아버지랑 저 칠리에 있는데 내 못 간다구. 내 우리 시형가 기래지. 내 칠리르 가야텐다구. 여기서 내 에, 시가르 못간다구. 거기르 가야 텐다구. 갠데 우리 시혜~이 또 우리 영감 데리구 우리 삼촌인테르 갔단 말이지. 어 서르 대면두 못했는데. 삼촌인테르 가서 삼추이가 그러짐. 아이 이 우리 동세애르 이 따샤게르 어: 장가르 보내겠다구.{책에 있지. 그래 잇을 게오. 그 전문학교를 공부하고 저기 우칠리시 전문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어 우리 콜호스로 왔지. 거기 형이 있었지. 그래 형과 같이 일하려고 거기를 왔지. 그래 우리 시형이 그냥 이러지. 따사! 내가 너를 음 제수(弟嫂)를 삼겠다. 우리 동생이 있다고서. 그래 그래도 내 옷이 없지 어디를 다니지 못하지. 신발이 없지. 그래도 처녀가 옷이 있고 신발이 좋고 그래고서야 어디를 놀러가서 그래도 어디 총각 아이들도 보고 이러지. 그래도 그때까지 나는 총각 아이들을 못 보았었어. 스무 살이 있었는데 내 총각 아이들을 못 보았어. 한 번도. 아! 다니지 않다 보니 내가 어디서 보겠어. 그저 일하러 갔다 오면 집이고 집에서 또 일하러 가고 그저 그랬지. 그런데 음. 우리 영감이 1950년, 1950년도에 아 우

리 시형이 저 따샤에게로 꼭 네 꼭 장가를 가야 된다고. 따샤에게로 가야 된다고. 처녀가 착실하다고. 그래 1950년도에, 에이! 나는 그렇게 못 간다고. 안 가겠다고 내. 우리 아버지랑 저 칠리에 있는데 내 못 간다고. 내 우리 시형에게 그러지. 내 칠리를 가야 된다고. 여기서 내가 에, 시가(孀家)를 못 간다고. 거기를 가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시형이 또 우리 영감을 데리고 우리 삼촌한테로 갔단 말이지. 어 서로 대면도 못 했는데. 삼촌한테로 가서 삼촌과 그러지 뭐. 아이! 이 우리 동생을 이 따샤에게로 어 장가를 보내겠다고.}

10203 @ 음.{음.}

10203 # 아아, 저이찌리 맘:이 없는데. 나느 모른다구 우리 행님이 오무 어티기 내 이릉기 줘서 우리 행님이 미시기라 하겠는지. 나느 모르겠다구. 기래 아 네 땡이 잇으무 가가라 나르. 야! 나느 어째 그때 마음이 없습데, 저 우리 영감이. 그렇기 맘이 없습데. (웃음) 아아 기래두 우리 시혜~이 어떻게 권념하는지. 아 총각아덜으 한나투 못 밧지. 아, 어저느 나 이 어전 스물살 땡:지. 기래 거저 아즈바이 가라무 가겠다구. 아! 기랩 네 가겠으무, 나느 가라구 말하겠다구. 그러나 네 땡:이 잇으무 가라구. 아이 아즈바이 가라무 내 가겠다구. 기래 아즈바이 허락하이까테 멘목으 모르는데르서리 이릉기 갔어 내. 저 영감인테르.{아, 저희끼리 마음이 없는데. 나는 모른다고 우리 형님이 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조카를 주어서 무엇이라 하겠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래 아 네 마음이 있으면 가거라, 나에게. 야! 나는 어째 그때 마음이 없데, 저 우리 영감이. 그렇게 마음에 없데. (웃음) 아 그래도 어떻게나 우리 시형이 권하는지. 아 총각 아이들은 하나도 못 보았지. 아, 이제는 나이가 이젠 스무 살이 되었지. 그래 그저 작은아버지 가라면 가겠다고. 아! 그럼 네 가겠으면, 나는 가라고 말하겠다고. 그러나 네 마음이 있으면 가라고. 아니 작은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내가 시집을 가겠다고. 그래 작은아버지 허락하니까 멘목으 모르는 데로 시집을 갔어 내가. 저 영감한테로.}

10203 @ 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203 # 야:~!{응!}

10203 @ (웃음).{(웃음).}

10203 # 잘 모르구 갔어. 영감. 거저 우리 시혜~이 잘 알았지. 기래 우리 시혜~ 우리 영감 없을 적에 밧써 자꾸 제시 삼겠다구느 말했지.{잘 모르고 갔어. 영감. 그저 우리 시형이 잘 알았지. 그래 우리 시형이 우리 영감 없을 적에 밧써 자꾸 제수(弟嫂)를 삼겠다고는 말했지.}

10203 @ 그러니까 아매: 얼굴 어제 사진 봤재임둥? 제가.{그러니까 할머니 얼굴 어제 사진으로 봤잖습니까? 제가.}

10203 # 사진두 못 밧지.{사진도 못 보았지.}

10203 @ 아니! 제가 어저께 아매 사진 봤재임둥.{아니! 제가 어저께 할머니 사진을 보았잖습니까?}

10203 # 기래.{그래.}

10203 @ 그러이까 시형이 아매 얼굴도 곱구 맘두 곱구 그래니까 붙잡아 놓은 게꾸마.{그러니까 시형이 할머니 얼굴도 곱고 마음도 곱고 그러니까 붙잡아 놓은 것입니다.}

10203 # 기래, 기래 이래짐. 아이 우리 동세애 마음이 부체 같재임다구. 가무 산다구 산다구 이래메서리 기래지. 기래 아 모르구 기래두 갖지. 아 그래 신: 한 해에 허락해에서, 어 신 해에 허락해에서 신 한 해에 잔체르 했어.{그래, 그래 이러지 뭐. 아이, 우리 동생 마음이

부처 같지 않다고. 가면 산다고 산다고. 이러면서 그러지. 그래 아 모르고 그래도 갔지.  
아 그래 1951년에 허락을 해서, 어 1951년에 잔치를 했어.}

10203 @ 아아!{아아!}

10203 # 기래구 어 신 한 해에 저, 어: 신: 한 신 해에…… 어느게 오월이, 오월이 땃·소. 약혼  
[약·혼]이 데구. 신: 한 해 사월에 사월 예렛셋날에 잔체르 했땃어. 기래구 우리 아들이,  
그:: 신 해에느 어 잔체르 우리 시아바이 그러지, 잔체르 날이 없다구. 기래 신 한해 잔체  
르 하자구.{그리고 어 1951년에 저, 어 51년에…… 어느 게 5월이, 5월이 되었소. 약혼이  
되고. 51년 4월에 4월 열엿셋날에 잔치를 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50년에는 어 잔  
치를 우리 시아버지 그러지, 잔치를 할 날이 없다고. 그래 51년에 잔치를 하자고.}

10203 @ 음.{음.}

10203 # 기래йка데 우리 내 혼자 있다나йка데 우리 영겔이 땡기다나йка데 내 잉태 있어서  
큰 아르 설게 땃지. 신 한 해에 저 큰아 낳땃어.{그러니까 우리 내가 혼자 있다 보니 우  
리 영겔이 다니다 보니 내 잉태 있어서 큰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지. 51년에 저 큰아이를  
낳았어.}

10203 @ 아! 쉰 한 해에.{아! 1951년에.}

10203 # 신 한해에 낳소.{1951년에 낳았소.}

10203 @ 사월달에 결혼하셨는데.{4월에 결혼하셨는데.}

10203 # 신, 신 해에.{1950년에.}

10203 @ 한해?{1951년에?}

10203 # 신 해에 저기.{1950년에 저기.}

10203 @ 약혼하구.{약혼하고.}

10203 # 약혼으 어, 오월에 해엿지.{약혼을 어, 오월에 했지.}

10203 @ 오월에 하구.{오월에 하고.}

10203 # 어, 오월에 하구. 신 한 해에 삼월에, 사월에 예렛셋날에 잔체르 했어. 갠데 우리 큰아  
삼월에 낳땃어.{응, 오월에 하고. 1951년 3월에, 4월에 열엿셋날에 잔치를 했어. 그런데  
우리 큰아이 3월에 낳았어.}

10203 @ 아아!{아아!}

10203 # 아 삼월에 낳땃어. 그래 예 잔체르 아아 아아 나서 잔체르 했땃어 우리. 그렇기 잔체  
르 했어. 삼월 스무다셋날으 어 큰아 낳는데. 사월 열엿셋날 잔체르 했지. 기래 잔체르  
하구 그 다음에 우리 시어마이 시아바이 내 같이 이티르 잇었땃어. 기래 우리 시혜~이  
자꾸 에도르 해에서 아 내 저 만아들 붙잡구느 자꾸 에도르 해서 아무래 어 만아들가 같  
이 잇겠다구. 우리가 같이 이티르 잇구 만아들가 같이 잇었어. 만아들가 같이 잇구 그양  
잇다가 잇다가 우리 점먹 누비.{응 3월에 낳았어. 그래 예 아이를 낳아서 잔치를 했어 우  
리. 그렇게 잔치를 했어. 3월 스물다섯날에 어 큰아이를 낳았는데. 4월 열엿셋날 잔치를  
했지. 그래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와 같이 이태를 있었어.  
그래 우리 시형이 자꾸 외도를 해서, 내 저 만아들을 붙잡고는, 자꾸 외도를 해서 아무래  
도 만아들과 같이 있어야 되겠다고. 우리와 같이 이태를 있고 만아들과 같이 있었어. 만  
아들과 같이 있고 그냥 있다가 우리 막내 누이.}

10203 @ 으음. 절먹느비.{으음. 막내 누이.}

10203 # 야~ 점먹 누비두 하두 곱이 일으 잘 해에서 기래길래 와 대학으 필했어. 어 그런 어

이텐스끼야지Ц(немецкий язык) 독일이. 그 야지Ц(язык)르 그거 대학으 필했어. 그  
래.{응 막내 누이도 하도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어. 그런 어 독일어 독일.  
그 언어를 그거 대학을 졸업했어. 그래.}

10207 @ 그럼 아매 그: 잔체할 때.{그럼 할머니 그 잔치를 할 때.}

10207 # 잔체르 할 적에.{잔치를 할 적에.}

10207 @ 잔체 할 때 무스거 입우셨슴등?{잔치를 할 때에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10207 # 아이구! 없어서 그저 우린데서 점문 여자 우티르 하는 여자 잇었땃어. 그래 그 여자  
거저 흰 걸르 거저 거저 흰 형깃을르 거저 우티르 해 입했어. 기래구서리 거저 시집우  
가구. 우리 아바이두 그저 옷이 (쫓) 못쓸거 거저 그래 녀이게 빌어 아이 입을 상마:이  
기래 거저 옷으 입구 기래구서리 잔체르 했어. 에이구! 그계랑 말하문.{아이구! 없어서 그  
저 우리 사는 데서 젊은, 여자 옷을 짓는 여자가 있었어. 그래 그 여자 그저 흰 것으로  
그저 그저 흰 천으로 그저 옷을 해 입했어. 그래고서 그저 시집을 가고. 우리 할아버지  
(영감)도 그저 옷이 (쫓) 못쓸 거 그저 그래 남에게서 빌어 안 입을 모양만큼 그래 그저  
옷을 입고 그래고서 잔치를 했어. 어이구! 그걸 말하면.}

10208 @ 그래 그때 잔체는 어떻게 했슴등? 그러니까 잔체는?{그래 그때 잔치는 어떻게 했습니  
까? 그러니까 잔치는?}

10208 # 그때 잔체느 이룽기 했소 야~. 옥시끼 찰옥수끼 있소 야~. 찰옥수꿀르 어 떡으 찰떡  
처리 하구. 찰옥수꿀르 과줄으 했어. 우리 마마. 과줄 하구. 입쌀이 찰, 입쌀이 없어서 찰  
옥수꿀르 찰떡하구 찰옥수꿀루 가줄 하구. 기래구 돌피 잇제이오? 돌피. 돌피 입쌀이 섞  
인 그걸르 증편으 했땃어.{그 때 잔치는 이렇게 했소 응. 옥수수 찰옥수수 있소 응. 찰옥  
수수로 어 떡을 찰떡처럼 하고. 찰옥수수로 과줄을 했어. 우리 어머니. 과줄 하고. 입쌀  
찰, 입쌀이 없어서 찰옥수수로 찰떡하고 찰옥수수로 과줄을 하고. 그리고 돌피 있잖소?  
돌피. 돌피, 입쌀이 섞인 그것으로 증편을 했어.}

10208 @ 아아! 증편을.{아! 증편을.}

10208 # 증편 했어. 그래 하구. 기래구 우리 마마 그때 어느 해에 왔는가 하이 우리 마마 우리  
약호이 돼서 신:: 한 해에 예: 우리 마마 신: 한 해에 내 예 사월에 잔체르 하겠는데 어:  
신 한 해에 설달에 왔땃어.{증편을 했어. 그래 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 때 어느 해  
에 왔는가 하니 우리 어머니 약혼이 되어서 1951년에 예 우리 어머니 51년에 내 예 4월  
에 잔치를 하려는데 어 51년에 설달에 왔었어.}

10208 @ 아아!{아아!}

10208 # 기래 칠리서 올 적에 그 옥시쌀으 싹 쫓:서 어 가지구 왔어. 옥시쌀으. 찌어서 가지구  
와서 그 내 약호~이 땃다하~이 그 옥시쌀으 싹 찌:서 가지구서리 기래 와서 그 옥시쌀으  
어 찰떡 하자구 가지구 오구. 증편 하자구 가지구 오구. 기래구 내 빌어서 탄 쌀이 돌피  
쌀이 예따(ато) 입쌀 색인 거 내 땃지. 그거 싹 정미소에서 찌인 거 그런 쌀으 찌지. 기  
랜게 쌀 잇은 거 가지구서리 증편하구. 옥시쌀르 찰떡하구. 그 답에 예: 옥시쌀르 증편하  
구. 기래 어 우리 삼촌네 대에지 조오꼬만 게 잇었땃지. 기래 그 대에지르 잡아서 어: 고  
기르 놓구 삼추이네 닭이 잇었어. 기애 그 닭으 잡아서 닭으 잡아서 옛날처리 야~ 그  
사~에다 큰사~에다 닭으 이래 채리르 채레서 고웁게 채레서 기래구 사에다 놓구 기래구  
사~아 받았땃어. 기래 이래지. 우리 할미, 한어머니 이래지. 잔체는 가줄이 잇구 어: 그런  
거 닭이 잇구.{그래 칠리서 올 적에 그 옥수수쌀을 싹 쫓어서 어 가지고 왔어. 옥수수쌀



을. 찢어서 가지고 와서 그 내 약혼이 되었다 하니 그 옥수수쌀을 싹 찢서 가지고서 그 래 와서 그 옥수수쌀을 어 찰떡을 하려고 가지고 오고, 증편을 하자고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내가 벌어서 탄 쌀이 돌피쌀이 음 입쌀 섞인 거 내가 탕지. 그거 싹 정미소에서 찢은 거 그런 쌀을 샀지. 그런데 쌀 있는 것을 가지고 증편을 하고, 옥수수쌀로 찰떡하고. 그 다음에 에 옥수수쌀로 증편하고. 그래 어 우리 삼촌네 돼지 조그만 것이 있었지. 그래 그 돼지를 잡아서 어 고기를 놓고 삼촌네 닭이 있었어. 그래 그 닭을 잡아서 닭을 잡아서 옛날처럼 웅 큰 상에다 큰상에다 닭을 이래 차려서 곱게 차려서 상에다 놓고 그러고 상 을 받았어. 그래 이리지. 우리 할머니, 할머니가 이리지. 잔치는 과줄이 있고 어 그런 거 닭이 있고.}

10208 @ 닭이.{닭이.}

10208 # 어, 닭이.{어, 닭이.}

10208 @ 꼭 있어야 데지.{꼭 있어야 되지.}

10208 # 영 닭이 있구 대애지 갈비 있어야 댕다구. 그렇기 얘:기르 하매 대애지 갈비르 놓구 닭으 잡아놓구 어: 가줄으 놓구 개 그때는 단계랑 게 그렇기 조마네 없었댕어. 기애 단 것두 잇으무 그렇게 좋은거는. 시방처리 어디에서 단계 잇었댕어. 그 사타~이 꼬리꼬리 만 게 요런 게 잇었댕어. 그 사타~아 기래 한 가지 놓구. 기래구 어:: 개실으 자~에 가서 앵기울리라는 데 가서 거기 가서 개실으 우리 영갸이 재빋것두 싸구 우리것두 싸구 그래 싸서 그래 개실으 기래 놓구. 그렇기 사~아 받았댕어.{어 닭이 있고 돼지 갈비 있어야 된 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돼지 갈비를 놓고 닭을 잡아 놓고 어 과줄을 놓고 그래 그 때는 단 것이 그게 그렇게 좀처럼 없었어. 그래 단 것도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거는. 시방 처럼 어디에 단 것이 있었댕어. 그 사탕이 동글동글한 것이 요런 것이 있었어. 그 사탕을 그래 한 가지 놓고. 그리고 어 과실을 장에 가서 앵기 울리라는 데 가서 거기 가서 과실 을, 우리 영갸이 자깃 것도 사고 우리 것도 사고 그렇게 사서 그래 과실을 그래 놓고. 그 려게 하고 상을 받았어.}

10208 @ 아아! 잘 받으셨네요. 그래두.{아아! 잘 받으셨네요. 그래두.}

10208 # 야~. 그렇기 사~아 받았댕어.{응. 그렇게 상을 받았어.}

10208 @ 도투고기 잇지 닭이 꼭 있어야 닭이 있었지. 찰떡이 있었구. 예. 고 담에 개실이 또 요렇기 갖다놓구.{돼지고기 잇지, 닭이 꼭 있어야 되니 닭이 있었지. 찰떡이 있었고. 예. 고 다음에 과실을 또 요렇게 갖다 놓고.}

10208 # 그렇기 해에서 사~아 받았댕어.{그렇게 해서 상을 받았어.}

10208 @ 그러면 개실은 어떤 개실이까요?{그러면 과실은 어떤 과실일까요?}

10208 # 어, 능금이 잇었지.{어, 능금이 있었지.}

10208 @ 아아 능금이 있었구.{아아, 능금이 있었고.}

10208 # 능금이 잇었지. 배: 잇었지. 포도 잇었지. 그랫댕어.{능금이 있었지. 배가 있었지. 포도 있었지. 그랫었어.}

10208 @ 아아.{아아.}

10208 # 야~. 그렇기.{응. 그렇게.}

10208 @ 포도도?{포도도?}

10208 # 포도도 잇었댕어. 사월인데에 그때는 파시켄트느 포도도 잇었댕어.{포도도 있었어. 사 월인데 그 때는 타슈켄트는 포도도 있었어.}

10208 @ 아아, 파시켄트가 참 포도가 많다구 그러대요. 비노그라프. 많다구 그러대요.{아아, 타 슈켄트에 참 포도가 많다고 그러대요. 비노그라프(포도). 많다고 그러대요.}

10208 # 그렇기 잇었댕어. 그렇기 사~이다 놓구 기래 사~아 받았댕어.{그렇게 있었어. 그렇게 상에다 놓고 그래 상을 받았어.}

10207 @ 으음. 그러면은 그 그럼 아바이께서 어:: 아매집에서 하룻밤우 잤슴둥? 삼촌네 집에서 잤슴둥?{으음. 그러면 그 그럼 할아버지께서 어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까? 삼촌 네 집에서 잤습니까?}

10207 # 예에::! 그래서 그때 선달에 우리 마마랑 오다나йка테 사월에 잔체르 하다나이 꼬호 즈(КОЛХОЗ)서 우리 마마르 노보지리라는데서 두 칸들이 집우 찻댕어. 그래서 집우 켜서 그 집에서 사~아 받았댕어 내. 그래구 이쪽에 삼촌네에서 아이 받구.{예에! 그래서 그 때 선달에 우리 어머니랑 오다 보니 사월에 잔치를 하다 보니 콜호스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노보지리라는 데서 두 칸들이 집을 주었어. 그래서 집을 주어서 그 집에서 상을 받았었 어 나는. 그리고 이쪽에 삼촌네에서 안 받고.}

10207 @ 그렇지.{그렇지.}

10207 # 어, 기래구 노보지리서 내 시집우. 기래구 또 시형네두 노보지리에 살았댕어. 기래 내 시형네 집우르 시집우 왔댕어. 시형네 집우루. 우리 시애끼랑 싹 시형네 같이 잇었댕어. 야~ 같이 잇었댕어. 기래 그 시형네 집우르 또 시집우 그렇기 와서. 시형네느 기래두 조 품 일없이 살아서 어: 찻쌀르 떡하구 증편두 하구 그렇기 시형네느 어: 수울이라는 거느 어: 이렇게 고아서 수울이 있구.{응, 그리고 노보지리에서 내 시집을. 그리고 또 시형네도 노보지리에서 살았어. 그래 내가 시형네 집으로 시집을 왔댕어. 시형네 집으로. 우리 시 동생이랑 싹 시형네 같이 있었어. 응 같이 있었어. 그래 그 시형네 집으로 또 시집을 그 려게 와서. 시형네는 그래도 조금 괜찮게 살아서 어 찻쌀로 떡하고 증편도 하고 그렇게 시형네는 어 술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고아서 술이 있고.}

10207 @ 직접 고아서.{직접 고아서.}

10207 # 기래구 우리네느 시 저기 시형네 수울으 주다나이 기래 수울이라는 거 우리 재빌르 아이 하구 그 시형네 수울우 땃 켤재간 켜서 기래 수울이 잇었지. 그 토지 데지. 그 토지 르 고아서 기래 토질르 고아서 사~에서 그래 쓰지. 아붓님께다두 토지르 고아서 그거 수 울으 이래 붓구서 어 절하구. 이 이룽기 기랫지.{그리고 우리네느 시 저기 시형네 술을 주다 보니 그래 술이라는 거 우리가 손수 아니 하고 그 시형네 술을 몇 병을 주어서 그 래 술이 있었지. 그게 토주(土酒)지. 그 토주를 고아서, 그래 토주로 고아서 상에서 그래 쓰지. 아붓님께다두 토주를 고아서 그거 술을 붓고 어 절하고. 이 이렇게 그랬지.}

10207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7 # 예에! 그전에서 이런 시방 같은 수울이 어디메 잇소?{예에! 그전ैया 이런 지금 같은 술이 어디 잇소?}

10207 @ 으음. 그렇습지.{으음. 그렇지요.}

10207 # 그렇지. 에이그! 그룽기.{그렇지. 어이구! 그렇게.}

10207 @ 토질르 했지, 그때는.{토주로 했지, 그때는.}

10207 # 토질르 싹 기랫지.{토주로 싹 그랬지.}

10207 @ 그러면 그때 아매 그 아매 집에서 마마 게신 데서 하룻밤우 주무시구 떠나서 시형 집으로 가서.{그러면 그 때 할머니 그 할머니 집에서 어머니 게신 데서 하룻밤을 주무시

고 떠나서 시형 집으로 가서.}

10207 # 아이 그날르 잔체르 하구 그날르 인차 왔어.{아니 그 날로 잔치를 하고 그 날로 이내 왔어.}

10207 @ 인차 왔슴둥?{이내 왔습니까?}

10207 # 야~ 인차 왔어. 밤우 아이 자구.{응 이내 왔어. 밤을 안 자고.}

10207 @ 그러면, 아아! 그러면 시형네 집에서.{그러면 아! 그러면 시형네 집에서.}

10207 # 가참앗됐소.{어머니가 사는 집과 가까웠어.}

10207 @ 아아!{아!}

10207 # 우리 마마네 집, 어마이네 집가 어 우리 시형네 집이 가참앗됐어.{우리 어머니 집, 어머니 집과 어 우리 시형네 집이 가까웠어.}

10207 @ 가참았구나!{가까웠구나!}

10207 # 야~ 가참았어. 그래 그날르 이릉기 왔지.{응 가까웠어. 그래서 그 날로 이렇게 왔지.}

10207 @ 그러문 시형네 집이 가서 그 계시다가 삼일 삼일으 했슴둥?{그러면 시형네 집에 가서 그 계시다가 삼일, 삼일 행사를 했습니까?}

10207 # 샘일이 없소. 무스 가지구 샘일하겠어. 샘일 없지. 아! 무스 가지구 예단 놓겠어. 예단 두 없지. 이불두 우리 마마 개두 어 이불천은 어 잇었됐어 나~. 고런거 이불으 기래 한 나 하구 자리르 하구. 기래 가지구서리 기래구 왔지.{삼일이 없소. 무엇을 가지고 삼일을 하겠어. 삼일이 없지. 아! 무엇을 가지고 예단을 놓겠어. 예단도 없지. 이불도 우리 어머니 그래도 어 이불천은 어 있었어 응. 고런 거 이불을 그래 하나 하고 요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왔지.}

10207 @ 음.{음.}

10207 # 베개두 거저 한나 가지구. 개 그 베개애다스 야~ 어: 베 잇재이오, 베. 베 돌피섞인 베르 이릉기 아매 그 쓰레기 끄스레 없게서리 찢어서 대수. 바이다 찢어서. 그래 그 베개: 다 열어서 기래 두 개르 해에서 주웁데. {웃음} 그래 그런 베개르 가지구 기래구서리 시집우 왔됐어. 그렇게 구차하게 스집우 왔소.{베개도 그저 하나 가지고. 그래 그 베개애다는 응 어 버가 있잖소, 벼. 벼 돌피가 섞인 벼를 이렇게 할머니가 그 쓰레기로 나오는 까 끄라기 없게끔 찢어서 대충. 방아에다 찢어서. 그래 그 베개애다 넣어서 그래 두 개를 해서 주데. {웃음} 그래 그런 베개를 가지고 그래고서 시집을 왔어. 그렇게 구차하게 시집을 왔소.}

10207 @ 그뎨 베개르 어티기 만들었으까요?{그 때에는 베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10207 # 베개르 야~.{베개를 응.}

10207 @ 응, 거기다 뿔 꽃두 놓구.{응, 거기다 뿔 꽃도 놓고.}

10207 # 아이 그런 게 없어. 이거 이것처리. 요것처리 베개르 하는데, 이 베개르 야~ 어 요기다가서리 이래 꽃으 틀었습데.{아니 그런 게 없어. 이거 이것처럼. 요것처럼 벼개를 하는데, 이 베개를 응 어 요기다가서 이렇게 꽃을 놓았데.}

10207 @ 그렇지.{그렇지.}

10207 # 야~ 그 꽃으 틀어서 이릉기 베개르 해에서. 기래서 어 흰 형걸울르 이 잇으 하구.{응 그 꽃을 넣어서 이렇게 베개를 해서. 그래서 어 흰 천으로 이 잇을 하고.}

10207 @ 그렇지. 잇으 하구.{그렇지. 잇을 하고.}

10207 # 아, 그렇기 베개르 헛됐어. 개 두 개르 해서. 기래 이불 한나에 베개 한나에 두 개

기래 자주구서리 시집우 왔됐어.{응, 그렇게 베개를 했어. 그래 두 개를 해서. 그래 이불 한나에 베개 하나에 두 개 그리해 가지고서 시집을 왔어.}

10207 @ 아아! 그래셨구나.{아아! 그러셨구나.}

10207 # 아~.{응.}

10207 @ 예. 으음.{예. 음.}

10207 # 아~. 기래고 그 답에스 우리 시어마이네가 같이 이티르 살구. 그답에스 팔르 살았됐어.{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어머니네와 같이 이태를 살고. 그 다음에는 따로 살았었어.}

10207 @ 그러셨다구했죠.{그러셨다고 하셨죠.}

10216 # 아:. 팔르 살테 예: 우리 아바이 끼노(키노)르 놀아서 돈으 벌어서 그래서 그때 야: 한 내구. 기래 내 야~ 야! 해마다 크 저 둘째아두 신:두해에 또 둘째 아 났어. 신 두해에 둘째아 났지. 구월에 났는데 신: 네 해에 삼월에 또 저 딸으 났어. 기래.{응. 따로 살되 예 우리 할아버지(=남편)는 영화를 상영하여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사는데, 그 때 아이가 하 나고. 그래 내 응 야! 해마다 큰, 저 둘째 아이도, 1952년에 또 둘째 아이를 낳았어. 1952년에 둘째 아이를 낳았지. 9월에 낳았는데 1954년 3월에 또 저 딸을 낳았어. 그래.}

10216 @ 큰일으 하신 거지.{큰일을 하신 거지.}

10216 # 아이그!{아이고!}

10216 @ 자손을 자손을 많이 나셨으니까 큰일으 하신 거지.{자손을 자손을 많이 낳으셨으니까 큰일을 하신거지.}

10216 # 기래 내 이랬지. 아이! 우리 큰아느, 우리 시 시 시어마이 재래왔됐어. 나이 석라서(ср азу) (기침) 두 번째게 나이 스라서(сразу) 가져갑데. 가져다가서 우리 시어마이 재래웁 데. 두 번째 아느 내 재래우는데 나두 두 번째 아르 나두 우리마마 가참이 있었어. 개 우 리 동상아덜이 재래우다나이 그것두 그렇기 내 그렇기 잘 아이 재래우구 또 인차 딸이 나다나이, 그 딸이 또 신, 이게 저기 신 두해에 구월에 나구, 신 세해에 또 설어서 또 신 네해에 삼월에 또 나다나이 아이 그 이 아르 또 뉘기 자래우겠어. 또 우리 마마네 또 재 래우지. 기래구서리 어 신 또 신 다스해에 또 선달에 또 났어 선스나르. 야아!{그래서 내 가 이랬지. 아니! 우리 큰아이는, 우리 시어머니가 키웠었어. 낳으니까 이내, (기침) 두 번 째 아이를 낳으니까 이내 가져가테. 가져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기르테. 두 번째 아이는 내가 기르는데, 낳아도, 두 번째 아이를 낳아도, 우리 어머니가 가까이 있었어. 그래 우리 동생 아이들이 기르다 보니 그것도 내 그렇게 잘 안 기르고 또 이내 딸이 태어나다 보 니, 그 딸이 또 쉰, 이게(둘째 아들) 저기 1952년에 나고, 1953년에 또 임신해서 또 1954년 3월에 또 낳다보니 아니! 그 이 아이를 또 누가 기르겠어. 우리 어머니가 또 기르지. 그리고서 어 쉰 또 1955년 선달에 또 낳았어, 머슴아이를. 야!}

10216 @ 세번째 아드남.{셋째 아드남.}

10216 # 다스해에 너어 났됐어. 기래 내 이랬지. 야 저 두채르 시형네 사촌 시형네 아 없었됐 어. 기라 저 집우 주까? 저 아주바이네르 주자구. 기래이까테 우리 영깸이 이래오. 못 준 다구. 가르, 저 사진 어제 배우잼테? 가르 주자구 하이까테 못주겟다구 야르 못주겟다구. 저 새아가르 주라구. 그 다숫번째 네 번째 기래 나 났으이까테 새아가르 주라구. 야르 못 주겟다구.{다섯 해 동안에 넷을 났어. 그래 내가 이랬지. 야 저 둘째를 시형네 사촌, 시형 네가 아이가 없었어. 그래 저 집에 줄까? 저 아주버니에게 주자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

영감이 이러오. 못 준다고. 그 아이를, 저 사진을 어제 보이지 않데? 그 아이를 주지고 하나까 못 주겠다고 이 아이를 못 주겠다고. 저 계집아이를 주라고. 그 다섯 번째, (아니) 네 번째를 낳았으니까 계집아이를 주라고. 이 아이를 못 주겠다고.}

10216 @ 영감님이 아들 욕심이 많으셨구나!(영감님이 아들 욕심이 많으셨구나!)

10216 # 아, 기래 못주겠다지. 기랩 내 우리 시혀~ 형님이 내 이랬지. 형님예! 이 이 따마라르 가져가라구. 우리 딸 이름이 따마라우. 따마라르 가져가라구. 기래이까데 아이 아이 곱았어 우리 딸이. 좀 이렇게 살색이 검지. 아들덜 둘이 셋이었어. 우리 아들덜이[떨이]. 기래 자꾸 둘째르 가지겠다지. 기래이까데 우리 영감이 애이 주짐. 기래 딸으느 실타지. 새애 가덜 싫다구. 아 기래이까 네 번째 나이까데 제까닥 죽었던 말이야, 한주일이 데이까데. 그거 쫓는 거. 어 데까닥 죽으이까데 서이 자라지. 서이 자라이 그 담에느 없었었어. 한번두 없시쥬구 없었었어. 어 없시쥬구 기래 저게 서이 모로기 사다가[zadaga] 큰 게 마흔 둘 살 먹구 죽으이까 저렇기 에 또 둘이 잇지. 기래두 이 둘체는 러시아에서 그 군대 군대 글으 일거서 군대서 파견쥬서 러시아르 간 게 거기서 어전으 서른 서른 세 헤르 사오. 거기서 서른 세 헤르 사오. 개 그저 집우루 어 한 달에 뒤에 번썩 마이 하무 서너 번썩 전화르 하오. 그래 어떻게 하구. 에미 죽었는가 살았는가 전화르 하오. (웃음) 개 구 딸두 어제 저녁에 전화르 하지. 기래 하메서리 이라고. 마마! 오겠다구. 오데 저어 만 아들이 아덜 서어 데리구 오겠다지. 그 손네덜이 서이오. 그거 서이 데리구 오겠다지. 기래 내 속으르 이러지. 아! 그거 데리구 와선 복잡한데 그거 데리구 와선 어찌겠는가. 내 기래 이래지, 딸이가. 오지 말구 가슬에 빠빠 제세에 오라구. 그거 데리구 오지 말란 말으 하기 아이 좋더라 말이지 내게. 그거 기래무 딸이 노옴넬개바 냐~. 데리구 오지 말라구 그거 데리구 오기마 하무 나느 복잡해서 음 데리구 오지 말라구 하무 우리 딸이 노옴 내지. 어 데리구오지 말라구 하기마 하무. 기래서 어 가슬에 오라구. 어 구월달에 쥬쥬(к онцу) 구월 달에 오라구서리. 기래이까데 에 우리 딸이 아이! 그 구월 달에도 오지 내 시방두 오겠다구. 기래 내 그래 이랬지. 기랩 어찌겠는가 오라구, 오라구. 오지 말라구 하무 또 노옴넬개바. 오라구. 기랩 오라구.{아, 그래 못 주겠다지. 그래 내 우리 시형 형님에게 내가 이랬지. 형님! 이 이 따마라를 가져가라고. 우리 딸 이름이 따마라오. 따마라를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안, 안 예뻐어, 우리 딸이. 좀 이렇게 살색이 검지. 아들 둘은 살결이 새하엿어. 우리 아들들이. 그래 자꾸 둘째를 가지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영감이 안 주지 뤼. 그래 (그 집에서) 딸은 싫다지. 계집아이들은 싫다고. 아 그러니까 네 번째 낳으니까 금방 죽었던 말이야, 한 주일이 되니까. 그거 줄 것을. 어 금방 죽으니까 셋이 자라지. 셋이 자라는데 그 다음에는 아이가 없었어. 한 번도 없애지 않고 없었어. 어 없애지 않고 그래 저 놈들 셋이 모로기 살다가 큰놈이 마흔 두 살을 먹고 죽으니까 저렇게 에 또 둘이 남았지. 그래도 이 둘체는 러시아에서 그 군대 군대 공부를 해서 군대에서 파견을 해서 러시아를 간 것이 거기서 이젠 서른 세 해를 사오. 거기서 서른 세 해를 사오. 그래 그저 집으로 어 한 달에 두어 번씩 많이 하면 서너 번씩 전화를 하오. 그래 어 떠한가 하고. 어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화를 하오. (웃음) 그리고 딸도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하지. 그래 하면서 이라고. 엄마! 오겠다고. 오되 제 말아들 아이를 셋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지. 그 딸아이에게 손녀들이 셋이오. 그거 셋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지. 그래 내 속으로 이러지. 아! 그거 데리고 와선 복잡한데 그거 데리고 와서는 어찌하겠는가 하고. 내 그래 이래지, 딸에게. 오지 말고 가을에 아버지 제사 때 오라고. 그거 데리고 오지

말라는 말을 하기 안 좋더라 말이지, 내게. 그거 그러면 딸이 노여워할까 봐 응. 그거 데리고 오면 나는 복잡해서 음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면 우리 딸이 노여워하지. 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기만 하면. 그래서 어 가을에 오라고. 어 구월 달에 구월 말경에 구월 달에 오라고. 그러니까 에 우리 딸이 말하기를, 아니! 그 구월 달에도 (물론) 오구, 내 지금도 오겠다고. 그래 내가 이랬지. 그럼 어찌하겠는가 오라고, 오라고. 오지 말라고 하면 또 노여워할까 봐. 오라고 했지. 그럼 오라고.}

10218 @ 그럼 아매! 아까 그 처음 식집가셨을 때 그 시오마니하구 잠시 살았잖슴둥?(그럼 할머니! 아까 처음 식집가셨을 때 그 시어머니하고 잠시 사셨잖습니까?)

10218 # 어~.{응.}

10218 @ 그때: 그 시어머니가 아매르 쟁장히 곱아 하셨슴둥?(그 때 그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쟁장히 사랑하셨습니까?)

10218 # 우리 시어마이 나르 곱:아했어. 기래 내 에: 스물 두 살으 먹었지 어전으, 어 큰아르 나서 스물한 살 땃지. (전화벨 소리) 스, 어찌기 자꾸 즈본이(звонить)질 하지! 가만 놔뉘. 즈본이(звонить)질하다 아지? 기래 에 스물한 살에 자아르 낫는데 어전으 어 시집우들, 스물한살에 시집우 들어갔지. 들어가서 아이! 우리 할미 한어머니 있다나이 난 이 시격간의 잉게 시격질으 내 못해뻐했어.{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사랑했어. 그래 내가 에 스물두 살을 먹었지 이젠, 어 큰아이를 낳아서 스물한 살이 되었지. (전화벨 소리) 어찌 자꾸 전화질을 하지! 가만 놔뉘! ‘전화질하다’라는 말을 알지? 그래 에 스물한 살에 저 아이를 낳았는데 이젠 어 시댁으로 들어, 시댁으로 들어갔지. 들어가서 아이! 우리 할미 할머니가 있다 보니 난 이 밥 짓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밥 짓는 일을 못 해 보았어.}

10218 @ 아! 그렇슴둥?(아! 그렇습니까?)

10218 # 스물한살 먹더라두 내 시격질으 내 못해뻐어. 어찌 우리 증손네는 어전 열한살이 열두살체 데는데 아 못하는 시격이 어딴어? 밥하지 아이 뜨더국두 그렇기 잘 하오.{스물한살을 먹더라도 내 밥 짓는 일을 내가 못 해 보았어. 어찌 우리 증손녀는 이제 열한 살, 열두 살체 되는데 아 못하는 끼니 음식이 어디 있어? 밥하지 아니 수제비도 그렇게 잘 하오.}

10218 @ 뜨더국으?(수제비를?)

10218 # 야~ 그렇기 잘하오. 기래 나느 이래 늙어 잇었지. 내 시격질 아이 하오. 내 시방 야덜가 같이 잇으메 시격질 아이 하오. 기래 아, 뜨덕국으 해서, 아: 아매! 정슴 잡수라구. 아무시기 잇냐? 아 뜨더국으 헛다구. 아 기랩 조곰 먹겠다구 기래. 기래 내 나가서 먹짐. 개 시격질으. 아 나느 스무 한 살이 땃는데 아 시격질으 못해 우리 어마이 그양 시격질으 했지. 시집가서두 시격질 아이 하구. 나느 거저 우리 어마이 아랑 우리 어마이 썩 거땃었어. 그래 우리 둘체는 스물두살에 땃었어. 우리 두 번째 아들은. 기래 그 스물두 살에 낫어두 그저 자아 나서 우 우리어마이 에따(это) 딸루 우리 시형네 집우르 가구 내 스물 두 살에느 우리 둘이 달르 살았었어. 야~. 그때느 우리 꼬호즈(колюз)서 집우 쫓았어. 집우 싸구 팔구 그런게 없었었어. 꼬호즈(колюз)서 집이 잇으무 그집이서 살구 그렇기 그랫었어. 그전에는 그랫었어. 싸구 팔구 없었었어 그때느. 기게 오십 일년 이연 때는 그 그렇게 살았었어, 우리. 시바~으느 집이 값이 잇소. 싸구 팔구 이래구. 그전에는 그랫었어.{아 그렇게 잘 하오. 그래 나느 이렇게 누워 잇었지. 내 끼니 음식은 안 하오. 내 시방 이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끼니밥은 안 하오. 아 수제비를 해서, 아 할머니! 점

심 잡수시라고. 아 무엇이 있나? 아 수제비를 했다고. 아 그러면 조금 먹겠다고 그래. 그 래 내가 나가서 먹지 뭐. 그래 끼니밥 하는 일을 하지. 아 나는 스물한 살이 되었는데 아 끼니밥 하는 일을 못해 우리 어머니가 그냥 끼니밥을 했지. 시집가서도 끼니밥을 안 하고. 나는 그저,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 우리 어머니가 썩 거두었지. 그래 우리 둘째는 스물두 살에 낳았어. 우리 둘째 아들은. 그래 스물두 살에 낳았어도 그저 저 아이 를 낳아서 우리 어머니가 음 따로 우리 시형네 집으로 가고 내 스물두 살에는 우리 둘이 따로 살았었어. 응. 그때는 우리 콜호스에서 집을 주었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 이 없었어. 콜호스에서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살고 그렇게 그랬어. 그전에는 그랬었어.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없었어, 그때는. 그게 1951년, 1952년 그 때는 그 그렇게 살았어, 우 리가. 지방은 집이 값이 있소. 사고 팔고 이려고. 그전에는 그랬어.}

10218 @ 그랬지. 그럼 아메 별루 시집살이 안 하셨네요!{그렇지. 그럼 할머니는 별로 시집살이 를 안 하셨네요!}

10218 # 아~이!{아니!}

10218 @ 시어마이가 곱아하시구 그랬으니까.{시어미가 사랑하시고 그랬으니까.}

10220 # 어, 그래. 그담에는 우리 아들이 어: 서방가구 우리 아들은 그저 서바아, 딸은 시집가 구 기래실 적에 어 셋째아들이 같이 있다가 어 어마이 모:지리 펜차이까테 에 그때 일혼 아웁이 땃땃어. 일혼아웁에 어 우리 그 셋째메느리 어 일하메 우리 어마이르 못 거두겟 다구. 기래이까테 어마이 만아들 집으, 만아들두 우리 절에 잇엇땃어. 그때는 우리 이쪽 으르 땃땃소. 어: 다른 꼬호즈(КОЛХОЗ)르 또 왓땃어. 노보이(НОВЫЙ)지리는 아이잇구 다 른 꼴호즈(КОЛХОЗ)르 땃땃어. 기래 와시 적에[와시적에] 우리어마이 우리집우르 오겟다 지. 기래 내 우리 어마이르 열헤르 모셨어.{어 그래.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이 어 장가가 고 우리 아들은 그저 장가, 딸은 시집가고 그랬을 적에 어 셋째 아들과 같이 있다가 어 어머니가 몹시 편찮으시니까 에 그때 일혼아웁이 되었어. 일혼아웁에 어 우리 그 셋째머 느리 어 일하며 우리 어머니를 못 돌보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만아들 집을, 만아들도 우리 절에 있었어. 그때는 우리 이쪽으로 왔었어. 어 다른 콜호스를 또 왔었어. 경작질을 아니하고 다른 콜호스로 왔었어. 그래 왔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하지. 그래 내 우리 어머니를 10년을 모셨어.}

10220 @ 열헤르?{10년을?}

10220 # 열헤르 모셨어.{10년을 모셨어.}

10220 @ 오래 모셨습꾸마.{오래 모셨습니다.}

10220 # 아~ 어 야든 아웁에 상세났어. 야든 아웁에 상세났는데 일혼아웁에 와서 어 야든아웁 이 대거지 잇는데 한 해르, 한 해르 우리 시형네 집우르 갓땃어. 내 그 때 마마네 집우르 갓지. 개 이래지. 나 어전으 죽을 대 땃는데 내 만아들 집우르 가 죽어야 텐다구. 그래메 서리 만아들 집우르 갓어. 고때 집이 가잡앗땃어 바로. 집이 가잡앗어. 기래 거기 가서 한 해르 있다가 상세났어. 한 해두 조곰 채 못 잇었을 게야. 그렇게 있다가서리 가서 상세났 어. 거기 가 상세났어. 여든 아웁에 상세났어.{응 어 89세에 돌아가셨어. 89세에 돌아가셨 는데 79세 되던 해에 와서 어 89세가 될 때까지 있는데 한 해를, 한 해를 우리 시형네 집으로 갓었어. 내 그 때 어머니 집으로 갓지. 그래 이러지. 내가 이젠 죽을 때가 되었 는데 내가 만아들 집으로 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만아들 집으로 갓어. 고 때 집이 가 까웠어 바로. 집이 가까웠었어. 그래 거기 가서 한 해를 있다가 돌아가셨어. 한 해도 조

곰 채 못 있었을 거야. 그렇게 있다가 (만아들 집으로) 가서 돌아가셨어. 거기 가서 돌아 가셨어. 여든아웁에 돌아가셨어.}

10220 @ 아이구!{아이고!}

10220 # 야든아웁에 상세났어.{여든아웁에 돌아가셨어.}

10220 @ 장수하였네. 수하셨네 예.{장수하셨네. 수하셨네 예.}

10220 # 그렇게 상세났어.{그렇게 돌아가셨어.}

10215 @ 그러면 아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첫, 예.{그러면 할머니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첫, 예.}

10215 # 첫생진으?{첫돌을?}

10215 @ 첫생진의 어떻게 했는지 옛날하구 지금하구 다아 한번 좀 얘기해 주옵소. 어티기 했 는지.{첫돌을 어떻게 했는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 한 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 는지.}

10215 # 아이 첫생진은 우리 아들이, 만아들이 첫생진은 우리 시에미 채랫땃어. 우리 시어마 이. 채리는데 어 잘 채랫땃어. 모지리 잘 채랫땃어. 수울으 굶구 찰떡 하구. 재빌르 찰떡 하구 재빌르 수울으 굶구 어:: 증편하구 썩. 가줄하구 기래구 어 해앰이라 썩앗 갖추구. 기래구 고기는 썩다가 자에서 썩다가서리 기래, 고기느. 닭으느 재빌르 재래우구. 기래서 갓찾땃어. 기래. (전화벨 소리).{아이 첫돌은, 우리 아들이, 만아들 첫돌은 우리 시어미가 차렸어. 우리 시어머니가. 차리는데 어 잘 차렸었어. 아주 잘 차렸었어. 술을 고고 찰떡을 하고. 손수 찰떡을 하고 손수 술을 고고 어 증편을 하고 썩. 과줄하고 그리고 어 반찬이 랑 썩 갖추고. 그리고 고기는 사다가 장에서 사다가서 그래, 고기는. 닭은 손수 기르고. 그리해서 갖추었어. 그래. (전화벨 소리).}

# (웃음).{(웃음).}

@ 거기에, 거기에 그 얘기두 나옵꾸마. 그 이 농새르 하다가 에 내 아바이 아바 아부지한테 내 따시 따시켄트에 가서 공부르 더 공부르 하겠습꾸마. 그 끼노(кино), 그저 하겟다구 해서 그 얘기가 요만큼 나옵꾸마. 요만큼 나옵꾸마 예.{거기에, 거기에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 이 농사를 짓다가 에 내 할아버지 아버 아버지한테 내 타슈켄트에 가서 공부를 더 공부를 하겠 습니다. 그 영화, 그거 하겠다고 해서 그 애디가 요만큼 나옵니다. 요만큼 나옵니다. 예.}

# 야아! 우리 영감으느 그 글으 이르지 못해 데게 기랫땃어. 기랜게 그렇게 어시덜 구차하다나 이까테 글으 모 일것지.{야! 우리 영감은 그 공부를 못해 되게 그랬었어. 그런데 그렇게 부모 들이 구차하게 살다 보니까 공부를 못 했지.}

10215 @ 그럼 아까 그 아이들 그 돌 얘기하다가 에 전화 받으러 가셨죠? 예. 그러면 아이들 이 돌 상에 그 이 예: 연필이.{그럼 아까 그 아이들 그 돌 이야기를 하다가 에 전화를 받 으러 가셨지요? 예. 그러면 아이들 이 돌상에 그 이 에 연필.}

10215 # 연, 연필으 놓지.{연필을 놓지.}

10215 @ 음.{음.}

10215 # 그담에 책으 놓지. 책으 놓소. (기침) 기래구 떡으 세 그릇으 놓소. 찰떡으 세 그릇으 이래 놓구 그담에 어 열코~오 한 그릇으 놓습데.{그 다음에 책을 놓지. 책을 놓소.}

10215 @ 아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215 # 아~ 열코~오, 여기서 열코~오 한 그릇으 놓구. 그담에 에따(это) 책으 놓구. 어 연필 으 놓구 가새르 놓구 실으 놓구.{응 강남콩을, 여기서 강남콩을 한 그릇을 놓고. 그 다음

에 음 책을 놓고. 어 연필을 놓고 가위를 놓고 실을 놓고.)

10215 @ 아아!{아!}

10215 # 아~ 실으 놓습데. 실으 오 그거 지기만 하무 오래:: 산다지. 아이구! 우리 판아들으느  
실으 지구 연필으 지구 그래두 오래 못 살았댔어. 그렇게 났어.{응 실을 놓데. 실을 응  
그것을 쥐기만 하면 오래 산다고 하지. 아이고! 우리 판아들은 실을 쥐고 연필을 쥐고 그  
래도 오래 못 살았어. 그렇게 놓았어.}

10215 @ 음, 음. 그러면은 그러면 어 책하구 연필은 이제 공부르 하겠다는 거구.{음, 음. 그러  
면 그러면 어 책하고 연필은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고.}

10215 # 어어 그렇게 말하지.{어 그렇게 말하지.}

10215 @ 실은 오래 살겠다는 거구.{실은 오래 살겠다는 것이고.}

10215 @ 그럼 열콩은?{그럼 강낭콩은?}

10215 # 열코~오느 흥진으 잘한다지. 그거 지기만 하무 흥진으 잘한다지. 그렇기 말하지.{강낭  
콩은 흥역을 잘 한다지. 그거 쥐기만 하면 흥진을 잘한다지. 그렇게 말하지.}

10215 @ 아아! 그러면 아메! 가세느?{아! 그러면 할머니! 가위는?}

10215 # 가세느 바느질을 잘한다지.{가위는 바느질을 잘한다지.}

10215 @ 아아!{아!}

10215 # (웃음).{(웃음).}

10215 @ 마선질의 잘한다.{재봉질을 잘한다.}

10215 # 아아 그래.{아 그래.}

10215 @ 아아! 음 그리고 그 날은 요기 상을 뺏기구 그래구 나서는 뭘 했습등?{아! 음 그리고  
그 날은 요기애다 상을 차리어 주고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10215 # 기래구서는 에따(это) 시커사~아 차래서 사름덜 마:이 와서 마:이 오무 그 사~에다가  
두 돈으 놓소. 아아 사~에다가두 돈으 놓소. 기래 돈으 아아 돈우 지기만 하무 잘 산다  
지.{그리고서는 음 밥상을 차려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이 오면 그 상에다가도 돈을 놓  
소. 아이의 상에다가도 돈을 놓소. 그래 돈을 아이가 돈을 쥐기만 하면 잘 산다지.}

10215 @ 그렇지.{그렇지.}

10215 # 으음 돈으 놔서 그 잘 산다지. 기래구 어 오는 사름마다 싹 다 돈으 가지구 와.{음 돈  
을 놓아서 잘 산다지. 그리고 어 오는 사람마다 싹 다 돈을 가지고 와.}

10215 @ 그렇죠.{그렇죠.}

10215 # 개 어 우리 판아들이 생진에 그 때 돈올르 천내~이 들어와서 천내~이 들어왔지. 기래  
천내~이 들어온 거 내 그거 가지구 어 우 우레스끄라는데, 고로도(город) 우레스크라구  
잇었어. 그래 거기 가서 음 새애지르 한나 싸가지구 왔댔어. 우리 판아들이 생진에 들어  
온 돈으 가지구. 세르, 세르 새애지르 작은 새애지르 싸가지구 왔지. 그거 기래 난 자꾸  
이게 궁니 난단 말이. 아아 생진에 어따(это) 무슨 기계르 이렇게 싸나 마사 아이 지는  
거 싸야 데는데:: 이제 와서 나아 먹구 내 궁니느, 내 뉘가던지 말하이 처암 말하오. 그거  
싼게 에 세르 싼게 그게 내 맘에 아이 든단 말이오. 그 세르 싸서 재래와서 잠우이까데  
아 저 우리 판아들이 메~이 짜른가:: 또 이롱기두 내 궁니르 한단 말이지. 그 그렇소,  
내.{그래 우리 판아들 생일에 그 때 돈으로 1,000냥이 들어와서 천 냥이 들어왔지. 그래  
천 냥이 들어온 거 내 그거 가지고 어 우레스끄, 도시 우레스끄라고 잇었어. 그래 거기  
사거 음 송아지를 한 마리 사 가지고 왔어. 우리 판아들 생일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소

를, 소를 송아지를 작은 송아지를 사 가지고 왔지. 그거 그래 난 자꾸 이게 생각이 난단  
말이오. 아이의 생일에 음 무슨 기계를 이렇게 사거나 안 부서지는 것을 사야 되는데. 이  
제 와서 나이를 먹고 하는 생각은, 나는 (이 말을) 누구하고 말하는 것이 처음이오. 그거  
산 것이 에 소를 산 것이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오. 그 소를 사서 길러서 잡으니  
까 아 저 우리 판아들이 명(命)이 짧은가 또 이렇게도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 그렇  
소, 내가.}

10215 @ 예. 그런 생각이 드읍지.{예. 그런 생각이 들지요.}

10215 # 야~. 기래구 우리 둘째 아들으느 어: 생진으 세구 어: 무스거 찻는가이 에 그렇기 또  
생진 채렛지 둘째아들으느. 그래 무스거 찻는가 하이, 에따(это) 그런 거 윤성기, 윤성기  
잇체오? 그 빠찌폰(пояфон) 윤성기 노는 거 그거 찻댔어. 기래 우리 시아바이 그 윤성  
기르 요 추마단이 같은 게 요런 게, 요런 게. 그거 들고서느 그 이발소랑 가지 머. 그거  
노느라구. 그래 그전에는 이게 그런 게 켈레비조르(телевизор)나 없었댔어. 기래 그저  
그 윤성기 제일: 저저 정말 노래랑 저저 잇구 그랬지 어~. 기래 그거 가지구서리 땡기메  
우리 시아바이 가주구 놀지 무슨. 어디메 가셔느. 그랬댔어. 기래구 우리 딸으느 생진 아  
이 채렛댔어. 아이 자꾸 넣는 거 생진 채래서 어찌겠는가구. (웃음) 기래 딸이 생진 아이  
채리제었어. 기랜데.{아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은 어 생일을 쇠고 어 무엇을 샀는가 하면  
에 그렇게 또 생일을 차렸지 둘째아들은. 그래 무엇을 샀는가 하면, 음 그런 거 축음기,  
축음기가 있잖소? 축음기, 축음기 가지고 노는 것 그것을 샀어. 그래 우리 시아버지 그  
축음기를 요 추마단 같은 게 요런 게, 요런 게. 그거 들고서느 그 이발소랑 가지 뭐. 그  
거 가지고 노느라고. 그래 그전에는 이게 그런 게 텔레비전이나 그런 것이 없었어. 그래  
그저 축음기가 제일 그저 정말 노래랑 그저 있고 그랬지 응. 그래 그거 가지고 다니며  
우리 시아버지 가지고 놀지 무슨. 어디에 가셔느 그랬었어. 그리고 우리 딸은 생일을 안  
차렸었어. 아니 자꾸 넣는 거 생일을 차려서 어찌겠는가 하고. (웃음) 그래 딸의 생일은  
안 차려줬어. 그런데.}

10215 @ 서분하다구 하, 하겠꾸마.(서운하다고 하겠습니까.)

10215 # 아이고! 기래 그 딸으 하이까테, 마마!, 날, 이거 보오!, 나 첫생진 아이 채래줬지. (웃  
음) 기래 크게 아이 채래줬두 사~이사 뽀게 줬지 요래. 사~이사. 그렇기 찰떡으 놓구 이  
래 사~이사 뽀게 줬지. 개 크게 아이, 녀덜이 아이 밧지 한나투. 기래 마마! 기래길래 보  
오. 내 쏘론(все равно), 마흔 살 생진으 여기서 채리제오, 시방. 마흔살 생진으 채리지,  
시방. 시운 살 생진두 시방 채리우, 시운살 생진으.{아이고! 그래 그 딸을 하나까, 어머  
니!, 나를 보고, 이거 보오! 나 돌 잔치를 안 차려 주었지. (웃음) 그래 크게는 안 차려 주  
었어도 돌잔치상이야 차려 주었지 요렇게. 상이야. 그렇게 찰떡을 놓고 이렇게 상이야 차  
려 주었지. 그래 크게 아니 (차려 주었지), 남들이 안 봤지 하나도. 그래 어머니! 그래서  
보오. 내 어쨌든, 마흔 살 생일 잔치를 여기서 하지 않소, 시방. 마흔 살 생일을 차리지  
시방. 원 살 생일도 시방 차리오, 원 살 생일을.}

@ 그렇습등?{그렇습니까?}

# 기래 어 이제 마마! 이거 보오! 내 에따(это) 마흔살 생진으느 어 오래비 상새나서 내 마흔  
살 생진으 못 채렛다구. 그 답에는 시운 살 생진 채리제이까테 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신  
살 생진 못채렛댔던가? 아! 기래 신 다숫살 채리자이 아바이 상새났지. 기래 생진으, 마마  
이제 네 해만 마마 사오. 기렘 내 욕심이오. 췌! 욕심이라지. 그때까지 살라구. 기렘 내 욕심

살 생진으 내 채리겠다구.{그래 어 이제 어머니! 이거 보오! 내가 음 마흔 살 생일은 어 오라비가 죽어서 내 마흔 살 생일을 못 차렸다고. 그 다음에는 켜 살 생일을 차리자고 하니까 에…… 무슨 일이 있어서 켜 살 생일을 못 차렸다고 하딘가? 아! 그래 켜다섯 살 생일을 차리자 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그래서 생일을 (못 차렸는데), 어머니 이제 네 해만 어머니 더 사오. 그럼 내가 육십이오. 췌! (그 나이에) 육십이라지. 그때까지 살라고. 그럼 내 육십 살 생일을 내가 차리겠다고.}

@ 음. 같이 채리무 데지.{음. 같이 차리면 되지.}

# 어인직이! 기래 마마 살아야 내 육십 생진 채리겠는데 한갑 채리겠는데, 마마 상세나무 내 육십살 생진두 못 채린다구. 제 그렇기 말하지. 야야 썩 거더치워라. 그때까지 살무 내 야든 네 살꺼지 살무 무시기 데야? 싫다! 일찌가이 죽어야 데지. 마마! 그렇기 사오. 그렇기 사오. 이래지.{언제! 그래 어머니 살아야 내가 육십 살 생일을 차리겠는데 한갑 잔칫상을 차리겠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육십 살 생일상도 못 차린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야! 썩 집어치워라! 그때까지 살면, 내 여든 네 살까지 살면 무엇이 되냐? 싫다! 일찌감치 죽어야 되지. 어머니! 그렇게 사오. 그렇게 사오. 이리지.}

@ 음. 아매!{음. 할머니!}

# 어~.{응.}

@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아매 구십은 틀림없이 사압꾸마.{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할머니는 구십은 틀림없이 삽니다.}

# 아이구!{아이고!}

@ 어, 먼저, 아매 마마께서 팔십구세까지 야든아홉까지 사셨구 예.{어 먼저 할머니 어머니께서 89세까지 여든아홉까지 사셨고 예.}

# 내 마마는 야든한나에 상세났소, 내 마마. 내 빠빠는 어 예순 너히 상세나구. 내 할머니 일흔 일곱에 상세났어.{내 어머니는 여든한나에 돌아셨소,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어 예순넛에 돌아가시고, 내 할머니는 일흔일곱에 돌아가시고.}

@ 음. 그땐 그렇습지.{음. 그때는 그렇지요.}

# 어~. 그때 그렇기 상세났어. 우리 시아바이는 육십에 상세났어. 예순 한나에 상세났어. 그렇기 살았소. 한갑 채리구 이듬해 인차 상세났어.{응. 그 때 그렇게 돌아가셨어. 우리 시아버지는 60에 돌아가셨어. 예순한나에 돌아가셨어. 그렇게 살았소. 한갑 차리고 이듬해에 곧 돌아가셨어.}

@ 아, 그러면 시어마이께서 야든아홉에 상세나셨지.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켜데 지금 아매 왕게 걸어댕기시는 거 보무 젊, 젊습꾸마.{아,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여든아홉에 돌아가셨지.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머니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것을 보면 젊습니다.}

# (한숨) 그렇기 살겠소? 난 아이중소.{(한숨) 그렇게 살겠소? 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안중소.}

@ 아니! 건강하면은. 지금은 좋은 세상이꾸마.{아니! 건강하면. 지금은 좋은 세상입니다.}

# 아이구! (췌) 기래두 나느 아이 중소. 나느 살기 싫소. (웃음) 살기. 아이! 천국에 가무 그렇게 좋은 일인데. 좋은데. 천국에 가무 좋은데 아 여기서 무슨 고상하매 살겠소. 천국에 가무 더 좋은데. 기래 난 아 지금 천국의 가자구서리 그런 거 게우랑 땡기는데. 기래게 어 조끔 일찍이 땡기무 좋았겠는거 늦어 땡기다나이 야~ 좀 아 바쁘단 말이지. 그거 어따(это) 개두

점머서 땡겠터무. 우리 지금 게우르 땡기는 아매 어 야든, 이른 이른 이른 일곱이 그런 아매. 어저느 열일곱해르 땡긴다지. 한 번두 핵고 마다아 못 가밧다지. 그 보에노이 브레미야 (военное время)다나이 핵고 마다아 못 가밧지. 이 이 게우서 글으 배와서 어전으 글으 완으르 잘 이르오, 그 아매는. 그 아매 글으 잘 이르오. 잘 이르구 잘 쓰구, 어전으. 어전으 열일곱해르 배우다나이. 기래 게 열일곱해르 열 해무 발써 어 십년제르 필하제이오? 하야! 그러다나이. 열일곱해르 땡기다나이 그 아매 그렇기 어전으 글두 어전으 쓰기두 하구. 제 이름우 쓸 줄으 몰라서 용::해나 고렷글으 배와서 고려 이름우 췌 줄 알앗다오. 기래구느 노시앗 글이랑은 못 써밧다우. 기래게 어전 노시앗글르 이 책이랑 보오, 열일곱해르 땡기다나이. 게우르 땡기다나이.{아이고! (췌) 그래도 나는 안중소. 나는 살기 싫소. (웃음) 살기. 아니! 천국에 가면 그렇게 좋은 일인데. 좋은데. 천국에 가면 좋은데 아 여기서 무슨 고생을 하며 살겠소. 천국에 가면 더 좋은데. 그래 난 아 지금 천국을 가려고 그런 거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어 조끔 일찍이 다녔더라면 좋았겠는 것을 늦게 다니다 보니 응 좀 아 힘들단 말이지. 그거 음 그래도 젊어서 다녔더라면. 우리 지금 교회를 다니는 할머니 어 여든, 일흔 일흔 일흔 일곱이 되는 그런 할머니가 있는데 이제 열일곱 해를 다닌다고 하지. 한 번도 학교 마당을 못 가 보앗다지. 그 전쟁 시기이다 보니 학교 마당에도 못 가 보앗지. 이 이 교회서 글을 배워서 이제 글을 완전히 잘 읽소,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 글을 잘 읽소. 잘 읽고 잘 쓰고 이제는. 이제 열일곱 해를 배우다 보니. 그래 그 열일곱 해를 공부하다 보니, 열 해면 어 10년제 학교를 졸업하잖소? 아! 그렇다 보니. 열일곱 해를 다니다 보니 그 할머니 그렇게 이제 글도 이제 쓰기도 하고. 제 이름을 쓸 줄을 몰라서 용케 고렷글을 배워서 고려 이름을 쓸 줄 알앗다오. 그래고는 러시아 글이랑은 못 써 보앗다오. 그런데 이제 러시아 글로 (된) 이 책이랑 보오, 열일곱 해를 다니다 보니. 교회를 다니다 보니.}

@ 어디르 땡기다나니?{어디를 다니다 보니?}

# 아, 나체르사드라구. 여기 오췌 바사르(базар) 잇제이오? 거기 나체르사드라구 잇답데. 거기르 땡기우. 그 안에.{아 나체르사드라고. 여기 오췌 시장이 있잖소? 거기 나체르사드라고 잇다데. 거기를 다니오. 그 안에.}

@ 게울?{교회를?}

# 야~.{응.}

@ 음.{음.}

10227 @ 그럼 아매 그 옛날이나 직금이나 여기 고렷사람덜이 에 상세나무 어티기 함둥? 어티게 그.{그럼 할머니,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 고려 사람들이 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10227 # 장사르?{장사를?}

10227 @ 예! 어티기 모셔서. 어디다 산에다 어티게 또 모십둥? 상세나무?{예! 어떻게 모셔서. 어디에다 산에다 어떻게 또 모십니까? 돌아가시면?}

10227 # 아이 우리 아바이 우리 아들이 저:기서 그런 거 화랑소서 가져왔소. 상세나이 우리 아들이 저저 죽으이 스라스(сразу) 화랑소르 데레갔지, 길에서.{아니 우리 할아버지(=남편) 우리 아들은 저기서 그런 거 영안실에서 가져왔소. 죽으니 우리 아들이 그저 죽으니 이 내 영안실로 데려갔지, 길에서.}

10227 @ 화랑소?{영안실?}

10227 # 화랑소르 데레갔됐어.{영안실로 데려갔었지.}

10227 @ 화랑소가 뭐둥?{'화랑소'가 무엇입니까?}

10227 # 어, 그 주검 딜에가는 데르.{어 주검을 들어가는 데를.}

10227 @ 아아. 아매 그러면은 아까 그: 인제 사람이 상세나무 어떻게 하느냐구 제가 여쭙봤었  
 죠? 침, 차압부터 얘기해 주옵소 예.{아. 할머니 그러면 아까 그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  
 게 하느냐고 제가 여쭙어 보았잖습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27 # 우리네느 상세나무 어 처암 상세나기마 하무, 어 짝 버~원에서 와서 우티르 짝 뺏게  
 놓구 짝 썰구 소독으, 소독으 짝 할:데. 냄새 에이 나게서리. 아이 냄새나오. 그저 버~원  
 에서 와서 해 주우. 게 옷이두 버~원에서 입헤 주우. 짝 버~원에서 짝 옷으 입헤 주우.  
 {우리네 사람이 죽으면 어 처음에 죽기만 하면, 어 짝 병원에서 와서 옷을 짝 벗겨 놓고  
 짝 썰고 소독을, 소독을 짝 하데. 냄새가 안 나게끔. 냄새 안 나오. 그저 병원에서 와서  
 해 주오. 그래 옷도 병원에서 입혀 주오. 짝 병원에서 짝 옷을 입혀 주오.}

10227 @ 여기서 옷은 따로 팔루 아이 만듭둥?{여기서는 옷(수의)를 따로 안 만듭니까?}

10227 # 아이!{아니!}

10227 @ 상쉬우티라구.{수의라고.}

10227 # 상쉬우티르 거저 꼬시웁(костюм)우 그저 남자덜은 쫘 입히우. 기래구 아이하오. 나는  
 상쉬우티르 내 제빌르 짝 헛소.{수의를 그저 정장을 그저 남자들은 쫘 입히오. 그리고 안  
 입히오. 나는 수의를 내 스스로 짝 마련헛소.}

10227 @ 하섯슴두?{하섯습니까?}

10227 # 해엿소.{헛소.}

10227 @ 무스걸르 했슴둥?{무엇으로 했습니까?}

10227 # 아이, 한국 한복으.{아이, 한국 한복을.}

10227 @ 배우티, 한복올르.{베옷, 한복으로.}

10227 # 한복 우티르.{한복 옷을.}

10227 @ 곱운 걸르 하섯구나.{고운 것으로 하섯구나.}

10227 # 기래해엿어. 기래구서리 에 상세나무 영저~으, 영저~이라는 거 거기두 있어? 한국에  
 두 영저~이 있어? 글으 쓰는 게 웅? 그 글으 쓰우. 기래구 이래 평풍우 치구 기래구 이  
 래 늑히구.{그렇게 했어. 그리고 예 죽으면 명정(銘旌)을, 명정이라는 거 거기도 있어? 한  
 국에도 명정이 있어? 글을 쓰는 것 웅? 그 글을 쓰오. 그리고 이렇게 평풍을 치고 그리  
 고 이렇게 늑히고.}

10227 @ 그 영정에다가 무스거 쓸까요?{그 명정에다가 무엇을 씁니까?}

10227 # 아, 영저~에다가느 어 그런 거 본으 쓰구 그 담에…….{아, 명정에다가는 어 그런 거  
 본(本)을 쓰고 그 다음에…….}

10227 @ 이름 쓰구.{이름을 쓰고.}

10227 # 이름은 아이 쓴답데. 아이 쓰구. 그렇게 쓰옵데.{이름은 안 쓰다데. 안 쓰고. 그렇게 쓰  
 데.}

10227 @ 예 김씨무 안동김씨지구 이렇게. 예, 예. 아 그렇게 하구서느 인제 산으르 어티기 모  
 시구 감둥?{예 김씨면 '안동김씨지구(安東金氏之柩)' 이렇게. 예, 예. 아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산으로 어떻게 모시고 갑니까?}

10227 # 아 산으르 갈 적에는 또 국, 에따(это) 국가서 그런 모시는 마шина(машина) 있어. 그  
 마шина(машина)다 모시지.{아 산으로 갈 적에는 또 국, 음 국가에서 그런 모시는 자동차

가 있어. 그 자동차에다 모시지.}

10227 @ 무슨 마шина(машина)라구 함둥?{무슨 자동차라고 합니까?}

10227 # 그거는 까따팔까(катафалк)라 하오. 그 톨리꾸(только) 사름우 어 송장만 싣구 탕기  
 는 게.{그것은 '영구차'라 하오. 그건 오직 사람을, 어 송장만 싣고 다니는 것.}

10227 @ 그렇지! 마우재팔르.{그렇지! 러시아 말로.}

10227 # 어, 까따팔까(катафалк)라 하오.{어, 까따팔까(영구차)라 하오.}

10227 @ 까따팔까(катафалк)라구.{까따팔까(영구차)라고.}

10227 # 아아. 까따팔까(катафалк)라 하구.{응. 까따팔까(영구차)라 하고.}

10227 @ 우리 고려말은 없슴둥?{우리 고려말로 부르는 말이 없습니까?}

10227 # 나는 고려말으 모르겠어.{나는 고려말을 모르겠어.}

10227 @ 상…….{상…….}

10227 # 거 고려느, 우리네 저 파시켄트느 상디라구 하오.{거 고려는, 우리네 저 타슈켄트에서  
 는 상여라고 하오.}

10227 @ 그렇지. 상뒤라구 하지.{그렇지 상여를 '상뒤'라고 하지.}

10227 # 상디 하는 거느 들구 가오. (웃음) 어 거기선 들구 가오. 파시켄트서는 이리 상디르  
 들구 가오, 산겨지.{상여라고 하는 것은 들고 가오. (웃음) 어 거기선 들고 가오. 타슈켄트  
 에서는 이렇게 상여를 들고 가오, 산소까지.}

10227 @ 산겨지.{산소까지.}

10227 # 게 여기서는 어: 이따가 산으르 가 보오. 야야! 잘헛스이. 여기 산은.{그래 여기서는  
 어 이따가 산소를 가 보오. 야! 잘헛소. 여기 산소는.}

10227 @ 여기는. 저기 한국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많이 봤으니까 여기 이.{여기는. 저기 한  
 국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많이 보았으니까 여기 이.}

10227 # 여기꺼.{여기 것(산소).}

10227 @ 예. 적은 거. 북망산 찍어 놓은 거 많이 봤습꾸마. 아:주 잘해놴습꾸마. 사진두 어딘  
 사진두 있구. 꽃도 있구. 이렇게.{예. 적은 거. 북망산 찍어 놓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사진도, 어디는 사진도 있고. 꽃도 있고. 이렇게.}

10227 # 잘 했어.{잘 했어.}

10227 @ 예. 그럼 돌아가신지 며칠 후에 산으르 모심둥?{예. 그럼 돌아가신지 며칠 후에 산소  
 로 모십니까?}

10227 # 아: 모시구 그 이튿날에 산으르 가오. 기래구 더 아이 가오.{아 모시고 그 이튿날 산소  
 로 가오. 그리고 더 안 가오.}

10227 @ 그렇슴둥?{그렇습니까?}

10227 # 아, 그 이튿날 산으르 가오.{응, 그 이튿날 산소로 가오.}

10227 @ 음. 그러구 그럼 산에 언제 찾아감둥?{음. 그리고 그럼 언제 찾아갑니까?}

10227 # 기래구서리느 한식에 가구 치석에 가구 더 아이 가오. 산으르 가는 날은 딱 두 번밖  
 에. 일 년에 딱 두 번밖에 없소.{그리고서는 한식에 가고 추석에 가고 더 안 가오. 산으  
 로 가는 날은 딱 두 번밖에 없소. 일 년에 딱 두 번밖에 없소.}

10227 @ 아아 그렇슴둥?{아 그렇습니까?}

10227 # 아 기래구 다른 날에는 아이 가오.{응 그리고 다른 날에는 안 가오.}

10230 @ 그럼 첫제사 때 제세 때는 무스거 함둥?{그럼 첫 제사 때 제사 때는 무엇을 합니까?}

10230 # 어 첫째세는 여기서 야~ 그전에는 집에서 제세르 채렸지. 기랜게 우리네 만아들두 집에서 채렷됐어. 개 우리 정슴우 정슴 하재이오? 장 장사에 정슴은 꼭 하오. 그 사름덜이 온 사름덜은 어 썩 대접 시게 보내오. 대접 시가지. 기래 우리 만아들으는 이 집에서 썩 대접 시겿됐어. 개 우리 영감으는 그런 거 어 카페(кафе)에서.{어 첫 제사는 여기서 응 그전에는 집에서 제사를 차렸지. 그런데 우리네 만아들도 집에서 차렷었어. 그래 우리 점심을 점심 하지 않소? 장 장사(葬事)에는 썩 점심은 꼭 하오. 그 사름들이 온 사름들을 어 썩 대접을 해서 보내오. 대접을 하지. 그래 우리 만아들은 이 집에서 썩 대접을 했어. 그래 우리 영감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런 거 어 카페에서.}

10230 @ 카페(кафе)에서.{카페에서.}

10230 # 나~ 카페(кафе)서 사람이 백에메~이 백에메~이 카페(кафе)르 가. 기래 시 시격으, 정슴으 하는데 서른 처이 도이 들었어. 도이 서른 천이 들었어. 어찌던지 장사르 따이 서른 처이 먹었어. 기래구 이사와서 우리 아바이르 소독으 썩 하구 델리쯔(милиция) 오구 그 까파팔까(катафалк)에서 모세 가재이오? 그게 서른 처이 먹었어. 기래 구십천이 먹었어.{응. 카페에서 사람이 백 명이 백 명이 카페를 가. 그래 끼니밥을, 점심을 하는데 3만 숨이 들었어. 돈이 3만 숨이 들었어. 어찌하든지 장사 지낼 땅을 사는데 3만 숨이 들었어. 그리고 의사가 와서 우리 할아버지를 썩 소독을 하고 경찰이 오고 그 영안실에서 모셔 가지 않소? 그러는데 3만 숨이 들었어. 그래 합쳐서 9만 숨이 들었어.}

10230 @ 아이구!{아이고!}

10230 # 구십처이 먹었어. 정슴꺼지 하구 나이 구십처이 먹었어 도이. 기래이 도이 엠매. 기래두 그 돈으 우리 아바이 썩 몰았던 말이오. 우리 아바이가. 이거 보오! 야덜 없이 야덜 없이 우리 아바이 잇으매 저 씨래기르 팔아, 자~아 팔아 이래 팔매서리 이 돈으 몰아서 재비 상새날 돈으 다아 하구. 우리 둘이서 먹구 살구 그룻기 돈으 모았던 말이지 아~ 모았던 말이지. 기래구 그 위에 에 올해[오래] 사월초닷셋날으 산으르 가는 날이 에이오? 그때 우리 손재, 손재 그런거 빠메질(памятник)으 어: 초르느이(чёрный) 무라무르(мрамор) 새까만 무라무르(мрамор)는 그래 한게 어 일천, 일천오백냥 먹었어. 둘랄(доллар)르. 둘랄(доллар)르 일천 오백냐~: 먹었어.{9만 숨이 들었어. 점심까지 하고 나니 9만 숨이 들었어, 돈이.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소). 그래도 그 돈을 우리 영감이 썩 모았던 말이오.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보오! 이 아이들 없이, 이 아이들 없이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저 시래기를 팔아, 장을 팔아 이렇게 팔면서 이 돈을 모아서 자기 장삿날 드는 돈을 다 준비하고. 우리 둘이서 먹고 살고 그렇게 돈을 모았던 말이지 응 모았던 말이지. 그러고 그 위에 에 올해 사월 초닷셋날은 산소를 가는 날이 아니오? 그 때 우리 손자가, 손자가 그런 거 묘표석을 검은 대리석 새까만 대리석을 한 것이 어 1,500냥 들었어. 달러로, 달러로 1,500냥 들었어.}

10230 @ 어이구! 굉장히 큰돈인데요.{어이구! 굉장히 큰돈인데요.}

10230 # 큰:: 돈이 에이구! 그렇게. 내 기래 이랬어. 야! 그:거 어찌 그렇기 나그내 그래야. 기래 집에 도이 한 글썽두 없게 어찌 살게. 야! 그거 자그마:냥게 한 오백돌라르 해서 기래서 세우면 어찌 못 쓰냐! 내 기래 데게 내 아이 좋아했어. 그 술한 돈 맥에서 그거 그렇게 야! 죽은 사름게다 그렇게. 기래 내 이랬지. 니 내 죽제인겿나? 저어:기 꼴호즈(колхоз) 잇다구. 그 안토노프 코호즈 거기애다가 파문으라구. 돈두 아이들구 거기느 돈이 아이든다. 기래 거기다 파문으라구. 나느 거저 주브르(забор) 따 밀으르 들어가무 텐다구. 빠미

찌(памятник)구 무시기구 쏠다. 거저 주브르(забор) 따 밀으르 들어가무 텐다구. 기래이 까테 우리 손재 이 증손 저 손재 싸이 이래지. 아매!, 조선말르, 아매! 아매 죽은게 아오? 어티게 우리 파문은 거. 아매 모르우. 이래짐. 기래, 글썽 내 죽은 게 어티게 알겿는나만 해두 야! 산 것도 살아야 데지. 너네 아바이게다 돈으 마이 열었다. (쫏). {큰 돈이 아니고 말고! 그렇게 했소. 내가 그래서 이랬어. 야! 그거 어찌 그렇게 남편 상사에 그러냐. 그래 집에 돈이 한 푼도 없게, 어찌 살려고. 야! 그거 자그마하게 한 500달러를 써서 그래서 세우면 어찌 못 쓰냐! 내 그래 되게 내 안 좋아했어. 그 술한 돈을 들어서 그거 그렇게 아 죽은 사름게다 그렇게 쓰냐. 그래 내가 이랬지. 너 내가 죽지 않겿나? 저기 꼴호스 있다고. 그 안토노프 꼴호스 거기다가서 파문으라고. 돈도 안 들고 거기는 돈이 안 든다. 그래 거기다 파문으라고. 나느 그저 무덤 울타리 안의 땅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비석이고 무엇이고 쏠다. 그저 땅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이 증손 저 손자사위가 이러지. 할머니!, 조선말로, 할머니! 할머니 죽었는데 아오? 어떻게 우리가 파문은 거. 할머니 모르오. 이러지 뭐. 그래, 글썽 내 죽은 것이 어떻게 알겿는나만 해도 야! 산 것도 살아야 되지. 너네 할아버지에게다 돈을 많이 넣었다(쫏다). (쫏).}

10230 @ 큰 데 했습꾸마.{큰 일 했습니다.}

10230 # 큰:: 기래 우리 또 영감은 또 벨란 성질이, 나는 좋:온 자래: 가 좋은 빠메찌(памятник)르 그룻기 집우 온전히 해 살겿다구 잉기 말한단 말이오. 아이! 죽었는데 아무데다 파문으무 데지. 따에 들어가무 데지. 아이! 좋오무 어찌구 굿우무 어찌구 빠메찌(памятник)르 하무 어찌구. 나느 내 성질은 그렇소. 기래이 자덜이 아바이 딱 말한대르 했던 말이오. 아, 기래이 내 마음이 아이 좋더란 말이지. 아, 산 사람이 안죽은 살아야데지. 아, 죽은게다 다 돈으 거더 영구. 기래 이랜다구서 내 동미덜이 이래지. 야! 따썩 제 그렇기 말하지 마오! 어찌 그렇기 말하는가구. 다아 어전으 돈으 썩는데 어찌 그렇기 말하는가구. 말은 그게 공담이 아닌가구. 말하지 말라구 기래지. 기래두 어찌 말이 제 재비르 나오오. 돈으 너무 마이 쓰구나이까테 말이 제 재빌르 그룻기 나간단 말이오. 동미덜가 그라구 내 말하지.{큰. 그래 우리 또 영감은 또 벨란 성질이, ‘나는 좋은 자리에 가 좋은 비석을 그렇게 해서 집을 온전히 짓고 살겿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오. 아니! 죽었는데 아무 데나 파문으면 되지. 땅에 들어가면 되지. 아니! 좋으면 어떻게 굿으면 어떻게 비석을 하면 어떻게. 나는 내 성질은 그렇소. 그러니 저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딱 말한 대로 했던 말이오. 아, 그러니 내 마음이 안 좋더란 말이지. 아 산 사람이 아직은 살아야 되지. 아, 죽은 것애다가 다 돈을 거두어 넣고. 그래 이런다고서 내 동무들이 이러지. 야! 따썩! 자기 그렇게 말하지 마오! 어찌 그렇게 말하는가 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다 이제는 돈을 썩는데 어찌 그렇게 말하는가 하고. 말은 그게 공담(空談)이 아닌가 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도 어찌 말이 제 스스로 나오오.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말이 제 스스로 나간단 말이오. 동무들과 그러고 내 말하지.}

10230 @ 아매가 너무 자손들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렇지요. 산 사람들을 너무 생각해서서 예.{할머니가 너무 자손들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렇지요. 산 사람들을 너무 생각해서서 예.}

10230 # 아이구! 모르겿소.{아이고! 모르겿소.}

10230 @ 그래두 자식들은 자기 도리라구 생각하구 그렇기 잘 했겠지요. 아버지한테 잘 했겠지.{그래도 자식들은 자기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 했겠지요. 아버지한테 잘 했겠



지.}

10230 # 개 아덜으느 아들으느 좋다지.{그래 아이들은 아이들은 좋다고 하지.}

10230 @ 마음이 흡족하지.{마음에 흡족하지.}

10230 # 그렇기 해야 텐다지.{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10230 @ 음.{음.}

10230 # 기래문 또 나는 어 아이 좋다구 또 말하지. 죽은 데다 그릉기 돈으 열겜는가구. 기래 우리 아들이 그래지. 예:, 내가 전화르 하메서리, 마마! 아 근심하지 말라구. 살 도이 쏘른노(всё равно) 나온다구. 살 도이 나온다구. 살도이 나오무 기게 버느라무 기게 오죽하겠는가구. 아 그렇제이오? 그게 버느라무 오죽하오? 어전 나느 늙어서 버지 못한다구. 나느 그저 얻어먹는다구.{그러면 또 나는 어 안 좋다고 또 말하지. 죽은 데다 그렇게 돈을 넣어야 하겠는가 하고.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러지. 예 나와 전화를 하면서, 어머니! 아 근심하지 말라고. 살아갈 돈이 어쨌든 나온다고. 살 돈이 나온다고. 살 돈이 나오면 그게 버노라면 그게 오죽하겠는가 하고. 아 그렇잖소? 그게 버노라면 오죽하오? 이젠 나느 늙어서 벌지 못한다고. 나는 그저 얻어먹는다고.}

10230 @ 그럼 아매 빠미징크(памятник) 무라모르(мрамор)에 무라모르(мрамор)르 만든 거 거기에다가 사진 열었.{그럼 할머니 비석 대리석 대리석으로 만든 거 거기다가 사진을 넣었.}

10230 # 야~ 저 사진 열었어. 어제 배우잼데? 그 사진 열었어. 그 사진 열었어.{응 저 사진 넣었어. 어제 보여 주지 않데? 그 사진을 넣었어. 그 사진 넣었어.}

10230 @ 아아. 그러면 고 밑에다 무스거 썼슴등?{아. 그러면 고 밑에다는 무엇을 썼습니까?}

10230 # 이름 싹 썼지. 싹 이름 썼지. 박블라지미르라구 싹 썼어.{이름을 싹 썼지. 싹 이름을 썼지. 박블라디미르라고 싹 썼어.}

10230 @ 다른 건 아이 쓰구?{다른 건 안 쓰고?}

10230 # 어째서! 그 어 로드노이(родной)들으 다아 썼소 기래. 그렇기 다아 쓰오 여기서. 기래구서리 거저 대한질에 거저 이릉기 턱 이릉기 배우. 거저 거기르 대한, 그제 질이 크오. 너르오. 그 질역 아래 턱 있소. 조금 들어가서. 기래 이래지, 아: 조영식이. 아 내 한아부지르 가서 볼 쉬 있다구. 볼 쉬 있다구. (웃음) 개 질역으르 가다나무 쏘른느(всё равно) 볼 쉬 있짐. 기래 우리 아들 사진, 아들인데 와서느 사진 싹 찍어갔어.{어째서! 그 친족들은 다 이름을 썼소 그래. 그렇게 쓰오. 그렇게 다 쓰오 여기서는. 그리고 그저 큰 길에 그저 턱 이렇게 보이오. 그저 거기를 대한, 그제 길이 크오. 너르오. 그 길 가장자리 아래에 턱 있소. 고끔 들어가서. 그래 이러지, 아 조영식 원장이. 아 할아버지를 가서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웃음) 그래 길 가장자리에 가다 보면 어쨌든 볼 수가 있지 뭐. 그래 우리 아들 사진, 아들한테(아들의 산소에) 와서는 사진을 싹 찍어 갔어.}

10230 @ 그럼 아매 오래: 사시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은 그러면은 아바이 옆에 가서야 데지요 있슴등? 거기?{그럼 할머니 오래 사시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시면 그러면 할아버지 옆에 가서야 되지요. 뗏자리가 있습니까? 거기?}

10230 # 아이구! 야덜이. 자리는 있소. 그러나 가무 어찌구 아이 가무 어찌구. 거기느 가기만 하무 또 도이 든다구서리 가지 마르라구서리. 가 그라이까데 우리 손지 아 그래지. 아매 죽은 게 모른다구. 우리 어티기 할 거 모른다구. 죽은 다음엔. 개 아무래 거기 자리 있소. 돈으 아이 물었소. 그거 돈으 물어야 데오. 그 자리 또 돈으 물어야 데오. 기래구서리 그

그 자리에다가서리 잃기 이런 사~아, 이래 사~아 놓구 이 앉는 상두 하구 기렸어, 자아 덜이. 그렇기 했슴데.{아이고! 이 아이들이. 자리는 있소. 그러나 가면 어떻게 안 가면 어떻게. 거기는 가기만 하면 또 돈이 든다고서 가지 말라고서. 산소에 가 그러니까 우리 손자 아이가 그러지. 할머니 죽은 사람이 모른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죽은 다음에는. 그래 아마 거기에 자리 있을 게오. 돈을 안 물었소. 그거 돈을 물어야 되오. 그 자리 또 돈을 물어야 되오. 그리고서 그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런 상(床)을, 이렇게 상을 놓고 이 앉는 상도 하고 그랬어, 저 아이들이. 그렇게 했데.}

10230 @ 글루 가지지요 뭐 나중에.{그곳으로 가지지요 뭐 나중에.}

10230 # 아이구! 모르지 무슨. 가무 어찌구 아이가무 어찌구. 거저 나느 가서 이래 돈만 작게 드는 데로 거저 가라구. 기래문 도, 도이 많이[마이] 든다구 자꾸 말하지.{아이고! 모르지 뭐. 가면 어떻게 안 가면 어떻게. 그저 나느 가서 이렇게 돈만 작게 드는 데로 그저 가라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고 자꾸 말하지.}

10230 @ 음.{음.}

10223 @ 그러면 어 아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우리 이 고렷사람들이 환갑잔치는 어떻게 함등?{그러면 어 할머니!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우리 이 고려 사람들이 환갑잔치는 어떻게 삼니까?}

10223 # 환갑잔치르 잘하오, 여기서. 사~아 그렇기 잘 채리우 여기서.{환갑잔치를 잘하오, 여기서. 상을 그렇게 잘 차리오 여기서.}

10223 @ 어티게?{어떻게?}

10223 # 우리네느 한갑우 어티게, 구십년도에 한갑우 했소. 어: 일천구백팔십년도에 어: 연에, 아니 일천구백아흔야듬해에 야~ 우리 아바이 한갑이지. 이:, 기래 아흔야듬해에 한갑인데, 한갑우 아이 채렸어. 그때 내 어 어마이 마마 상세나다나이 내 마마 상세나다나이 아이 채리구. 기래 구십년도에, 구십년도에 한갑 채레실 적에, 그전에는 이 까페:(кафе)구레스토란(ресторан)이구 없었땀어 구십년도에는. 기래 스톨로브(столовая)서 스톨로브(столовая)가서 큰 스톨로브(столовая) 가서 한갑 차렷땀어.{우리네는 환갑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1990년도에 환갑을 했소. 어 1980년도에 어 연(年)에, 아니 1998년에 응 우리 할아버지 환갑이지. 이, 그래 1998년에 환갑인데, 환갑을 안 차렸어. 그 때 내 어 어머니 어머니 돌아가시다 보니 내 어머니 돌아가시다 보니 안 차리고. 그래 1990년도에, 90년도에 환갑 차렷을 적에, 그전에는 카페고 식당이고 없었어, 1990년도에는. 그래 식당에서 식당에 가서 큰 식당에 가서 환갑상을 차렷어.}

10223 @ 어떻게 하섯슴등?{어떻게 하섯습니까?}

10223 # 아 거기 가서두 어 사아 이래 놓구서리 사~아 받지. 기애 동겅이 아바이 동겅이 앉구 내 동겅이 한쪽에 앉구. 기래구 어, 우리 어 내 헤~이 내 절에 앉구. 그담에 우리 아바이 절에 동겅이 절은 아즈바이 헤에 남제가 앉구. 기래 우리네 한갑 채릴 적에 여기선 이래오. 이상분네 애이겜소. 기래기만 하무 우리 시형두 그때 생존일 때 우리 시형두 우리 아바이 절에 앉구 동겅이 담에 시혜~이 앉구 우리 헤~이 남페이 앉구 우리 기래서. 기래 채릴 적에 우리 시형게다 한갑사~아 받기 전에 만저 절을 함데. 어, 한국에서두 그래오? 기애 만저 절하구 또 헤이 남페이게다두 또 헤이르 앉헤 놓구 헤이 남페이르 앉헤 놓구 절으 하구.{아 거기 가서도 어 상을 이렇게 놓고서 상을 받지. 그래 동갑, 할아버지 동갑이 앉고 내 동갑이 한쪽에 앉고. 그리고 어 우리 어 내 언니가 내 곁에 앉고.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곁에 동갑이, 그 곁은 형부(兄夫), 언니의 남편이 앉고. 그렇게 우리네 한갑상을 차릴 적에 여기서는 이래오. 손윗분이 아니겠소? 그렇다면 우리 시형(시아주버니)도 그 때 생존해 계실 때여서 우리 시형도 우리 할아버지(남편) 곁에 앉고 동갑이 다음에 시형이 앉고 우리 언니 남편이 앉고 우리 그렇게 하고서. 그래 차릴 적에 우리 시형에게다, 한갑상을 받기 전에 먼저 절을 하데. 어, 한국에서도 그러오? 그래 먼저 절하고 또 언니 남편에게다도 또 언니를 앉혀 놓고 언니 남편을 앉혀 놓고 절을 하고.}

10223 @ 먼저 하구.{먼저 하고.}

10223 # 먼저 절으 하구. 그 답에 우리 앉아서 또 어 자식덜게다 절으 받구. 그렇기 그랬었어.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앉아서 또 어 자식들에게다 절을 받고. 그렇게 그랬었어.}

10223 @ 그런데 동, 동갑이는 왜 옆에 앉힘둥?(그런데 동갑은 왜 옆에 앉혔니까?)

10223 # 동갑이르 꼭 앉힘데.{동갑을 꼭 앉히데.}

10223 @ 그게 이유가 뭘까요?(그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10223 # 모르게 어째 그런지 동갑이르. 아:, 예술리(если) 딱 정동갑이 없재일겠소? 재치동갑이 지하동갑이두 앉힘데. 여기서 그래데.{모르겠어 어째 그런지, 동갑을. 아 만약 딱 맞는 동갑이 없지 않겠소? 그러면 한두 살 터울의 사람도 앉히데. 여기서 그러데.}

10223 @ 지하동갑이르.{한두 살 터울의 사람을.}

10223 # 야~ 지하동갑이두 앉힘데.{응 한두 살 터울의 사람도 앉히데.}

10223 @ 정동갑이 없으문.{나이가 똑같은 동갑이 없으면.}

10223 # 없으무. 그렇기두 하압데 여기서는.{없으면 그렇게도 하데, 여기서는.}

10223 @ 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옆에다 앉힐까?(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옆에다 앉힐까?)

10223 # 사~아 받을 적에. 기래구서리 그 사아 디릴 적에, 그전에는 사~아 디렸지. 기래게 시바~으느 사~아 요렇게 맨들어서 야~ 고래서는 이제 드리오. 기래 드리.{상을 받을 적에. 그리하고서 그 상을 드릴 적에, 그전에는 상을 드렸지. 그런데 시방은 상을 요렇게 만들어서 응 고래서는 이제 드리오. 그렇게 해서 드리지.}

10223 @ 거기다가서 무스거 올려놓슴둥?(거기다가서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10223 # 거기다가서리 수울우 산판씨 농구 수울으 농구. 비노(виноград)르 농구. 닭으[targi] 농구. 개실으 농구 기래서 이래 광재다, 광재 잇게이오? 거기다 담아서 기래서. 동갑이에랑 어 어따(это) 시혀~이게랑, 어, 혀~어 남퍼~이게랑 그 답에 어 사돈네게랑.{거기다가서 술을 산반씩 놓고 술을 놓고. 포도를 놓고. 닭을 놓고. 과일을 놓고 그래서 이렇게 광주리가 있잖소? 거기다 담아서 그래서. 동갑과 시형에게랑, 어 언니의 남편에게랑 그 다음에 어 사돈네게랑.}

10223 @ 아, 사돈!{아 사돈!}

10223 # 사돈네두 이렇기 사~아 농구서 사돈네 앉헤 농구 사돈네게랑 그렇기 그 사~아 다아 디레. 기래데. 우리는 그랬었어.{사돈네도 이렇게 상을 놓고서 사돈네 앉혀 놓고 사돈네게랑 그렇게 그 상을 다 드러.}

10223 @ 예.{예.}

10223 # 시방두 다른 데루 한갑집에 가 보무 그렇기 기래데. 기래구 한갑년에 한갑 못 채리기만 하무 칠십주연 또 채릴 적에 한갑사~마 또 그렇기 채린 사름덜두[덜뚜] 잇습데.{시방

도 다른 데 한갑집으로 가 보면 그렇게 그러데. 그리고 한갑년에 한갑을 못 차리기만 하면 칠순(七旬)을 또 차릴 적에 한갑상만큼 또 그렇게 차린 사람들도 있데.}

10223 @ 음. 그러면은 그럼 처음서부터 다시 제가 여쭙보면은, 예: 인제 한갑을 맞는 분이 앉아 계시구 나그네 안가니 앉구 고답에 재치동갑이 앉구 고답에 뭐 시형이나 아즈바니 뭐 이렇게 앉구 이쪽에 사돈네 앉구.{음. 그러면은 그럼 처음부터 다시 제가 여쭙어 보면, 예 이제 한갑을 맞는 분이 앉아 계시고 남편과 아내가 앉고 고 다음에 한두 살 터울의 동갑이 앉고 고 다음에 뭐 시형이나 형부가 뭐 이렇게 앉고 이쪽에 사돈네가 앉고.}

10223 # 저:쪽에 딸루 채리우 또 사~아. 이 사~에다 아이 기래구 딸루 저쪽으로 채리우.{저쪽에 따로 차리오 또 상을. 이 상에다 안 그러고 따로 저쪽으로 차리오.}

10223 @ 이제 광재에다 이렇게.{이제 광주리에다 이렇게.}

10223 # 그렇기 싹 앞에다 주루루 놓소. 이 앞에다. 이렇기 싹 광재에다 담아서 그거 곱게 그렇게 해서 고거 싹 그래서 머거리 그렇기 놓지. 기래 그거 어따(это) 빠다록(подарок) 주지 무. 그렇기 기래우. 여기서. 이따가 누기네 한갑 채릴 적에나 그릴 적에 점 보오. 기래재두 양춘 선생님이 그래재에두 이래지. 한번 잔체나 그 한갑이나 가봤으무. 아이 이따가 한갑이랑, 기래 우리 그 맨목안 동미 기래짐. 야아 이번 우리 잔체에 모세갓트는 걸 기래지.{그렇게 싹 앞에다 주욱 놓소. 이 앞에다. 이렇게 싹 광주리에다 담아서 그거 곱게 그렇게 해서 고거 싹 그래서 먹을거리를 그렇게 놓지. 그럼 그거 음 선물을 주지 뭐. 그렇게 그러오. 여기서. 이따가 누구네 한갑을 차릴 적에나 그릴 적에 좀 가서 보오. 그렇잖아도 양춘 선생님이, 그렇잖아도 이러지. 한 번 잔치나 그 한갑이나 가봤으면 하고. 아니 이따가 한갑이랑, 그래 우리 그 맨목이 있는 동무가 그러지 뭐. 야아 이번 우리 잔치에 모셔갈 것을 하고 그러지.}

10223 @ 그래 그렇기 해에서 그렇기 한 다음에 예 인제 사손덜이 와서 한내, 한내.{그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예 이제 사손들이 와서 하나, 하나.}

10223 # 싹 절하지.{싹 절하지.}

10223 @ 싹 절하죠.{싹 절하지.}

10223 # 어, 절하지.{응, 절하지.}

10223 @ 뭇 번 함둥?(뭇 번 합니까?)

10223 # 한 번으. 딱 한 번씨. 싹 한 번씨 하지. 그래 그 어 저 축하[추카]르 하오. 어터게 오래 앉으라나 어터기 하나 축하[추카]르 하오, 그 자석덜이.{한 번을. 딱 한 번씩. 싹 한 번씩 하지. 그래 그 어 저 축하를 하오. 어떻게 오래 사시라거나 어떻게 하든지 축하를 하오, 그 자석들이.}

10223 @ 아아! 자석덜이.{아! 자석들이.}

10223 # 축하르 하지.{축하를 하지.}

10223 @ 예. 절으 하구.{예. 절을 하고.}

10223 # 수울으 붓구 그답에 축하[추카]르 하구 술으 붓구 그답에 절으 하지.{술을 붓고 그 다음에 축하를 하고 술을 붓고 그 다음에 절을 하지.}

10223 @ 아아! 마지막에 절으 하는구나.{아! 마지막에 절을 하는구나.}

10223 # 그래.{그래.}

10223 @ 아아! 그러니까 예 그 ‘아버지 에 어머니 마마 빠빠 오래: 오래 앉으시오’ 이렇게 축하르 하구, 예. 그러 그렇기 순서대르 하겠지요, 맡아들이부터.{아! 그러니까 예 그 ‘아버

지 에 어머니 오래 오래 사십시오’ 하고 이렇게 축하를 하고, 예. 그렇게 순서대로 하겠지요, 맏아들부터.)

10223 # 구래. 맏아들부터 둘째아들부터 그다음에 딸이꺼지 그래하지. 기래구 또 어 조캐네덜 또 기래 절으. 조캐네덜 이래 축하[추카]르 하매 절으 하오.{그래. 맏아들부터 둘째아들부터 그 다음에 딸까지 그렇게 하지. 그리고 또 어 조카들이 또 그렇게 절을 하지. 조카들도 이렇게 축하를 하며 절을 하오.}

10223 @ 그림 그 아들먼저 하구 고담에 뒤에 딸이 합니까? 아니면은 그 태어난 순서대르 합니까?{그럼 그 아들이 먼저 하고 고담에 뒤에 딸이 합니까? 아니면 그 태어난 순서대로 합니까?}

10223 # 야~ 기래 그 담에는 고 조카덜이. 아이 저 손군덜이 또 절하지. 아 딸이 다음에는 손군덜이. 아 들을 적에 절에 가족 데리구 들어오오. 그 자숙덜이 재비 자숙덜 데리구 들어와서 그것덜두 다아 절하구 노래르 부르구 이래오.{응 그래 그 다음에는 고 조카들이. 아 니 저 손자들이 또 절하지. 아 딸이 다음에는 손자들이. 아 들어오는 곁에 가족을 데리고 들어오오. 그 자식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것들도 다 절하고 노래를 부르 고 이러오.}

10223 @ 아아! 노래까지.{아! 노래까지.}

10223 # 야~ 노래꺼지 부루구 이래오.{응 노래까지 부르고 이러오.}

10223 @ 예. 그러면 그게 끝나면은 고 담엔 뭘 합니까?{예. 그러면 그게 끝나면 고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10223 # 그 담에는 어 춤두 추구 노래두 하구 이래오. 응. 기래 오래: 오래 이래 놀지.{그 다음에는 어 춤두 추고 노래도 하고 이러오. 응. 그래 오래 오래 이렇게 놀지.}

10223 @ 뗏시켜지 놈둥? 보통.{뗏 시까지 놈니까? 보통.}

10223 # 오래 노오.{오래 노오.}

10223 @ 뗏 시에 시작해서 뗏 시에 노옴둥?{뗏 시에 시작해서 뗏 시에 놈니까?}

10223 # 어따(это) 그전에 우리네는 어 열두시에 시책이르 하지만 하루 그제 또 동생이다나이 까데 네시에 글이 났어. 열두시 무시기 그제 너덧 시 뗏 시 그렇소.{음 그전에 우리네는 어 열두 시에 시작을 하지만 하면 그제 또 겨울이다 보니까 네 시에 끝이 났어. 열두 시에 시작하면 뗏 그제 너덧 시 다섯 시 그렇소.}

10223 @ 오래 하네요.{오래 하네요.}

10223 # 그래. 그렇소. 시방으느 더어 오래 노오. 시방으느 그런 구일 때무 더어 오래: 노오.{그래. 그렇소. 시방은 더 오래 노오. 시방은 그런 큰일[大事] 때면 더 오래 노오.}

10225 @ 음. 그럼 아매는 그 환갑잔치에 가시면은 다른 사람 환갑잔치에 가시면은 본체르 얼마나 함둥?음. 그럼 할머니는 그 환갑잔치에 가시면, 다른 사람 환갑잔치에 가시면 부조를 얼마나 합니까?}

10225 # 돈오? 돈올르 본체르 하지. 아 기래 그전에는 그제 시운 냥두 하구 거저 백냥도 하구 이랬지. 시바~으느 많이[마이] 하오. 시바으느 작게 하는 사름이 양백원 하오. 시방 작게 하는 사름이 양백원 하오. 기래구 우리 아바이 상새나서 도이 많이[마이] 들어왔쌔소. (기침) 조 조꿈 집아~이나 그런 사름덜으느 돈으 천냥[천량]쌔 오백냥쌔. 이릉기 하오. 그릉기 하오.{돈올? 돈으로 부조를 하지. 아 그래 그전에는 그제 쉼 냥도 하고 그제 백 냥도 하고 이랬지. 시방은 많이 하오. 시방은 작게 하는 사름이 200원 하오. 시방 작게 하는

사름이 200원 하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돈이 많이 들어왔쌔소. (기침) 조 조꿈, 집안이나 그런 사름들은 돈을 1,000냥씩 500냥씩 이렇게 하오. 그렇게 하오.}

10225 @ 오백숨.{500숨.}

10225 # 아아, 천 숨씨 이릉기. (기침) 우리 조카 아덜으느 썩 오백숨씨 그릉기.{응, 1,000숨씩 이렇게. (기침) 우리 조카들은 썩 500숨씩 그렇게.}

10225 @ 많이 하압꾸마.{많이 합니다.}

10225 # 많이[마이] 하오. 시바~으느 그래오. 나두 어디메르 부조르 하거나 하무 백냥 아이 가져가오. 양백냥씨 가져가오. 기래 이래 꼬포르따(конверта)에 열어서.{많이 하오. 시방은 그러오. 나두 어디 부조를 하거나 하면 100냥은 안 가져가오. 200냥씩 가져가오. 그래 이래 봉투에다 넣어서.}

10225 @ 어디다 넣어서?{어디에다 넣어서?}

10225 # 꼬포르따(конверт)에다 열소. 이래 조잇장에다 열어서. 기래 고기다 이름으 써서 기래 (기침) 기래서 가져가오.{봉투에다 넣소. 이렇게 종잇장에다 넣어서. 그래 고기다 이름을 써서 그래 (기침) 그래서 가져가오.}

10225 @ 그거는 우리 고렷사름만 그렇게 하압둥? 여기 다른 민족두 그렇기 함둥?{그것은 우리 고려 사람만 그렇게 합니까? 여기 다른 민족도 그렇게 합니까?}

10225 # 다른, 다른 민족은 나는 땡기지 앓다나이 사름덜으느, 다른 민족들으느 큰 구일하는 사름덜으느 이런 이런 꼬보르(ковёр)랑 가져오테. 이런 꼬보르(ковёр)랑 가져오테. 기래 구 이, 이 민족 사름덜으느 어 차뻔(чапан)이랑 가져오구, 우티덜이랑 가져오구 이랍데. {다른, 다른 민족은 나는 다니지 앓다 보니 사름들은, 다른 민족들은 큰일이 있는 사름들은 이런, 이런 양탄자랑 가져오테. 이런 양탄자랑 가져오테. 그리고 이, 이 민족 사름들은 어 차뻔(민족 의상)이랑 가져오고, 옷을 가져오고 이러데.}

10225 @ 차뻔{차뻔?}

10225 # 아 찻반 옷거리 우티르.{응 찻반, 옷옷 옷을.}

10225 @ 우티 이름이 차뻔임둥?{옷 이름이 ‘찻반’임니까?}

10225 # 야~. 그래 가져오테. 그러나 잘 보내는 사름덜이사 도이 마이 들어오겠지. 그러나 우리네는 그릉기 어디메르 부조르 많이[마이] 못하다나이 그릉기 많이[마이] 못 들어오. (기침) 그제 나가는 것마:이 들어오지. 나가는 것마이 들어오지.{응. 그렇게 가져오테. 그러나 잘 지내는 사름들이야 돈이 많이 들어오겠지. 그러나 우리네는 그렇게 어디 부조를 많이 못하고 보니 그렇게 많이 못 들어오오. (기침) 그제 나가는 것만큼 들어오지.}

@ 여기 우리 고려:동포들이 끼르기즈 이쪽 사름덜하구 이릉기 잘 지넌니까?{여기 우리 고려 동포들이 키르기즈 이쪽 사름들하고 이렇게 잘 지넌니까?}

# 잘 지내는 사름덜은 잘 보내지 무.{잘 지내는 사름들은 잘 지내지 뤼.}

@ 잘 보냄둥?{잘 지냄둥?}

# 으응. 거저 우리 같은 거느 야덜이 잘 버지 못하지. 기래이 거저 우리네느 좀 바뿌지. 우리네 좀 바뿌우. 기래구 잘 버:는 사름덜으느 비지네스(бизнес) 잘 데는 사름덜으느 일없기 보내우. 이: 늑으이덜으느 이 늑으이덜으느 그제 어티기 잘 살겟소. 자숙덜 잘 살무 거기서 좀 돈으 조금 좀 기래 돕아 주무 살지. 바뿌우.{응. 그제 우리 같은 사름은 이 아이들이 잘 벌지 못하지. 그러니 그제 우리네는 좀 힘들지. 우리네 좀 힘드오. 그리고 잘 버는 사름들은 사

이 잘 되는 사람들은 괜찮게 세월 보내오. 이 늙은이들은, 이 늙은이들은 그저 어떻게 잘 살  
겠소. 자식들이 잘 살면 거기서 좀 돈을 조금 좀 그래 도와 주면 살지. 힘드오.}

@ 그러면 아매 그 뉘기 그 식집가구 서방갈 때 그 때두 돈을 가져 가압지.{그럼 할머니 그 누  
가 그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 때도 돈을 가져 가지요?}

# 아이구! 못, 가져가재윙구.{아이고! 못, 가져가고 말고.}

@ 그 돈은 무슨 돈이라 함등?{그 돈을 무슨 돈이라 합니까?}

# 아, 그것두 부조라 하지.{아, 그것도 부조라 하지.}

@ 부조?{부조?}

# 부조라 하지.{부조라 하지.}

@ 음. 그럼 본체는 뭐가 본체등?{부조. 음. 그럼 본체는 뭐가 ‘본체’입니까?}

# 기래 그래 본체두 그게 부조나 본체나 거저 같은 말이지. 아.{그래 그래 ‘본체’도 그게 ‘부조’  
나 ‘본체’나 그저 같은 말이지. 응.}

@ 아아.{아.}

# 기래 그것두 그렇지. 어:: 늙으이 난 조마네, 잔체 딱 그저 가깝운 집아이나 그래무 가지 이  
내 어느 조캐딸이 시집가나 그래두 내 아이 가오. 늙으이 거기르. 아이 가오. 잔체느 난 아  
이 가오. 기래구 아아 생긴은, 아아 생긴은 가오. 잔체느 아이 가오. 기래구 한갑우느, 한갑  
우느 어 어징간한 멘목은 아이 가오. 거저 멘목이 좋:구야 가구. 아 시방으느 어찌 이 근래  
느 자석덜이 이렇기 사이까때 야 칠십주이나 어 칠십오주이나 팔십주이랑 채리오. 우리 아  
바이두 어 이른 다스해 그것두 채랫됐소. 팔십주이느 어 지난해 사월 예레셋날에. 그, 그렇  
기 여기서느 채리오.{그래 그것도 그렇지. 어 늙으니까 난 좀처럼, 잔치 딱 그저 가까운 집안  
이나 그러면 가지 이 내 어느 조카딸이 시집을 가져나 그래도 내 안 가오. 늙은이가 거기를.  
안 가오. 잔치는 난 안 가오. 그리고 아이 생일은, 아이 생일은 가오. 잔치는 안 가오. 그리  
고 환갑은, 환갑은 어 어징간한 멘목에는 안 가오. 그저 멘목이 많이 있고야 가고. 아, 시방  
은 어찌 이 근래에는 자식들이 이렇게 사니까 응 칠십 주년이나 어 칠십오 주년이나 팔십  
주년이랑 차리오. 우리 할아버지도 어 75주년 그것도 상을 차렸소. 팔십 주년은 어 지난해  
사월 열엿셋날에. 그, 그렇게 여기서느 차리오.}

10227 @ 그러면 그:: 상사 때: 누가 상세났을 때 그 때에 가지구 가는 그 돈의 무스거라구 함  
등?{그러면 그 상사(喪事) 때 누가 죽었을 때 그 때에 가지고 가는 그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0227 # 그거 가지구 가매?{그거 가지고 가며?}

10227 @ 그 돈은 무스거라 함등?{그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0227 # 그 돈으느, 어떤 사름으느 사~에 이렇기, 그 상세나제엿소? 그 상세나무 사~에다 갖  
추우. 우리 여기서느. 술잔으 놓구 수윽으 놓구 그룽기 이 놓지. 개 그 우에다가 돈으 놓  
소. 돈으 이래 봉지다. 펜지봉치처리 이래서리 여기선 거기다 놓소. 개 놓구서리 거저 절  
하지. 세 번 절하구.{그 돈은, 어떤 사람은 상에 이렇게, 그 누가 죽어잖소? 그 죽으면 상  
에다 돈을 갖추어 놓소. 우리 여기서느. 술잔을 놓고 술을 놓고 그렇게 놓지. 그래 그 위  
에다가 돈을 놓소. 돈을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편지봉투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느 기  
다 놓소. 그래 놓고서 그저 절하지. 세 번을 절하고.}

10227 @ 세 번!{세 번!}

10227 # 야~ 세 번 절하오.{응 세 번을 절하오.}

10227 @ 그때 그 돈은 그 뭐라구 함등? 본체라구 함등, 고렘이라구 함등, 부조라구 함등?{그  
때 그 돈은 뭐라고 합니까? ‘본체’라고 합니까, ‘고렘’이라고 합니까, ‘부조’라고 합니까?}

10227 # 부조라 하지.{부조라고 하지.}

10227 @ 가지구 가는 돈은. 아 부조라구 함등?{가지고 가는 돈을. 아 부조라고 합니까?}

10227 # 부조라구 하지. 보춧돈으느 꼭 있어야. 이거 보오! 상세나두 부춧돈이, 잔체두 부춧돈  
이, 아 생진두 부춧돈이, 예: 한갑에두 부춧돈이. 썩다 그렇소.{부조라고 하지. 부춧돈은  
꼭 있어야. 이거 보오! 죽어도 부춧돈, 잔치를 해도 부춧돈, 아이 생일도 부춧돈, 예 환갑  
에도 부춧돈. 썩다 그렇소.}

10225 @ 잔체할 때두 그렇구.{잔치를 할 적에도 그렇고.}

10225 # 야~ 잔체할 적에두 그렇기.{응 잔치할 적에도 그렇게.}

# 기래 나는 받은 게 많다나йка때. 야! 내 이 그런 거 뻘시(пенсия)르 타두 그런테르 많이[마  
이] 땡기우. 내 애이 빼놓구 땡기우. 내 받은 도~이 많다나이. 아이 빼놓소. 어징간한 테느  
다아 땡기지. 기래 우리 노친덜이 야아! 작:작 땡게라. 기래, ‘야! 어찌겠냐. 받은게 많안게.’  
받은게 많다나이 나가는 돈두 있어야 데지. 그렇게이오? 어찌 내것마 가서 기래구 내애 애  
이 보내겠소.{그래 나는 받은 것이 많다 보니까. 야! 내가 이 그런 거 연금(年金)을 타도 그  
런 테를 많이 다니오. 내 안 빼놓고 다니오. 내 받은 돈이 많다 보니. 안 빼놓소. 어징간한  
테는 다 다니지. 그래 우리 노친덜이, ‘야! 작작 다녀라.’ 그래 내가 말하기를, ‘야! 어찌하겠  
냐. 받는 것이 많은 사람이.’ 받은 것이 많다 보니 나가는 돈도 있어야 되지. 그렇잖소? 어찌  
내 것만 가서 그러고(취하고) 내 것은 안 보내겠소.}

@ 그래두 아매 이백 솥, 오백 솥, 천 솥써 갖구 다니실라무 힘드제이오.{그래도 할머니 200솥,  
500솥, 1,000솥씩 가지고 다니시려면 힘들잖소?}

# 못 가지구 땡기지.{못 가지고 다니지.}

@ 바뿌제이오?{힘들잖소?}

# 게 이번에 어찌다가 내 가깝운 동미 가깝운 동미 에따(это) 모스크바 상세났지. 기래 가는  
테르 오백솥 보냈소. 오백솥. 내 늙으이래두 오백솥 보냈소. 기래 그 사름덜이 우리 아바이  
인테르 올 적에는 약 싸잡수시라메 오백솥씩 가져오구. 가져, 어저느 그래 난 오백솥 보내두  
기게 작게 보냈지. 그 사람 오무 어 오백솥씩 약으 싸마시라구 하메 오백솥씩 주지. 아이,  
삼백솥씩 주지. 그양: 그렇게 오무 중단 말이지. 기래 나는 이번에 상세났다구 해서 오백솥  
씩 기계 작짐. 기래두 애매 보내다나йка때 기계 그 사름덜게느 큰 도이지.{그래 이번에 어  
찌다가 내 가까운 동무 가까운 동무 음 모스크바에서 죽었지. 그래 가는 편에 500솥을 보냈  
소. 500솥. 내 늙으이래도 500솥 보냈소. 그래 그 사름덜이 우리 할아버지 있는 데로 올 적  
에는 약을 사 잡수시라고 하며 500솥씩 가져오고. 가져오고 했으니, 이제는 그래 난 500솥을  
보내도 그게 작게 보낸 게 되지. 그 사람 오면 어 500솥씩 약을 사서 마시라고 하며 500솥  
씩 주지. 아니, 300솥씩 주지. 그양: 그렇게 오면 중단 말이지. 그래 나는 이번에 죽었다고 해  
서 500솥 부조를 했는데 그게 작지 뭐. 그래도 할머니가 보내다 보니 그게 그 사름들에게느  
큰 돈이지.}

@ 그렇지.{그렇지.}

# 그러, 그렇소 그저 우리네.{그러, 그렇소 그저 우리네.}

@ 그러면 아매 여기에 이 비슈케크에 음: 고려노인협헤라는 게 있쥬?{그러면 할머니 여기에  
이 비슈케크에 음: 고려노인협회라는 것이 있쥬?}

# 노인다이.{노인단(老人團).}

@ 노인다이.{노인단.}

# 야~.{응.}

@ 노인다이에 그 오시는 그 아매 아바이덜으 전부 땃 분이나 땀등?{노인단에 그 오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부 땃 분이나 땀니까?}

# 아: 어떤 적에느 우리 무궁화, 무궁화라구 노인다이 있어. 그게 무궁화 어째서 무궁화인가 하이 그전에 체목사이.{아 어떤 적에는 우리 무궁화, 무궁화라고 노인단이 있어. 그게 무궁화, 어째서 무궁화인가 하니 그전에 최 목사가.}

@ 음.{음.}

# 영겔목살을르 왔지. 어: 어시덜으느 어 아메리카(Америка)에 잇답테.{여기로 목사 신부로 왔지. 어 부모들은 어 미국에 있다테.}

@ 아아!{아!}

# 기래 여기르 와서 어 땃 해간 우리가 같이 일 일하메서리 기랫땃어. 개두 우리네두 그 첼르코(церков) 이 게후두 그 사름덜 말, 그: 목사의 얘:기두 들구. 이래메 기래. 켜데 그: 목사는 그 체목사이라 하는 그 사름우느 어 말이 우리랑 같으단 말이오. 이롱기 꺼드렁꺼드렁 아이하구 우리와 같이 말합테. 그런 목사이 땃땃어. 기래게 예비 와서 말하기르 그 사름운 어디메 목사인가 하무 야~ 그 문:, 무놉스끼 무놉스끼 그런 거기오. 아미리카 큰 예따(это) 목사예 문이라는 소리 들었어? 문?{그래 여기를 와서 어 땃 해간 우리와 같이 일 일하면서 그렸었어. 그래도 우리네도 그 교회, 이 교회도 그 사람들 말, 그 목사의 이야기도 듣고. 이러며 그래. 그런데 그 목사는 그 최목사라 하는 그 사람은 어 말이 우리랑 같단 말이오. 이렇게 말이 까다롭지 않고 우리처럼 말하테. 그런 목사였었어. 그런 사람이 아버가 와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어디 목사인가 하면 응 그 문, 무놉스끼 무놉스끼 그런 소속이오. 미국 큰 음 목사예 문이라는 소리 들었어? 문?}

@ 음, 문선명?{음, 문선명?}

# 문선사이.{문선생.}

@1 예, 문선명.{예, 문선명.}

# 문선명이. 옴소! 문선명이란 그런 그 그으 앞을루 그 사름이 왔땃어.{문선명이. 옴소! 문선명이란 그런 그 사람을 앞세우고 그 사람이 왔었어.}

@ 아아!{아!}

# 기래서 어 우리 처음우 노인단 열 적에 무궁화라구 저었어. 기게 한국에 꽃이 무궁화라지. {그래서 어 우리 처음에 노인단을 열 적에 무궁화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게 한국에 꽃이 무궁화라지.}

@ 아아.{아아.}

# 그래 그 사름이 차암 우리 노인단 열었땃어. 기래 기래제주 이제 어 누가 이래오. 내 사둔택이. 쓸데없는 말으 하지 마오. 내 쓸데없는 말은 내 무식한게[무식한게] 어디메서 그렇게 어 좋은 말은 내 예우겄소. 그 사름덜이 어 물어보무 그거 대답은 하오. 기래 아 이 끼르키스 어떻게다는 말은 하지 마오. 아, 끼르키스 어떤지 내 어티기 아오. 내 끼르키스 어떤 거 내 아오? 어 나느 예따(это) 제 알지? 내 글이 없어서 그런 거 모르는 거. 그전에 우리 아바이느 이 끼르키스 무시기 다아 알았지만 해두. 내 그거 아오? 아바이 없는 게. 내 그렇기 이제 전화하메서 그룽기 말했땃소.{그래 그 사람이 처음 우리 노인단을 열었어. 그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 누가 이러오. 내 사둔택이.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오. 내가 쓸데없는 말은, 내 무식한 것이 어디서 그렇게 어 좋은 말을 되풀이하여 말하겄소. 그 사람들이 어 물어 보면 그거 대답은 하오. 그래 아 이 키르키스 어떻게다는 말은 하지 마오. 아, 키르키스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아오. 내가 키르키스가 어떤지 아오? 어 나는 음 자기가 알지? 내 글이 없어서 그런 거 모르는 것을. 그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키르키스에 관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알았지만 해도. 내가 그거 아오? 할아버지 없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이제 전화하면서 그렇게 말했소.}

@ 저이들은 알구 싶지두 않습꾸마.{저희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 아이! (쫂) 나는 그저.{아니! (쫂) 나는 그저.}

@ 끼르키즈는 알구 싶지 않습니다.{키르키스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 아이구! 그애 나느 볼세예 예, 그 그 끼르키스에 대해서는 그거 옴판 모른다구. 기애구 그저 그분네들 와서 내가 내 어떻게 사는 거 그거 얘:기르 하라이까테 물어보무 그거 대답은 한다구. 그런데 나느 얘기할 게 없다구. 내 이래 낫소. (웃음) 내 무스거 알아서 그런 거 어 기거이 조선말르느 무시기든지 모르나 이 노시말르느 뽀리찌까(политика)라 하오. 개 그거 내 어티기 아오. 그런 거사 내 모르지. 우리 아바이사 그런 거 잘 아지. 그러나 나느 그런 거 대에서느 한나투 모르오.{아이고! 그래 나느 예, 키르키스에 대해서는 그거 원래 모른다고. 그리고 그저 그분네들 와서 내가 내 어떻게 사는 거 그거 이야기를 하라니까 물어 보면 그거 대답은 한다고. 그런데 나느 얘기할 것이 없다고. 내 이렇게 말을 해 놓았소. (웃음) 내 무엇을 알아서 그런 거 어 그것을 조선말로는 무엇이러 하는지 모르나 이 러시아 말로는 ‘뽀리찌까’(정치)라 하오.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아오. 그런 것이야 내가 모르지. 우리 할아버지야 그런 거 잘 알지. 그러나 나느 그런 거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오.}

## 2. 생업 활동(농사, 고본질)

@ 원동을 강동이라고는 아니 했습니까?(원동을 강동이라고는 안 했습니까?)

# 그렇기 그전:에 그랬지. 들었지. 강도~올르 돈벌라온다구. 강도~이 이 노시아파이지. 그래.{그렇게 그전에 그랬지. 들었지. 강동(江東)으로 돈을 벌러 온다고. 강동이 러시아 땅이지. 그 래.}

@ 강동올르.{강동으로.}

# 기래두 우리 원동서부터 원동서 마마 이길르 들어오길래 에따(это) 그저 엠메 먹은 사름덜 이 거저 우리 영감이나 그 사름덜으느 원동에서는 글두 모 이르구 어느 촌에서 초이래두 그 저 메 호씨 이렇기 살지. 이렇게 어디 나가서 공부하기는 바쁜 처지맏다구. 우리 우리 영감 이 그리 말하지. 기래에서 기래지. 우리네 여기 들어오길래 썩 낫아졌다고서리 그렇기 말합 데.{그래도 우리 원동에서부터 원동에서 어머니 여기로 들어오기에 음 그저 얼마 나이를 먹 은 사람들이 그저 우리 할아버지나 그 사람들은 원동에서는 공부도 못하고 어느 촌에서 촌 이라도 그저 몇 호씨 이렇게 살지. 이렇게 어디 나가서 공부하기는 힘든 처지였었다고. 우 리, 우리 영감이 그리 말하지. 그러면서 그래지. 우리네 여기 들어왔기에 썩 나아졌다고 그 령게 말하데.}

@ 그래 원동에서 여기로 와서 사는 것이 썩 낫아졌다.{그래 원동에서 여기로 와서 사는 것이 썩 나아졌다.}

# 썩 낫아졌다구. 그렇기 말합데.{썩 나아졌다고. 그렇게 말하데.}

10103 @ 음, 그러면 아메 그 여기 우리 고려사람들이 고본질 많이 하재임둥.{음, 그러면 할머 니 그 여기 우리 고려 사람들이 ‘고본질’을 많이 하잖습니까?}

10103 # 그전에.{그전에.}

10103 @ 고본질 많이 해서 돈으 많이 벌재임둥?(고본질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 까?)

10103 # 그전에 고본질 했지 시바으느 고본질의 하, 한나투 여기 없소.{그전에 고본질을 했지 시방은 고본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여기 없소.}

10103 @ 그전에 그 고본질했던 거 그거를 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옵소.{그전에 그 고본질했 던 거 그것을 좀 상세히 말해 주십시오.}

10103 # 아아! 우리 고본질한 거느 우리 고본질 바쁘게 했어. (쫌) 우리 어: 팔년도에 우리 여 기르 어: 이른 아홉해에 와서 팔십년도에 농사질했어 처암. 처암 농세질해두 밭으 죄끔 가지구 죄끔 농사질으 하다나йка테 그 해 잘 아이테서 어 다숫 천 했어. 그때는 우리 이 쏴우나 이렇재했어. 루블리 땃땃어. 전: 러시아에 루블리 땃땃어 그 때느.{아아! 우리 고본질한 거 우리 고본질 힘들게 했어. (쫌) 우리 어 8년도에 우리 여기로 어 1979년에 와서 1980년도에 농사를 지었어, 처음. 처음 농사를 지어도 밭을 조금 가지고 조곰 농사 를 짓다 보니 그 해 잘 안 되어서 어 5,000루블을 했어. 그 때는 우리 ‘숨’(키르기스의 화 폐)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 ‘루블’이었어. 전부 러시아의 ‘루블’이었어 그 때느.}

10103 @ 소비에트가 그랬지.{소비에트가 그랬지.}

10103 # 소비에트 주권(主權)이 데다나йка테 루블리 땃땃지. 기래 다숫 천이 땃땃지. 다숫 천

으 벌어서 거저 그해 동삼우 살구 그 이듬해 또 고본질의 하구 그 이듬해에 고본질해서 야든한 해 고본질해서 잘 땃땃어. 스물 다숫 천으 벌었땃어. 스물다숫 천이 그때 큰도이 땃땃어. 기래 이 집으 쫌지. 기래구서 내 따시켄트서 와서 저쪽에 거기는 좀 아이 좋은 데오. 포로이게스라구 거기 가서 열네천으 주구 싸구. 그 담에 여기와서 그 이티만에 이 집우 땃땃어. 이티 아이지. 팔십년도에, 그래 이티 옳지. 팔십년도에 어 구십 저기 일혼아 홉해에 그 집우 싸구 일혼아홉해에 그집우 싸구서리 어 팔십년도에 싸구 어: 팔, 야든 두 해에 이 집우 땃땃어. 기래 한해르 조금 더 잇었어. 거이 두해 잇었땃어. 그 집우 팔구서 리 이 집우 돈으 단숨에 버다나йка테 이 집우 스물다숫 천으 주구 쫌지.{소비에트 주권 이 되다 보니 사용 화폐가 ‘루블’이 되었지. 그래 농사를 지은 것이 5,000루블이 되었지. 5,000루블을 벌어서 그저 그 해 겨울을 나고 또 고본질을 하고 그 이듬해에 고본질을 해 서 81년도에 고본질을 해서 달 되었었어. 25,000루블을 벌었어. 25,000루블은 그 때 큰돈 이었지. 그래 이 집을 샀지. 그래고서 내 타슈켄트에서 와서 저쪽에 거기는 좀 안 좋은 데오. 포로이게스라고 거기 가서 14,000루블을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그 이태 만에 이 집을 샀어. 이태 아니지. 1980년도에, 그래 이태 옳지. 80년도에 어 90 전기 79년 도에 그 집을 사고 79년도에 그 집을 사고 사고서 어 80년도에 사고 어 팔, 82년도에 이 집을 샀어. 그래 한 해를 조금 더 잇었어. 거의 두 해를 잇었어. 그 집을 팔고서 이 집을 돈을 단숨에 벌다 보니까 이 집을 25,000루블을 주고 샀지.}

10103 @ 그럼 아메 그 제가 고본질이라는 게 잘 뵈지 모릅꾸마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책에서 봤습꾸마.{그럼 할머니 그 제가 고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 서 이렇게 책에 보았습니다.}

10103 # 아아, 고본질 어터게 하는 게.{아, 고본질을 어떻게 하는지.}

10103 @ 우리 고려사람들이 고본질의 많이 해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다른 민족보다 아주 우수 하게 잘 산다구.{우리 고려 사람들이 고본질을 많이 해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다른 민족 보다 아주 우수하게 잘 산다고.}

10103 # 아이구!{아이고!}

10103 @ 책에서 봤습꾸마. 켜데 고본질을 그러니까 어터게 했습둥 전에는?(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본질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10103 # 전에는 전에는 어떻게 한 거 모르나 우리네느 가즈 시책이르 하다나이 열시해르 딱 고본질의 했어. 열시해르. 열시해르 고본질의 하는데.{전에는 전에는 어떻게 한 것을 모 르나 우리네는 갓 시작을 하다 보니 열세 해를 딱 고본질을 했어. 열세 해를. 열세 해 고 본질을 하는데.}

10103 @ 그러니까 어티기 하는 게 고본질하는 검둥?(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고본질하는 것입니까?)

10103 # 에따(это) 파이르 쫌지, 파에.{음 파 농사를 짓지, 파.}

10103 @ 어디, 어드메 가서.{어디, 어디 가서.}

10103 # 저어기 밭에서.{저기 밭에서.}

10103 @ 남에 밭에 자기 밭에?(남의 밭입니까? 자기 밭입니까?)

10103 # 어어쨌! 국가밭이지. 키르기즈 국가밭에서 일하지 따아 가지구 기래구서 거기다가서리 돈으 따아 값으 물어야 데지. 국가에다 물어야 데지. 기래구 떨어진 거느 내 가지짐. 그 령기 쨌짐.{어쨌! 국가 밭이지. 키르기스스탄 국가 밭에서 일하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

고 그리고서 거기다가 돈을 땅값을 물어야 되지. 국가에다 물어야 되지. 그리고 떨어진 것(남은 것은)은 내가 가지지 뭐. 그렇게 했지 뭐.}

10103 @ 그러니까 아까 파지가 말씀하셨제임둥? 그 파지이르 어떻게 했슴둥?(그러니까 아까 파농사를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파농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10103 # 파지이르 재빌르 썩 시무오. 재빌르 썩다 가지구서리 따아 그거 썩 딱 궁가 놓구서리 씨두 재빌르 썩 영소. 씨르 영어서 그담에느 씨 나오기만 하무 어 물으 대에서 재래와서 약으 치지. 그거 야아! 힘이 드오. 기래구 시방으느 썩 썩으 내오. 사름덜 하는 게 썩. 우리네 썩으 못 내밧소. 재빌르 그저 한 게타르 밭으 재빌르 썩 기래 했댜어. 이 스물다섯 천 할 적에느 두 겹타르(гектар) 가지구 했댜어. 기래 스물 다섯 천으 했어.{파농사를 자기가 썩 시무오. 자기가 썩다 차지하고서 땅을 그거 썩 딱 구멍을 내고서 씨도 자기가 썩 넣소. 씨를 넣어서 그 다음에는 씨 나오기만 하면 어 물을 대서 길러서 약을 치지. 그거 야! 힘이 드오. 그리고 시방은 썩 썩을 내오. 사람들 하는 것이 썩. 우리네 썩을 못 내보았소. 자기가 그저 한 헥타르 밭을 자기가 썩 그렇게 했댜어. 이 25,000루블을 벌 적에는 두 헥타르를 가지고 했댜어. 그래 25,000루블을 벌었어.}

10103 @ 그러면은 그렇게 파지이르 해에서 예 이제 그걸 거두제임둥? 거더서.{그러면 그렇게 파농사를 해서 예 이제 그걸 거두지 않습니까? 거두어서.}

10103 # 거두기느 학상아덜이 거두오. 학상 아덜이. 학상아덜이 글으 이를 적이무 그때느 그게 어: 팔얼 쏬네즈(конец) 팔월이고 나찰라(начало) 구월이지. 기랩 학상아덜이 나와서 그거 거두오. 그래 아덜이 가서 뽑지. 뽑구 자르구 커우대 영구 그렇지. 기래구 커우대 영어서는 우리 집어서느 실어 가져가지. 그렇기 이 농새르 했댜어.{거두기는 학생들이 거두오. 학생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적이면 그 때는 그게 어 8월, 끝이 8월이고 시작이 9월이지. 그러면 학생들이 나와서 그거 거두오. 그래 아이들이 가서 뽑지. 뽑고 자르고 자루에다 넣고 그렇지. 그리고 자루에 넣어서는 우리가 집어서 실어 가져가지. 그렇게 이 농사를 지었어.}

10103 @ 그럼 어 어디가서 파암둥?(그럼 어 어디 가서 팝니까?)

10103 # 그거 받는데 잇소. 어: 그렇기 받는 데 잇소. 국가서 그거 파이르 가져가무 마시나(машина)들이르 해서 밧소. 개구 돈으 거기서 내 주지. 기래구서리 국가다가서리 돈으 밧이 값으 물어야 데지. 그랬댜어.{그것을 받는 데가 잇소. 어 그렇게 받는 데가 잇소. 국가에서 그거 파를 가져가면 자동차 들이로 해서 밧소. 그리고 돈을 거기서 내 주지. 그리고 국가에다가 돈을 밧값을 물어야 되지. 그랬어.}

10103 @ 그럼 지금 이게 그 아메 콜호즈 아임둥? 그러면 아메 콜호즈에서 파지이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콜호즈(колхоз)에 가서 파지이르 할 수 있슴둥? {그럼 지금 이게 그 할머니 콜호즈가 아님니까? 그러면 할머니 콜호즈에서 파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콜호즈에 가서 파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10103 # 하제잉구! 하제잉구!{하고 말고! 하고 말고!}

10103 @ 땅을 빌려서.{땅을 빌려서.}

10103 # 따아 빌어서 하제잉구! 따아 떼기마 하무 다아 하짐. 아 시방도 따아 떼에가지구 하짐. 하는 게.{땅을 빌려서 하고 말고! 땅을 떼기만 하면 다 하지 뭐. 아 시방도 땅을 떼어 가지고 하지 뭐. 고본질 하는 게.}

10103 @ 떼에가지구.{땅을 떼어 가지고.}

10103 # 떼에가지구 해제잉구. 시바으느 그런 거 마:이 밭으 가지구. 시방으느 조금 가지구 이익이 한나투 없소. 마::이 가지구 썩으 영지. 기래구서 하지. 그룽기 시방으느 그전처르 돈으 못 베토. 돈으 못 베토. 우리넨 작게 가지구 재빌르 하다나이 돈으 마이 벌었지.{떼어 가지고 하고 말고. 시방은 그런 거 많이 밧을 가지고 하지. 시방은 조금 가지고 이익이 하나도 없소. 많이 가지고 썩을 넣지. 그래고서 하지. 그렇게 시방은 그전처럼 돈을 못 베토. 돈을 못 베토. 우리넨 작게 가지고 자기가 하다 보니 돈을 벌었지.}

10103 @ 욕심 부리지 앓구. 조금씩 조금씩 하구 열심히 하니까 돈이 돌 돌왔쥬. 음. 그러문 파지가 밧구 우리 고렷사람덜이 또 어떤 농사를?{욕심 부리지 앓고. 조금씩 조금씩 하고 열심히 하니까 돈이 들어왔쥬. 음. 그러면 파 농사 말고 우리 고려 사람들이 또 어떤 농사를 지었습니까?}

10103 # 수박지이르.{수박 농사를.}

10103 @ 수박지이르 했슴둥?{수박 농사를 했습니까?}

10103 # 어~. 수박가 파지이르 고렷사람덜이 치우라 하구. 기애구 다드베체르, 대드베체 잇재오? 그 다드베체질하는 사름덜두 잇어. 그게 도이 잘 아이 테오. 그래구 또 고치, 가지르 쥬는 사름덜두 둥간 사름덜이. 둥간 그게 끼따이스끼 같은 사름덜이우. 그 사름덜두[뚜] 그 까지이지이르 고치 그래 시무는 사름덜이 여기 잇어.{음. 수박과 파 농사를 고려 사름들이 전적으로 하고. 그리고 양배추를, 양배추 있잖소? 그 양배추 농사를 하는 사람들도 잇어. 그게 돈이 잘 안 되오. 그리고 또 고추, 가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잇는데 화교(華僑)들이. 화교 그 사람들이 중국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오. 그 사람들도 그 가지 농사를 짓고 고추를 그렇게 심는 사람들이 여기 잇어.}

10103 @ 음. 그러면 그 수박지이느 어터게 함둥?{음. 그럼 그 수박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103 # 수박지이두 그거 밭으 따아 떼에 가지구 하지. 따아 그거 국가 따아 가지구서리 돈으 물어야 데지. 가슬이무 돈으 물어야 데지. 일리(или) 도이 많안 사름우느 따아 땀 적에 돈으 물구. 그래, 그렇지. 그래.{수박 농사도 그거 밧을 땅을 떼어 가지고 하지. 땅을 그거 국가 땅을 가지고 돈을 물어야 되지. 가을이면 돈을 물어야 되지.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은 땅을 땀 적에 돈을 물고. 그래, 그렇지. 그래.}

10307 @ 그럼 차암부터 말씀해 주옵소. 수박:지이르 할려면은 어떻게 함둥?(그럼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수박 농사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10307 # 수박지이르 해에서 다아 기게.{수박 농사를 해서 다 그게.}

10307 @ 밧을 먼저 어떻게 함둥?{밧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10307 # 밧으? 아 밧으 그것두 트랙포르(трактор) 잇어야 데지. 트랙포르(трактор)르 썩 그거 골따아 져어서, 기래서 시무오. 시무는 거느 썩 손올르 시무우, 우리네느. 시방은 밧으 마이 가지다나이 에파 포락포르(трактор)르 시문답테. 우리네느 그전에 시방 시무는 거느 나느 모르우. 그전에느 우리네 밧으 한 겹타르(гектар)르 가지구 썩 손올르 시무우. 시무는 데 어떠기 시무는지 아오? 우리네 여기서 아이 시무구 우리넨 페르메스 가서, 페르미스란 그으 보르르 가서 심었어. 기게 아후간, 아후간(Афган) 알기지? 그 아후간(Афган) 그라니짜(граница) 페라미쓰라는 데르 가 심는데, 예: 첫감에느 이룽기 시무오. 어, 굵으 해 놓구 따아 요막씨 요룽기 쥬우게 파오 요룽기. 요룽기 쥬우게 해서 파지. 기래 고기다 씨르 영구 어 두 알씨 영소. 두 알씨. 기애 영어서는 기게 나오기만 하무 한 알으 두구. 거저. 기랜테 그거 시무구서는 스라스(сразу) 잉게 뿌리온까(клеёнка)르, 시방 한국에서

미시기가 하는지 모르겠어. 새타얀 뿌리온까(клеёнка)르. 그런 그런 조에 있소. 그 그 뿌리온까(клеёнка)르 쪽 덮지 머 고라야 이렇게 해놓구 나~. 요기다 앞뒤에다 그런 거 이래 시무구. 개 덮어놓구 그담에 기계 따갑아서 빨리 올라오오. 그담에는 그거 야~ 어: 어찌는가 하이 잃기 궁구 뚫소, 요렇게. 한 알이 이래오. 궁구 뚫제일겠어? 굵으 이래 쳐놓구 앞뒤엿 요거 싹 이렇게 궁구 뚫소. 궁구 뚫어 놓으무 거기서 그제 올라오무 그제 올라오기마 하무 그 담에 이마:이 올라오지 아잉겏소. 또 앉아가매 그거 싹 덮소. 그 궁기르 싹 흙을르 막소. 흙을르 막아서 고 때까지 그런 그런 것만 잊지. 수박만 잊지. 그에이 앞두느 싹 그런 거 흙을르 덮어서 나~ 풀이 한 개두 못 나오. 못 나. 기래 그 메스포(место) 어간에 그 수박이 이쪽 수박이 있구 메스포 어간에 그제 베엿지 무. 맨: 흙이지. 그거 지슴매오. 그러나 저 수박질두 모:지리. 사연했어. 네 해르. 모:지 바쁘오. 기래구 그 수박으느 싹 제빌르 파오. 개 땃값으느 저리 물어야 데오. 땃값은 저리 무오. 기래 가서 수박질으 네 해르 했어. 네 해 해서 기애두 에따(это) 돈으 못 버는 때는 없었겏소. 기애 돈으 그양. 저어 우리 영겔이 일으 더 헤게없이 잘하오.{밭을? 밭을 그것도 트랙터가 있어야 되지. 트랙터로 싹 그거 고랑을 지어서, 그래서 심소. 심는 것은 싹 손으로 심소, 우리네는. 시방은 밭을 많이 가지다 보니 트랙터로 심는다데. 우리네는 그전에, 시방 심는 것은 나는 모르오. 그전에는 밭을 한 헥타르를 가지고 싹 손으로 심소. 심는 데 어떻게 심는지 아오? 우리네 여기서 안 심고 우리네는 페르메스 가서, 페르메스란 그 \*\*를 가서 심었어. 그제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알지? 그 아프간 국경 지방에 페르메스라는 데를 가서 심는데, 에 처음에는 이렇게 심소. 어 골을 해 놓고 땅을 요만큼씩 요렇게 깊게 파오, 요렇게. 요렇게 깊게 해서 파지. 그래 고기다 씨를 넣고 어 두 알씩 넣소. 두 알씩. 그래 넣어서 나오기만 하면 한 알을 두고. 그저. 그런데 그거 심고서는 이내 이렇게 비닐을, 시방 한국에서 무엇이라 하는지 모르겠어. 새하얀 비닐을. 그런, 그런 종이 가 있소. 그, 그 비닐을 쪽 덮지 고랑을 해 놓고 응. 요기다 앞뒤에다 그런 거 이렇게 심고. 그래 덮어 놓고. 그 다음에 그제 뜨거워서 빨리 올라오오. 그 다음에는 그거 응 어 어찌하는가 하니 이렇게 구멍을 뚫소, 요렇게. 한 알이 이러오. 구멍을 뚫지 않겠어? 골을 이렇게 쳐 놓고 앞뒤엿 요거 싹 이렇게 구멍을 뚫소. 구멍을 뚫어 놓으면 거기서 그제 올라오면, 그제 올라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올라오지 않겠소? 올라오기만 하면 앉아 싹 덮소. 구멍을 싹 흙으로 막소. 흙으로 막아서 고 때까지 그런, 그런 것만 잊지. 수박만 잊지. 그래 이 앞뒤는 싹 그런 거 흙으로 덮어서 응 풀이 한 포기도 못 나오오. 그래 그 자리 사이에 그 수박이 이쪽 수박이 있고 그제 자리 사이에 비었지 뭐. 맨 흙이지. 그거 김매오. 그러나 저 수박 농사도 몃시. 4년을 했어. 네 해를. 몃시 힘드오. 그리고 그 수박은 싹 자기가 파오. 그래 땅값은 그 때 물어야 되오. 땅값은 그 때 무오. 그래 가서 수박 농사를 네 해를 했어. 네 해 해서 그래도 음 돈을 못 버는 때는 없었소. 돈을 그냥. 우리 저 영겔이 일을 더 말할 수 없이 잘 하오.}

10307 @ 그러니까 돈으 벌으셨지.{그러니까 돈을 버셨지.}

10307 # 야~ 더 헤게없이 일으 잘 하오.{응 더 말할 수 없이 잘 하오.}

10307 @ 그러면 수박이 이렇게 이렇게 싹이 나오재임둥? 이렇게 벌어나가재임둥? 예. 그럼 그 담부터느 어떻게 손질함둥?{그러면 수박이 이렇게, 이렇게 싹이 나오잖습니까? 이렇게 줄기가 벌어나가잖습니까? 예.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손질합니까?}

10307 # 그거 벌어나오는 거느 어떤 사람덜은 가만: 내빼려두오. 기랩 바람이 불무 그제 이래

따로따로 구부재이오? 그러나 우리네 두울으느 거저 그거 나~ 너울이 나오잖겠어? 거저 흙데이 흙으 제에서 고 너울에다가 잎에다가 딱딱 이래 놓소. 기래무 거저 부채 같으오. 요렇게. 부채처럼 너울이 이룩기 받지 무 야. 이 너울이 이 너울이 마주 불구 발써 수박은 달겏소. 기래무 그 수박 너울이 이룩기 장하무 경계 수박이 야~ 열 길로써 달기는 게 그 밑에 싹 있소. 기랩 그 수박으 쳐압에는 저 우리 영겔이 싹 그거 메에내다가서느 웬: 첫벌으느 메에내다가 파오. 그 진: 거 사래르 그거 메에자무 수박이 또 어티기 뚫고롭소 야~. 그거 메에내오자무 어티기 바쁘오. 기애두 그거 싹 메에내다가서리 마시나(машина) 실어서느 기래 가져다 파지.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그 수박으 음 막 마시나(машина) 들어가오. 기래구 그담에는 수박이 잘 익으무 거저 지내 수박이라 할 쉬 없소 지내. 기래 마시나(машина) 들어가무 또 거기서 이 늦은 데르 어: 기차다가서 뽀에즈다(поезд)가 실어다가 야~ 어드메르 침운 데르 실어가오. 그 우리네 이쪽 발써 나~ 어: 오월 끝에 유월 첫겔애 발써 수박이 다아 익소. 기래 다른 데느 안죽은 아이 땃지. 이거 보오! 이제 여기 수박이 이제 칠월 수박이 나오재이오? 거기는 오월 쯤즈(конец) 에따(это) 유월이 나찰라(начало)나 거기 수박이 그양.{그거 벌어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 두오. 그럼 바람이 불면 그제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불지 않소? 그러나 우리네 둘은 그제 그거응 덩굴이 나오지 않겠어? 그제 흙덩이 흙을 켜어서 고 덩굴에다가 잎에다가 딱딱 이렇게 놓소. 그러면 그제 부채 같소. 요렇게. 부채처럼 덩굴이 이렇게 벌지 뭐 응. 이 덩굴과 이 덩굴이 마주 불고 별써 수박은 달렸소. 그러면 그 수박 덩굴이 이렇게 길면 거기에 수박이 응 10킬로그램씩 달리는 것이 그 밑에 싹 있소. 그럼 그 수박을 처음에는 저 우리 영겔이 싹 그거 메어 내다가 맨 먼저는 메어 내다가 파오. 그 긴 거 긴 이랑을 그제 메자면 수박이 또 얼마나 뚫그랏소 응. 그거 메어 내오자면 얼마나 힘드오. 그래도 그거 싹 메어 내다가서 자동차에 실어서는 가져다 팔지.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그 수박을, 음 막 자동차가 들어 가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박이 잘 익으면 그제 아주 수박이라 할 수가 없소 아주. 그래 자동차가 들어 가면 또 거기서 이 늦은 데로 어 기차에다가 기차에다가 실어다가 응 어디로 추운 데로 실어 가오. 그 우리네 일찍 별써 응 어 오월 끝에 유월 처음에 별써 수박이 다 익소. 그래 다른 데느 아직은 안 되었지. 이거 보오! 이제 여기 수박이 이제 칠월에 수박이 나오잖소? 거기는 오월 말(末)이고 음 유월 초(初)이거나 하면 수박이 그냥 나오지.}

10307 @ 음.{음.}

10307 @1 스빠시바(спасибо).{감사합니다.}

10307 @ 음. 스빠시바(спасибо). (웃음).{음. 감사합니다. (웃음).}

10307 @ 아아! 그렇게 해서.{아! 그렇게 해서.}

10307 # 그룽기 수박질하지.{그렇게 수박 농사를 짓지.}

10307 @ 남보다 먼저 해서.{남보다 먼저 해서.}

10307 # 그래 거기느 덩다나이 남보다 먼저 하지. 기래구 여기 채소 오는 게 거기서 덩운 데서 오오. 덩운 데서 오오.{그래 거기느 덩다 보니 남보다 먼저 하지. 그리고 여기 채소 오는 것이 거기서 더운 데서 오오. 더운 데서 오오.}

10307 @ 그러면은 아매 그 웨농사느?{그러면 할머니 그 오이 농사는 어떻습니까?}

10307 # 웨르 아이 해봣소.{오이 농사를 안 해 보았소.}

10307 @ 안 해 보셨슴둥?{안 해 보셨습니까?}



10307 # 모 해 밭소. 그제 수박가: 파지이르 했지.{못 해 보았소. 그제 수박과 파 농사를 했지.}

10307 @ 파지이르.{파 농사를.}

10307 # 야~ 기래구 이 웨라, 웨는 야~ 작년에 야덜이 하이까테 아이 텐다고 시방 아이 하제 이오? 작년에 야덜이 웨절으 했:댓어. 아이 텐다구. 기애구 도이 많이 들어가구. 어 파는 값이 적구. 기래 아이했소.{응 그리고 이 오이랑, 오이는 응 작년에 이 아이들이 하나까 안 된다고 시방 안 하잖소? 작년에 이 아이들이 오이 농사를 했었어. 안 된다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파는 값이 적고. 그래서 안 했소.}

10103 @ 음, 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고렷사람들이 고본질으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첫젠 파이구 고 담에 인제 수박이구 고담에.{음, 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고려 사람들이 고본질을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첫째는 파 농사고 고 다음에 이제 수박이구 고 다음에.}

10103 # 기래구 까지 고치질이지.{그리고 가지 고추 농사지.}

10103 @ 까지 고치 찰는 사름두 있구.{가지 고추를 짓는 사람도 있고.}

10103 # 그렇지.{그렇지.}

10103 @ 베[ve]느 거의 안 하구.{오이는 거의 안 하고.}

10103 # 웨느 거저 에 조선사름덜이 마이 애이 시무구. 그제 파이르 가슬하길래 돈으 빼느라 구 기래 하지.{오이는 그제 에 조선사람들이 많이 안 심고. 그제 파를 가을하기에 돈을 빼느라고 그래 하지.}

@ 음. 그럼 아메 아까 말씀하신 그 둥간이라는 거 있제임둥?{음. 그럼 할머니 아까 말씀하신 그 ‘둥간’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 둥간?{‘둥간’?}

@ 예.{예.}

# 어, 여기 둥가이 많소. 둥간 그제 말르느 누구 같은가 하무 야 저 저기 그런 중국사름 같으 우. 말이 중국사름말이 같으우. 그 사름덜이. 그렇기 말합데.{어, 여기 둥간(華僑)이 많소. 둥간 그제 말로는 누구 같은가 하면 응 저 저기 그런 중국사람 같소. 말이 중국사람말과 같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데.}

@ 그럼 뭇 둥간이라 함두?{그럼 무얼 둥간이라고 합니까?}

# 어:, 중국사름인테 거기 오블라스(область), 오블라스(область) 잇습데. 거기서 둥간덜 사압테. 그러나 그제 나느 잘 모르겠소. 우리 아바이사 그제 잘 아지. 나느 그제 잘 모르겠어. 그래 그 둥간덜이 여기서 채소질해서 배채 잇제이오? 김치 절구는 배채. 그 사름덜이 배채질 하오. 기래무 우리 싸서 동삼 철침치르 절구지. 그랬댓어.{어, 중국사름인테 거기 그 사람들이 사는 주(州), 주(州)가 있데. 거기서 둥간들 살데. 그러나 그제 나느 잘 모르겠소. 우리 할아버지야 그제 잘 알지. 나느 잘 모르겠어. 그 둥간들이 여기서 채소 농사를 해서 배추 있잖소? 김치 담그는 배추. 그 사람들이 배추 농사를 짓소. 그러면 우리 사서 겨울 김치를 담그지. 그랬어.}

@ 예.{예.}

10302 @ 음. 그럼, 예: 아메 저기 벼농사는 전에 옛날에 해 보셨습둥?{음. 그럼, 예 할머니 저기 벼농사는 전에 옛날에 해 보셨습니까?}

10302 # 벼농사는 내 새애가 떼기 벼농새르 했지.{벼농사는 내 처녀 때 벼농사를 지었지.}

10302 @ 그 때애: 열일고 여덟 아홉 고 무렵에 하셨다구.{그 때에 열일고여덟아홉 고 무렵에

하셨다고.}

10302 # 열아홉 스무 살 때 벼농새르 해밧소.{열아홉 스무 살 때 벼농사를 지어 보았소.}

10302 @ 고거를.{고거를.}

10302 # 그거느 오부세(оубсе) 사름덜이 마::이 그거느 꼬호즈(кoлхоз)서 하다나이 꼬호즈(кoлхоз)서 그렇기 벼농새질하지. 기래다나йка테 어 새아가덜이 마:이 그제 벼농새질하는 데서 어따(это) 심어 영어서 베덜이 이릉기 년들넌들 하무 지슴매야 테오. 풀으. 싹 돌피가 그제 베르 싹 갈가내야 데지. 기래 지슴매다나йка테 새아가덜 마:이 그제 마:이 요구 테오. 그 지슴 맨 데 그렇기 풀으 마:이 내야 데지. 그래 그것두 험한 일이 애잇댓어.{그것은 전체 사람들이 많이, 그것은 콜호스에서 하다 보니 콜호스에서 그렇게 벼농사를 짓지. 그러다 보니까 어 처녀들이 많이 그제 벼농사를 짓는 음 심어 넣어서 벼들이 이렇게 넘실넘실 하면 김을 매야 되어. 풀을. 싹 돌피와 그제 벼를 갈라내야 되지. 그래 김을 매다 보니까 처녀들이 많이 필요하지. 그 김맨 데서 그렇게 풀을 많이 내야 되지. 그래 그것두 쉬운 일이 아니었어.}

10302 @ 그럼 처음에 이렇게 그 논밭에다가 배밭에다가 물으 담고 그리고 거기다 씨르 앙게 놓습둥?{그럼 처음에 이렇게 그 논에다가 논에다가 물을 담고 그리고 거기다 씨를 이렇게 놓습니까?}

10302 # 아니! 저래 씨르 이릉기 뿌리오.{아니 물을 담는 결이 씨를 이렇게 뿌리오.}

10302 @ 아아! 뿌림둥?{아! 뿌립니까?}

10302 # 야~ 뿌리오. 씨르 뿌리오, 저래. 아이, 한국에서 보이까테 씨르 싹 왕깎테. 우리네는 싹 막 뿌리오. 기래 씨 단 데느 달구, 그래. 그렇소. 우리네 그렇기 에따(это):: 사십구연에 오십년도꺼지 그렇기 했댓어. 사십팔년에 그렇기 베질해댓어. 아아! 우리네 새아가덜 때 새아가덜 많댓소. 그래서 그 베질하지. 그 지슴우는 그 새아가덜이 다야 매야 데지. 어떡가나.{응 뿌리오. 씨를 뿌리오, 결에. 아니, 한국에서 보니까 씨를 싹 움기테. 우리는 싹 막 뿌리오. 그래 씨가 많은 데는 많고 그래. 그렇소. 우리네 그렇게 음 1949년도에 1950년도까지 그렇게 했었어. 1948년에 그렇게 벼농사를 지었어. 아! 우리네 처녀들 때 처녀들이 많았소. 그래서 그 벼농사를 짓지. 그 김은 그 처녀들이 다 매야 되지. 어떡하든지.}

10302 @ 으음. 그러면은 그렇게 씨르 뿌레 가지구 그제 이제 싹이 나왔제임둥? 아까 아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베돌피하구 예.{음. 그러면 그렇게 씨를 뿌려 가지고 그제 이제 싹이 나왔잖습니까? 아까 할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피하고 예.}

10302 # 어~ 그제 골라야 데지.{응 그제 골라야 되지.}

10302 @ 다야 그걸 갈가내야 데제임둥?{다 그걸 갈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10302 # 그래.{그래.}

10302 @ 켜테 요게 벤지 요게 돌핀지 그걸 어떻게 구분함둥?{그런데 요게 벼인지 돌피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10302 # 막: 뽕소. 그제 돌피구 배구 막 뽕아 데지오. 그제 기래오.{막 뽕소. 그제 돌피고 벼고 막 뽕아 버리오. 그제 그러오.}

10302 @ 그래두 돌피르 많이 뽕으셨을 거 아이둥?{그래도 돌피를 많이 뽕으셨을 거 아님둥?}

10302 # 마이 그래두 치우라 돌피책이 죄에꿈 알기우. 그러나 모르는 거느 아덜으느 그제 막 뽕아 데지우. 그제 무스 씨두 달지 무스.{많이 그래도 전적으로 돌피쪽이 조금 알아지오.

그러나 모른 것은 아이들은 그저 막 뽑아 버리오. 그거 무슨 뿌린 씨도 많이 모여 있지 뭐.}

10302 @ 아아 달지.{아 모여 있지.}

10302 # 달제왕구. 그제 요령기 왕기는 법이 없어. 거저 씨 막 거저 그렇기 많소. 어~. 기래 그 전에 이 저 우즈베크스탄에서는 이 베씨르 아잡아 아이 하구 뿌리우.{씨가 모여 있지 않고. 그제 요렇게 옮기는 법이 없어. 그제 씨가 막 그제 그렇게 많소. 응. 그래 그전에 이 저 우즈베크스탄에서는 이 벼씨를 아까워하지 않고 뿌리오.}

10302 @ 아! 그랬습둥?{아! 그랬습니까?}

10302 # 야~. 아이 아잡아 하구 뿌리우.{응. 안 아까워하고 뿌리오.}

10302 @ 그럼 아매! 그러면은 그렇게 베씨르 치기 전에 논을 필루 양게 알아엿거나 그런 거 없었습둥?{그럼 할머니! 그러면은 그렇게 벼씨를 치기 전에 논을 무엇으로 이렇게 알아엿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10302 # 싹 갈아서.{싹 갈아서.}

10302 @ 무슨걸르?{무엇으로?}

10302 # 첫감에는 트랙토를(трактор)르 갈지. 그담에는 왕기 드럭으 잡소. 드럭으 사람 사람 손으르 드럭으 잡소. 그래구서리네는 그 칸칸으. 시바~으는 어쩐질 아오? 드럭도 없소. 트랙토를(трактор)르 싹 장드랙이오 시바으는. 그전에는 요거 칸으 딱딱 잡구. 그제 이룩기 사람이 그런 걸르 야~ 낭글르 이룩기 맨들어서 그제 싹 손으르 양게 똑같이 놓, 그제 판으 똑같이 하오. 기래구서리 그제 씨르 칠 적에는 그제 물으 흥지와야 데지.{처음에는 트랙터로 갈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두렁을 잡소. 두렁을 사람 사람 손으로 잡소. 그리하고서는 칸 칸을. 시방은 어찌하는 줄 아오? 두렁도 없소. 트랙터로 싹 긴 독이오. 그전에는 요거 칸을 딱딱 잡아 놓고. 그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응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싹 손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누, 그제 판을 똑같이 하오. 그리하고서 그제 씨를 칠 적에는 그제 물을 호리게 해야 되지.}

10302 @ 흥지운다구?{‘흥지운다’고?}

10302 # 물으 호리와야 데지, 싹. 영. 그렇기 호리와농구 그담에 씨르 뿌리지.{물을 호리게 해야 되지, 싹. 응. 그렇게 호리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

10302 @ 호리와 놓는다는 게 뭇둥?{호리게 해 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10302 # 어따(это) 그래구야 베씨 그 물 물에 들어가 백이지. 물으 싹 이룩기 흥 흥지와 놓지. 아~.{음 그리하고서 벼씨 그 물 물에 들어가 박히지. 물을 싹 이렇게 호리게 해 놓지. 응}

10302 @ 아아! 그걸 그걸 호리…….{아! 그것을 그것을 호리게 해 놓는다고.}

10302 # 흙이 막 이룩기 호리와농구야 그 베씨 그제 깔았으매 그 베씨두 그 흙밑으르 들어가 지. 그 담에 싹이 올라오지.{흙이 막 이렇게, 호리게 해 놓고야 그 벼씨 그제 가라앉으며 그 벼씨도 그 흙 밑으로 들어가지. 그 다음에 싹이 올라오지.}

10302 @ 그렇지.{그렇지.}

10302 # 그래. 시방으는 무스걸르 그러는가 하이 씨알까(сеялка)라는게 있어. 시바으는 저 베질하는 데서 그렇기 시문답데. 나느 보지는 못했지. 시방으 저 까자흐스탄에서 씨알까(сеялка)르 심어서 만저 그런 거 에따(это) 물 아이 대구 물 아이 대구 씨알까(сеялка)르 뿌리구 그담에 장독우느 트랙토를(трактор)르 잡는다지. 장독우느 이 사람덜이 댕기구 베씨랑 어따(это) 그제 베전게 에이라 비로랑 치제이오? 비로르 쳐야 데지. 그거는 꼭 비

로르 아이 치무 아이 데오, 저 베두.{그래 시방은 무엇으로 그러는가 하면 파종기(播種機)라는 게 있어. 시방은 저 벼농사를 짓는 데서 그렇게 심는다데. 나느 보지는 못했지. 시방은 저 카자흐스탄에서 파종기로 심어서 먼저 그런 거 음 물을 안 대고 물 안 대고 파종기로 뿌리고 그 다음에 긴 독은 트랙터로 잡는다지. 긴 독은 사람들이 다니고 벼씨랑, 그제 벼씨가 아니라 비료를 치잖소? 비료를 쳐야 되지. 그것은 꼭 비료를 안 치고는 안 되오.}

10302 @ 그렇지.{그렇지.}

10302 # 비로르 알지?{비료를 알지?}

10302 @ 알죠.{알죠.}

10302 # 어~ 그 비로르 쳐야 베두 데구. 이 파이두 비로 없이 아이 데오. 꼭 비로르 쳐야 데지.{응 그 비료를 쳐야 벼도 되고, 이 파도 비로 없이는 안 되오. 꼭 비료를 쳐야 되지.}

10302 @ 그러면 호리올 때에 어떻게 호리왔습둥? 손으르?{그려면 호리게 할 때 어떻게 호리게 했습니까? 손으로?}

10302 # 예: 이룩기 낭그 대르 해서느 그래 호리우지. 메::출씨 그 한바닥에 예: 새아가덜 들어서서 그제 호리와야 데지 이룩기.{예 이렇게 나뭇대기를 가지고 그래 호리게 하지. 며칠씩 한 바닥에 예 처녀들이 들어서서 그제 호리게 해야 되지 이렇게.}

10304 @ 어떻게 생겼습둥? 그제 호리우는 게, 물건이?{어떻게 생겼습니까? 그제 호리게 하는 물건이?}

10304 # 그런데 이렇소. 낭그 낭글르 이마:이 이렇게 하오 야~. 이렇게 해서 이마:이 이렇지. 기래다 여기다가서 쪽지 달구. 지다:망기. 아, 강차이잘구처리. 기래문 이게 이렇지. 개구 여기다 달지.{그런데 이렇소. 나무를 나무로 이만큼 이렇게 하오 응. 이렇게 해서 이만큼 이렇지. 그리해서 여기다가 손잡이를 달고. 기다랗게. 아, 삼자루처럼. 그러면 이게 이렇지. 그리고 여기다가 달지.}

10304 @ 잘기?{자루?}

10304 # 잘그 이룩게 달지. 이래무 이게 이게 흥지우지. 그래 흥지와서.{자루를 이렇게 달지. 이러면 이게, 이게 호리게 되지. 그렇게 호리게 해서.}

10304 @ 그제 이름이 뭇둥?{그것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10304 # 그제 나느 그제 이름이 무시젠지 모르겠소.{그제 나느 그것이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소.}

10304 @ 음.{음.}

10302 # 기래서 그제 흥지와서느 그 베씨르 치구. 우리 아매는 그렇기 기랫소. 켄게 시방으는 싹 기계하랄데 기계하랄데. 우리네 내 세간살이 해서 양게 우리 영깁이 그런 끼노(кино)르 놀적에는 밭으 어 밭으 열다섯 소뜨까(сотка)씨 열다섯 소뜨까(сотка)씨 베르 주우. 기래무 그 베 재빌르 시무지. 저 우리 영깁이 베씨랑 잘 치우. 기래 예 베르 주무 그제 들어서 가서 시무오. 그제 열다섯 소뜨까(сотка)르. 개 심어서느 거기서 어 쌀으 해에서 동삼우 먹지 무슨. 그랫됐어.{나는 그것이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소. 그래서 그제 호리게 해서는 그 벼씨를 치고, 우리 아이 때는 그렇게 했소. 그런데 시방은 싹 그제로 하데. 우리네 내 세간을 내서 이렇게 우리 영깁이 그런 영화를 상영할 적에는 밭을 어 밭을 15 소트카씩 15소트카씩 벼를 주오. 그러면 그 벼를 자기가 심지. 우리 저 영깁이 벼씨랑 잘 치오. 그래 예 벼를 주면 그제 들어서 가서 심소. 그제 15소트카를. 그래 심어서는 거기

서 어 쌀을 내서 겨울에 먹지 뭐. 그랬어.}

10302 @ 그렇지요. 그러면:은 인제 베씨르 치고. 에 그리구 그걸 아까 말씀하신 그 그걸 가지고.(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벼씨를 치고. 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그걸 가지고.)

10302 # 베씨 치기 전에 싹 호리우오. 야~ 싹 호리와 놓소. 그담에 베씨르 치우. 기래무 기계 물에 까라얏무 그 흙물이 싹 베씨에 딱딱 들어불소. 그거 보오. 그렇소.{벼씨를 치기 전에 싹 호리오. 응 싹 호리게 해 놓소. 그 다음에 벼씨를 치오. 그러면 그제 물에 가라얏으면 흙물이 싹 벼씨에 딱딱 들러불소. 그거 보오. 그렇소.}

10302 @ 잘못 적었습꾸마.{잘못 적었습니다.}

10302 # 야~ 그랬댓어? 그 흙물이 다아 베씨에 딱딱 들어불는단 말시오. 그 흙으 이래 강치 일군게.{응 그랬어? 그 흙물을 다 벼씨에 딱딱 들러불는단 말시오. 그 흙을 이렇게 밀바닥의 찌꺼기를 일어나게 한 것이.}

10302 @ 그렇지.{그렇지.}

10302 # 강치 일군 게 다아 베씨에 다아 들어불어, 베씨르 그 담에 딜이바다보자무 혹시 배우구 혹시 아이 배우오. 그 강치 싹 이래 깔얏아서. 그랬댓어. 우리네 그전에 농새질할 적에느. 아, 시방은 아이 그렇소. 시방은 따오.{밀바닥에 있는 찌꺼기를 일어나게 한 것이 벼씨에 다 들러불어, 벼씨를 그 다음에 들여다보면 혹시 보이고 혹시 안 보이고. 찌꺼기가 싹 이렇게 가라얏아서. 그랬어. 우리네 그전에 농사를 짓을 적에는. 시방은 안 그렇소. 시방은 다르오.}

10302 @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응 달라불지. 음. 그럼 그렇게: 해서 호리우구 나서 벼씨르 치고 나서 에 고담에 자라나면은 이제 아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피하구 베르 갈가내서 뽑아내구 고담에 지슴매구.{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응 달라불지. 음. 그럼 그렇게 해서 흙물을 호리게 하고 나서 벼씨를 치고 나서 에 고 다음에 벼가 자라면 이제 할머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피하고 벼를 가려내어 뽑아내고 고 다음에 김매고.}

10302 # 그래. 다아 지슴 그렇기 매지.{그래. 다 김 그렇게 매지.}

10302 @ 고다음에.{고다음에.}

10302 # 기래구 우리네 열다섯 쏘뜨까(сотка)르, 우리 아바이느 그 열다섯 쏘뜨까(сотка)르 어쩐 줄 아오? 나~? 어드메 찌이 한개두 없이 그렇기 싹 많은 데느 싹 뽑아서 모조하메서리. 기래다나йка데 야아! 열다섯 소또까(сотка)래두 올고산 베르 두두, 베르 두두리는 게 또 어쩐 줄, 기겔르 아이 두두리고 야~ 단으 요막씨 묵소. 기래 태르 치우.{그리고 우리네 15소트카를, 우리 할아버지는 그 15소트카를 어찌했는 줄 아오? 응? 어디던지 김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싹 많은 데는 싹 뽑아서 모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야! 15소트카래도 마음에 흠족한 벼를 털, 벼를 키는 것이 또 어쩐 줄 (아오?), 기계로 안 털고 응 단을 요만큼씩 묵소. 그래 태를 치오(개상질을 하오).}

10302 @ 아이구!{아이고!}

### 3. 출산과 육아, 통과 의례, 농사

# 무슨거 물어보겠어?{무엇을 물어보겠소?}

10214 @1 아매! 그 자석덜 날 때 아 낳을 때 있대임둥? 아 낳구 난 후에.{할머니! 그 자식들 낳을 때 아이 낳을 때 있잖습니까? 아이 낳고 난 후에.}

10214 # 어~. 몸푼 후에.{응. 몸을 푼 후에.}

10214 @1 몸푼 후에 그 먹는 거 있대임둥? 몸우 풀라구. 에, 뭘 먹는다 그라무 몸이 잘 풀린다 뭘 것이 잘 나온다.{몸을 푼 후에 그 먹는 거 있잖습니까? 몸을 풀라고. 에 뭘 먹는다 그러면 몸이 잘 풀린다 뭘 것이 잘 나온다.}

10213 # 나느 어따(это) 몸푼 적에 에 벼원두 아이 가오. 집에서 몸 풀었어 싹. 너어 낳는데 너어 다 한나느 엔: 큰아느 어따(это) 우리 시어마이 몸우 풀겠어. 시어마이. 두 번째 아느 나 혼자 잇엇댓어. 아::무 사름두 없이, 아무 사름두 없이 나 혼자 잇엇지. 아이 두 번째 아느 어졌는가 저 큰아르 어: 업어서 마마 내 어마이 잇는데르 가져갔지. 기래 가져갔는데 아이 이 속이 그렇기 아픈 같으지. 기래 속이 아픈 같아서 그거 업어 가구 집우루 오다가 아아 변소간으르 지금우 빨리빨리 가자구서 그런데 아이 채 가지 못하구 내 그 재르 이래 무제 놓재했어? 그 재 무테에다 덜써덕 낳앗단 말시오, 큰아르. 하야! 큰아르 그렇게 몸 풀었어. 내 집에서. 그 담에 이 초매에다 싸서 딜에다가서리 이 테르 이래 앓재이오? 이렇기. 그거 내 우리 시에미 그레이꺼 보이 그거 야 이래 매구 가셀르 베엠편. 아 기래 나느 집에 사름이 한나투 없지 그거 어찌겠소. 가셀르 배구. 기래구서 개에다가서리 눕히구. 그담에 후서느 또 싹 기랫지 아.{나는 음 몸 푼 적에 병원도 안 가오. 집에서 몸 풀었어 싹. 넷을 낳았는데 넷 다, 하나는 가장 큰아이는 음 우리 시어머니가 몸을 풀어 주었어. 시어머니가. 두 번째 아이는 어졌는가 하면 저 큰아이를 업어서 어머니, 내 어머니가 있는 데로 가져갔지. 그래 가져갔는데 아니 이 속이 그렇게 아픈 것 같지. 그래 속이 아픈 것 같아서 그거 업어 가고 집으로 오다가 아, 변소간으로 지금은 빨리빨리 가자고서 하는데, 그런데 아니 채 가지 못하고 내가 그 재를 이렇게 무저 놓잖았소? 그 재 무더기에다 덜커덕 낳앗단 말시오, 큰아이를. 하! 큰아이를 그렇게 몸을 풀었어. 나는 집에서. 그 다음에 이 치마에다 싸서 들어 다가서 이 태(胎)를 이렇게 앓잖소? 이렇게. 그거 내 우리 시어머니가 그랜 것을 보니 그거 응 이렇게 매고 가위로 베데. 아 그래 나는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지 하니 그거 어찌하겠소. 가위로 베고. 그리하고서 가져다가서 눕히고. 그 다음에 후에는 또 싹 그랬지.}

10213 @ 재빌르?{손수?}

10213 # 재빌르 싹. 어 기래다나이 벼~원이랑 나는 너어 낳아두 벼~원을르 한 번두 아이 갖어. 싹 집에서 낳앗댓어. 기래구 그렇기 아이 앓소. 이롭게구 어떤 사름우느 지금 우리 아매덜이 말하오. 아 나느 그저 사름씨 양게 앓는다구. 나느 아이 앓구. 기애구서 나느 몸이 그런지 아이 그런지 양게 절에 사름덜이 모르우. 크:게 베 많이[마이] 먹어서 배부른 거처리 그렇지. 기래 그 몸이 그럴 적에 나느 모:지 앓소. 몸이 그럴 적에. 개다나йка덜은 영 기래오. 개다나йка더 혼자 재비르 낳아두 무스 그렇기 앓재에인단 말시오. 그 그러 우리 아덜 거저 정말 길로로 떠서 두 길로나 데갯는지. 그런 아덜이오 싹. 그런 게

젓이 땀에서 거저 다숫달만 데무 아덜이 열길로써 데오. 열 열길로써 그렇기 가오.{손수  
 썩. 어 그렇다 보니 병원이랑, 나는 넷을 낳아도 병원으로 한 번도 안 갔어. 썩 집에서  
 낳았어. 그리고 그렇게 안 앓소.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할머니들이 말하오. 아 나는 그  
 저 사흘씩 이렇게 앓는다고. 나는 안 앓고. 그리고 내 몸이 그런지 안 그런지 이렇게 곁  
 에 사람들이 (아이를 가진 것을) 모르오. 크게 배가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것처럼 그렇지.  
 그래 그 몸이 그럴 적에 나는 몹시 앓소. 몸이 그럴 적에. 아이들은 아주 그러오(작소).  
 그렇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낳아도 뭐 그렇게 앓지 앓는단 말이오. 그러나 보니 우리 아  
 이들 그저 정말 킬로그램으로 달아서 2킬로그램이나 될는지. 그런 아이들이오 썩. 그런  
 것이 젓이 땀아서 그저 다섯 달만 되면 아이들이 10킬로그램씩 되오. 10킬로그램씩 그  
 려게 무게가 나가오.}

10213 @ 아메 몸이 건강하셔서 그렇습꾸마.{할머니 몸이 건강하셔서 그렇습니다.}

10213 # 기래 난 젓이 해접시 이 가:오. 건 젓이오. 기래 큰아 나서는 남에 아덜이 서이 먹었  
 어. 이 젓으 먹는게 서이 남에 아덜이 먹었어. 이 젓이 너무 많아이 사람이 야 이렇기 지  
 칩데. 약해집데 젓이 너무 많아이. 그담에느 어: 두 번째 아 나이까데 남에 아 한나 먹었  
 어. 한내. 기래구서 세 번째는 저 딸이 낫실 적엔 딸이 혼자 먹었댔어. 기래구 남에 아덜  
 이 더러 먹었어. 내게 젓이 그렇기 많었댔어. 몸우 풀기마 하무 아덜이. 기래 아덜이 너  
 무 크지 뭐. 아! 아 낳을 적엔 요런 기오 썩. 지, 지같오. 기래구 미세엿지 약하다:산게.  
 그랫댔어.{그래 난 젓이 말할 수 없이 거오. 건 젓이오. 그래 큰아이를 낳아서는 남에 아  
 이들이 셋이 젓을 먹었어. 이 젓을 먹는 것이. 셋이나 남의 아이들이 먹었어. 이 젓이 너  
 무 많으니 사람이 응 이렇게 지치데. 약해지데, 젓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 두  
 번째 아이를 낳으니까 남의 아이가 하나가 먹었어.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저 딸이 태어  
 났을 적에는 딸이 혼자 먹었어. 그리고 남에 아이들이 더러 먹었어. 내게 젓이 그렇게 많  
 았었어. 몸을 풀기만 하면 아이들이. 그래 아이들이 너무 크지 뭐. 아! 아이를 낳을 적엔  
 요런 것이오 썩. 취, 취 같오. 그리고 무섭지 약하다 싶은 것이. 그랬었어.}

10213 @ 그럼 아메! 태는 잘라서 고려사름덜이 어떻게 처리했습둥?{그럼 할머니 태는 잘라서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10213 # 어, 태르 나서는 그 때 에따(от) 그런 짚에다가서 나아서 짚이 벧짚이 잇제이오? 고  
 기다 따르르 말아 싸서 어: 형겅이 헌 헌 형겅이다가서리 싸서 이롭게 우리 놈두무 제에,  
 개에다 어디다 제에뿌리무 제에뿌렸어.{어, 태를 나서는 그 때 음 그런 짚에다가 낳아서  
 짚이 벧짚이 있잖소? 고기다 따르르 말아 싸서 어 천, 헌, 헌 천에다가서 싸서 이렇게 우  
 리 놓아 두면 가져다가 어디다 집어던지면, 집어던졌어.}

10213 @ 태우재왕구?태우지 않고?

10213 # 아이 태우데. 야~ 제에뿌렸어 기래.{안 태우데. 응 집어던졌어 그래.}

10214 @ 그럼 몸우 풀구서는 무슨거 잠수셨습둥?{그럼 몸을 풀고서는 무엇을 잠수하셨습니까?}

10214 # 나는 앓제왕다나이 몸우 풀구 스라스(сразу) 아이 앓소. 어떤 사름덜은 이 속이 아프  
 다구 그렇기 기래지. 나는 아이 앓았댔어. 개:두 거저 꿀우 사름덜이 먹는다지. 꿀두 나느  
 아이 먹었댔어.{나는 앓지 않다 보니 몸을 풀고서도 이내 아니 앓소. 어떤 사람들은 이  
 속이 아프다고 그렇게 그러지. 나는 안 앓았어. 그래도 그저 꿀을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  
 지. 꿀을 나는 안 먹었어.}

10214 @ 메엑장물은?{미역국은?}

10214 # 아 메엑장, 그전에 메엑장물, 맥:이 잇는가! 어엿지 무슨. 어엿:지.{아 미역국, 그전에  
 미역국, 미역이 잇는가! 없지 뭐. 없지.}

10214 @ 그렇지 그 시절에느.{그렇지 그 시절에는.}

10214 # 그 시절 적에느 맥이 없어. 그 시절에는 맥이 없어. 그저 시락장물이지.{그 시절 때에  
 는 미역이 없어. 그 시절에는 미역이 없어. 그저 시래깃국이지.}

10214 @ 아아! 시락장물.{아! 시래깃국.}

10214 # 음. 배채 시래기 그 장물이지. 이 맥:이랑 없었댔어. 그때느. 시방 메엑이 혼하지. 그전  
 에느 어: 맥이 없었댔어. 기래구 또 에 그전에는 이기르 들오, 메엑이 오기 바뻐댔어. 기  
 랫댔어. 기래다나이 맥이장물이랑 못 먹어보지. 그랫댔어.{음. 배추 시래기 그 국이지. 이  
 미역이랑 없었어. 그 때는. 시방 미역이 혼하지. 그전에는 어 미역이 없었어. 그리고 또  
 에 그전에는 여기로 들어오기, 미역이 들어오기 힘들었지. 그랬었어. 그렇다 보니 미역국  
 이랑 못 먹어 보지. 그랬었어.}

10214 @ 그럼 아메! 몸우 풀구서 메출만에 일으 했습둥?{그럼 할머니! 몸을 풀고 며칠만에 일  
 을 했습니까?}

10214 # 아이구! 메출이나 미시거나 잇소? 거저 몸우 풀구서리 구저 사흘이무 그저 다 땡기지  
 그저.{어이고! 며칠이나 무엇이나 잇소? 그저 몸을 풀고서 그저 사흘이면 그저 다 다니지  
 그저.}

10214 @ 바름우 쎄우무 아이테제임둥?{바람을 쏘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10214 # 아? 바름우?{어? 바람을?}

10214 @ 바름 쎄우무.{바람을 쏘이면.}

10214 # 아이구! 우리 아덜이, 이거 보우! 크게 삼월이지. 아 날이 따시켄트 날이 삼월이무 아  
 이 그런 게 낳고 잎이 썩 다지. 아이 이리두 날이 그렇게 좋지. 이 두 번째 꺼느 구월이  
 다나이. 가슬이다나이 그렇기 날이 덥었댔어. 내 아흐레만에 물으 건네서 어어 그런 상점  
 우 또 갔다왔댔어. 아아 그래두, 아아 그래두 시방 아이 앓제이오? 허어! 나는 기래구 땡  
 겠댔어.{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거 보오! 큰놈이 삼월이지. 아 날이 타슈켄트 날이 삼  
 월이면 아니 그런 게 나뭇잎이 썩 나지. 아니 이렇게도 날이 그렇게 좋지. 이 두 번째 놈  
 은 구월이다 보니. 가을이다 보니 그렇게 날이 더웠어. 내 아흐레만에 물을 건네서 어 그  
 런 상점을 또 갔다왔어.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시방 안 앓잖소? 허어! 나는 그러고 다녔  
 어.}

10214 @ 하늘이 아메한테 건강을 주셨습꾸마.{하늘이 할머니한테 건강을 주셨습니다.}

10214 # 아이구! 모르지 어쨌는지. 그렇기 땡기다나이 나는 그저 몸우 풀구 이롭게 바람갈매  
 이런 게랑. 기래구 또 세 번째 나두 어 삼월에 나다나이 어 그렇게 바람갈매르, 거기 삼  
 월달에느 거기 따시켄트느 모지리 덤지.{아이고! 모르지 어쨌는지. 그렇게 다니다 보니  
 나는 그저 몸을 풀고 이렇게 바람 막는 이런 것이랑 (모르고 살았지). 그리고 또 세 번째  
 아이를 낳아도 어 삼월에 낳다 보니 어 그렇게 바람 막는 것을, 거기 삼월 달에는 거기  
 타슈켄트는 몹시 덤지.}

10214 @ 그렇지.{그렇지.}

10214 # 아 모지리 덤지. 그러다나이 무슨 그 바람갈매 무스 그런 거 몰랐댔어. 아, 기래두 나  
 느 시방두 그렇지 야~. 그렇기 땡긴다 해두 시방두 건강하다나이 바람 아이 맞았길래 그  
 이 시방두 몸이 건강하지.{응 몹시 덤지. 그렇다 보니 뭐 그 바람 막이 무슨 그런 거 몰

랐었어. 아, 그래도 나는 시방도 그렇지 응. 그렇지 다닌다고 해도 시방도 건강하다 보니 바람을 안 맞았기에 그 이 시방도 몸이 건강하지.}

10214 @ 그럼요. 그때 바람맞았으무 지금 몸이 아이 좋지.{그럼요. 그 때 바람을 맞았으면 지금 몸이 안 좋지.}

10214 # 시방 우리 아매덜이 그렇게 말하는 말이 많지. 아이구! 아이 동지선달에 몸우 풀구서 리 으음 다른, 절에 시어시덜이나 없구 그레이까테 아이 그렇게 바람 맞아구 시걱질 다 아 하구 이랬다면서리 기래서 이렇게 앓는다구 이롱기 말하는 사람덜두 우리 아매덜 말하는 게 많소. 그렇소.{시방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아이고! 아니 동지선달에 몸을 풀고서 음 다른 (사람이), 절에 시부모들이 없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바람을 맞아도 끼니밥을 다 하고 이랬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앓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할머니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소. 그렇소.}

10214 @ 그러면은 어::, 이 아:가, 아:가 한 살 텔 때까지 예 그때까지는 예: 그 아가 뭐 병치레 아이했습둥?(그러면 어 이 아이가, 아이가 한 살이 될 때까지 예 그 때까지 예 그 아이가 뭐 병치레는 안 했습니까?)

10214 # 아이구! 우리 아덜으느 시방 내 그래제이오? 시집장가르 갈때까지 약이랑 그리 베크에 못 봤다구. 못 봤어. 기래구 우리 아덜이 췌기 건강했어. 아이 앓았됐어. 아이! 야덜으느 약이 저저 기차오. 어이구!! 저기 약이 기차오. 그러오. 아이, 우리 아덜으느 어 시집장가르 갈때까지 내 아덜 야 앓아서 어찌겠는가 야 앓아서 어찌겠는가 못 기래봤어. 기랜게 우리 두체 시방 잉게 아이 앓소. 개 딸으느 글썸 약하오[야카오].{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내가 시방 그러지 않소? 시집 장가를 갈 때까지 약이랑 그리 먹여 보지 못했다고. (약을 먹여) 보지 못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건강했어. 안 앓았었어. 아이! 이 아이들은 약이 그저 기가 막히오. 아이고! 저기 약이 기가 막히오. 그러오. 아이, 우리 아이들은 어 시집 장가를 갈 때까지 내 아이들 응 ‘앓아서 어찌하겠는가’라고 못 그래 보았어. 그런데 우리 둘체 시방 이렇게 안 앓소. 그래도 딸은 글썸 약하오.}

10214 @ 그럼 아매 아아르 닳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오지 말라구.{그럼 할머니 아이를 낳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10214 # 우리, 난 그런 법이 없어.{우리, 나는 그런 법이 없어.}

10214 @ 이런 거 이렇게 줄치구 아이 했습둥?(이런 거 이렇게 줄을 치고 안 했습니까?)

10214 # 아이 했됐어. 으 음.{아니 했어. 음.}

10214 @ 그럼 아무나 막 둘왔습둥?(그럼 아무나 막 들어왔습니까?)

10214 # 아 그래제앵구. 아 동미덜이 많은 게 기래무 아 동미덜이 막 둘오지. 아, 나 그 아때 사 동미덜이 어찌 많소.{아 그렇지 앓고. 아 동무들이 많은 것이 그러면 아 동무들이 막 들어오지. 아, 내가 그 아이 때야 동무들이 얼마나 많소.}

10214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14 # 여자동미덜이 많지. 기래두 그여자덜 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래지.{여자 동무들이 많지. 그래도 그 여자들이 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지.}

10214 @ 원래[윌래]는 못 들어오는데.{원래는 못 들어오는데.}

10214 # 아, 그런가!{아, 그런가!}

10214 @ 예.{예.}

10214 # 아, 우리넨 아이 그렇소.{아, 우리네는 안 그렇소.}

10214 @ 둘오지 말라구 여기다 이렇게 문앞에다 줄으 치입꾸마.{들어오지 말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문 앞에다 줄을 침니다.}

10214 # 아아! 아이 우린 그런 법이 없소.{아! 아이 우리는 그런 관습이 없소.}

10214 @ 그러구 아들 나무 이 고치 있재임둥? 빨간 고치. 고치르 이렇:기 달아맴꾸마. 여기다. {그리고 아들 낳으면 이 고추가 있잖습니까? 빨간 고추. 고추를 이렇게 달아맴니다. 여기다.}

10214 # 아:: 물앞에다, 문앞에다.{아 문 앞에다, 문 앞에다.}

10214 @ 문앞에다가 이렇게. 우리집에 내가 아들낳소.{문 앞에다가 이렇게. 우리 집에 내가 아들을 낳았소 하고.}

10214 # 아::{아.}

10214 @ 예.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우리 집 출입을 좀 삼가시오. 이런 뜻으로.{예.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우리 집 출입을 좀 삼가시오. 이런 뜻으로.}

10214 # 아아! 우리네 그런 게 없었됐어, 우리는.{아! 우리네는 그런 것이 없었어, 우리는.}

10214 @ 그렇습둥. 전혀 그런 게 없었습둥?(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10214 # 아, 없었됐어. 아, 시방 우리 손네 자아 나실 적에두 그런 일이 없었됐어. 아 누기 들어오무 들어오구 아이들어오무 아이들어오구 그저 그저 그랬지. 그런 일이 없었됐어. 아! 우리네 법이 없소. 조선처리 법이 없소. 그저 마우제오.{응 없었어. 아, 시방 우리 손네 저 아이를 낳았을 적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 아 누가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고 그저 그랬지. 그런 일이 없었어. 아! 우리네 그런 관습이 없소. 조선처럼 그런 관습이 없소. 그저 러시아 사람이오.}

10214 @ 마우제 법이지.{러시아 법이지.}

10214 # 마우제 법이지. 그렇지.{러시아 법이지. 그렇지.}

10214 @1 그럼 아매 그 아 낭구 그 몸우 풀자구 할 때 그 먹디 말라구 하는 음식 없었습둥? 뭐 무스거 음식 잘못 먹으무 젓이 안 나온다. 그런 말은 없었습둥?(그럼 할머니 그 아이를 낳고 그 몸을 풀려고 할 때 그 먹디 말라고 하는 음식은 없었습니까? 뭐 무슨 음식 잘못 먹으면 젓이 안 나온다.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10214 # 아이구! 아이 나느 움판 몸이 그럴 적에부터 들어눅어 앓을 날부터 몸우 풀구야 일어나오. 그냥:: 앓짐. 아무거 맥겍아두 야~ 먹기마 하무 다야 게와. 그래서 우리 아덜이 요롱기 조꼬팡지. 이롱기 내 우쳐 다른 사름덜으느 아이 몸이 그러무 어티기 잘 먹소. 다른 사름덜으느 우리 헤~이랑 야~ 몸이 그러무 모르오. 이렇게 몸이 그런지 아이 그런지 모르지. 거저 짐책없이 먹다나이 아아덜 크지. 아 우리네 나느 앓[a?] 몸이 그럴적에 먹지 앓다나이 아덜 고통기 잘 조꼬팡지.{아이고! 아이 나느 원래 몸이 그럴 적에부터, 들어누워 앓을 날부터(진통이 있을 날부터) 몸을 풀고야 일어나오. 그냥 앓지 뭐. 아무 거 먹고 싶어도 응 먹기만 하면 다 게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렇게 조꼬팡지. 이렇게 내 다른 사람들은 아니 몸이 그러면 얼마나 잘 먹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언니랑 응 몸이 그러면 모르오. 이렇게 몸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 그저 엄청나게 먹다 보니 아이들이 크지. 아, 우리네는 나는 아, 몸이 그럴 적에 먹지 앓다 보니 아이들이 고통기 조꼬팡지.}

10214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14 # 야~. 기래 몸우 풀기마 하무 거저 나느 먹기두 잘 먹지. 게 먹는다스 게, 그전에는 먹는다스게 무시기오. 그저 짐치 밥에 시락장물이오. 다른 게 없소. 거저 고기란 그저 대에

지르 잡구야 고기 잇구 거저 그렇지. 아! 시방으는 자~에, 고기 혼하지 물고기 혼하지 무시기 미시기 혼한 게 없이 다아, 돈만 잇으무 벨게 다아 잇지 자~이. 그전에는 도~이 잇어두, 잉게 에 자~이라는 게 없구 그 그랫됐어. 그 꼴호즈(колхоз)서 잡우무 거기서 고기르 들어서 기래서 가지지.{응. 그래 몸을 풀기만 하면 그저 나는 먹기도 잘 먹지. 게 먹는다는 것이, 그전에는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오. 그저 김치, 밥에 시래깃국이오. 다른 것이 없소. 그저 고기란 그저 돼지를 잡고야 고기라는 것이 있고 그저 그렇지. 아! 지금은 시장에 고기가 혼하지 물고기가 혼하지. 무슨, 무슨 혼한 것이 없이 다, 돈만 있으면 별것이 다 있지 시장에. 그전에는 돈이 있어도, 이렇게 에 시장이라는 것이 없고 그랬어. 그 콜호스에서 잡으면 거기서 고기를 들어서 그래서 가지지.}

10214 @ 그러이까 이 아이 설어서 선 다음부터 어: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테제임둥?(그러니까 이 아이를 임신해서, 임신한 다음부터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되잖습니까?)

10214 # 아이오.{아니오.}

10214 @ 무슨 음식을 조심해라 이런 말은 없었습둥?(무슨 음식을 조심해라 이런 말은 없었습니까?)

10214 # 그런 말두 없어. 다른 사람덜은 어떤지 어: 우리 동미덜으는 그런 말이 없어.{그런 말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어 우리 동무들은 그런 말이 없어.}

10214 @ 그럼 아매는 그:: 아 섰을 때 그 때 에: 주로 무슨 임석으 많이 잡수셨습둥?(그럼 할머니는 그 아이가 섰을 때 그 때 에 주로 무슨 음식을 많이 잡수셨습니까?)

10214 # 아이구! 무시게 잉게 먹구두 먹 당한게 먹자구서 기래구. 어따(это) 이 내 그런 봄에 나다나이 동삼에 어디메 개실이나 그렇기, 따시켄뜨에는 혼하오. 따시켄뜨에는 어 수박이 두 잇지 참애두 잇지 포도도 잇지 능금이두 잇지 많지 무. 그래두 거기르 가자무 어: 그런거 그전에는 이 차 이릉기 없제엿소? 기래 골로쉬(галюша)르 해에서. 그 구루소바이(грузовая), 구르소바이(грузовая) 그게 무슨 마시나라 하오?(아이고! 무엇을 이렇게 먹고도 먹자고서 그래고. 음 이 내가 그런 봄에 아이를 낳다 보니 겨울에 어디 과일이나 그렇게, 타슈켄트에는 혼하오. 타슈켄트에는 어 수박도 잇지 참외도 있다 포도도 잇지 능금도 잇지 많지 뭐. 그래도 거기를 가려면 어 그런 거 그전에는 이 차가 이렇게 없지 않았소? 그래 고무신을 해서. 그 ‘구루소바이’(화물차) 그 게 무슨 자동차라 하오?)

10214 @ 화물차.{화물차.}

10214 # 아~ 그 차 그 차에 까비네(кабине)에 앉아서 그래 가서 먹을 거[꺼] 싸오지. 그래제 이무 이 꼴호즈(колхоз)는 이릉기 무슨 개실이나 그런 게 없짐. 그래 도시르 가구야 그런 거 싸서 기래 먹짐. 개 그런 것두 종종 싸서 어디메서 먹겠소. 그렇기 먹기 바쁘지. {응 그 차, 그 차에 화물차의 앞칸에 앉아서 그래 가서 먹을 것을 사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 콜호스는 이렇게 무슨 과일이나 그런 것이 없지 뭐. 그래 도시를 가고야 그런 것을 사서 그래 먹지 뭐. 그래 그런 것도 종종 사서 어디서 먹겠소. 그렇게 먹기 힘들지.}

10214 @ 바쁘지.{힘들지.}

10214 # 그래.{그래.}

10214 @ 그 시절에는.{그 시절에는.}

10214 # 야~. 그랫됐지.{응. 그랫었지.}

10301 @1 아매! 그 어제 그 벼농사 지으면서 고사한 얘기 하셨대임둥?(할머니! 그 어제 그 벼농사를 지으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10301 # 야~.{응.}

10301 @1 예. 그 배: 그 농새르 할 때 그 심는 배가 그 여러 종류 아임둥? 여러 가지.{예. 그 벼 그 농사를 할 때 그 심는 벼가 그 여러 종류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10301 # 배?{배?}

10301 @1 배, 배{벼, 벼.}

10301 # 배, 낭게서 나느?{배, 나무에서 열리는?}

10301 @1 시무는 배.{심는 벼.}

10301 @ 배. 배.{벼. 벼.}

10301 @1 배.{벼.}

10301 # 배. 배.{벼. 벼.}

10301 @ 베질으 할 때.{벼농사 할 때.}

10301 # 아, 베질할 적에.{아, 벼농사를 지을 적에.}

10301 @1 예, 베질할 적에.{예, 벼농사를 지을 적에.}

10301 # 베질할 적에. 기계 또 그런 거 찰베 잇구 매베 있어. 찰쌀 알지? 찰쌀이 잇구 맵쌀 있어. 꼴호즈(колхоз)서는 찰쌀 아이 심구우. 개인사람덜이 오고르드(огород) 주구 거기다가 찰베르 죄:뭇 시무지. 마이 아이 심어. 기래구 고본질으 하느 사람덜이 그 후에 글르 후에 베질으 이 꼬호즈(колхоз)에 없구 고본으 떼에 쫓어. 내 댕 게타르(гектар) 가진다. 두 겹타르(гектар) 가진다. 한 겹타르(гектар) 가진다. 이래 가지무 거기 다른 쪽에다가 다른 쪽에다가 그 베밭이 거기다가 한테다가 아이 심어. 다른 쪽에 개애다가서리 그 찰베르 시무지. 기계 한 곧에다 시무무 이게 서르서르 읍우메 맵쌀에 찰쌀에 썩인다구 그렇기 예: 말합데. 그러나 우리네는 그렇게 시무지 않구 우리네는 어 꼬호즈(колхоз)서 꼴호즈(колхоз) 꼬호즈(колхоз)서 베르 심었지. 그랬지 에 그런 개인을르느 배, 그 꼬호즈(колхоз)서 시무구 글르 후에 그담에는 어 썩 떼에 쫓어, 밭으. 엠매서 너느 엠매서 가지게? 기랩 나느 두 겹타르(гектар) 가지겄다. 너느 엠매르 가지겄다. 나느 한 겹타르(гектар)르 가지겄다. 그렇기 그거 떼에 가지구 농새질으 했지. 기래 그거 가지구 에따(это) 엠매 쁘레켄트(процент)르 댕 쁘로켄트(процент)르 내 가지구 댕 쁘로켄트(процент)르 국가다 댕에 농구. 꼬호즈(колхоз)다 댕에농구. 이릉기 농새질했지. 기래문 그 농새질한 돈으느 도이 없어. 그거느 우리 먹 가지다나이 베르 가지다나이 그건 도이 없었됐어. 그랫됐어.{벼농사를 지을 적에. 그게 또 그런 거 찰벼가 있고 매벼가 있어. 찰쌀 알지? 찰쌀이 있고 맵쌀 있어. 콜호스에서는 찰쌀을 안 심소. 개인이 텃밭을 주어서 거기다가 찰벼를 조금 심지. 많이느 안 심어. 그리고 임차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후에 그 후에 벼농사를, 이 콜호스에는 없고 임차농지를 떼어 주었어. 내가 댕 헥타르를 가진다. 2헥타르를 가진다. 1헥타르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농지를) 가지면 거기 다른 쪽에다가 다른 쪽에다가 (심지) 그 콜호스의 논이 있는 거기다가 한테 안 심어. 다른 쪽에 가져다가 그 찰벼를 심지. 그게 한 곧에다 심으면 이게 서로 서로 읍으며 맵쌀에 찰쌀이 섞인다고 그렇게 에 말하데. 그러나 우리네는 그렇게 심지 않고 우리네는 어 콜호스에서 콜호스 콜호스에서 벼를 심었지. 그랬지 에 그런 개인으로는 벼, 그 콜호스에서 심고 그 후에 그 다음에는 어 썩 떼어 주었어, 논을. 얼마씩, 너느 얼마씩 가지게? 그럼 나느 2헥타르를 가지겄다. 너느 얼마를 가지겄다. 나느 1헥타르를 가지겄다. 그렇게 그거 떼에 가지고 농사를 지었지. 그래 그거 가지고 음 댕 퍼센트를 댕 퍼센트를 내가 갖고 댕 퍼센트를 국가에다

바치고. 콜호스에다 들여놓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지. 그러면 그 농사를 지어서 번 것은, 돈이 없어. 그것은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다 보니, 벼를 가지다 보니 그건 돈이 없었어. 그랬었어.}

10301 @ 그러론 아메! 그 메 메베가 그 찰베 있제임둥? 그게 이렇게 눈으로 봐서 어떻게 구별이 템둥?(그럼 할머니! 그 메벼와 그 찰벼가 있잖습니까? 이렇게 그제 눈으로 보아서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10301 # 아! 따오.{아! 다르오.}

10301 @ 글썸 뭐가 따둥?(글썸 무엇이 다릅니까?)

10301 # 무시기 판가 하루 야~ 이색이 잇재오? 이색이 나오무 야~ 찰베 이색이 그런 그 꺼스레미, 꺼스레미 있어? 꺼스레미. 보기에 불जू구레:하지. 이썸거는 노루구 좀 시जू구레하구. 이거는 좀 불जू구레:하지. 이따가 다른 데 가서두 물어 보오. 찰베가 매베 하양: 알긴다구. 하양 알긴다구.{무엇이 다른가 하면 응 이삭이 있잖소? 이삭이 나오면 응 찰벼 이삭이 그런 그 까끄라기. 까끄라기, 까끄라기 있어? 까끄라기. 보기에 불그스레하지. 이썸것(매벼)는 노르고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이것(찰벼)는 좀 불그스레하지. 이따가 다른 데 가서도 물어 보오. 찰벼와 매벼는 항상 잘 알 수 있다고. 항상 보면 알 수 있다고.}

10301 @ 고거 가지구.{고거 가지고.}

10301 # 야~ 그거 가지구 꺼스레미 가지구 아오.{응 그거 가지고 까끄라기 가지고 아오.}

10301 @ 아! 불जू구레하구 누루구. 그러면은 이 키는 차이 없슴둥?(아! 하나는 불그스레하고 누르고. 그러면 이 키는 차이가 없습니까?)

10301 # 차이 없어. 키는 차이 없어. 베 찰베 매베 차이 없소.{차이 없어. 키는 차이가 없어. 벼는 찰벼고 매벼고 차이가 없소.}

10318 @ 그럼 아메! 그:: 그거를 나중에 가슬에 어떻게 그걸 베엿슴둥?(그럼 할머니! 그 그것을 나중에 가슬에 어떻게 그것을 베었습니까?)

10318 # 썸 날을르 빠구. 이 찰베는 썸 날을르 빠오, 날을르. 날을르 빠구 이: 구런 거 매베는 국가서 썸 그런 거 말로지우까(МОЛОТИЛКА)라는데 있어, 거두는 게. 거두는 말로지우까(МОЛОТИЛКА) 있어.{썸 낫으로 베고. 이 찰벼는 썸 낫으로 베오, 낫으로. 낫으로 베고 이 그런 것은 매벼는 국가에서 썸 그런 거, 탈곡기라고 벼를 베는 기계가 있어, 거두는 것이. 거두는 탈곡기가 있어.}

10318 @ 물로지우까(МОЛОТИЛКА){탈곡기.}

10318 # 야~ 말로지우까(МОЛОТИЛКА) 있어. 어 그걸르 빠에서처리 두두리우 거기서. 이레 빠메서리처리 두두리우. 그리우. 기래무 한쪽을르느 씨 씨알이 그런 이 통제에 떨어지구 어 짚우는 두우루 나가구. 그 그렇기, 그렇기 기랫어.{응 탈곡기라고 있어. 어 그것으로 베어서 터오, 거기서. 이렇게 베는 것처럼 터오. 그러오. 그러면 한쪽으로는 씨 씨알(벼알)이 그런 이 통에 떨어지고 어 짚은 뒤로 나가고.}

10302 @ 그러면 베는 어디다 어디메다 심슴둥?(그러면 벼는 어디다 어디에다 심습니까?)

10302 # 꼬호즈(КОЛХОЗ)서 밭에다 시무지 꼬호즈.{콜호스에서, 밭에다 심지, 콜호스.}

10302 @ 무슨 밭에다? 베밭이, 논밭이?(무슨 밭에다? ‘베밭(논), 논밭(논)?

10302 # 베밭이 잇지.{논이 잇지.}

10302 @ 베밭이.{논.}

10302 # 아~ 베밭이 잇짐.{응 논이 잇지 뭐.}

10302 @ 베밭이 큼둥?(논이 큼니까?)

10302 # 어우! 멧 겹따르(гектар) 데지. 크재왕구! 아이 목하밭이두 멧 겹따르(гектар) 데지.

아 그런 거 에따(это) 께남(конопля)우 밭오두 멧 겹따르(гектар) 데지. 꼬호즈(колхоз) 밭이 크:지 무슨. 그래 그거 그래 시무지. 그래구야 국가르 들어가구야 이 목하르 저어서 그전에는 목하르 저어서 딸린(Сталин) 때에는 목하르 저어서 제일 일등 첫지, 목하르. 목하르 일등첫지. 그랬지. 기래 베 같은 거는 국가다 주구 꼬호즈(колхоз) 해원덜두 농가두 주구 그랬지. 그래 우리 같은 거는 그거 베질하기만 하루 어 우리 아바이는 끼노(кинo)서 노다나이 그 베르 거저 죄끔 가지우. 죄끔 가지구 그리구 오구르드(огород)르 가지구.{어이구! 몇 헥타르 되지. 크고 말고! 아니 목화 밭도 몇 헥타르가 되지. 아 그런 거 음 삼(麻) 밭도 몇 헥타르가 되지. 콜호스 논이 크지 뭐. 그래 그거 그렇게 심지. 그렇게 하고서야 국가로 들어가고서야 이 목화 농사를 지어서, 그전에는 목화 농사를 지어서, 스탈린 때에는 목화 농사를 지어서, (목화 농사를) 제일 일등으로 쳤지, 목화를. 목화 농사를 제일로 쳤지. 그랬지. 그래 벼 같은 것은 국가에다 바치고 (그 나머지는) 콜호스 회원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그랬지.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벼농사를 짓기만 하면 어 우리 할아버지는 영화를 상영하다 보니 그 벼를 그제 조금 가지오. 조금 갖고 그리고 텃밭을 갖고.}

10302 @ 그렇지.{그렇지.}

# 기래서 저기서 떨어지는 거 멧 뿌로젠트(процент)르 꼬호즈(колхоз) 주구 멧 뿌로젠트(процент)르 우리 가지구. 기래뎌 신용 뎌뎌하지 무. 그렇기 우리 일했지. 우리 아바이는 저녁에 끼노(кино)르 놀구 낫애가 실어오구 일리 정슴 후에는 시가이 잇으무 그 베밭으 달아갓지. 우리 이 아덜두 고사해했어. 우리 본래 잘 사지 못하다나이 아덜두 썸 일해야 데지. 기래길래 우리 아덜이 일으 못하는 일이 없소. 꼬호즈(колхоз) 일하라마 꼬호즈(колхоз) 일하구 무스거 어디메 가서 어 재비 글 이르는 일 하라마 우리 딸으는 멧 콤비나트(комбинат) 랍, 그런 거 같그 내재이오? 같그 나는 거기 나바란까(лаборантка), 나바란까(лаборантка) 썸 줄으 하메서리 그거 어 채밀알으 썸 썸줄으 하나 어 같그, 같그 내무 그제 어느 쏘트(сорт) 나가는게랑 그거 잉게 썸 콘토라(контора) 다아 적는 일으 그런 일으 했댓어. 우리 딸은.{그래서 저기서 떨어지는 거 멧 퍼센트를 콜호스에 주고 멧 퍼센트를 우리가 갖고. 그럼 신용이 넉넉하지(든든하지) 뭐. 그렇게 우리 일했지. 우리 할아버지는 저녁에 영화를 상영하고 낮애 가서 실어오고 혹은 점심 후에는 시간이 있으면 그 논으로 달려갔지. 우리 이 아이들도 고생했어. 우리 본래 잘 살지 못하다 보니 아이들도 썸 일해야 되지.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일을 못하는 일이 없소. 콜호스 일을 하라면 콜호스 일을 하고 뭐 어디 가서 어 자기 공부를 하라면, 우리 딸은 멧 콤비나트에서, 그런 거 가루를 내잖소? 가루가 나는 거기 조교, 조교 썸줄을 하면서 그거 어 밀 알을 썸 썸줄을 하거나 어 가루를, 가루를 내면 그제 어느 종류 나가는 것(등급을 매기는 것)이랑 그거 이렇게 썸 사무실에서 다 적는 일을, 그런 일을 했었어. 우리 딸은.}

@ 따님이.{따님이.}

# 음. 기래구 또 우리 큰아는 이 이 푸룬세(Фрунзе)에서 이 그전에는 옛날에는 비쉬케크라 아이하구 푸룬세(Фрунзе)라 했댓어. 그 썸재리 같은 썸말료트(самолёт) 잇제이우? 우에 발랭개비 도는. 그 썸말료트(самолёт) 탃댓어 내 아들이. 야~. 그런 거 탃댓어. 딸아들은 그거 필하구 그거 글으 일것지. 일했지 여기서. 개구 둘째사 저어 보에느이(военный)이다나이 저

기서 어전 서른 두해 데이 그양 거기 있지.{음. 그리고 또 우리 큰아이는 이 이 비슈케크에서 이 그전에는 옛날에는 비슈케크라 안 하고 ‘푸룬세’라고 했었어. 그 잡자리 같은 비행기가 있잖소? 위에 팔랑개비가 도는. 그 비행기를 탔었어 내 아들이. 응. 그런 거 탔었어. 만아들은 그거 졸업하고 그거 공부를 했지. 일했지 여기서. 그리고 둘째야 저어 군사학교이다 보니 저기서 이젠 서른 두 해 되니 그냥 거기 있지.}

@ 음. 그렇지.{음. 그렇지.}

# 아~ 그렇지. 기래 우리 아덜두 어 십년제르 글으 이를 때꺼지느 꼬호즈(кохоз)에 잇다나йка데. 고상 모지리 했어. 목하르 뜯어야데지 이 에미 같이 그 밭에서 그거 지슴매:야 데지. 목해르 그거 싹 옆데서 앓아가매 그거 목하르 이룽기 딱 한 대씨 드오. 기계 두 대 서두 아이 데오. 기래 딱 한 대씨 세우구 거기 여가리에 풀으 다 뽑구 두 헥타르(гектар)씨 가지구 그거 옆데가매 그거 숨어자무 기계 어떻게소. 거 숨어두 제 때 딱 숨어야 데오. 늦어두 아이 데구. 늦으무 아이 데지. 목하 잘 데지 애잉지. 자라재잉지. 그러.{음. 그렇지. 그래 우리 아이들도 10년제 학교에서 공부룰 할 때까지는 콜호스에 있다 보니. 고생을 몹시 했어. 목화를 뜯어야 되지. 이 어미와 같이 그 밭에서 그거 김을 매야 되지. 목화를 그거 싹 옆드려서 앓아가며 그거 목화를 이렇게 딱 한 포기씩 드오. 그게 두 포기가 서도(자라도) 안 되오. 그래 딱 한 포기씩 세우고 거기 가장자리에 난 풀을 다 뽑고 두 헥타르씩 가지고 그거 옆드려 가며 그거 숨어내자면 그게 어떻게소. 거 숨어도 제 때 딱 숨아야 되오. 늦어도 안 되고. 늦으면 안 되지. 목화 잘 되지 않지. 자라지 않지. 그렇소.}

10307 # 저 그런 거 파 시무는 것두 물 제때 대구 이룽기 그런 걸르 후치질으 자알 해애야 골 때: 좋아야 물두 잘 들어가구 개 기래길래 우리네는 농새르 해애두 우리네 농새질하는 데 사람이 열씨하오. 열호씨, 열호씨 하데 늘:쌍 우리 아바이느 일드으 제엿어. 일드으 제엿었어. 기래구 파밭에 풀이 없지. 그 풀이 가슬할 임시에는 그게 풀이 잘 자라오. 기래기만 하무 그 가슬으, 이 루꾸(лук)르 가슬할 적에, 아오? 알기오? 루꾸(лук)르 켤 적에, 그 가슬할 적에 풀이마 잇으무 캐기 아주 바쁘단 말이지. 다른 사름덜으는 젊은 아덜으는 그거 지슴매기 싫어서 놔:두집. 아 기래구 어 썩군으, 썩군으 적지. 기래구서리 예: 가슬할 적에 그거 키 넘어가기마 하무 한쪽울르 도길르 찍으메서리 기래에서 가슬하오 파이. 기래무 그 가슬할 사름은 기계 엠매나 바쁘오. 우리네 내배다보기마 하무 맨 루꾸(лук) 조르르 섰소. 그렇기 우리 아바이느 풀이 못 나기 하오. 마감에 엔: 마감 번으 꼭 매야 데지. 지슴우 그렇기 땀땀어. 개다나이 그:: 열코에서두 늘상 일드으 제엿었어.{저 그런 거 파 심는 것도 물을 제 때 대고 이렇게 그런 것으로 하며 후치질을 잘 해야 고랑이 좋아야 물도 잘 들어가고 그래 그렇기에 우리네는 농사를 지어도 우리네 농사를 짓는 데 사람이 열씩 짓소. 열 호(戶)씩, 열 호씩 하되 늘상 우리 할아버지는 일등을 했어. 일등을 했었어. 그리고 파밭에 풀이 없지. 그 풀이 가슬할 무렵에는 그게 풀이 잘 자라오. 그렇기만 하면 그 가을을, 이 파를 가을할 적에, 아오? 알 수 있겠소? 파를 켤(뽑을) 적에, 그 가을할 적에 풀만 있으면 캐기가 아주 힘들단 말이지. 다른 사름들은 젊은 아이들은 그거 김매기 싫어서 놓아 두지 댜. 아 그리고 어 샅군이, 샅군이 적지. 그리고서 예 가을할 적에 그거 키가 넘어가기만 하면 한 쪽을 도끼로 찍으면서 그러면서 가을하오 파를. 그러면 그 가을하는 사름은 그게 얼마나 힘드오. 우리네 내다보기만 하면 맨 파가 조르르 섰소.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는 풀이 못 나게 하오. 마지막에 맨 마지막 번을 꼭 매야 되지. 김을 그렇게 땀땀어. 그렇다 보니 그 강낭콩에서도 늘상 일등을 했었어.}

10307 @ 빠르브이(первый ).{일등.}

10307 # 야~ 그렇게 일했댔소. 기래다나이 이 어 열세 해르 했는데 네 해르 그런 거 수박질으 했어. 기래구 어 아홉 해르 그런 파지이르 하구.{응. 그렇게 일했었소. 그렇다 보니 이 어 열세 해를 농사를 지었는데 네 해를 그런 거 수박 농사를 지었어. 그리고 어 아홉 해를 그런 파농사를 짓고.}

10307 @ 아홉 해르.{아홉 해를.}

10307 # 아홉 해르 그런 파지이르 했어. 기래두 파지이르 해서 돈으 못 번 때 없구.{아홉 해를 그런 파 농사를 했어. 그래도 파 농사를 해서 돈을 못 번 때는 없고.}

# 돈으 일없게 벌길래 아:덜으느 서방 시집으 다아 가네느 조꿈 조꿈씨느 다아 농가 컷땀어, 우리 아:덜으. 기래두 만아들이 제::일 컷어. 만아들으 제일 컷땀어. 만아들으느 마시나(машина)르 씨컷지. 돈으 집우 쌀 적에 이룽기 원조르 해컷지. 기래구 마감 우리 아바이 어전으 그 해 마감 돈으 벌어가지구 와서 그 이듬해 베~이 들었지. 기래 들어실 적에 돈으 구십천 켤서 한칸들이 두 칸들이 하구. 그래구 우리 아들이 세상 떠났땀어. 싹. 그 때는 우리 아들이게 세칸들이 집이 잇었지. 두칸들이 집이 잇었지. 한칸들이 집이 잇었지. 집이 서이 잇었땀어. 그담에 이 땀집이 잇재이오? 이게 우리 아들이 쟁다가 만 집이우. 기랜 이집우 세칸들이가 바깥소. 개 집이 너이 잇었땀어. 너어 잇구 마시나(машина) 너이 잇었어. 기래 제에실 적에 한나 팔았땀어. 마시나르 한나 팔구 돈으느 못 받았어. 어 숨이 없다나이 돈으 못 받구 부인네 돈으 받았지. 그 돈으. 기래구 한나느 본래 그 마시나(машина)르 쌀적에 우리 둘째 아들 이름으로 싸구. 둘째 아들이. 그 그거느 조선말르 무시기라 할까? 에따(это) 이룽기 에따(это) 로파레(лотерея)르 우리는 여기서는 이룽기 로파레(лотерея)라 하오. 무스거 이룽게 놀음 놀음 노재이오? 놀음 놀아 이룽기 이 로파레(лотерея)라구서 이룽게 있지. 그럼 거기 마시나(машина)두 내오구 마따찌기(мотоцикл)두 내오구 자행고도 내오구 이런 이그라(игра)르 놀지. 기랜테 우리 아들이 그거 맞힌 게 마시나(машина)르 맞차지. 아, 그게 놀리 체베뜨이(ноль девятка) 그전에 놀리체베뜨이(ноль девятка) 큰 좋은 마시나(машина)라 해엿땀소. 놀리체비야뜨이 그 마시나르 맞켓집. 기래 우리 둘째 마시나(машина)르 탈 줄 몰랐땀어 그때. 우리 만아들은 마시나(машина)르 탈 줄 알아두 둘째느 몰랐땀어. 그래 그 마시나(машина)르 말이 기래짐. 그거 나르 달라구. 나르 달라하이까데 예 그 마시나(машина)르 헤이르 컷지. 기랜테 그 부인네 오래비 그 마시나(машина)르 나르 달라구. 내 너르 어따(это) 기계 아홉 천 바이 그때 아홉천 바이. 그때 노시아 돈으 싹 쓸 때지. 아홉 천 바이 텃지. 기래 아홉 천 반으 어 내 헤이게서느 아홉 천 반으 그거 가졌지 돈으. 기래구 그 처남이느 안까이 오래비느, 스무 천 주마. 스무천 주마라구.{돈을 괜찮게 벌기에 아이들이 시집장가를 다 가면 조꿈 조꿈씨은 다 나누어 주었어,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만아들에게 제일 많이 주었어. 만아들을 제일 많이 주었어. 만아들은 자동차를 사 주었지. 돈을, 집을 살 적에 이렇게 원조를 해 주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할아버지 이젠 그 해 마지막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와서 그 이듬해 병이 들었지. 병이 들었을 적에 돈을 90,000숨을 주어서 한 칸들이 집을 두 칸들이로 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 싹. 그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 칸들이 집이 잇었지. 두 칸들이 집이 잇었지. 한 칸들이 집이 잇었지. 집이 세 채나 잇었어. 그 다음에 이 단독주택이 있잖소? 이 집이 우리 아들이 짓다가 만 집이오. 그런데 세 칸들이 집과 바꾸었소. 그래 집이 넷이 잇었어. (집이) 넷이 있고 자동차가 넷이 잇었어. 그리고 지었을 적에 하나는 팔았어. 자동차를 하나 팔고 돈은 못 받았어. 어 숨이 없다 보니 돈



을 못 받고 부인네가 돈을 받았지. 그 돈을. 그리고 하나는 본래 그 자동차를 살 적에 우리 둘째 아들 이름으로 사고. 둘째 아들. 그, 그것은 조선말로 무엇이랴 할까? 음 이렇게 음 복첩(福鐵)을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로따레이’라 하오. 이렇게 무슨 놀이, 놀이를 놀잖소? 놀이를 놀아 이렇게 이 ‘로따레이’라고 이렇게 있지. 그럼 거기 자동차도 내걸고 오토바이도 내걸고 자전거도 내걸고 이런 놀이를 놀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거 맞힌 것이 자동차를 맞추었지. 아, 그게 ‘놀리제베뜨이’, 그전에 ‘놀리제베뜨이’ 큰 좋은 자동차라 했었소. ‘놀리제베뜨이’ 그 자동차를 맞추었지 뭐. 그래 우리 둘째는 자동차를 탈 줄을 몰랐었어 그때. 우리 맏아들은 자동차를 탈 줄을 알아도 둘째는 몰랐어. 그래 그 자동차를 맏이가 그러지 뭐. 그거 나를 달라고. 나를 달라고 하니까 에 그 자동차를 형을 주었지. 그런데 그 부인의 오라비가 그 자동차를 나를 달라고. 내가 너를, 음 그게 9,500루블 그때 9,500루블. 그때는 싹 러시아 돈을 모두 쓸 때지. 9,500루블이 되었지. 그래 9,500루블을 내 형으로부터 9,500루블을 그거 가졌지, 돈을. 그리고 그 처남은, 아내의 오라비는 20,000루블을 주마. 20,000루블을 주마 하고.}

@ 음.{음.}

# 기래 아이 줏어. 스무천두 아이받구 제 동생애르 제에 값에 해~이 줏지. 우리 둘째 제 헤~이르 줏지 그 마шина(машина)르. 기래 주메서리 미시기라 했는가 나느 마шина(машина)르 탈 줄으 모르제인는가구. 기래이까데 어 낡은 마шина(машина)르 내 그거 배우게서리. 그거 우리 아들으스 이룩기 에따르두 타다가 그담에스 무슨 일으 했는가 거기서 나오구 마шина(машина)르 마사진 고치는 일으 그 일으 했됐어. 마감에 어느 그게 어느 해겠는가 하이 에 야든, 야든 아홉해 때부터 넬(нет)!, 야든 일곱해 때부터 이래 마шина(машина) 고치는 일으 했지. 이기 마шина(машина) 고치는 데 딱 한나됐어. 이 이 푸른제는 딱 그거이 한나 됐지, 마шина(машина) 고치는 게. 기래 어 내 너르 낡은 마шина(машина)르 고쳐서 너르 주구 이새 마шина(машина)르 내 가지겟다구. 기래지. 기래 어전에 그 마шина(машина)르 어 그룽기 타구 땡기다가 태구 땡기다가 기계 에 노메르(номер)랑 싹 스베르로프(свердлов). 스베르로프(свердлов) 아오?그래 안 줏어. 20,000루블도 안 받고 제 동생에게 제 값에 형이 주었지. 우리 둘째가 제 형에게 주었지, 그 자동차를. 그래 주면서 무엇이랴 했는가 하면, 나는 자동차를 탈 줄을 모르잖는가 하고. 그러니까 어 낡은 자동차를 내가 그거(운전을) 배우게끔. 그거 우리 아들은 이렇게 홀로 따로 타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거기서 (일하는 데서) 나오고 자동차를, 부서진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그 일을 했었어. 마지막에 어느, 그게 어느 해이겠는가 하니 에 80, 89년부터, 아니! 87년부터 이렇게 자동차 고치는 일을 했지. 여기 자동차를 고치는 데가 딱 하나 생겼지. 이 이 푸른제에는 그게 하나가 생겼지, 자동차 고치는 것이. 그래 어 내 너에게 낡은 자동차를 고쳐서 너에게 주고 이 새 자동차를 내가 가지겟다고. 그랬지. 그래 이젠 그 자동차를 어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타고 다니다가 그제 에 변호관이란 싹 스베르로프. 스베르로프를 아오?}

@ 음.{음.}

# 노시아오 기계. 스베르로프(свердлов). 고로드(город) 스베르(свердлов), 시방 예까제레나부르그(Екатеринбург)라 하오. 시방 예까제레나부르그(Екатеринбург)라 하오. 그래 그기 노메리(номер)구 어 우리 아들이 거기서 그거 마шина(машина)르 그거 다아 오푸메니(отменить) 하다나이 에 그게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지. 켍스 빠스보르따(техпаспорт)르 아오? 켍스 빠스보르따(техпаспорт) 켍이, 켍이. 이룩게 음: 마шина(машина)에 그 빠스보르따 잊

구야. 마шина(машина)르 타구 땡기제이오? 그 빠스보르따 이름이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지. 빠왈리(Пак Валерий)구. 큰거는 유리(Юрий)요. 빠유리(Пак Юрий). 기래 그 빠스보르뜨르 제 동생: 이름우 가지구서 그양 도베르노시(доверенность), 도베르노시(доверенность) 그 노시아말르. 고려말르 무시기라 하는 지 모르겠소. 그 도베르나시(доверенность)르 해가지구 스베르로프스끼이 도베르노시(свердловский доверенность)르 가지구 우리 아들이 그 몇 해르 타다가서리 마감에 어전에 그거 모:지리 타게 데이까데 우리 맏아들이 그러지. 에따(это), 구십, 구십 삼년도에 구십 삼년도에 니 가을에 오나라. 구월달에 오나라. 오기마하무 내 네 마шина(машина)르 데비 주겟다구.{러시아오, 그게. 스베르로프. 도시(都市) 스베르(로프), 지금 예카테레나부르크라 하오. 지금 예카테레나부르크라 하오. 거기 번호고 어 우리 아들이 거기서 그거 자동차를 그거 다 신고를 취소하고 보니 에 그게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지. 운전면허증을 아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이렇게 음 자동차에 그 면허증이 있고 응.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소? 그 면허증 이름이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지. 하나는 박왈리고. 큰아들은 유리요. 박유리. 그래 그 면허증을, 제 동생의 이름을 가지고 그양 ‘도베르노시’(위임장), ‘도베르노시’(위임장) 그 러시아 말로. 고려말로로는 무엇이랴 하는지 모르겠소. 그 위임장을 해 가지고 스베르로프시에서 허가한 위임장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 몇 해를 타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그거 몹시 타게 되니까 우리 맏아들이 그러지. 음, 90, 93년도에 93년도에, 네 가을에 오너라. 9월 달에 오너라. 오기만 하면 내가 네 자동차를 도로 주겟다고.}

@ 음.{음.}

# 싹 고쳐서. 기엔데 제꼬 빠스보르따(техпаспорт)느 그 아르 줏지. 제 동생애르 줏지. 제꼬, 제쓰 빠스보르따(техпаспорт)르. 가을에 오무 제 죽을 게 알겟던지 어쨌던지 어쨌 켍스 빠스보르따(техпаспорт)르 동생:르 줏던지. 그거 아이 주기마 하무 안가이 그거 팔짐. 기래 우리 집이 와서 그 우리 메느리 이러지. “마마! 그 마шина(машина) 켍스 빠스보르따 마마게 잇소?”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모른다.” “기래 그 켍스 빠스보르따(техпаспорт) 어디메 잇소?” “내 어찌 아야?”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말하지. 전화르 하지. 기래 내 이랬지. “왈레라(Валера)! 니 유리 켍스 빠스 켍스 빠스보르따(техпаспорт)르 어쨌?” “마마! 그게 유리 켍스 빠스보르따(техпаспорт) 아이오.” 기계 도큐멘뜨(документ) 뽀무쓰 내: 도큐멘뜨(документ)라구. 그 마шина(машина) 도큐멘뜨(документ) 뽀무쓰 내게라구. 기래 야 리따(Рита) 그거 찾는다. 그 마шина(машина)르 팔겟단다. 기래 마마! 그 마шина(машина)르 군대, 구인 잇제오? 군대. 거길르 그게 나온 마шина(машина)이 내 에따(это) 그 사람이 그 마шина(машина)르 팔아두 돈으스 받아두 내 그 마шина(машина)르 가진다구. 그러나 돈으스 난 아이 준다구. 그러나 법률르 내 법률르 싹 그래두 군대 멜리찌오네르(милиционер)나 한가지우. 저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기래 법률르 내 그 마шина(машина) 돈으 아이 주구 찾는다구. 그룽기 우리 둘째아들은 말하짐 야~. 기래 어: 나는 그런 거 모르지. 우리 아바이사 그런 거 자라스베라이(разбираю) 하지 무. 그러나 나느 모르다나이 거저 들은 말은 내 이룩기 하오. 들은 말은 내 이룩기 하오. 야~. 기래.{싹 고쳐서. 그런데 면허증은 그 아이를 주었지. 제 동생아이를 주었지. 면, 면허증을. 가을에 오면 제 죽을 것을 알았던지 어쨌든지 어쨌 면허증을 동생에게 주었던지. 그거 안 주기만 하면 아내가 그거 팔지 뭐. 그래 우리 집에 와서 그 우리 며느리 이러지. “어머니! 그 자동차 면허증이 어머니에게 잇소?”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모른다.” “그래 그 면허증이 어디에 잇소?” “내가 어찌 아냐?”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말하지. 전화를 하지. 그래 내가 이랬지. “왈레라! 니 유리의

면허증을 어쨌니?” “어머니! 그게 유리 면허증이 아니오.” 그게 내 서류라고. 그 자동차 서류가 내 것이라고. 그래 응 리따가 그거 찾는다. 그 자동차를 팔겠단다. 그래 어머니! 그 자동차를 군대, 군인(軍人) 있잖소? 군대(軍隊). 거기로 그게 나온 자동차이니, 내가 음 그 사람이 그 자동차를 팔아도 돈은 받아도 내 그 자동차를 가진다고. 그러나 돈은 난 안 준다고. 그러나 법으로 내가 법으로 싹 그래도 군대 경찰(헌병)이나 한가지요. 저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래 법으로 내 그 자동차 돈을 안 주고 찾는다고. 그렇게 우리 둘째 아들은 말하지 뭐 응. 그래 어 나는 그런 거 모르지. 우리 할아버지야 그런 거 잘 알지 뭐. 그러나 나는 모르다 보니 그저 들은 말은 내 이렇게 하오. 들은 말은 내가 이렇게 하오. 응. 그래.]

10304 @1 아매! 그 아까 그 농새질 하는 거 여쭙봤대임둥? 그 농새질을 할 때 그 쟁기 쟁기 있대임둥? 쟁기 무슨 거 무슨 거 있습둥?{할머니! 그 아까 그 농사짓는 거 여쭙어 보았잖습니까?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농기구 농기구가 있잖습니까? 농기구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10304 # 쟁기 우리집에 있소. 기계 다아 쟁기 있소. 호미두 있구 그런 거 풀우 이래 찍어 빼는 것두 있구. 아 기래구 또 가새도 있어. 그거 베는 가새두 우리집에 있어. 이따가 내 나래만에 베울게지. 그런 가새두 있구. 그런 걸르 베에구 그런 걸르 지습매구. 호밀르 지습매구. 호미 그 한국에 호미 있어? 요렇게 조꼬만 게 야. 호미 지습매는 거. 그랬됐어.{농기구가 우리집에 있소. 그게 다 농기구가 있소. 호미도 있고 그런 거 풀을 이렇게 찍어 빼는 것도 있고. 아 그리고 또 가위도 있어. 그거 베는 가위도 우리집에 있어. 이따가 내가 조금 있다가 보여줄게. 그런 가위도 있고. 그런 걸로 파를 베고 그런 것으로 김을 매고. 호미로 김매고. 한국에 호미 있어? 요렇게 조꼬만 것이 응. 호미, 김매는 거. 그랬어.}

10304 @1 아매! 그러무 지습땔 때 쓰는 쟁기두 있구.{할머니! 그러면 김땔 때 쓰는 농기구도 있고.}

10304 # 야~. 기래구서리 알게 파는 게. 파는 쟁기두 있소. 파이, 파이 어떤 때느 물이 올라가지아왕겠어? 기래무 그렇게 파에 잘 데기마 하무 지채빌르 술술술술 이렇기 빠지지야 야~. 파에 잘 데무, 그러나 물이 넘어나지 아왕겠어. 기래무 기계 빠지기마 하무 또 이롭게 파는 게 있어. 그런게 또. 셋쟁길르 맨든 게.{응. 그리고 이렇게 파는 것. 파는 농기구도 있소. 파, 파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때는 물이 올라가지 않겠어? 그러면 그렇게 파가 잘 되기만 하면 제 저절로 술술술술 이렇게 빠지지 응. 파가 잘 되면, 그러나 물이 넘치지 않겠어. 그러면 그게 빠지기만 하면 또 이렇게 파는 것이 있어. 그런게 또. 쇠로 된 농기구로 만든 것이.}

10304 @1 그거 이름이 무슨검둥?{그거 이름이 무엇입니까?}

10304 # 아, 그거는 우리네는 까빠르까(кабарка)라 하오, 여기서. 그 파는 건 까빠르까(кабарка)라 하오. 기래게 어 조선말르느 그거 미시기라구 하는지 내 잘 모르겠소. 기래구 그 어 파에르 베는 가새두 있소. 그건 가새라 하오, 여기두. 개구 지습매는 거느 호미라 하오. {아, 그것은 우리네는 파종기라 하오, 여기서. 그 파는 것은 파종기라 하오. 그런데 어 조선말로는 그거 무엇이라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소. 그리고 그 어 파를 베는 가위도 있소. 그건 가위라고 하오, 여기서도. 그리고 김매는 것은 호미라고 하오.}

10308 @ 아매 그 파이프 이렇기 뽐, 뽐지 않습둥?{할머니 그 파를 이렇게 뽐, 뽐지 않습니까?}

10308 # 어, 뽐는 게 그 물이 잘 아이 들어가지 아왕겠소? 기래무 그 파에 이렇기 씨 달아두 이렇기 올라가오. 세 군씨 올라가오. 기래무 팔십 뽐로젠트(процент)르, 팔, 잘 데무 팔

십 뽐로젠트(процент) 나오오. 그러나 시방, 시방 파이들이 야~ 따이 그닥지 못해서 거저 신: 뽐로젠트(процент) 나오무 그게 잘 난다 하오. 그전에는 우리네는 팔십씨 낮팠소. 그렇기 수확이 잘 낮팠소. 기래게 시방으느 그렇기 잘 아이 데오. 그렇소. 기래 그 뽐을 적에는 정말 두 손 가지구서르 뽐우무 이렇기 두 골따 가지구서리 나가오. 두 골따 해서 한글따에다 이래 놓짐. 책:책 놓소. 기래 놓기만 하무 예엔 처암 뽐을 적에는 해 따 갑아서 팔월달에 팔월 거저 그믐끼무 뽐소 시책이르 하오. 팔월 달에 야. 아, 그저 스무날 스물댓살날 시책이르 하지. 그거 뽐지. 기래 해 따갑아서 그거 잉기 뽐아서느 제 앞으로 뽐소. 이래 제 앞으로 뽐소. 기래매서르 나가지. 기래구두 그거 자를 적에는 거저 재비차레 나가며 자르기두 그렇기 험소. 고거 딱딱 자르기두 험소. 기래무 그 두 고랑 한 골따~ 하지. 씨 잘 아이 불구 잘 이이 데무 세 골따~ 한 골따~ 하오. 개 우리네는 그렇기 해에 못 밧소. 그양:: 두 골땅 한 골땅 해에두 이렇기 높우기 제에집데.{어, 뽐는 게 그 물이 잘 안 들어가지 않겠소? 그러면 그 파 이렇게 씨가 \*달려도 이렇게 올라가오. 세 곳씩 올라가오. 그러면 80퍼센트, 8, 잘 되면 80퍼센트 나오오. 그러나 시방, 시방 파들이 응 땅이 농사가 잘 안 되어서 그저 50퍼센트 나오면 그게 잘 난다 하오. 그전에는 우리네는 80퍼센트씩 낮팠소. 그렇게 수확이 잘 낮팠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되오. 그렇소. 그래 그 뽐을 적에는 정말 두 손을 가지고서 뽐으면 이렇게 두 고랑을 가지고서 나가오. 두 고랑을 해서 한 고랑에다 이렇게 놓지 뭐. 착착 놓소. 기래 놓기만 하면 맨 처음 뽐을 적에는 해가 뜨거워서 팔월달에 팔월 그저 그믐께면 뽐소. 시작을 하오. 팔월 달에 응. 아, 그저 스무날 스물댓살날 시작을 하지. 그거 뽐지. 그럼 해가 뜨거워서 그거 이렇게 뽐아서느 제 앞으로 뽐소. 이렇게 제 앞으로 뽐소. 그러면서 나가지. 그렇게 하고도 그거 자를 적에는 그저 자기 차례 나가며 자르기도 그렇게 쉽소. 고거 딱딱 자르기도 쉽소. 그러면 그 두 고랑 한 고랑을 하지. 씨 잘 안 불고 잘 안 되면 세 고랑 한 고랑 하오. 그래 우리네는 그렇게 해 보지 못했소. 그냥 두 고랑 한 고랑 해도 이렇게 높게 농사가 지어지데.}

10304 @ 그럼 아매! 베질할 때 에 베발을 먼저 갈아서 번지재임둥? 무슨 거 가지구 번짐둥?{그럼 할머니! 벼농사를 지을 때 에 논을 먼저 갈아서 흙을 갈아엎잖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갈아엎습니까?}

10304 # 트랙토르(трактор) 가지구서르 밭으 갈지. 트랙토르(трактор)르 밭으 갈구 꼬호즈(колхоз) 꺼느 에따(это) 번지라 하오. 그런 거 이렇기 농구서르 야. 이렇기 너르요. 너른 거 세르 메와가지구서리 그거 밭으 거저 물안에서 고누지. 물안에서. 시방으느, 시방으느 저 까자흐스탄에서 베질하는 게 한나투 그렇기 아이 하오. 마른 거 베르 씨알까(сеялка) 잇제이요? 씨알까(сеялка)에다가 베르 마른 베르 열지. 그담에는 밭으 지내 이게 거저 요롱기 요롱 상판이 전부[전뽐] 뽐드삿소. 어 상판처르 이래 뽐드산 밭에다 씨알갈(сеялка)르 대구 그거 시무지. 그전에는 싹 손울르 쳇됐어. 그전에 옛날에느 우리 빠빠두 내 아버지 때에두 싹 손울르 채밀이 보리 이 베 물안에서 싹 그룻기 손울르 쳇됐어. 기래 손울르 칠 적에는 앞에서 사람이 이롭게 어디까지 베 이래 뿌리와나갓다구 하제이요? 그러나 이롭게 뿌리는 사람이 그거 못 보지. 어디매까지 씨 나간 거. 기래서 거기다 꼬재르 쫓소. 앞이루 나가매서리 어디까지 씨 들어왔다 이래매서. 기래무 또 경계 가서 또 씨르 뿌리는 사람이 거기 가 씨르 뿌리짐. 우리 아버지랑 그렇게 했팠소. 쟁게 시방은 까자꼬스판에서 하는 게 싹 씨알까(сеялка)로 시문다구. 기래 베씨 많다나이 마암대르 그저 열

구서 뿌리지. 그래 그러지. 그 어 우리 어 시헤이랑 말하는 게 어 북조선에서랑 싹 손을  
르 이룩기 그 시무재이무 어 더 앉아서 트랙토를(трактор)르 양게 싹 모조한다지. 모조~  
그룻기. 저기 한국에서두 이룩기 베씨 베르 시무지 거기서두?{트랙터를 가지고 논을 갈  
지. 트랙터로 논을 갈고 콜호스의 논은 음 번지라 하오. 그런 것을 이렇게 대고서(번지를  
가지고서) 응. 이렇게 너르오. 너른 것인데 소를 메워서 논을 물 안에서 평평하게 고르  
지. 물 안에서. 시방은, 시방은 저 카자흐스탄에서 벼농사를 짓는데 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하오. 마른 거 벼를, 파종기(播種機)가 있잖소? 파종기에다가 벼를, 마른 벼를 넣지. 그  
다음에는 논을, 이게 그저 요렇게 요렇게 상의 윗부분처럼 아주 반듯하오. 어 상의 판처  
럼 이렇게 반듯한 논에다 파종기를 대고 그저 심지. 그전에는 싹 손으로 씨를 쳤었어. 그  
전에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도 내 아버지 때에도 싹 손으로 밀, 보리를 치고, 그리고 이  
벼를 물 안에서 싹 그렇게 손으로 쳤었어. 그래 손으로 칠 적에는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어디까지 벼를 이렇게 뿌리며 나갔다고 하잖소? 그러나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그거 못  
보지. 어디까지 씨를 뿌리며 나갔는지를. 그래서 거기다 꼬챙이를 꽂소. 앞으로 나가면서  
어디까지 씨가 들어왔다 이러면서.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이 거기 가 씨  
를 뿌리지 뭐. 우리 아버지랑 그렇게 했었소. 그런데 시방은 카자흐스탄에서 하는 것이  
싹 파종기로 심는다고. 그래 벼씨가 많다 보니 마음대로 그저 넣고서 뿌리지. 그래 그러  
지. 그 어 우리 어 시형이랑 말하는데 어 북한에서랑 싹 손으로 이렇게 그 심지 않으면  
어 저 앉아서 트랙터로 이렇게 싹 모종한다지. 모종을 그렇게. 저기 한국에서도 이렇게  
벼씨를 벼를 심지, 거기서도?

10304 @ 기겔르 하압꾸마.{기게로 합니다.}

10304 # 기겔르 하지:{기게로 하지.}

10304 @ 트랙토르(трактор){트랙터}.

10304 # 트랙토를(трактор)르. 그래 그전에 어 우리 시헤이 저기 북조선에서 갔다와서 그렇기  
싹 모조한다지. 이기는 아이 모조하오. 그런 거 씨알깎(сеялка)르 막 뿌리지.{트랙터로.  
그래 그전에 어 우리 시형이 저기 북한에 갔다와서 (말하기를) 그렇게 싹 모종한다지. 여  
기는 모종을 안 하오. 그저 그런 거 파종기로 막 뿌리지.}

10304 @ 그럼 아매! 그 베발이 말구 채밀이나, 옛날에, 보리 같은 거 시물려면은 이걸 갈아서  
번지재임둥? 무스걸르 했슴둥? 그러니까 옛날에?{그럼 할머니! 그 논 말고 밀이나, 옛날  
에, 보리 같은 것을 심으려면 이걸 갈아엮잖습니까? 무엇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에.}

10304 # 아이! 트랙토를(трактор)르 하지.{아이! 트랙터로 하지.}

10304 @ 트랙톨르(трактор){트랙터로.}

10304 # 트랙톨르(трактор) 가지. 기래구.{트랙터로 갈지. 그리고.}

10304 @ 그러면 가대기라든가 뭐 이런 걸르 아이함둥?{그러면 가대기(극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안 합니까?}

10304 # 그런 가대기 있지. 가대기 있지. 그 가닥으르 어떤 건 둘이 차구 어떤 건 서이 가대기  
있지. 가대기 있지. 그렇게 트랙토를(трактор)르 갈구. 그 다음에는 걸기라는 게 있소. 이  
셋쟁기르 이룩기 싹 박은 게. 기래 내 기래재이오. 어제 말해제임데? 아, 그 걸기르 농자  
무 세 혼자는 못 땡기지. 기래 거기 세 잔덜이에 앉아 땡게야 테오. 세 잔더리에 앉아.  
그래 세르 꼬구 땡기자무 맥이 없지. 기래 이 세두 어저는 말으 알아 듣는단 말이지. 아,

일러루 가무 일러루 가구, ‘절러루!’ 하무 절러루 가구. 이래메 세 말으 알아듣는단 말이  
오. 세르 타구서리 곱지르 지구 이쪽으르 가구 저쪽으르. 기래 따이 그저 그전에는, 시  
바~으느 트랙토를(трактор)르 그래다나йка제 따이 반드삿소. 그전에는 따이 반드사지  
못했소.{그런 가대기가 있지. 가대기가 있지. 그 가대기로 어떤 건 둘이 차고 어떤 건 셋  
이 가대기 있지. 가대기가 있지. 그렇게 트랙터로 갈고. 그 다음에는 씨레라는 것이 있소.  
이 쇠연장(쇠로 된 살)을 이렇게 싹 박은 것이. 그래 내가 그러잖소. 어제 말하지 않데?  
아, 그 씨레를 대고 갈자면 소가 혼자는 못 다니지. 그래 거기 소 잔등에 앉아 다녀야 되  
오. 소의 잔등에 앉아. 그래 소를 끌고 다니자면 힘이 없지. 그래 이 소도 이제는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지. 아, 이리로 가자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하면 저리로 가고. 이러며  
소가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오. 소를 타고서 고삐를 쥐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래 땅이 그저 그전에는, 시방은 트랙터를 쓰다 보니 땅이 반듯하오. 그전에는 땅이 반  
듯하지 못했소.}

10304 @ 저기 예, 그건 잘 들었습꾸마. 그러면은 가대길르 이룩기 번져 농구 그리구 나서.{저  
기 예, 그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대기로 이렇게 땅을 갈아엮고 그리고 나서.}

10304 # 걸길르 싹 그저 반듯이 만들어야 데지.{씨레로 싹 그저 반듯이 만들어야 되지.}

10304 @ 반듯이 만들어야지. 밭 같은 경우, 베발이 말구.{반듯이 만들어야지. 밭 같은 경우, 논  
말고.}

10304 # 응, 채밀밭이.{응, 밀밭.}

10304 @ 채밀밭이 같은 경우는 감지발 같은 건 심어 놓으무 여기 이 기슴이, 지슴이 나재임  
둥?{밀밭 같은 경우는 감자밭 같은 건 심어 놓으면 여기 이 김, 김이 나잖습니까?}

10304 # 지슴, 그 에따 그런 건 지슴 아이 매오. 채밀이 보리 지슴 아이 매오.{김, 그 음 그런  
건 김을 안 매오. 밀, 보리는 김을 안 매오.}

10304 @ 음. 아니 옛날에. 옛날에 그거를 양게 필르 양게 갈아엮어서 덮는 거 있재임둥? 무스  
걸르 갈아엮었슴둥?{음. 아니, 옛날에. 옛날에 그것을 이렇게 무엇으로 이렇게 갈아엮어서  
덮는 것이 있잖습니까? 무엇으로 갈아엮었습니까?}

10304 # 그래구 또 기계 또.{그리고 또 기계 또.}

10304 @ 후치?{후치?}

10304 # 후치 아이구.{후치 아니고.}

10304 @ 음.{음.}

10304 # 그 베씨르 치지애왕겿소. 어 채밀이랑 시무기맘 손올르 뿌리지애왕겿소? 기래무 또  
이룩게 어 걸기르 고쳐 놓습데. 걸기라구 이런 거 고쳐 놓소.{그 벼씨를 치지 않겿소? 어  
밀이랑 심기만 하면 손으로 뿌리지 않겿소? 그러면 또 이렇게 어 씨레를 다시 놓데. 씨  
레라고 이런 거 다시 놓소.}

10304 @ 걸기는 베발에서 쓰는 거구.{씨레는 논에서 쓰는 것이고.}

10304 # 어우! 네:트(het){어우! 아니오!}

10304 @ 그러면은?{그러면?}

10304 # 그게 마른데서 쓰는 기우. 기계 걸기.{그것이 마른 데서 쓰는 것이오. 그제 씨레.}

10304 @ 걸기?{씨레가?}

10304 # 기계 걸기 마른 데서 쓰오. 베발에는 번지라구 하오.{그제 씨레가 마른 데서 쓰오. 논  
에서 쓰는 것은 ‘번지’라고 하오.}

10304 @ 아, 번지는 판판하게 하는 게 번지지.{아, 번지는 판판하게 하는 것이 번지지.}

10304 # 뽕뽕히 어, 뽕뽕히 하는 게 번지지.{판판하게 어, 판판하게 하는 것이 번지지.}

10304 @ 걸기느, 덩어리르 부수는 게 걸기구.{씨레는, 덩어리를 부수는 게 씨레고.}

10304 # 부시우는 게 걸기지.{부시는 것이 씨레지.}

10304 @ 그렇습지.{그렇지요.}

10304 # 기래두 채밀이 시무구는 그 걸기르 농소. 그 걸기르. 그럼 채밀은 어디가서 해미피우 갯소. 그전에는 이 그런 게 없지. 씨알까(сеялка)라는 게. 그 베르 시무구 채밀의 시무는 그게 없었던 말이지. 옛날에는 그게 없었댔어. 우리 아아 때 우리 아버지 손으르 칠 적에 느 기계 없었댔소. 에 그러구 우리네 커서, 어 커서느 까자스판에서느 우리 까자스판에서 떠나서 이 따시켄트르 와실 적에는 우리 헤~이네 거기 있다나이 에따(это) 우리 헤~이네 우리 아즈바이 말하는 게. 기래구 거기서는 물으 대애두 거저 드랙이 어방 뜨게 없지무. 장드레기 해서 거저 물으 대구 그렇기. {그래도 밀을 심고서는 그 씨레를 농소. 그 씨레를. 그럼 밀을 어디가서 \*\*피우겠소. 그전에는 이 그런 것이 없지. 파종기라는 것이. 그 벼를 심고 밀을 심는 그것이 없었던 말이지.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어. 우리 아이 때 우리 아버지 손으로 칠 적에는 그것이 없었소. 에 그러고 우리네 커서, 어 커서느 카자흐스탄에서는 우리 카자흐스탄을 떠나서 이 타슈켄트로 왔을 적에는 우리 형이 거기에 있다 보니 음 우리 형네 형부가 말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는 물을 대도 그저 두렁이 어림을 할 수가 없지 뒜. 독을 해서 그저 물을 대고 그렇게.}

10304 @ 장드레기 뭇등?{'장드레기'이 무엇입니까?}

10304 # 이룽기 걸어 땡기는 드랙이지. 걸어, 사립이. 이래 이룽게 베르 시무무 이 기다란 물으 꼴뚝 채우지 이룽기. 기래무 이게 장드랙이 있어야 데지.{이렇게 걸어 다니는 두렁이지. 걸어 다니는, 사립이. 이렇게 벼를 심으면 이 기다란 물을 가득 채우지. 그러면 이게 독이 있어야 되지.}

10304 @ 아아! 장드랙이.{아! 독.}

10304 # 걸어 땡기구. 어 그러구 그길르 어따(это) 베씨 그런 거 비로르 치자무 그 조꼬만 술기 땡게야 데지. 그렇기 드럭으 장드럭으 굴기 크기 한다지.{걸어 다니고, 어 그리고 그길로 음 뽕씨 그런 것이나 비료를 치자면 그 조그마한 수레가 다녀야 되지. 그렇게 두렁을 독을 그렇게 크게 한다지.}

10304 @ 그렇쥬.{그렇쥬.}

10304 # 아~ 그렇기 한다지.{응 그렇기 한다지.}

10304 @ 그러면. 아매! 예. 그러면은 그 흙을 잃게 팔 때는 무스거 가지구 파서 잃게 뚝등?{그러면. 할머니! 예. 그러면은 그 흙을 이렇게 팔 때는 무엇을 가지고 파서 이렇게 뜯니까?}

10304 # 무스거 뜯 적이?{무엇을 뜯 적에?}

10304 @ 흙은.{흙은.}

10304 # 흙은 무스 어디다 그릴 적이?{흙을 뭐 어디다 그릴 적에?}

10304 @ 그냥 땅으 팔 때. 무스거 팜등?{그냥 땅을 팔 때. 무엇으로 팜니까?}

10304 # 따아 팔 때 강차일르 파지. 강차일르.{땅을 팔 때 삽으로 파지. 삽으로.}

10304 @ 아, 강차일르.{아, '강차이'(삽)으로.}

10304 # 으응.{응.}

10304 @ 다시 뵐로?{다시 한 번 무엇으로?}

10304 # 강차이.{삽.}

10304 @ 강차이.{삽.}

10304 # 강차이. 강차이라구 우리 저 한제애두 있어 그 강차이. 따아 파자구 강차이르 파지. 우리 지금 밭으 파는게 썩 강차일르 파오. 이 육전 작년에는 아바이 상세나이까데 놔 놔 더라. 고라 지을 줄 몰라서 놔더라. 아, 그거 그 자리에다가 우리 절에 시무자구. 그래 올해 썩 그 제자리에다 심었어. 기래이까데 에 이게 배채랑 제자리에 시무이 파제잉구 시무이 못 쓰겠어. 기래구 저쪽, 아덜이 아덜이 저쪽으느 파구 심은 데느 났어. 기래 아매! 이 손네 이라지. 아매! 아이 판 것가 이 판 거 우리 짐작해 보구 기래구 새해르 썩 파자구. 아이 판 게 못 하오.{삽. 삽이라고 우리 저 한테에도 있어, 그 삽이. 땅을 파자고 할 때 삽으로 파지. 우리 지금 밭을 파는 게 썩 삽으로 파오. 이 밭을, 작년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놔두라고 했지. 고랑을 지을 줄 몰라서 그냥 놔두라고 했지. 아, 그거 심었던 그 자리에다가 그냥 우리 심자고. 그래 올해 썩 그 제자리에다가 심었어. 그러니까 에 이게 배추랑 제자리에다가 심으니, 파지 않고 심으니 못 쓰겠어. 그리고 저쪽,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저쪽에 파고 심은 데는 났어. 그래 할머니! 이 손녀가 이라지. 할머니! 안 판 것과 이 판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고 그리고 새해가 되면 썩 파자고. 파지 않은 곳이 {판 곳만} 못 하오.}

10304 @ 그렇지.{그렇지.}

10304 # 나~. 따아느 파야 기계 잘 데지. 따 아이 파무 잘 아이 데오. 이 요만:안 육전두. 요만 안 육전두 파야 데오.{응. 땅은 파야 그게 잘 되지. 땅을 안 파면 잘 안 되오. 이 요만한 밭도. 요만한 밭도 파야 되고.}

10304 @ 그럼 아매 지금 말씀하신 게 걸기 말씀 하셨구, 번지, 강차이.{그럼 할머니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씨레를 말씀하셨고, 번지, 삽.}

10304 # 후, 후치.{‘후치’.}

10304 @ 후치.{‘후치’.}

10304 # 트랙토르(трактор) 후, 트랙토리, 그리고 트랙토르(трактор)에다느 후치르 맞차야 밭으 갈지.{트랙터, 트랙터, 그리고 트랙터에다느 후치를 맞추어야 밭을 갈지.}

10304 @ 말씀하셨구. 예: 고답에 호미 말씀하셨구.{말씀하셨고. 에 고 다음에 호미 말씀하셨고.}

10304 # 나~.{응.}

10304 @ 또 다른 거 좀 얘기해 주옵소. 다른 것 좀.{또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 좀.}

10304 # 어, 그래구서리 에 그 루꾸(лук)랑 딱 따에 백이무 그 까빨까(кабарка)라는 게 잇소. 까빨까(кабарка)라구 잇소.{어, 그리고서 에 그 파랑 딱 파가 땅에 박히면(자리 잡고 자라면) 그 ‘까빨까’라는 농기구가 잇소. ‘까빨까’라고 잇소.}

10304 @ 까빨까(кабарка).{‘까빨까’.}

10304 # 야~ 저기 나래만에 갈 적에 보오. 그런 셋쟁기 요런 게 야 고통기 야 쪽지 잇는 게. 그걸르 파무 루꾸(лук)르 이 쪽지 이거 잎우 지구 그걸르 파무 빨리 파진단 말ियो. 그래.{응 저기 조금 있다가 갈 적에 보오. 그런 쇠로 된 농기구가 요런 것이 응 고통게 웅 손잡이가 잇는 것이. 그것으로 파면, 파를, {한 손으로} 이 손잡이 이거 쥐고, {한 손으로} 잎을 쥐고 그것으로 파면 빨리 파진단 말ियो. 그래.}

10304 @ 무스거 시물 때 그걸 씌등?{무엇을 심을 때 그것을 씌니까?}

10304 # 그거 에따(это) 루꾸(лук)르 팔 적이 쓰지. 루꾸(лук)르 뽕을 적이 그거 쓰지. 다른 데는 기계 요구 없소. 에 톨리코(толико) 루꾸(лук)르 팔 적이 그런 것두 루꾸(лук)르 팔 적이. 그거 어 애장간이라고 아오? 애장간 아지? 거기두 잊지? 애장가이. 이 무스 기계랑 댄드는 애장가이 잊지. 그 애장간에 가 싹 댄들어 오지. 저 호미랑 싹 그 애장간에 가 낫이랑 싹 애장간에 가서 해오지. 그래오.{그거 음 파를 팔 적에 쓰지. 파를 뽕을 적에 그거 쓰지. 다른 데는 그게 필요 없소. 에 오직 파발을 팔 적에 그런 것도 파발을 팔 적에. 그거 어 야장간이라고 아오? 야장간 알지? 거기(한국)에도 있지? 야장간. 이 무슨 기계를 만드는 야장간이 있지. 그 야장간에 가서 싹 만들어 오지. 저 호미랑 싹 그 야장간에 가서 낫이랑 싹 야장간에 가서 만들어 오지. 그러오.}

10304 @ 다(да). 다(да). 그럼 또 댄 게 무슨거 있겠습둥? 그거 말구 또 베밭이나 논밭에서 쓰는 쟁기는 또 뭐가 있습둥?{예. 예. 그럼 또 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거 말고 또 논이나 논에서 쓰는 농기구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10304 # 없어. 그저 낫이지.{없어. 그저 낫이지.}

10304 @ 없습둥?{없습니까?}

10304 # 낫밖에 없지. 낫을르, 콤파인 돌아댕기메 빼제이오. 빼다가서리 요렇기 요런 테르 들어 못가지. 콤파인 들어 못 가무 이거 싹 낫을르 빼야 데지. 낫을르 빼에서 단으 묶었다가 콤파인 돌아갈 적에느 그거 거기다, 거 또 일하는 사람이 잊지. 그 앞에 댕기메서리. {낫밖에 없지. 낫으로, 콤파인이 돌아다니며 벼를 베잖소? 베다가 요렇게 요런 테를 들어가지 못하지. 콤파인이 못 들어가면 이거 싹 낫으로 베어야 되지. 낫으로 베어서 단을 묶었다가 콤파인이 돌아갈 적에는, 그거 거기다 (터는데), 거 또 일하는 사람이 잊지. 그 콤파인 앞에 다니면서.}

10318 @ 그럼 단으 단은 어느 정도로 묶습둥?{그럼 단을 단은 어느 정도로 묶습니까?}

10318 # 아, 그 콤파인 두두리는 단은 크게 하지. 일기 크게 하오. 크게 해에서.{아, 그 콤파인이 터는 단은 크게 하지. 이렇게 크게 하오. 크게 해서.}

10318 @ 댕 잎이나 함둥?{댕 줌이나 함니까?}

10318 # 뭘시기?{무엇?}

10318 @ 단을 질을 때 댕 잎이나 왕게 놓습둥?{단을 지을 때 댕 줌이나 놓습니까?}

10318 # 아이, 마이 그건. 그건 내야 이래 다야. 그전에느 그전에 이 어따(это) 콤파인이 없구 그럴 적에는 도리깨르 아오? 도리깨? 그전에 내 아:때느 도리깨르 베르 두두렛소. 그담에 도리깨르 베르 두두리다가 그담에는 이렇게 태르 쳄지. 그 담에는 이제 와서는 싹 콤파인으 두두리오. 시바~으느 채필이 보리니 싹 콤파인. 기랜게 시방은 야 그전에느 지제~이라는 거 아오? 지제~이르 심엇뎌어. 시방 어딘 촌에서 지제~이르 시무는지 그건 모르겠소. 이 도시에서 사다나이. 그전에 꼬호즈(колюз)서 살 적에는 꼬호즈(колюз) 지제 이르 심엇뎌어. 그전에 우슈토펬, 우슈토펬르 아오? 그 우슈토펬에서는, 원도서 울적에 차조이르 아오? 한국에도 차조이 잊지? 그 차조이 그전에는 이기 찹쌀이 없을 적이 차조이 그게 그렇기 여기서는 크:게 쳄뎌어. 게 어전 찹쌀이 잇다나이. 치우라 중국에서 찹쌀이 오오. 치우라 치우. 게 여기서는 찹쌀이 있어두 따시켄트에서 찹쌀으 조끔 시무지. 그러나 마~이 오는 거느 중국에서 찹쌀이 오오. 그렇기 오오.{아니, 많이 그건. 그건 나야 이렇게 다. 그전에는 그전에 이 음 콤파인이 없고 그럴 적에는, 도리깨를 아오? 도리깨? 그전에 내가 아이 때는 도리깨로 벼를 털었소. 그 다음에 도리깨로 벼를 털다가 그 다음

에는 이렇게 태를 쳄지(개상질을 했지). 그 다음에는 이제 와서는 싹 콤파인으로 터오. 시방은 밀 보리니 하는 것은 싹 콤파인으로 털지. 그런데 시방은 응 그전에는, 기장이라는 것을 아오? 기장을 심었어. 시방 어디는, 촌에서 기장을 심는지 그건 모르겠소. 이 도시에서 살다 보니. 그전에 콜호스에서 살 적에는 그전에 콜호스에서 기장을 심었어. 그전에 우슈토펬, 우슈토펬를 아오? 그 우슈토펬에서는, 원동에서 울 적에는, 차조를 아오? 한국에도 차조가 있지? 그 차조가 그전에는 여기 찹쌀이 없을 적에 차조가 그게 그렇게 여기서는 아주 많이 뿌렸어. 그게 이젠 찹쌀이 있다 보니. 전적으로 중국에서 찹쌀이 오오. 전적으로 중국에서 치지(뿌리지). 그래 여기서는 찹쌀이 있어도 타슈켄트에서 찹쌀을 조끔 심지. 그러나 많이 오는 것은 중국에서 찹쌀이 오오. 그렇게 오오.}

10318 @ 그럼 아메! 그: 전에 직금 말구. 베르 말려서 음 털 때 알을 털 때 이렇기 마악 서너 사람이 발르 밟아서 마악 돌아가게 한 담에 거기다 대구서 터는 건 없었습둥?{그럼 할머니! 그 전에 지금 말고. 벼를 말려서 음 털 때 알을 털 때 이렇게 막 서너 사람이 발로 밟아서 막 돌아가게 한 다음에 거기다 대고서 터는 것은 없었습니까?}

10318 # 어이구! 그렇기 터는 거느 까프카즈(Кавказ)에서 기랫어. 이 우리 우즈벡스탄에서는 아이 그랬어. 까프카즈(Кавказ)에서는 그랬어. 까프카즈(Кавказ)에서는 우리 어머니 싹 오래비네 야 싹 그렇기 기래구. 그래구 거기서는 또 절에 기계에다서리 그 기기 귀게 다가서리 열어무 베 나오메 한작은 쌀이 나오메 그런 기계 잇엇뎌어. 우리 마마, 아 내 어머니 오래비 그런 기계르 댄들엇단 말이지. 그 까프카즈에는 우리 어마이랑 가서 베질 했뎌어.{어이구! 그렇게 터는 것은 카프카스에서 그랬어. 이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안 그랬어. 카프카스에서는 그랬어. 카프카스에서는 우리 어머니 오라비네 싹 그런 기계가 있었어. 우리 어머니, 아 내 어머니 오라비가 그런 기계를 만들엇단 말이지. 그 카프카스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가서 벼농사를 지었어.}

10318 @ 음.{음.}

10318 # 개 나는 거기르 베질할 적이 내 못 가 뵈어. 기래 우리 어머니는 기래지. 통쌀으느 싹 팔구 싸라기는 먹구. 그랬다지. 그렇기 농새질했다지. 우리 어 어머니는 거기 가서. 저어 다숫째 동새 넷째 동새에 데리구 가서.{그래 나는 거기를 벼농사를 지을 적에 나는 못 가 뵈어. 그래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통쌀은 싹 팔고 싸라기는 먹고. 그랬다고 하지.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 우리 어 어머니는 거기 가서. 저 다섯째 동생, 넷째 동생을 데리고 가서.}

10304 @ 그럼 아메! 이 꼭지니 꼭지니 하는 그런 쟁기는 없었습둥?{그럼 할머니! 이 ‘꼭지’, ‘꼭지’ 하는 그런 농기구는 없었습니까?}

10304 # 어째!{어째!}

10304 @ 아이 썼습둥?{안 썼습니까?}

10304 # 꼭지 있어. 어 각지.{괭이 있어. 어 괭이.}

10304 @ 그 어느때 썼습둥? 그거?{그 어느 때 썼습니까 그거?}

10304 # 그 각지르 할 적에는 어 수박질할 적에 치우라 쓰게 데지. 수박질할 적에. 기래구 어 파질 할 적에 어 그거 각지 없이느 이래 물 대기 바쁘단, 힘이 든단 말이지. 그거 각지 잇어야 데지. 그 각지 잇기마 하무 이롭게 한 이래 엠메 가다가서 그거 또 그거 아랄르 물으 대길래마 그거 또 드 드럭 드럭이라는 거 또 하지. 그 드럭, 드럭이라구 거 못 밧스께야.{그 괭이를 쓸 적에는 어 수박 농사를 지을 적에 항상 쓰게 되지. 수박농사를 지을

적에. 그리고 어 파농사를 지을 적에 어 그거 팽이 없이는 이렇게 물을 대기가 힘들단, 힘이 든단 말이지. 그거 팽이가 있어야 되지. 그 팽이가 있기만 하면 이렇게 한, 이렇게 얼마를 가다가 그거 또 그거 아래로 물을 대기 위하여 또 두렁, 두렁이라는 것을 또 하지. 그 두렁, 두렁이라고 그거 못 보았을 거야.}

@ 봤습니까.{봤습니다.}

# 봤어? 어디서 보겠어. 도시에서는 있지. 촌으로 가구야 그거 보지. 촌으로 가. 이 시방 우리 이렇게 여기서 이래 사는 게 어전의 뗏 헤르 내 농새질의 어전의 어:: 아흔, 아흔두해, 아흔 아흔 구십 구연도에 구, 아이오! 다아(да)! 구십 일 일년도에. 옴소! 구십일년도에 마감했어. {봤어? 어디서 보겠어. 도시에는 있지. 촌으로 가야만 그걸 보지. 촌으로 가야. 이 시방 우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젠 몇 해를 농사를 이젠 어 90, 92년, 90, 90, 99년도에 9, 아니오! 그래! 91년도에. 옴소! 91년도에 끝냈어.}

@ 음.{음.}

# 기래구 구십 일, 삼년도에, 일년도에 농새 일으 하구 삼년도에 난 이랬지. 아이구! 나느 농새 질 가재두 아이 밭에 그런 배앰이두 있지. 기래구 그런 바르나(ворона)라구서리 그거느 무스 같은가 하무 야~. 어 이롱기 밭이랑 잇는 게 그런 게 이막씨 크오. 밭에, 이렇게 크게 잇소. 어 파밭에. 나느 (쫓) 새해느 아이 가겠소. 어, 아바이 가서 혼자 지라무 징구, 나느 아이 가겟다구. 배앰이 기래 나느 너무, 다른 사름덜으느 이래 따에다가서리 이래 막으 치지. 나느 이기 막으 치자무 이기 높우게 하오. 이 밑에다 싹 약으 치오. 두스드(дуст) 치지. 백개미 없지. 두스드(дуст)나 치구 기라무 거기르 뽕이 못 들어오지. 기래구서리 에따(это) 약이 스비니, 스베니라구 그런 약이 잇엇됐어. 그 약으느 야 음: 뉘새랑 없소. 두스드(дуст)는 뉘새나오. 기래 그거 기래 막이, 막두 요렇게 크게 크게 애이 치우 요렇기. 거저 둘이서 잇게 사 그렇기 치지. 기래구서리 나느, 나느 아이가겟다구. 어, 아흔세 해 때는 아이 가겟다구. 나느 배앰이두 무섭지 그 바란(ворона)두 무섭지 아이 가겟다구. 기래기마 하무 이래오. 그럼 내 혼자 가겟다구. 그 아흔 세해 때 우리 아바이 상, 베~이 들었어 삼월에. 삼월에 베~이 들었어. 그래 바램이 지나가다나이 그 담에는 그저 꿈쩍 못했지.{그리고 91년, 93년도에, 91년도에 농사 일을 하고 93년도에 난 이랬지. 아이구! 나느 농사를 지으러 가자고 해도 밭에 아니, 그런 뽕도 있지. 그리고 그런 까마귀라고서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음. 어 이렇게 밭이랑 잇는데 그런 것이 이만큼씩 크오. 밭에, 이렇게 큰 것이 잇소. 어 파밭에. 나느 (쫓) 새해는 안 가겠소. 어, 할아버지 가서 혼자 지으려면 짓고, 나는 안 가겟다고. 뽕이 그래서 나는 너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땅에다 막을 치지. 나는 여기 막을 치자면 여기 높게 하오. 이 밑에다 싹 약을 치오. 살충제를 치지. 개미가 없지. 살충제나 치고 그러면 거기를 뽕이 못 들어오지. 그리고서 음 약이 ‘스비니, 스베니’라고 그런 약이 있었어. 그 약은 음 음 뉘새가 없소. 살충제는 뉘새가 나오. 그래 그거 그래 막, 막도 요렇게 크게 크게 안 치오 요렇게. 그저 둘이서 잇게야 그렇게 치지. 그리고서 나느, 나느 안 가겟다고. 어, 93년도에는 안 가겟다고. 나는 뽕도 무섭지, 그 까마귀도 무섭지 안 가겟다고. 그러기만 하면 이러오. 그럼 내가 혼자 가겟다고. 그 93년도에 우리 할아버지 병이 들었어, 삼월에. 삼월에 병이 들었어. 그래 중풍이 지나가다 보니 그 다음에는 그저 꿈쩍을 못했지.}

10304 @ 그럼 아매 예. 그러면은 그:: 뭐 검부레기라던가 이런 거 굵, 굵는 거 있제임둥?{그럼 할머니 예. 그러면 그 뭐 검불이라든가 이런 거 굵는 것이 있잖습니까?}

10304 # 각제.{갈퀴.}

10304 @ 그건 뭇둥?{그것은 무엇입니까?}

10304 # 각제. 각제, 각제느 다 있어. 우리 농새질하다나이 각제랑 다 있어. 각제 잇지 호미 잇지 강차이 잇지. 다아 있어. 그 농새질하던기.{갈퀴. 갈퀴, 갈퀴는 다 있어. 우리 농사를 짓다 보니 갈퀴랑 다 있어. 갈퀴 잇지 호미 잇지 삽 잇지. 다 있어. 그 농사를 짓던 것이.}

10304 @ 음. 아까 그 파지이할 때 물으 댈 때 이렇게 드럭 징구 할 때 쓰던 거 그건 뭐라구 했죠? 꼭지라구 했나?{음. 아까 그 파농사를 지을 때 물을 댈 때 이렇게 두렁을 짓고 할 때 쓰던 거 그런 무엇이라고 했죠? 팽이라고 했나?}

10304 # 꼭지라 하지. 그거 꼭지지. 껌, 그거 꼭지라구 하지. 우리 고렷사름덜은 그거 꼭지라 하지. 우리네느 거저 껌트멘이라구.{팽이라고 하지. 그것은 팽이지. 그거 팽이라고 하지. 우리 고려 사람들은 그것을 팽이라고 하지. 우리네는 그저 ‘껌트멘’이라고.}

10304 @ 껌트멘?{‘껌트멘’?}

10304 # 껌트멘(кетмень).{‘껌트멘’(팽이).}

10304 @ 껌트멘(кетмень).{‘껌트멘’(팽이).}

10304 # 야~ 껌트멘이라구 하오. 개 우리 조선사름들으느 그거 꼭지라 하지. 우리네 원도에 이실 적에 그런 꼭지 없엇됐어. 이 까자끄스판에 들어오이 까자끄일이 그런 거 쓰짐. 기래 우리 우리 아바이 이래지. “야! 이게 꼭지 원도에서 잇엇더무 어찌 좋앗겠는가.”구 기랜게 원도에는 없지. 원도에는 미시게 잇엇는가 하이 에따(это) 강차이르 꾸부레서 잘그 꾸부레서 잘그 맞아서 기래 포지강차이라구 그렇기 말하지. 그런 소리 들었어? 포지강차이라는 소리 들엇됐어? 그런 한국에도 잇을 게야 포지강차이라구.{음 ‘껌트멘’(팽이)이라고 하오. 그래 우리 조선사람들은 그거 ‘꼭지’(팽이)라고 하지. 우리네 원동에서 잇을 적에 그런 팽이가 없엇어. 이 카자흐스탄에 들어오니 카자흐인들이 그런 거 쓰지 뭇. 그래 우리 우리 아버지 이러지. “야! 이게 팽이 원동에서 잇엇더라면 어찌나 좋앗겠는가.”하고 그런테 원동에는 없지. 원동에는 무엇이 잇엇던가 하면 음 삽을 꾸부려서 자루를 꾸부려서 자루를 맞추어서 그래 ‘포지강차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그런 소리 들었어? ‘포지강차이’(땅을 파 일구는 데 쓰는 삽)라는 소리를 들었어? 그런 것이 한국에도 잇을 게야, ‘포지강차이’라고.}

10304 @ 포지강차이.{‘포지강차이’}

10304 # 음. 그렇기 우리 원도에서는 그렇기 말했어. 포지강차이라구 그러나 여기 들어와서느 꼭지라 하지. 그런 꼭지두 이 아바이 씨던 게 잇소. 내 쓰던 것두 잇구. 각제두 잇구 호미두 잇구. 그 그런 거 파이프 파는 그것두 잇구 자르는 것두 잇구.{음. 그렇게 우리 원도에서는 그렇게 말했어. ‘포지강차이’라고 그러나 여기 들어와서느 ‘꼭지’(팽이)라고 하지. 그런 팽이도 이 할아버지가 쓰던 것이 잇소. 내가 쓰던 것도 있고. 갈퀴 있고 호미도 있고. 그 그런 거 파를 파내는 그것도 있고. 파를 자르는 것도 있고.}

10304 @ 가새 잇구.{(파를 자르는) 가위 있고.}

10304 # 야~ 가새 다 있어.{음. 가위며 다 있어.}

10304 @ 루꾸(лук).{파.}

10304 # 가새, 베는 게.{가위, 베는 것.}

10304 @ 베는 게 잇구.{베는 게 있고.}

# 그 잇은 베에야 테지. 그래 국가서 말하오. 그 파에르 벨 적에, 이게 파대가리 아이오? 이롱

제2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베
20102	이삭	이사기라 하구
20103	볍씨	베씨
20104	못자리	*(+직파(直播)합)
20105	모판	*(+직파(直播)합)
20106	쟁기	가대기(+발갈이), 가다그(+대격형), 가다기라구,
20107	보습	보서피라두{보습이라고도}
20108	벧	△
20108-0-1	-이	△
20109	극쟁이	가대기
20110	씨레	△
20111	번지	번지
20112	모내기	*(+직파(直播)합)
20113	흙덩어리	흙땅지라, 흙떠~이
20114	고무래	국띠길르{고무래로} cf. 가렐르{가래로}, 가래라구(+고무래 대응으로 곡식을 펼 때, 벧짚을 모을 때 사용함)
20114-1	고무래(곡식)	국띠기느(+지금은 없고 옛날에 사용함) cf. 소보칠르(+쌀을 다듬을 때 사용){삼태기로}
20114-2	고무래(재)	까구래라구(+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것)
20114-3	고무래(흙)	국띠기르
20114-4	고무래(미는 것)	*
20114-5	고무래(당기는 것)	*
20115	쇠스랑	각째, 차으재라구(+[čhəiɽ]), 차으재(+날이 네 개라 함)
20116	곡괭이	각찌
20117	괭이	*
20118	삽	강차이
20119	호미	호미쳐르(+생긴 모양이 한국의 호미와 다름){호미처럼},

기. 이막씨 크기마 하무 이 쪽지르 다숫 단지 만한 거 더 질게 베지 말라구. 이 다숫 단지 만한 거 내놓구 베라구. 이룽기 말하지. 기래 그렇게 베오. 더어 질게 베기마 하무 기게 어: 그런 거 티째르 티째르 맞지. 그렇기 했됐어.{그 옴은 베어야 되지. 그래 국가에서 말하오. 그 파를 벨 적에, 이게 파 대가리 아니오? 이렇게. 이만큼씩 크기만 하면 이 쪽지를 다섯 단지만큼 하게 그 이상을 더 길게 베지 말라고. 이 다섯 단지만큼 되게 하고 그보다 긴 것을 베라고. 이렇게 말하지. 그래 그렇게 베오. 더 길게 제기만 하면 그게 어 그런 거 퇴짜를 퇴짜를 맞지. 그렇게 했었어.}

@ 무슨 짜르?(무슨 ‘짜’를?)  
# 티, 아이 받침. 기래구 프로цент(процент)르 마이 제하구. 티째 티째르 맞지. 기래다나이 어 그거 어떻게 하나 딱 짜르게 하지. 지내 작게 하무 말이 없소. 질게 하무 말이 있지. 기게 그 근식한다구. 이게 질게 베기마 하무 기게 근식한다구. 저울에 근식한다구. 그렇기.{퇴짜. 안 받지 뭐. 그리고 퍼센트를 많이 제하고(여기면 경작자에게 돌아오는 몫을 많이 제하고). 퇴짜 퇴짜를 맞지. 그래다 보니 어 그거 어떻게 하거나 딱 짧게 하지. 너무 작게 하면 말이 없소. 길게 하면 말이 있지. 그게 그 ‘근식하다’고 하지. 저울에 ‘근식하다’고. 그렇게.}  
@ 근식한다구.{‘근식하다’고.}  
# 근식한다구. 기래 만일에 이래, 이래 이 쪽이 작제윙겟소? 작으무 그게 노르마(норма)지. 노르마(норма)지 그게. 고만:하게 베지. 다숫단지 만하게 베지. 그러나 더 질게 베무 기게 조폼 베스(без) 무겁아진다지. 많:안[마아난] 게 아 기게 뎛 후대씨 이룽기 질기 보무 기게 베스(без) 얼마 가겟소. 그렇지. 기래서 딱 그저 잘게 하지. 더 작게 하는 건 말이 없소. 그렇소. 기게 일하는 것두 기게 국가서두 어 싹 그래 애:기르 해 주지. 그렇게 베라. 이렇게 해라 이렇지.{‘근식하다’고. 그래 만일에 이래, 이래 이 쪽이 작지 않겟소? 작으면 그게 평균이지. 평균이지 그게. 고만하게 베지. 다섯 단지만큼 하게 베지. 그러나 더 길게 베면 그게 조폼 무거 위진다지. 많은 것이 아 그게 뎛 후대씨 이렇게 길게 보면 그게 얼마나 가겟소. 그렇지. 그래서 딱 잘게 하지. 더 작게 하는 것은 말이 없소. 그렇소. 그게 일하는 것도 그게 국가서두 어 싹 그렇게 얘기를 해 주지. 그렇게 베라고. ‘이렇게 해라’ 이렇지.}

	호미르(+대격형)
20120 농기구	쟁기라구
20121 김	지슴, 지시미
20122 김매다	지슴 맨다구, 기슴 맨다
20123 애벌 매다	아시기슴, 아시지시미, 아시지슴
20123-1 두벌 매다	두벌기슴, 두벌지시미, 두벌찌슴(+[tuβəlčʰisim])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세벌기슴, 세벌찌슴
20124 논두둑	장드러기(+차량과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 폭을 넓게 해서 만든 논둑), 간드레기라구, 드러그(+대격형), 드러기(+주격형), 강뜨리기라구, 간뜨리기
20124-1 논두렁	드러기(+주격형), 드러그(+대격형)
20125 밭둑	장두기
20126 밭두둑	등더기, 등더그(+대격형)
20127 밭고랑	골쓰(+대격형), 골씨
20128 밭이랑	*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 cf. 골쓰 판다구
20128-2 이랑밭기	*
20129 보리	보리
20129-1 가을보리	*
20129-2 봄보리	△ cf. 이른 보메 시무는 보리라 하오{이른 봄에 심는 보리라 하오}
20130 보리쌀	보리싸리
20131 가을같이	△(+바트 간단하지)
20132 감부기	△
20133 두엄	더·어미, 더어무(+대격형), 더어미라{두엄이라}

### 2.1.2. 타작

20134 거름	절금 낸단 사름덜무 이쑈, 절기미라구 하지
20201 추수하다	가을한다, 가슬한다
20202 벧단	베따이
20202-1 벧단(한 줌정도)	태베따(+돌 개상으로 타작할 때 묶은 벧단)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큰베따(+도리깨로 타작할 때 묶은 벧단)
20202-3 벧단(한 아름정도)	베따이라
20203 가리(積)	가리르(+대격형)
20204 가리다(積)	가리르 가례야{가리를 가려야}, 가리자무{가리자면}, 가리구{가리고}
20205 벧가리	베까리
20206 날가리	→나까리느{날가리는}
20207 타작	△

20208 벼훑이	△
20208-1 그네	*
20209 개상 태	태베따리(+돌을 사용하여 타작함)
20209-1 자리개	△ cf. 태베르 치는 바이, 바예{줄에}
20209-2 자리개질	태르 친다구(+다), 두두린다(+소)
20210 도리깨	도리꺄르{도리깨로}
20210-1 도리깨장부	잘기라
20210-2 도리깨열	도리깨 아드리라구(+몹쓸 아들을 "도리깨 아들만도 못하다"고 표현함,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도리깨열이 하나로 되어 있다 함){도리깨열이라고}
20210-3 도리깨꼭지	△(+자연 발화에서 "도리깨 마구리"라 함)
20211 벧짚	베찌피
20211-0-1 -을	베찌푸
20211-0-2 -에	베찌페
20212 새 패기	△(+베때라 하지){벧대라 하지}
20213 쭈정이	쭈구래기라구두{쭈정이라고도}
20214 티	→티 나라와따
20215 까끄라기	꺼스레미라구, 끄스레미
20216 풍구	풍채
20217 원두막	농마기
20218 허수아비	헤제비라구두 하오(+다른 고려인들이 사용한다 함), 새저리
20219 흥년	승녀이
20220 머슴	농구이라구 cf. 머시미라(+남의 집에서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머슴이라}, 머스무(+대격형)
20221 낚	싸꾸이라구{샷꾼이라고}
20221-0-1 -을	△
20222 품앗이	△(+서르서르 돌바본단 말이오)
20223 품샷	쌍닐한 도이라 하지(+다, [sʰaɲniʎan]){샷일한 돈이라 하지}, 싸글르{샷으로}
20223-0-1 -으로	싸글르(+다), 품싸글르(+소){품샷으로}

###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바~에, 바에
20302 디딜방아	발바~에라{디딜방아라}
20303 방앗공이	바에 더무리
20304 방아확	바에 호바기 지{방아확이지}
20305 물레방아	물바~에
20306 연자방아	성매



20307 절구	절기
20308 절구통	절기지
20309 절굿공이	절기 덩무리라구{절굿공이라고}
20310 절구질	절기지르(+대격형)
20311 겨	제 나오지
20312 보릿겨	보리째지{보릿겨지}
20313 왕겨	아시제(+처음 방아를 찼었을 때 나오는 겨), 두벌째라(+두 번째 방아를 찼었을 때 나오는 겨)
20314 등겨	세벌째(+[sebərč'e], 세 번째 방아를 찼었을 때 나오는 겨)
20315 검불	→검부제기라(+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말함){검불이라}, 검부르느{검불은} cf. 북페기라(+벼나 보리에서 나오는 조각을 말함)
20316 겹질	겹찌 cf. 송치(+씨가 있는 과일의 속을 말함)

## 2.1.4. 곡물

20401 곡식	곡씨기, 곡씨기, 곡씨기
20402 찹쌀	찰싸리
20403 멥쌀	매싸리
20404 쌀보리	*
20405 조	조이두
20406 차조	차조이 이꾸{차조 있고}, 차조일르{차조로}
20407 메조	매조이 이꾸{메조 있고}
20408 좁쌀	좁싸리
20409 잘다	잘다구
20410 조이삭	조이 이사그느{조 이삭은}
20411 수수	밥쑤끼
20411-1 붉은색 수수	찰밥쑤끼
20411-2 장목수수	비씨끼라{장목수수라}, 비쑤끼
20411-3 찰수수	찰밥쑤끼
20411-4 메수수	메밥쑤꾸느{메수수는}
20412 수수깡	밥씨때지{수수깡이지}, 밥쑤때지
20413 옥수수	옥쑤끼라, 옥쑤꾸(+대격형)
20413-1 찰옥수수	찰옥쑤끼(+다, [čʰal.oks'uk'i]), 차록씨(+소), 차록쑤꾸느{찰옥수수는}
20413-2 메옥수수	메옥씨끼느{메옥수수는}
20414 귀리	기미리 cf. 유미리
20415 메밀	매미리
20416 콩	코~이
20417 콩깍지	콩각때기라{콩깍지라}

20418 메주	메지르(+대격형)
20418 메주	메지 코~이지{메주 콩이지}
20419 메달다	다라 매서{메달아서}
20420 띄우다	띄우짐{띄우지 뭐}
20421 곱팡이	곱태기
20422 강낭콩	열코이오{강낭콩이오}, 열코~오느{강낭콩은}
20423 콩기름	콩지리미두, 콩지리미라{콩기름이라} cf. 해자부리 지름(+키르기스스탄에서 주로 찜){해바라기 기름}, 모카 지름(+우즈베키스탄에서 주로 찜){목화 기름} 깨지름, 깨지르무느{깨 기름은}, 깨지리미
20424 깨	참깨라
20424-1 참깨	들깨라
20424-2 들깨	고소:하긴 고소:하오
20425 고소하다	

## 2.1.5. 채소

20501 채소	→채소는, 채소라지
20502 나물	나무리지, 나무르 켈라{나물을 캐러}
20502-1 "나물(발 재료)"	나무새더르나(+집에서 심는 것만 가리킴){남새들이나}, 나무리라
20502-2 "나물(발 반찬)"	채시 cf. 고사리채, 미나리채라, 영지채{부추채}
20502-3 "나물(들 재료)"	나무리라
20502-4 "나물(들 반찬)"	△
20502-5 "나물(산 재료)"	산나무리지
20502-6 "나물(산 반찬)"	△
20503 푸성귀	△
20504 다듬다	검줄한다구, 검줄해에 댄다구{다듬어야 된다고}
20505 반찬	해애미라 하지{반찬이라 하지}, 해애미느{반찬은}
20506 무	무끼, 무끼라 하오{무라 하오}, 무수라
20507 썰다	쏘오라서{썰어서}
20508 무청	무수이피지, 무꾸이피지
20509 시래기	시래기(+배추 잎만 말린 것을 말함) cf. 시락장무리라{시래깃국}
20510 무말랭이	*
20511 장다리무	씨무끼라구, 노오배, →장다리(+구)
20512 배추	배채
20513 고랭이	△ cf. 소그 소기라 하지
20514 오이	베두(+[vedu]), 웨르{오이를}, 무레
20515 오이지	베짐치(+[vejimčʰi]), 웨짐치

20516 오이소박이	*
20517 가지(茄子)	까지오{가지오}
20518 호박	호바기, 구든 호바기라{늙은 호박}, 애호배기라{애호박}
20519 고구마	*
20520 감자	감제지
20521 우영	우버~이, →우병니피오{우영잎}, 우병니피오{우영잎이오}
20522 파	파이지
20523 고추	고치
20524 시금치	실굼치, 실굼치르(+대격형)
20525 미나리	미나리부터&, 미나리보구&{미나리보다}, 미나리채르&, 미나리르&, 미나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자란다고 함)
20526 부추	염지
20527 상추	불기, 불구(+대격형), 불계다{상추에다}, 불구 만저{상추먼저}
20528 마늘	마느리짐{마늘이지 뭐}
20529 생강	△
20530 냉이	나시짐{냉이지 뭐}, 나시오
20531 달래	달리
20532 도라지	도라지
20533 더덕	*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이파비라{쌀밥이라}
20602 찬밥	무근 바비라(+[mugʌn])
20602-1 더운밥	해빠비라{더운밥이라}
20603 조밥	조이바비라{조밥이라}
20604 누룽지	가마치보구{누룽지보다}, 가마치
20605 눌은밥	바까마치라{눌은밥이라}
20606 송늑	송누무르, 송누우르{송늑을}, 송누~이, 송누부터
20607 뜬물	뜸무리, 뜸무르(+대격형)
20608 김(蒸氣)	지미 cf. 밥찌미
20609 갱죽(羹粥)	국꺠기(+[kukč'ügi]), 국꺠기(+요즘에는 돼지 고기도 넣는다 함)
20610 싱겁다	승겁쩨{싱겁지 뭐}, 승겁파구

20611 국수	국씨르, 국씨보구(+[kuks'boxu]), 국씨느, 국쓰느
20612 칼국수	칼구기, 칼구기두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 cf. 국씨르 놀러 한다지
20613 건더기	깡치라
20613-1 국물	장무르(+[čaŋmuri], 속격형)
20614 고명	추미르(+고명과 꾸미의 구분이 없음)
20615 꾸미	추미라(+고명과 꾸미의 구분이 없음)
20616 미역	메에기, 메에기르(+대격형), 메에기 장무리{미역국}
20617 김(海苔)	찌미라&
20618 수제비	뜨더꾸기(+돼지고기를 삶은 물에 계란을 풀고 감자와 밀가루 반죽을 떼어 넣은 후 끓여 먹음), 뜨더꾸그(+대격형)

20619 끼니	시거기라, 시거기, 시거으느{시적은} cf. 식쌔르(+대격형)
20620 미음	암주기라구, 안주그(+대격형)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끄레서, 안주그 끄레 메긴다구 cf. 암죽절한다지, 안죽절한다구 싹절구미지(+다), 보리질구미라(+소)
20621 옛기름	바깼지라구, 박깼지르(+대격형), 바깼지르(+대격형)
20622 식혜(食飮)	밥씨캐, 밥씨캐애다가서리{밥식혜애다가}
20623 식혜(食?)	cf. 반차느(+물고기로 한 음식을 말함)

20624 달다(甘)	다라서, 달짐{달지 뭐}, 다오
20625 가루	갈기 cf. 갈그내능거{가루를 내는 거}
20625-0-1 -에	갈계다, 갈계다
20625-0-2 -을	갈그
20625-0-3 -도	갈기두, 갈그두, 가르두
20626 밀가루	채밀꺠기
20627 밀기울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0628 미숫가루	미시꺠기라, 미시꺠그(+대격형)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지레라(+구), 지러이라(+구), 간자아(+대격형), 간장(+신)
20702 된장	텐장, 텐자~이구, 텐자아느{된장은} cf. 북짜이랑거(+된장에 고수풀 가루, 후추, 화확 조미료를 넣고 끓인 것. 주로 두부에 얹어 먹는다고 함){북장이란 거}
20703 고춧가루	고치꺠기
20704 고추장	고치자아느{고추장은}, 고치장, 고치자이
20705 소금	소곰
20706 김치	배채짐치라, 짐치느
20707 김장	*

20708 깍두기	*
20709 나박김치	*
20710 담그다	절군다 하지
20710-0-1 -고	절구능거꾸{담그는 것}, 절구라구, →당구구
20710-0-2 -어라	절거서, 절거야, →당가라, →당갓능가
20711 양념	양녀미라, 양녀미랑
20712 버무리다	버무링거{버무린 거}
20713 버섯	버스시라
20713-0-1 -이	버스시
20714 콩나물(재료)	질구미라
20714-1 콩나물(반찬)	질굼채
20714-2 숙주(나물)	녹떠질구미라
20715 두부	드비, 드비르(+대격형)
20716 비지	드리, 드리르(+대격형)
20716-1 비지떡	*
20717 달걀	달가리라
20718 가래떡	* cf. 떠꾸기(+한국 사람에게 들었다 함)
20718 가래떡	* cf. 떠꼭때라(+가래떡을 썬 떡국의 재료)
20719 시루떡	시리떠기
20720 송편	* cf. 쌀베고재라{쌀보고재라}
20721 빗다	△ cf. 벤세르 싸라구
20722 흰떡	*
20723 고물	곰물두 여꾸{고물도 넣고}, 고무르(+대격형)
20724 팔죽	오구래지, 오구래르(+대격형)
20725 새알심	오구래라(+팔죽과 새알심의 구분이 없음)
20726 백설기	* cf. 골미떠기지(+절편과 비슷한 떡), 찰떼기
20727 튀밥	△, cf. 옥썬꾸 티우능게지, 옥씨 티웅게라하지
20728 술	수우리지, 수우리오
20729 막걸리	* cf. 청지{청감지}
20730 소주	토지라
20731 부침개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것을 먹어 봤다고 함)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가매모기, 가매모그(+대격형)
20802 가마솥	가매(+밥을 지을 때 쓰는 큰 가마솥), 소티라(+국을 끓이는 데 쓰는 작은 가마솥), cf. 납 가매오, 무세가매오
20802-0-1 -을	쿵가매구(+밥을 지을 때 쓰는 가마솥)
20802-0-2 -에	소테다{솥에다}
20803 아궁이	부수깨지(+보통 함경도 방언은 부엌을 가리키지만 제보

20803-0-1 -이	자는 아궁이로 인식), 부어깨다, 부우깨지
20804 그을음	부어깨 크기만하무 끄스레미라, 끄스러무느{그을음은} cf. 가매 미꾸베 재르 글거 테제라{가마솥 밑의 재를 긁어서 버려라} 부살개, 불살개르(+대격형)
20805 불쏘시개	내구리라
20806 연기	내구리라
20806-1 내(煙氣)	→끄스러따
20807 그을리다	부수땡기빠께{부지깅이밖에}
20808 부지깅이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0809 부삽	맴따, →내구러서
20810 넓다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0811 냄비	그르시라
20812 그릇	그르스 까세라{그릇을 가시다}
20812-0-1 -을	더깨라 cf. 가매 덕깨라
20813 뚜껑	시끼더깨라구
20814 주발 뚜껑	시끼더깨
20815 사발 뚜껑	가매뜨베
20816 술뚜껑	박꾸기
20817 밥주걱	수리, 술루{술가락으로}
20818 숟가락	저릴르{젓가락으로}, 저례{젓가락에}
20819 젓가락	→중지느(+여기서는 간장을 담지 않고 차를 마실 때 쓴다 함), 간장 담은 그르시라 cf. 뱅사레다{병에다}
20820 종지	*
20821 보시기	△ cf. 지그르시오{질그릇이오?}
20822 뚝배기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0823 접시	제리(+가재를 잡을 때도 썼다 함)
20824 조리	쌀무람바기
20825 이남박	바가지르(+대격형)
20826 바가지	새앵지두(+마른 행주), 물쑤세미라(+젖은 행주)
20827 행주	헤운다구, 헤우능거{행구는 거}
20828 행구다	거둔다하지, 시거그 거둔다구서르, 거두매르 하능거느(+
20829 설거지	집 청소를 한다의 의미)
20830 개숫물	자시무리, 가심무리랑게{개숫물이라는 게}
20831 찌꺼기	→깡치라, 깡치짐{찌꺼기지 뭐}
20832 화로	하르또이, 하르또이르(+대격형)
20833 화룻불	도목뿌리라
20834 부젓가락	△
20834-0-1 -이	△
20834-1 불숟가락	△

20835 다리쇠	*
20836 석쇠	적썰빠께{석쇠밖에}
20837 도시락	△
20838 바구니	바구미 cf. 캉제느(+바구니처럼 생긴 그릇), 강주리라 {광주리라}
20839 뒤주	→두지, →두지라
20840 찬합	*
20841 강판	채카리라
20842 개다리소반	사~이지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바~이(+부모의 거처) cf. 암빠~이구(+여덟 칸으로 된 집에서 부르는 말, 제보자는 의미를 정확히 모름), 고바~이(+조부모의 거처), 정지라구(+밥을 짓는 ‘부수께’의 아궁이 위에 구들로 된 곳)
20902 벽	어간베기
20903 다락	*
20904 벽장	*
20905 감추다	→꼼치운다구
20906 흙	그미 생게따구(+사물에 생긴 흙) cf. 허무리 생게따구(+얼굴에 생긴 흙)
20907 들썰귀	문썰기, 저기라구두
20907-1 압착	△
20907-2 수착	△
20908 미닫이	밀채
20909 여닫이	무~이라 하지{문이라 하지}, 무느 다드라구{문을 닫으라고}
20910 덧문	*
20911 열다	열구 이따, 여러라
20912 문고리	문쭉찌르, 문쭉찌라구 하지 cf. 문걸개(+문 잠금장치), 무누걸개
20913 자물쇠	자물썰라(+한국에서 쓰는 말이라고 함)
20914 간히다	개끼와 이따{간혀 있다}
20915 열쇠	세때, 세때지, →열썰라구두 하구
20916 잠그다	채바짜(+[čʰɛvacʰi]), 세르 채우지 cf. 여능 게지(+반의 어){여는 것이지}
20917 구멍	궁구 뚫썰{구멍을 뚫지}, 궁기 뚫버지오{구멍이 뚫어지

20917-1 쥐구멍	오}, 궁기보구 지구네르, 지구넌드리 만터라구, 지궁기라구서, 지궁구 마그라구{쥐구멍을 막으라고}, 지궁기더라구 쫌는다구두 하구, 쫌저테지라구{쫌어 버리라고}, 쫌저테 제라{쫌어 버려라}
20918 찢다	구들더께, 구드리(+[kudʌri]) △ △
20919 구들	바람질하는 카리라 하오, 흑카레 떠서
20920 흙받기	나무카리라 하는지
20921 흙손	세쟁기 카리오
20922 흙칼	발르라구, 바른다구, 발라라 cf. 바람질한다 하지, 흑 절해애라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조에, 조에라 하구, 조에느
20923 바르다	△ 구서께 세우란 마르 아이하구, 구서기, →구서기라구두 하오
20924 장판	△(+러시아 어, плинтус)
20925 종이	깨까자더라구서(+다), 깨까재서 조타지(+다), 깨까자다구(+다), 깨끄타다두 하구(+소, 제보자는 이 말을 더 많이 쓴다고 했으나 비격식 발화에서는 ‘깨까자다’를 더 많이 씀), 깨끄태서 조타구(+소)
20926 도배	문투기, 문투그(+대격형)
20927 구석	문투게 안찌 말라구, 문투게 서지 마라라
20928 굽도리	문찌물루{문 틈으로}, 찌미 나따구두
20929 깨끗하다	가운데라구두 하구, 함파네다가서리, 여가리라{가장자리라} cf. 여파리라{옆이라}
20930 문지방	가분데구(+[kaβundegu]), 함파이라 하구{복판이라 하고}
20930-0-1 -에	덩때라(+[tɕŋtʰɛra]), 덩때라
20931 틈	덩때지
20932 가장자리	덩때라 cf. 달그 덩때라구 하오{헛대라고 하오}
20933 가운데	뿐비, 뿐비라
20934 시렁	세계이라 하구
20935 살강	세계이라
20936 선반	거러라, 건다하지, 걸구 cf. 걸게따{걸렸다}, 걸게 이따
20937 서랍	구두{걸려 있다고도}
20938 경대	등자이라 하오{등잔이라 하오}, 등피라구두 하구(+이 방
20939 거울	언에서는 남포등을 가리킴, 그러나 제보자는 등피가 본래 남포에 씌우는 유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
20940 걸다	
20941 호롱	

2.3.2. 건물

21001 지붕	지버이 너르다, 지버~이, 지병 우에다(+čibəŋ){지붕 위 에다} cf. 오고로드(огород)라 하오(+''밭''의 러시아 어)
21001-0-1 -에	지버에
21002 기와	재애, 재애오, 마다에서
21003 기와집	재애찌비지
21004 수키와	넙께 한다는
21004 수키와	넨핀다
21005 암키와	△
21006 대들보	△, cf. 지두이
21007 서까래	→세까다리
21008 추녀	△, cf. 기계 모서리우{그게 모서리오}
21009 처마	△
21010 오두막	초마기라(+3월부터 9월까지 발농사를 지을 때 밭 근처 에 짓는 조그마한 온돌 집), 초막 지올라 간다구, 풀리 마그 진는다구
21011 초가집	△(+원동에서는 벗짚이 없어서 매자기를 엮어 지붕을 이었음)
21012 이영	엥기, 영기, 영기느, 엥기라 하오, 엥기르 엔다구{이영을 인다구}
21012-0-1 -에서	엥기에서, 엥기에 무리 만타
21013 용마름	용말기, 용말귀(+[yoŋmalgʷi]), 용말기 툐다구서, 용말그 (+대격형), 용말기르, 용말게다{용마름에다}
21014 기스락	△
21015 낙숫물	△
21015-1 기스락물	△, cf. 어즈러분무리{더러운 물}
21016 사닥다리	새탁따리라구두 하구(+다), 새다리라구(+소)
21017 용마루	용말기지
21018 토방	바다~이, 바다에다가 노오라구, 바당부터
21019 뗏돌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1019-1 섬돌	*
21020 마루	*
21020-0-1 -에	*
21021 뗏마루	*
21022 기둥	지두이라 하지
21023 주춧돌	*(+기둥 밑에 돌을 끼지 않고 시멘트를 바름)
21023-0-1 -을	*
21024 굴뚝	구새 노푸다구, 구셀르

2.3.3. 마당

21101 뜰	*, cf. 바티라구{밭이라고}
21102 마당	△
21103 넓다	가~이 너르다{장이 넓다}, 너분 지르느{넓은 길은}, 넙따 구(+공간의 크기가 클 때 씀) cf. 운동자이 넙따구{운동 장이 넓다고}, 너르구(+평면의 면적이 클 때 씀) cf. 지부느 너르구 조타구{집은 넓고 좋다고}
21103-0-1 -어서	가~이 널거노~오이
21104 넓히다	너르게 한다구, 널거노~오이
21105 곳간	두지까이라 하지(+원동에서는 없었고 중앙아시아에 와 서 지었음), 두지까네다
21106 외양간	오양까느, 오양까이라 하지, 세구리라구두 하구
21107 마구간	오양까이구(+말, 소, 양이 자는 곳을 통칭)
21108 광	사랑까~이나(+광과 헛간의 통칭으로도 쓰임), 싸라~이라 하구(+광과 헛간의 통칭으로도 씀), 사랑까느
21109 헛간	허더까네다가느{헛간에다가는}, 허더까이라 하오{헛간이 라 하오}, 허더까느느{헛간은}
21110 쓰레기	△ cf. 문지르 쓰러라{먼지를 쓸어라}
21111 장독대	△
21112 장독 뚜껑	△ cf. 더께
21113 변소	풍까이라구서(+노, 50~70세 사이에 주로 씀), 뽕소까이 라 하오(+노, 제보자의 연령층에서 주로 씀), 뽕알레뜨 라구두 하구(+유, 변소의 러시아 어)
21113-1 통장군	△ cf. 요가이라 하오
21114 울타리	세줄장재라(+쇠줄로 만든 울타리), 장재라구(+나무로 만 든 울타리)
21115 담	토대미라구, 토다무 싸아라구{담을 쌓으라고}
21115-0-1 -에	토다메 올라가따
21115-0-2 -도	토담두 어꾸{담도 없고}
21116 사립문	△ cf. 대무이라 하지, 첨무이(+집에 들어올 때 여는 첫 째 문, 원동에서 썼음)
21117 뒤꼍	두에~이라구, 두에이라구, 두야~이, 두에느르{뒤꼍으로}
21117-0-1 -에	두에네서 논다구
21118 바깥	바가티라구, 한지르 나가가라{바깥으로 나가거라}
21118-0-1 -에	바가테서두 노라라
21119 모퉁이	→모테라(+‘모퉁이’, ‘곳’, ‘근처’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제보자는 ‘곳’, ‘근처’의 의미로만 씀)
21120 모서리	모소리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초~이라 하지(+다), 마으르느(+주로 국영 집단 농장 근처에 형성되었음), 마으리라 해애쑈(+소, 원동에서 주로 썼음)
21202 윗마을	우초이라, 우에 초~이, 우쑈게 초이라 cf. 아래 초이라
21203 이웃	저테쩍 사리미라구, 저테찌비라, 여페쩍 사리미(+[sarimi])
21203-0-1 -이	저테찌비지
21203-0-2 -에	저테찌베 이따
21204 마을가다	→마시도리르 한다구, 마시도릴 간다구
21205 우물	구룽무리, 구룽무레서
21206 두레박	드레라, 드레오 cf. 쟁트리라 하오(+우물이나 샘 주위에 나무로 짠 "井"자 모양의 틀), 무르 질른다{물을 길는다}, 용드레라능계{용두레라는 계}
21207 샘(泉)	삼치무리
21208 가(邊)	역, 여기
21208-0-1 -을	여그르 가지 마라라, 구룽물러그르{우물가로}
21208-0-2 -에	여게, 여가레
21209 물지게	지게, 지게에
21210 가게	상점, 상저미, 공이사라구서, 공리사라 하오{구판장이라 하오}
21211 싸다	눅따구 cf. 싸오라구 하지(+이 지역에서 "싸다"는 "買"의 의미로 쓰임)
21212 비싸다	비싸다구
21213 흥정	흥저어 하지{흥정을 하지}
21214 중매인(거간꾼)	△
21215 잔돈	잔돈두 만쿠, 잔도~이라 하지
21216 에누리	△ cf. 눅게 달라구{싸게 달라고}
21217 거스름돈	승처이라 하오{거스름돈이라 하오}, 승처느 받는다구
21218 거스르다	△
21219 꾸다(借)	꾸지(+구술 발화에서 채록) cf. 끼우라구{빌리라고}, 끼바달라구(+[kivadallagu]){빌려달라고}, 끼와달라구
21219-0-1 -어야	꿔야 데지, 꺾서, 꺾서
21220 구두쇠	따콍째라 cf. 모지 구따(+ "인색하다"의 의미임), 저 사리미 따콍따
21221 맡기다	→매께다구서리
21222 나머지	△
21223 덩	△
21224 뭉	△

21224-0-1 -을	△
21225 빛	비디 판타구
21225-0-1 -을	비드 저따하지
21225-0-2 -에	△
21226 이자(利子)	변또이, 벤또이라 하오
21227 심부름	→심바람 시킨다{심부름 시킨다}, 심바라무 시킨다구
21228 두름	물꼬기 다래라구서, 다래르(+대격형)
21228-1 축	*
21228-2 췌	*, cf. 한다래 두다래
21228-3 접	*, cf. 무지라 하오{무더기라 하오}
21228-4 쌀	싸미라 하오, 바늘 사미라
21228-5 두름	*, cf. 한 다이 두 다이{한 단 두 단}
21228-6 단/몫(작은 묶음)	한따이라 하지
21228-7 단/몫(서너 개 묶음)	무꾸따이
21228-8 톳	*
21228-9 모숨	한쭈씩 빠진다구
21229 켄레	향커리라 하오
21230 마지기	*, cf. 쏘뜨칼르(+러시아 어 сотка, 1 쏘뜨까는 10m²){쏘뜨까로}, 겹따리{헥타르}(+러시아 어. гектар. 10 쏘뜨까는 1 헥타르)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
21231 꾸러미	*
21232 그루	△
21233 포기	페글르느{포기로는}, 함페기 두페기
21234 저울	저우리지
21235 자루(布袋)	조만지(+작은 것, 1kg~3kg 정도의 무게), 커우대(+큰 것, 한 커우대는 10kg, 나일론으로 만들)
21235-0-1 -을	조만지르
21235-0-2 -에	조만제다{주머니에다}
21236 하나	한나
21236-1 한-개	향개
21236-2 한-되	*, cf. 쌀또바기라{쌀 뿔박이라}
21236-3 한-말	*
21237 둘	두울
21237-1 두-개	두개
21237-2 두-되	*
21237-3 두-말	*
21238 셋	서어
21238-1 세-개	세개
21238-2 세-되	*

21238-3 세-말	*
21239 넷	너어
21239-1 네-개	네개
21239-2 네-되	*
21239-3 네-말	*
21240 다섯	다스
21240-1 다섯-개	다스개
21240-2 다섯-되	*
21240-3 다섯-말	*
21241 여섯	여스
21241-1 여섯-개	여스개
21241-2 여섯-되	*
21241-3 여섯-말	*
21242 일곱	일곱
21242-1 일곱-개	일곱.개
21242-2 일곱-되	*
21242-3 일곱-말	*
21243 여덟	야듭(+[yadirp]), 야듭, 야들비지, 야들
21243-1 여덟-개	야들개
21243-2 여덟-되	*
21243-3 여덟-말	*
21244 아홉	아홉
21244-1 아홉-개	아홉.개
21244-2 아홉-되	*
21244-3 아홉-말	*
21245 열	열
21245-1 열-개	열:개, 여열개
21245-2 열-되	*
21245-3 열-말	*
21246 스물	스물
21246-1 스무-개	스무개
21246-2 스무-되	*
21246-3 스무-말	*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개	서룻개
21247-2 서른-되	*
21247-3 서른-말	*
21248 마흔	마은
21248-1 마흔-개	마은개
21248-2 마흔-되	*

21248-3 마흔-말	*
21249 쉼	쉼:(+[f̥ü:n]), 쉼:
21249-1 쉼-개	쉼:개(+[f̥ü:ŋgɛ])
21249-2 쉼-되	*
21249-3 쉼-말	*
21250 예순	육씩
21250-1 예순-개	육씩개
21250-2 예순-되	*
21250-3 예순-말	*
21251 일흔	칠씩
21251-1 일흔-개	칠씩개
21251-2 일흔-되	*
21251-3 일흔-말	*
21252 여든	팔씩
21252-1 여든-개	팔씩개
21252-2 여든-되	*
21252-3 여든-말	*
21253 아흔	구씩
21253-1 아흔-개	구씩개
21253-2 아흔-되	*
21253-3 아흔-말	*
21254 백	백
21254-1 백-개	백개
21254-2 백-되	*
21254-3 백-말	*
21255 이백	양배기라, 양배개지
21256 한둘	*
21256-1 한두-개	*
21256-2 한두-되	*
21256-3 한두-말	*
21257 두셋	두서이
21257-1 두세-개	두세개
21257-2 두세-되	*
21257-3 두세-말	*
21258 두서넛	두서넛
21258-1 두서너-개	더:서너개
21258-2 두서너-되	*
21258-3 두서너-말	*
21259 서넛	서너어
21259-1 서너-개	서너어개 cf. 서너너더개

21259-2 서너-되	*
21259-3 서너-말	*
21260 네댓	너덜
21260-1 네댓-개	너더께
21260-2 네댓-되	*
21260-3 네댓-말	*
21261 대여섯	대애여슬
21261-1 대여섯-개	대애여스께 cf. 대애일구께
21261-2 대여섯-되	*
21261-3 대여섯-말	*
21262 예닐곱	예·일구께
21262-1 예닐곱-개	예·일구께
21262-2 예닐곱-되	*
21262-3 예닐곱-말	*
21263 일여덟	이라들께
21263-1 일여덟-개	이라들께
21263-2 일여덟-되	*
21263-3 일여덟-말	*
21264 여덟아홉	*
21264-1 여덟아홉-개	*
21264-2 여덟아홉-되	*
21264-3 여덟아홉-말	*
21265 여남은	여라무
21265-1 여남은-개	여라무개, 야라무개
21265-2 여남은-되	*
21265-3 여남은-말	*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초매라하지 cf. 함복.오시라구 하오
21302 길이	지리, 초매지리 cf. 너비
21303 저고리	조고리(+[čoxori])
21304 색동저고리	까치조고리라
21305 두령이	택빠지라구(+가슴 윗부분만 가림), 압초매라
21306 무늬	△
21307 고쟁이	짹빠지느&, 가비라구& cf. 소구티라 하오{속웃이라 하

21308 바지	오}, 속초매라 하오, 소부티{속웃} 바지라 하지
21309 두루마기	두루매기라& cf. 소조고리르 입쏘{숨 저고리를 입소}
21310 의복	우티라구(+다), 오시라구두 하지(+소)
21311 구겨지다	꾸게저따 하오, 꾸게징거{구겨진 거}
21312 옷고름	고르미, 고름 다라따구, 고리미라 cf. 고름다리저고리라구
21313 단추	단치
21314 동정	△
21315 겹	거치, 거치두
21315-0-1 -에	거치에
21315-0-2 -을	거즈 씨즈라구
21316 홀웃	하부께르, 하부우티느
21317 겹웃	저부티라 하지, 접.우티라구, 접께라구서르
21318 잠방이	△, cf. 째른바지라구
21319 누더기	△, cf. 파이난 우티라 하지{해진 옷이라 하지}, 누테기 느(+여러 번 기운 이불만을 가리킴), 누딩니부리라구 {누덕이불이라고}
21320 거지	비렁배
21321 구걸	비러서 어더오지{구걸해서 얻어 오지}
21322 조끼	등거리라 하오, →쪼끼느(+한국어라 함)
21323 내의	→송내보그느, 송내보가지, 송내보그
21324 껌입다	썸이부라구느{껴입으라고는}
21325 소매	소매라, 진소매라{긴 소매라}
21326 주머니	엽차개구 cf. 조만지르(+주로 밀가루 등을 담은 "자루 (袋)"를 가리킴), 댜배쌌지라구, 주먼지라지(+주로 밀가 루 등을 담은 "자루(袋)"를 가리킴)
21327 호주머니	까르만, 까르마네다{호주머니에다}
21328 허리띠	허리띠라구 cf. 리멘띠라구서{러시아 어 "ремен(가 죽)"에 "띠"가 결합된 것}{가죽띠라고서}
21329 땡기	*
21330 도포	*
21331 샷샯	사까지, 사까즈(+대격형)
21331-0-1 -에	사까제
21332 고깔	△
21333 사모	*
21334 유건	감티, 감티라 하구 cf. 죽째이라(+[čukč'ɛra]){죽장(竹 杖)이라}
21335 대님	△
21336 감발	감바리지



21337 쥘신	머커리라(+총이 네 개인 쥘으로 만든 신)
21338 미투리	메커리지
21338-1 (쥘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결다	맨든다 해애쓰
21339 나막신	*
21340 설피	*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멥지오
21401-1 명주실	느베시리, 느베고토리 시리라 하지{누에고치 실이라 하지}
21402 목화	모카
21402-1 목화다래	모카송치
21403 무명	△
21403-1 무명실	△
21404 씨아	*
21405 자세	*
21406 물레	*
21407 베	배우티{베옷}, 벨르{베로}
21408 길쌈	△ cf. 베르 찢다구{베를 찢다고}
21409 골무	골미
21410 반질고리	지뚜깨라구서, 지뚜꿩주리(+버들로 틀어서 만듦) cf. 태석똥고리(+딸이 시집가서 처음 친정집 나들이를 할 때 "태석"이라는 음식을 만들어 담아왔다고 붙여짐), 여똥고리구(+ "옛"을 담아 오는 동고리), 동고리라 해쓰, 동고리라(+버들이나 싸리로 겹어서 동급납작하게 만든 그릇, 반질고리의 대응으로 쓰기도 함)
21411 가위	가새
21411-0-1 -을	가새르
21411-0-2 -에	가새애
21412 마르다(裁)	마른다 하오
21412-0-1 -고	마르구
21412-0-2 -어라	말가라
21413 형겅	형거쪼배기
21413-0-1 -을	형건쪼배기르
21413-0-2 -에	형건쪼배게
21414 바늘	바늘르{바늘로}
21415 껌다	깨라구
21415-0-1 -고	깨구 이따구, 껌지 마라라
21415-0-2 -어라	깨에라

21416 바느질	바느지란다
21417 재봉틀	마서이, 마서느느{마선은}, cf. 전기 마서이라 하구{전기 재봉틀이라 하고}, 발마서이오{발재봉틀이오}
21418 끈	진, 지이라 하지, 지다만 지느 가져오라구
21419 노끈	노내끼이라 하오 cf. 오래기(+실, 형겅, 종이, 새끼 따위의 길고 가느다란 조각)
21420 참바	바이지, 바이라 하지
21421 매듭	매들비라 하지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매애따 하지
21422 보자기	보이라 하지
21423 이불	이부리(+[iβuri]), 이부르 더꾸{이불을 덮고}
21424 솜	소이, 소캐라구두 하구
21425 포근하다	△
21426 훌이불	하부르 더꾸(+[haβuri]){훌이불을 덮고}
21427 겹이불	점니부르(+대격형)
21427-1 솜이불	소이부리지(+[soiβuriji]), 소캐이부리지
21428 누비이불	다 이부리라 하오
21429 베개	베개
21430 베갯잇	베개이스{베갯잇을}
21430-0-1 -에	베개이세
21431 목침	목띠기, 목떼기라
21432 퇴침	*
21433 방석	→방서기 올쏘, 방서그 까라라
21434 담요	탄재느
21435 빨래하다	시처야 데지, 빨래질 한다지
21436 빨랫방망이	방칠르{+빨랫방망이로}
21437 빨래터	*
21438 빨랫줄	바주리
21439 다리미	다려이, 다려늘르{다리미로}
21439-1 다림질	다련질 한다, 다련지르 하지
21440 인두	윤딜르{인두로}
21441 다듬잇방망이	*
21442 다듬잇돌	*
21443 다듬이질	*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라리라 하지, 설라르(+대격형)
21502 설	△
21503 설달 그림날	서딸그름나리지
21504 목은세배	*
21505 올해	오레
21505-0-1 -는	오레두
21505-1 작년	장녀이, 장녀네
21505-2 재작년	장년그러께
21505-3 내년	맹녀이, 맹녀네{내년에}
21505-4 후년	후연, 후여이라 하구, 후여니라구
21505-5 내후년	*
21506 작은설	*
21507 윗	유끼(+이 지역에서는 콩으로 윗가락을 대신함)
21507-0-1 -을	유꾸
21507-0-2 -에	유께 안자따
21507-1 윗놀이	*
21508 윗가락	*
21508-1 도	뜰까지
21508-2 개	캐
21508-3 걸	컬, 커리
21508-4 윗	중, 승
21508-5 모	목떠기지
21509 단둥	*
21509-1 외동무니	*
21509-2 두동무니	*
21509-3 석동무니	*
21509-4 녀동무니	*
21509-5 막둥	*
21509-6 단둥무니	*
21510 보름	보르메{보름에}
21510-1 삭망	*
21511 추석	치서기, 치서게느
21512 망월	*
21513 쥐불놀이	*
21514 자치기	*
21514-1 작은막대	*
21514-2 긴막대	*
21515 수수께끼	수수꺼끼라 하오

21516 호미씻이	*
21517 팽과리	△
21518 장구	새장퀴두
21519 걸두리	*
21520 무당	* cf. 강사본다지{관상을 본다지}
21520-1 박수	*
21521 고수레	*
21521-1 고수레!	*
21522 점쟁이	점치개라 하지 cf. 점우 치지
21523 상여(喪輿)	상디
21524 굴건	*
21525 제사	제센나리{제삿날이}, 제세르 cf. 사네 가서 사~아 디리 우.{제사 때 산에 가서 상을 드리오.}
21526 제기	*
21527 귀신	기시니라구, 기시이라 하지
21528 도깨비	도깨비

##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곱찌
21602 굴레	굴레
21603 멍에	멍지, 세멍지{소 멍에}
21604 길마	* cf. 안재{안장}, 안자이라지{안장이라지}, 안자아(+대격형)
21605 부리망	꾸레기라
21606 구유	구시지, 세구시라 하오
21607 작두	작띠
21608 풀	새라구
21609 여물	△
21610 쇠죽	*
21611 쇠죽바가지	*
21612 수레	술게다 여어서{수레에다 넣어서}, 말술기라 하구, 세술 기라 하구
21613 끌다	끄서라, 끄서다 달라구{끌어다 달라고}
21613-0-1 -고	끄스구 가자무{끌고 가자면}
21614 바퀴	바키
21615 새끼(繩)	새'끼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
21616 망태기	중태라구두 하구
21617 먹등구미	*
21618 거적	*

21619 가마니	*
21619-1 가마니틀	*
21620 돛자리	△
21621 자리틀	*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견다	*
21622 왕골	*
21623 삼태기	*
21623-1 쥘 삼태기	*
21623-2 찌리 삼태기	*
21624 명석	* cf. 푸~이라 하오(+가로 5m, 세로 6m 가량의 천막인 이것을 펴고 곡식을 말림) 얼게미라구(+''쌀채''보다 구멍이 이 넓은 것)
21625 어레미	채
21625-1 고운채	쌀채라 하오
21625-2 굵은채	애채
21626 대장장이	애장가~이, 애장가네서
21627 대장간	풍기라구
21628 풀무	*
21629 모루	망치
21630 모루채	각째
21631 갈퀴	찌꺼
21632 집게	△
21633 장도리	*
21633-1 노루발	토비라 하지 cf. 손토비(+손에 쥐고 쥔 때 쓰는 작은 톱), 캐마우재라구(+두 사람이 나무를 쥔 때 쓰는 큰 톱)
21634 톱	토베 노기 스러따지 도길르{도끼로} →잘기라구두 하구, 자르지(+[čarʉjil]), 도꾸자르(+[tok' uʃarʉ]) 자르르(+[čarʉri]) 도꾸자르에(+[tok' uʃarʉel]) 까꾸래라 하구 새애기라, 새애기라구 송고디, 송고들르{송곳으로} 송고테 뽕:조가키{뽕죽하개} 수뚜리 수뚜레 카르 간다구, 수뚜레다 매또리구, 매또리우
21634-0-1 -에	
21635 도끼	
21636 자루(柄)	
21636-0-1 -을	
21636-0-2 -에	
21637 갈고리	
21638 썰기	
21639 송곳	
21639-0-1 -에	
21640 뽕죽하다	
21641 솟돌	
21641-0-1 -에	
21642 땃돌	

21642-1 수쇠	목찌지구
21642-2 압쇠	목찌지라 하오
21643 지게	쪽찌게라 하오
21644 발채	오재기, 오재기르 노쿠야{발채를 놓아야}
21645 지게 작대기	쪽찌개대라구(+?제)
21646 막대기	막때라
21647 몽둥이	몽테이라구, 몽테지

###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비요{빗자루요}, 비라 해두{빗자루라 해도}
21702 광주리	강주리
21703 소쿠리	*
21704 함지	함지
21705 풀비	△ cf. 부디 가툽걸르{붓 같은 걸로}
21705-1 귀알	*
21706 독	등기라 하지
21706-0-1 -에	물똥게다
21707 물독	물똥기라구두 하구
21708 항아리	항새리
21709 단지	단지라구
21710 물동이	물또에
21711 빠리	따바리라 하오
21712 옹기	△, 오지그르시가 지그르스{오지그릇과 질그릇을}
21713 표주박	바가지라구두 하구
21714 키(箕)	치오?{키오?}
21715 떡살	*
21716 다식판	*
21717 시루	*(+제보자는 가마로 알고 있음) cf. 시리따리{시루 다리}
21717-0-1 -을	*
21717-0-2 -에	*
21718 시룻밀	*, cf. 시르뽕 피오{시루 보 펴오}
21718-0-1 -에	*
21719 시룻번	*
21720 부싯돌	부수또리라구, 부수또리라 하지
21720-0-1 -을	부수또르 가제오나라
21721 부시	부수 쳐서, 부수친다 하오
21722 부싯깃	→부수지치라구 cf. 부살개{불쏘시개}
21723 담배	땃배, 땃배라구두 하구(+대 혹은 종이에다 말아서 펴)
21724 담뱃대	대토~이라구서

21725 담배설대	대, 대지
21726 담배통	대토~이라, 대토~올르{대통으로}
21727 물부리	*
21728 담배쌈지	담배쌈지
21729 부채	부채라 하오
21730 토시	토시
21731 벼루	△
21732 가락지	가락찌구, 가락지(+구슬이 없는 것), 반지라 하오(+구슬이 있는 것)
21733 비녀	*, cf. 비네(+음운 조사 시에 나옴)
21734 참빗	참비시
21734-0-1 -을	참비스
21734-0-2 -에	참비세 이 이따구
21735 얼레빗	얼게라구
21736 세숫대야	세시소래라구
21737 비누	비느리
21738 도투마리	*
21739 활대	*
21740 잉앗대	*
21741 부티	*
21742 도롱이	*

## 2.6. 인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매구
21802 이마빼기	이맨대기느{이마빼기느}
21803 눈자위	→눈자시 cf. 눈뚱제
21804 검은자위	검정자시
21805 흰자위	흰자시지
21806 눈꺼풀	눈딱찌라 하지
21807 거적눈	→거정누이라구
21808 눈썹	눈썹비라 하구
21808-0-1 -이	눈썹비 마~이 빠져파지
21809 속눈썹	눈싸부레
21809-0-1 -이	눈싸부레 지다구서{속눈썹이 길다고서}
21810 눈두덩	△

21811 안경	오치끼라구두(+다), 앵경이라두 하구(+소), 앵겨~으느
21812 안경집	앵경지비라 하지
21813 돋보기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1814 주름살	주루미라구
21814 주름살	주루미
21814-0-1 -이	이매주루미라구{이마 주름살이라고}
21815 앳되다	△ cf. 나이 어레 배운다구{나이 어려 보인다고}
21816 수염	세에미, 세에무(+대격형) cf. 텍세에미라{텍수염이라}
21817 구레나룻	구리세에미라구
21817-0-1 -을	구리세에무 까까라
21818 코	코이 cf. 콤말기, 코이 사쿠망게 기하다구{콧날이 선 게 콤다고}
21818-0-1 -이	코이라 하지
21819 콧수염	올썸에미라 하오
21820 코딱지	코따대라구서르{코딱지라고서}
21821 콧구멍	코궁개
21821-0-1 -을	코꾸~야, 코꾸내 씨츠라구, 코궁가 씨츠라구서
21821-0-2 -에	코꾸야에서
21822 콧물	콤무리
21823 입술	임녀기라구 cf. 임주이라구서{인중이라고서}
21823-0-1 -에	임녀게 바바리 부터따{입술에 밥알이 붙었다}
21824 다물다	다무러라라구두 하구{"다물어라"라고도 하고}, 이부 다다라
21825 어금니	검니 cf. 양니라 하오{사랑니라 하오}, 치애라 하구(+성인들의 이(齒)를 가리킴), 이빠리라 하구(+아이들의 이(齒)를 가리킴)
21826 덧니	버덩니라구 하오 cf. 버드러져따 해서
21827 휘파람	헤빠름 분다구, 헤빠리미라구
21828 침	추미지
21829 삼키다	추무 녕군다구{침을 삼킨다고}
21830 가래(痰)	가래라 하오
21831 뺨다	반는다구, 추무 바다라{침을 뱉어라}
21832 혀	세(+성인들의 혀를 가리킴), 세때지(+아이들의 혀를 가리킴)
21833 헛바늘	쓰르느(+혀 끝에 새빨강게 돌아난 것){헛바늘은}, 쓰리라 하지
21834 귓볼	△ cf. 기떠라구서(+아이들의 귀를 가리킴), 기(+성인들의 귀를 가리킴){귀}, 기뿌리라 하지(+귀 뒤를 가리킴)
21835 귀고리	월경타느 께에따구서리, 월경타~이라구, 월게타이라 하오, 월경타~아 께에따구, 쉼르기라 하오(+러시아 어)

21835-1 귀걸이	△
21836 귀지	기채, 기채르 파라구
21837 귀이개	기우비개라 하오
21838 소리	소리 친다구
21839 엇듣다	△
21840 귀청	기채 떠러지개따구
21841 귀밑	△
21841-0-1 -을	△
21842 관자놀이	△
21843 기미	재미 나와따 cf. 버지미라 하구{버짐이라 하고}, 지미사 {짐이야}, 지미두{점도}, 버스시라 하구{점버섯이라 하고} 주그잉개 도다따구(+[čugəˈŋkʲɛ])
21844 주근깨	
21845 턱	태기(+존), 택시무(+비){턱이면}, 태그 들라구{턱을 들라 고} cf. 끄시라구두 하지{턱빠라고도 하지}
21846 턱수염	턱쎄에미라구서
21847 뺨	뺨미라구두 하구(+성민들에게 쓰는 말로 생각하며, 뺨 과 볼을 같은 것으로 인식함)
21847-1 볼	볼태기(+ "뺨"의 낮춤말로 인식함)
21848 가름하다	△ cf. 질쭈:마다구{기름하다구}, 나티 버들립 가따구(+얼 굴이 가름한 사람을 표현할 때 씀)
21849 보조개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1850 머리카락	머리라 하지(+머리카락 전체를 가리킴), 머리끼두(+땅에 떨어진 머리카락), 머리오리(+머리카락 한 올을 가리킴)
21851 비듬	머리비느리
21852 기계총	△
21853 정수리	△ cf. 머리 우이라구{머리 위라고}
21854 대머리	△ cf. 머리 싹 빠져따구, 번들리매라 하오{번대이마라 하오}
21855 고수머리	양머리라 하오
21856 가르마	머리그미라구 cf. 오룽그미라 하구{오른쪽 가르마라 하 고}, 바룽그미라 하구{가운데 가르마라 하고}, 뱅그미라 하구{왼쪽 가르마라 하고}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금우 낸다구
21857 가마	가'매라 하오
21857-1 가마(鼎)	가매'다
21857-2 가마(轎)	가'매라구
21857-3 가마(질그릇)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1857-4 가마(가마니)	*
21858 뒤통수	두띠라 하오
21858 뒤통수	디띠

21859 뒷덜미	더수기라 하오
21860 목	모기라구, 모그 진다{목을 쾀다}
21861 목살	△, cf. 달그 모가지르 벤다구

## 2.6.2. 상체

21901 어깨	어께
21902 밀치다	어께르 민다구{어께로 민다고}
21903 겨드랑	재개미라(+[čexɛmira])
21904 등	드~이, 잔더리라구두 하구
21905 가슴	가시미라 하오, 가슴두 너르다, 가스무 페라
21906 결리다	→캐운단 말두 이쑤
21907 갈비뼈	갈비때 애이오?
21908 허파	페라 하오
21909 쓸개	여리지
21910 콩팥	곰파치라구
21910-0-1 -에	콤파체
21910-0-2 -을	콤파츠
21911 팔	파리
21912 팔꿈치	팔뚜꾸비
21913 팔짱끼다	팔찌어 지른다구, 팔찌어 질거따구, 팔찌어 질러따구
21914 손톱	소토비라구
21915 오른손	오른소이라 하구
21916 왼손	벤소이(+[vensoi])
21917 다르다	따게 생게따구, 따다 하오, 따구, 다르다구(+[taridagu])
21917-0-1 -아서	달가따구{다르다고}
21917-1 틀리다	올채이타는게{옳지 않다는 게}
21918 왼손잡이	벤재라 하오(+[venʲɛ])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소까라기라구, 엄지가락
21920 집게손가락	△
21921 가운데손가락	장소까래기라 하구, 장소이
21922 약손가락	△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소까래기라 하구, 새끼소이
21924 생인손	생손 알른다구
21925 사마귀	사마기라
21926 손아귀	소내기 세다
21927 손목	숨모기
21928 뺨	뺨 재인다구{뺨을 쥔다고}
21929 허리	허리라구두 하구 cf. 구술뺨라구두{척추뺨라고도}
21930 지팡이	지페, 지페르

21931	옆구리	여꾸리라 하오
21932	간지럽다	칸질군다구서, 칸질구지 마라라, 칸지러바서(+[k'anjirəbasə]), 칸지러바서(+[k'anjirəβasə]), 칸지럽다구 △
21933	간지럼	△, cf. 가는 허리라구서리, 허리 가느다 △
21934	잔허리	배뿌기라 하오
21935	근육	*
21936	배꼽	
21937	목물	

### 2.6.3. 하체

22001	복사빠	발꾸마리
22002	발가락	바까래기라 하오
22003	발바닥	발빠다기
22004	발톱	발토비 지다지{발톱이 길다지}, 발토부 까끄라구, 발토비라 하오
22005	냄새	내앰새 나지
22006	고린내	쿠린내라(+대변에서 나는 냄새)
22007	굳은살	장아리 배게따구
22008	정강이	성무이라 하오
22009	종아리	종아리라구 cf. 오그미우(+ "다리"의 존칭어)
22010	장딴지	장딴지라 하오
22011	회초리	헤채리
22012	무릎	무러피
22012-0-1	-을	무러푸
22012-0-2	-에	무러페
22013	오금	△
22014	영덩이	영치라 하오
22015	궁둥이	궁둥머리르 바라(+비), 궁디라구 아이하지(+비), 다 영치라 하지

22016	볼기	신다리
22017	멍	이무러따{멍이 들었다}
22018	명울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2019	가랑이	바지 가다리라 cf. 다리 앞빼라 하오{허벅지라 하오}
22020	사이	가달 새{가랑이 사이}
22021	살	△
22021-0-1	-이	△
22021-0-2	-을	△
22022	사타구니	사채기라구&
22023	가래툰	△

22023-0-1	-을	△
22024	허벅다리	신다리르 드러가오{넓적다리로 들어가오}
22025	넓적다리	신다리느(+다), 넙떡파리라 하오(+소)
22026	가부좌(跏趺坐)	올방재 틀구 안는다구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얕다/트다/꼬다/하다 올방재르 틀구 안는다구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윙가미라 하오
22102	기침	지치미라구(+다), 기치미라구(+소), 지춤 진는다구
22103	재채기	재채기르 한다구
22104	사레	△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개깁다 하지{사레들린다 하지}
22105	딸꾹질	패기르 한다구
22106	트림	트름한다
22107	곰보	얼그망채라 하구(+아이들과 얘기할 때 씀) cf. 억썸억썸 얼거따구(+성인들과 얘기할 때 씀)

22108	천연두	마느래라능계{천연두라는 계} cf. 질라깨 마느래라구(+제보자의 할머니가 말했다 함)
-------	-----	---

22109	여드름	△
22110	학질	학절(+[hakč'ir])
22110-1	하루거리	학찌리무{학질이면}
22110-2	이틀거리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학찌리라 하오
22111	홍역	홍지이라 하오, 홍진 한다구
22112	불거리	→도투베~이라구두 하오 cf. 옌지채라구{연주창(連珠瘡)이라고}

22113	땀띠	땀때라 하오
22114	두드러기	알라리게르(+러시아 어){알레르기를}
22115	버짐	버즘, 버지미라 하오
22115-1	마른버짐	마른 버지미 이꾸
22115-2	진버짐	저즌 버지미 이쪼, 저즌 버즈무느{진버짐은}
22115-3	도장 버짐	버지미라 하오
22116	문둥이	△, cf. 문둥벼어 하는 사리미라구
22116-1	문둥병	문둥베~이
22117	부스럼	부시레미라 하지
22117-1	종기	△
22118	고름	고리미라 하구, 고르미라 하구
22119	곰기다	곰기구, 곰기무{곰기면}
22120	난쟁이	난재애라, 난재라 하구, 소영국 사름이라 cf. 소형구기

22121	사팔뜨기	라 하는지
22122	언청이	누누 험뜬다 하오
22123	소경	입때지개
22123-1	당달봉사	세계~이, 세거어느(소경은), 세경두 이꾸, 눈백째라 하구
22124	애꾸	뜬세계에라 하오
22125	눈곱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2126	다래끼	눈꼽째기
22126-1	다래끼(눈 위쪽)	께에지라 하오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다라치라구두 하구
22127	절름발이	아래 다라치 나따
22128	곱사등이	절루배라 하오
22129	귀머거리	등곱째라 하오
22130	말더듬이	기멕째
22131	병어리	떠드베기, 땀땀비
22132	잠꾸러기	버버리지
22133	줄리다	잠꾸레기
22134	하품	자부럽따, 자부러바서
22135	졸음	하푸무 한다구
22135-0-1	-을	자부레미 온다구
22135-0-2	-에	자부러무 참지 모탄다구, 자부럽 참지 모탄다구
22136	잠꼬대	△
		잡썰한다구

## 2.7. 육아

22201	입덧	△
22201-0-1	-을	△
22202	갓난아이	가즈난 어르나라, 가즈난아(+[kazinana], 태어나서 돌 때 까지 부름)
22203	어린이	어르나(+대략 4~5세 정도의 아이), 크나라 하지(+[kʰʉnara], 대략 5세 이상의 아이)
22204	경기(驚氣)하다	△, cf. 푸~우 일군다
22205	늪히다	누피지
22206	계집아이	계지배라구두 하구(+비), 제지배더리(+비), 엠나더리라 하구(+비), 새아가느(+대략 15세 이상의 여자 아이), 새 애기느(+시집갈 때가 된 여자 아이 또는 처녀를 가리킴)
22207	예쁘다	곱따구(+다), 예뿌다구두 하구(+소)
22208	사내아이	선느냐두(+대략 4세 이상의 남자 아이), 총각 아더리라 하구(+대략 12살 이상의 남자 아이), 청녀이라 하구(+ "총각"보다 더 나이를 먹은 남자 아이)

22209	아우 타다	제아래르 탄다구
22209-1	아우보다	제동새르 바따구, 동생가느 본다구, 행제가느 본다구두
22210	야위다	예비지, 예베에따구{야위었다고}
22211	쌍둥이	쌍디이, 쌍디두 조쿠, 쌍둥애덜으, 쌍디이더르 데려오라지
22212	오줌	오줌 싼다지
22213	똥	또오 눈다구두 하구{똥을 눈다고도 하고}, 똥싸개르 한 다 하오 cf. 두우 본다 하구
22214	기저귀	△
22215	뉘다(排便)	니우라구서리, 니우지, 니와라
22216	방귀	방기라 하오
22216-1	뀌다	끼무, 끼구, 방기르 께따, 께에따 하오
22217	구린내	쿠린내 나지
22218	구리다	쿠리다구두 하지
22219	포대기	하부리라 하오(+숨을 두지 않은 포대기), 하블루 싸 어 버때쑈
22220	기지개	지지개 쓰기마 하무{기지개를 켜기만 하면}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지지개 켜단 말이오
22221	거짓말	거지뿌레르 한다구, 거짐말 한다 하구, 부끼 cf. 얼린다 {속인다}
22222	남부끄럽다	남부꾸럽따구, 내미부꾸럽따구
22223	겁쟁이	겁따라구 하오
22224	불쌍하다	불싸하다
22225	죄암죄암	쥬:쥬:
22226	곤지곤지	송고송고
22227	따로따로	서마서마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짹짹	짹짹기 짹짹기
22230	부라부라	디다:장 디다:장, 디디제라 cf. 곤디곤디(+아이를 손바닥 위에 세우면서 하는 말)
22231	걸음마	거르마: 거르마 이래오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자빠져따구두(+아무렇게나 넘어진 것), 어푸러져따구(+앞으로 넘어진 것), 너머가따 하오(+옆으로 넘어진 것), 자부러지짐{자빠지지 뭐}, 번져져따구(+뒤로 넘어진 것), 어퍼져따(+앞으로 넘어진 것), 낭매르 해따구(+존), 대배져따구(+비)
22234	곤두박질	꼰디박썰 하오, 가꾸루 떠러져따지, cf. 떠러져따지(+발부터 떨어진 것)
22235	안기다	앵기운다 하오

22236	바람개비	벨랭개비라 하오
22237	호드기	우레
22238	숨바꼭질	꿈치올래기라
22239	소꿉놀이	바꿈재르 노라떼쏘
22240	사금파리	깨:지개, 마사지개
22241	연	여이라 하오 cf. 영꼬리
22241-1	방패연	연
22241-2	가오리연	여느 띠운다
22242	걸리다	걸기무{걸리면}
22243	고누	*
22244	땅뽕기	*
22245	팽이	빼라 하오, 빼르 친다 하오 cf. 채찌기라 하오
22246	딱지치기	*
22247	구슬	구수리라구
22248	그네	굴기, 굴기르 띠구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띠구
22249	밀신개	△, cf. 널쭌그 노쿠서리
22250	굴렁쇠	구불개라
22251	굴리다	구부리지
22251-0-1	-고	구부리구, 구부리메 놀지
22251-0-2	-어야	구부레라
22252	자전거	채앵고라 하오, 재앵고라구(+[čɛ̞ᵐɐŋɡoragu])
22253	목발	몽매르 탄다
22254	말타기	말태기라구
22255	달음박질	달름지리우{달음박질이오}
22256	썰매	파리, 쪽빨기느(+원동에서 씀)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탄다
22256-2	송곳	△
22257	엄살	엄사르 쓴다 하오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엄사르 쓴다구
22258	부아	부애난다구, 부애르 일군단 말이오

## 2.8 친족

### 2.8 친족

22301	아버지	빠빠라 하지(+지금 주로 씀), 아부지(+원동에서 주로 썼음)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

22302	어머니	제에미라 해찌(+원동에서 주로 썼음), 마마(+지금 주로 씀), 어머니라 해쏘
22302-1	어머니(호칭)	제에마(+원동에서 주로 썼음), 마마라 하지(+지금 주로 씀)
22303	할아버지	아바이라구, 하나바지라 해찌
22303-1	할아버지(호칭)	아바이라구, 하너부지라 하오
22304	할머니	아매, 애매(+자연 발화에서 채록), 하너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하너머니:, 아매라구서
22305	남편	나그내, 남제이라구(+친구들과 대화할 때 씀), 남페이구(+친구들과 대화할 때 씀)
22305-1	남편(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cf. 아바이라 하지(+제보자는 자식들과 대화할 때 남편의 호칭으로 씀)
22306	아내	부인네라 하지(+이름을 부르기도 함), 앙까이란 마르(+친구들과 대화할 때 씀){아내란 말은}
22306-1	아내(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cf. 애매(+제보자의 남편이 자식들과 대화할 때 씀)
22307	형	행님이라 아이 하오(+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07-1	형(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08	아우	동새애라, 애끼라구서& cf. 오래비라구(+남동생)
22308-1	아우(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09	누나	누베라구
22309-1	누나(호칭)	누베라, 누인니미라두
22310	누이	지하누이구, 지하누비르, 동새애라 함때
22310-1	누이(호칭)	동새애라구(+주로 이름을 부름)
22311	자식	자세기, 자서그느
22312	말아들	마다드리라구 하지
22313	만딸	마파리라구 하지
22314	막내	막띠라 하지, 점먹파리라구두 하구 cf. 막똥파리{막내딸}
22315	오빠	오라바이라구
22315-1	오빠(호칭)	오라바이라 해야 데지(+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16	언니	서애라구(+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16-1	언니(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17	아비	애비라구서리(+원동에서 썼으며, 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17-1	아비(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18	어미	△(+주로 이름을 부름)
22318-1	어미(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19	손자	손재
22320	손녀	손네라 하지
22321	사위	싸이라 아이 하구 이름 부르오(+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21-1 사위(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22 외손자	베손재(+[vesonʃe], 소), 손재(+다) cf. 송군더리라고, 베 가라 하무{외가(外家)라 하면}
22323 외손녀	손네(+다), 베손네(+[vesonnye], 소)
22324 꾸짖다	꾸즈럼친다구
22324-0-1 -고	꾸즈럼치구 이따구
22324-1 나무라다	→나무린다
22325 총각	총개기라고, 총가그느
22326 처녀	새애기라 하구
22327 혼인	혼세느
22327-1 혼인식	혼세나라라고두 하구, 잔첸날이라고
22328 혼인 잔치	잔चे cf. 혼세임세기라 하구
22329 장가가다	서바아 간다구
22329-1 시집가다	시지부 간다구
22330 혼숫감	혼세우티까미라고두, 우티까미라 하지
22331 함	궐(+[kʷe]), 게, 게짜기라 하지, cf. 치마단(+\"트렁크\"의 러 시아 어, 지금은 이것을 주로 씀)
22332 겹사돈	△
22333 새색시	△(+주로 이름을 부름)
22333-1 새색시(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34 시아버지	시아바이 cf. 가시애비란 말으(+장인(丈人))
22334-1 시아버지(호칭)	△(+시아버지가 젊으면 이름을 주로 부름)
22335 시어머니	시어마이지, 가스어마이라고
22335-1 시어머니(호칭)	마마라 하지(+이름을 부르기도 함)
22336 비위	△, cf. 성지르 잘 맞추무
22337 아주머니	시형, 새행두
22337-1 아주머니(호칭)	아즈바이라고(+[ajibairagu], 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38 서방님	시애끼
22338-1 서방님(호칭)	새워이라고(+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39 도련님	시애끼지
22339-1 도련님(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40 형님	형니미라
22340-1 형님(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41 시누이	스느비라 하오
22341-1 시누이(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41-2 아가씨	지하스느비지(+주로 이름을 부름)
22341-3 아가씨(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42 올케	올찌세미
22342-1 올케(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43 매형	매비

22343-1 매형(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44 매제	△ cf. 동새애 남궐이라고
22344-1 매제(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45 큰아버지	마디마다바이라고
22345-1 큰아버지(호칭)	맘마다바이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둘째마다바이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세째마다바이라
22346 큰어머니	맘마다매
22346-1 큰어머니(호칭)	마다매:(+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둘째마다매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세째마다매
22347 큰집	큰지비
22348 작은아버지	아즈바이(+[ajibai])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아즈바에:(+[ajibae:])
22349 작은어머니	아재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아재
22350 삼촌	삼추이라 하오
22350-1 삼촌(호칭)	아즈바이(+[ajibai])
22351 아저씨	아즈바이(+[ajibai], 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51-1 아저씨(호칭)	아즈바에:(+[ajibae:])
22352 아주머니	아재오
22352-1 아주머니(호칭)	아재(+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53 조카	조캐라고
22354 조카딸	여조캐라 하구
22355 고모	마다매라 하오(+아버지의 누나), 아재라 하오(+아버지의 여동생)
22355-1 고모(호칭)	마다매라고(+아버지의 누나), 아재라고(+아버지의 여동생)
22356 고모부	마다바이구(+아버지 누나의 남편), 아즈바이라고 하지(+ 아버지 여동생의 남편)
22356-1 고모부(호칭)	마다바이(+아버지 누나의 남편), 아즈바이(+아버지 여동 생의 남편)
22357 고종	모사추이라 하오
22358 이모	마다매라(+어머니의 언니), 아재라(+어머니의 여동생)
22358-1 이모(호칭)	마다매(+어머니의 언니), 아재(+어머니의 여동생)
22359 이모부	마다바이(+어머니 언니의 남편), 아즈바이(+어머니 여동 생의 남편)
22359-1 이모부(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60 이종	베사추이라 하구(+[vesačʰuira])
22361 외삼촌	마다바이(+어머니의 오빠), 아즈바이(+어머니의 남동생)
22361-1 외삼촌(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62 외숙모	마다매(+어머니 오빠의 부인), 아재(+어머니 남동생의 부인)
22362-1 외숙모(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63 외종	베사추이우(+[vesač <sup>h</sup> uiu]), 웨사추이 cf. 에가페이라 하오{외가 편이라 하오}
22364 외할아버지	에하나부지, 에하나바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에크라바이라 하오
22365 외할머니	에할미
22365-1 외할머니(호칭)	에크나마
22366 장인	가스아바이라 하오
22366-1 장인(호칭)	가스아바이, 아바이
22367 장모	가스어마이라지
22367-1 장모(호칭)	가스어마이, 어마이
22368 처남	처내미라 하오
22368-1 처남(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69 처남댁	처넎대기라구서, 처나미대기라구
22369-1 처남댁(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70 홀아비	보토리라 하오
22371 홀어미	가비라 하구
22372 계모	이부대미라구
22372-1 계부	이부대비라구
22373 아저씨	이우찌아바이거나
22373-1 아저씨(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74 아주머니	아메라
22374-1 아주머니(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75 사나이	스나덜이라구
22376 영감	영개미라구두
22376-1 할망구	노동여~이라구 cf. 두상짜기(+할아버지를 낮추어 하는 말)
22377 나이	나이
22377-0-1 -를	나아
22378 환갑	항가비라 하지
22378-1 환갑 잔치	항갑싸~아 채린다구
22379 사투리	*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꼬기
22402 민물고기	میم물꼬기 아이오 cf. 바당물꼬기
22403 피라미	*
22404 지느러미	날개라 하지
22405 아가미	수메
22406 창자	배애리
22407 송사리	*
22408 해엄	헤에간다구
22409 메기	메사기라 하오
22410 자라	자래는
22411 거북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
22413 개구리	메그락찌라 하구, 개구리라 하오
22414 올챙이	올채
22415 두꺼비	두테비라 하오
22416 거머리	거마리라 하오
22417 다슬기	골배오
22418 우렁이	골배
22419 고둥	골배지
22420 달팽이	골배느
22421 새우	새비느
22421-1 새우(민물 대)	*
22421-2 새우(민물 소)	*
22421-3 새우(바다 대)	왕새비
22421-4 새우(바다 소)	새비
22422 새우젓	새비저시라구
22422-0-1 -이	새비저시라구
22423 가재	가재
22424 갈치	*
22425 고등어	고도에&
22426 가오리	*
22427 가자미	가재미, 가재미르
22428 멸치	*
22429 명태	멘따이, 멧태라 하오
22429-1 동태	멧태
22429-2 황태	*
22429-3 노가리	*
22429-4 북어	△, cf. 멧텔 두두레 멧는다구{멧태를 두드려 먹는다고}
22429-5 생태	*
22430 조기	*

22431 도미	*
22432 뱀장어	배앰고기, 배앰미고기라구
22433 낚시	낙씨
22434 미끼	미끼 업따구, 미끄(+대격형), 미끄 단다 하오
22435 낚싯대	낙씨때지
22436 얼레	△ cf. 실토이지(+연줄을 감을 때 씀)
22437 조개	조개느, 바당물조개오 cf. 밥조개라 하오{주걱이라 하오}
22438 소라	골배오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기라 하오, 벌거지더리라 하지
22502 날벌레	벌기라 하오
22503 파리	파리라 하구
22503-1 쉬파리	시파리
22504 쉬슬다	시르 쓰러따 하지, 아르 쓸키마하무
22505 가시	구테기라 하지
22506 진딧물	드미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친다
22507 잠자리	잠:재리라 하오
22508 방아깨비	메뚜기
22508-1 암컷	암캐구, 양캐구
22508-2 수컷	수캐구
22509 메뚜기	메뚜기가{메뚜기와}
22510 여치	메뚜기우 cf. 지뚜레미, 기뚜레미두, 기똥미 애일까?{귀뚜라미 아닐까?}, 설싸이나(+귀뚜라미)
22511 사마귀	△
22512 벌	버리오, 꿀빠리라 하지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꿀치기르 한다구
22513 땅벌	올빠시, 강가이라구두 하구
22514 나비	내비두 이찌
22515 하루살이	하르사리
22516 풍뎡이	*
22517 모기	모기라 하오
22518 장구벌레	△
22519 매미	*
22520 개똥벌레	개똥벌기라 하오
22521 반딧불	개똥부리라구
22522 거미	거미
22523 굼벵이	굼베지

22524 구더기	구테기라 하오
22525 노래기	△
22526 그리마	*
22527 지네	△
22528 개미	개애미지, 배깨미라구두 하구
22529 바구미	△
22530 진드기	두~에
22531 벼룩	베리기 말구
22532 이	이 만타 하지, 이집{이지 뭐}
22532-1 서캐	써개라구
22532-2 빈대	빈대빠게 업쏘
22533 송충이	*
22534 귀뚜라미	기뚜레미, 기뚜리라구두 하구, 설싸이라 하구
22535 누에	느베
22536 고치	느베 고치라구두
22537 번데기	느베 벌거지라 하구 cf. 분두지(+고치를 틀지 못하는 누에)
22538 지렁이	지레라 하오
22539 회충(蛔蟲)	거시느 cf. 총배기
22540 소금쟁이	△
22541 방개	△

## 2.9.3. 가축

22601 가축	즘시이부터, 즈시이라 하오, 즈스으 치기르 한다구 cf. 날좁시이라구서{날짐승이라고서}
22602 암소	암세라 하구
22603 송아지	새애지라구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마나라구두 하구(+두세, "마냐", "조야", "벨까(흰색 송아지)" 등의 송아지 이름을 부름)
22605 황소	수세
22606 길들이다	지르 디리지, 지르 디리구야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 (+주로 말보다는 고삐를 이용해 소를 부름) cf. 올라서라(+곧게 길을 가지 않을 때 말을 함), 네레서라(+곧게 길을 가지 않을 때 말을 함), 곱찌르 자마당게야{고삐를 잡아당겨야}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위: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라)	* (+주로 말보다는 고삐를 이용해 소를 부름)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라)	* (+주로 말보다는 고삐를 이용해 소를 부름)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 (+주로 말보다는 고삐를 이용해 소를 부름)
22607 쇠고기	세고기 cf. 대애지고기

22608 고기(肉)	고기느
22609 돌치	들썰라 하오 cf. 어썰 들썰텐는가(+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하는 말){어썰 돌치가 됐는가} 꼬리지, 꼬리라 하오 cf. 달그 꼬랑대라 하구 매애지라구 당나기 모래기지, 모래기 만타 하지 도티라구두, 대애지라구두 하구 cf. 수리라구두 하구(+수태지), 수태지라 하구, 암태지라구서 메매지라 하오, 메또티라 하오 주두리라구서 도투고리지, 대애지 대가리라구두 하구 도투구레서 살지, 도투구르 저어야테지{돼지우리를 지어야 되지} 쪼울쪼울쪼울(+지금은 이름을 지어 주고 대부분 이름을 부름) 개라하오 수캐구 암캐구 개애지 염세 고애지, 고내 cf. 고애새끼지 수코애구 암코내구 토끼지 게사이 암탈기라 하구 배우리라 하지 모다야 테지, 모다드오, 모둔다지 수탈기 수타기 베시라 하오 부부리 머거리 준다(+다), 요리라능거느(+소) 요르(+소) 모다든다지 달그터리지 달그또이지 달그둥지라 하오 달그구리라
22610 꼬리	
22611 망아지	
22612 당나귀	
22613 갈기	
22614 돼지	
22614-1 멧돼지	
22615 주둥이	
22616 돼지 머리	
22617 돼지우리	
22617-1 오래오래	
22618 개(犬)	
22618-1 수캐	
22618-2 암캐	
22619 강아지	
22620 염소	
22621 고양이	
22621-1 수고양이	
22621-2 암고양이	
22622 토끼	
22623 거위(鵞)	
22624 암탉	
22625 병아리	
22626 모으다	
22627 수탉	
22627-0-1 -이	
22628 벼슬(鷄冠)	
22629 부리	
22630 모이	
22630-0-1 -을	
22630-1 모이다	
22631 닭털	
22632 닭똥	
22633 어리	
22634 닭장	

22635 등우리	등지라하구
22636 날개	날개
22637 깃	지치라구두
22637-0-1 -을	지즈 빼라구서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버민지
22702 살쥔이	슬기이꾸
22703 여우	여끼오, 여끼부터, 여끄부터, 여끄 자부터 하지, 여끄게다, 여끼게다 쥔내비라 사스문, 사시미 놀가지 가트우 놀가지 만타지 놀가지르 자부터구 고순도치지, 고순도치르 자부터구, 고순도치에다 뚜두지, 뚜두지르 쭈쭈피 cf. 오소리 달그 잠는다구, 향가리{담비} 배애미 도마배미쳐르, 도마배미라 하오, 도마배미르 구레에느, 구레에게 물게따 하지 cf. 미추리느{물뱀은} * 지라 하오, 지지 →뽕찌라구두 하오 가꾸루 달기구 다람지라 하오 cf. 서피 업쏘{청설모 없소} 날쭈시이, 날썰짐시이라구, 새라하지 꽁지르, 꼬리라 하지 △ 닥쭈리, 닥쭈리느 제비지 하기라, 두루미라 * cf. 갈매기(+[kalmegi]), 갈매기(+[karmegi]) 뀌이오 수궤이오 가투리라 하오 뀌어배우리라 예조리라 버쭈썰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2 -를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렁이	
22713 살모사	
22714 생쥐	
22715 박쥐	
22716 거꾸로	
22717 다람쥐	
22718 새(鳥)	
22719 꿩지	
22720 솔개	
22721 독수리	
22722 제비(燕)	
22723 두루미	
22724 소쩍새	
22725 꿩	
22726 장끼	
22727 까투리	
22727-1 꺾병이	
22728 종달새	
22729 빼꾸기	

22730 기러기	기레기, 기려기, 기러기
22731 뜰부기	△
22732 올빼미	* cf. 부엉새라 하오{부엉이라 하오}
22733 까치	까치오
22734 딱따구리	*
22735 뎛	차끼라구 cf. 이리랑, 승내~이랑{승냥이랑}
22735-0-1 -을	차끄
22736 올가미	몽노~이라 하구, 몽노~오 나서느{올가미를 낚서는}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천지꼬지라 해애쏘
22802 철쭉꽃	*
22803 민들레	므슨들레
22804 맨드라미	*
22805 봉선화	봉주왜, 봉채꼬지, 물봉채 가트우, 물봉주왜 꼬지 가트우
22806 파리	까리라 하오, 파리
22807 해바라기	해재부리
22808 꽃봉오리	꼬뿌데
22809 시들다	스드러따구, 말라들지
22810 질경이	배째개라 하오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배째개라 하오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
22811 빨기	*
22812 비름	도투푸리라구
22813 쇠비름	대애지푸리라 하구
22814 쑥바귀	세투리지
22815 고들빼기	*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
22816 고사리	고사리라 하지, 고사리 가트오
22817 고비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닥싸리
22819 도꼬마리	떼꼬리
22820 억새	△
22821 갈대	까리

22822 이끼	△ cf. 물까매
22823 아주까리	피마재라는
22824 담쟁이	△ cf. 너울푸리라구
22825 수세미	수세미라구두 하구
22826 덩굴	너우리
22827 덩불	△
22827-1 가시덤불	△
22828 잔디	잔디라

### 1.10.2. 나무

22901 소나무	솔랑기
22902 솔방울	△
22903 관솔	△
22904 솔가리	솔리피라 하지, 솔라무이피라 하지
22905 그로모오다	끄러서모두라구, 끄러모다라, 끄러모두라 하지
22906 뽕나무	뽕·낭기라 하구
22907 오디	오디
22908 도토리	바아미라 하오
22909 떡갈나무	바암낭기라 합떼
22910 상수리	△
22911 옷	*
22911-0-1 -으로	*
22912 버드나무	버들낭그느, 버드리, 수양버드리오
22913 느티나무	*
22914 그림자	그림재라 하오
22914-1 그늘	그느레 가 세에야{그늘에 가 쉬어야}
22915 숲	△, cf. 산쏘기라구서리
22915-0-1 -을	△
22915-0-2 -에	△
22916 시원하다	시워:나다구, 선서:나다구
22917 짙레	△
22918 취	*
22918-0-1 -에	*
22919 가지(枝)	아치, 나무아치
22920 끝	그티지
22920-0-1 -이	그티지
22920-0-2 -을	막끄트 다까라
22920-0-3 -에	마끄테 벌기 이따
22921 삭정이	△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꺼끄라{꺾어라}
22922	나무	낭기 만타구, 나무더리 만타구
22922-0-1	-을	낭그
22922-0-2	-에	낭게, 나무에 걸게따지
22923	나무하다	나무할라간다구
22924	그루터기	나무글거리라 하오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베 글거리라구 하구{벼 그루터기라 하고}, 밥써 글거리 라구 하구{수수 그루터기라 하고}
22925	등걸	드털기, 나무드털기
22926	장작	장채기지
22927	패다	패야테지, 패에테지
22928	부스러기	부스레기라구두(+나무 조각뿐만 아니라 음식에서 나오 는 조그마한 조각도 가리킴)
22929	숯	수티
22929-0-1	-이	수티라 하오
22929-0-2	-을	수투 개애오라 하지
22929-0-3	-에	수테 부리 부터따
22930	불잉걸	△
22931	썩	썩기 나는 거느(+보리와 콩을 길렀을 때 나오는 썩만 카리킴) cf. 썩가시 나따지{썩앗이 났다지}
22932	잎	이피지, 나무이피지
22932-0-1	-을	나무이푸 따라구
22932-1	잎사귀	입썩기
22933	가랑잎	△ cf. 나무이피라 하지
22934	뿌리	뿌리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눔금	눔그미라 하오, 능기미라 하오
23002	돌배	돌빼라 하오
23003	복숭아	복썩애
23004	곶감	*
23005	홍시	*
23006	고욤	*
23007	살구	살기
23008	앵두	*
23009	자두	노리(+이 지역에서는 자두를 "노리", "머지", "왜애지" 세 개로 부름)
23010	오얏	왜애지라구&
23010-0-1	-을	*

23011	석류	△
23012	모과	*
23013	과일	개시리라 하오
23014	꼭지	쭈쭈
23015	밤	*
23015-1	밤송이	*
23015-2	풋밤	*
23015-3	알밤	*
23015-4	쌍둥밤	*
23016	보늬	*
23017	호두	가라토시
23018	가래(楸子)	*
23019	개암	깨애미
23020	머루	밀기, 밀구라 하오, 밀기라구서리
23021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
23023	으름	*
23024	참외	차매
23025	딸기	달기라, 땅딸기짐
23025-1	"딸기(발 재배)"	*
23025-2	"딸기(발 야생)"	땅딸기짐
23025-3	"딸기(들 재배)"	*
23025-4	"딸기(들 야생)"	*
23025-5	"딸기(산 재배)"	*
23025-6	"딸기(산 야생)"	달기라(+[targira])
23026	뱀딸기	*
23027	마름(菱)	*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상꼭떼기라 하지
23102	기슭	지슬기라
23102-0-1	-에	산찌슬게 가따 와따
23103	골짜기	골채기
23104	메아리	△, cf. 우러난다하지

23105 고향	가아무 친다구, 악썰질 말라하지(+비)
23105-1 (고향) 치다/지르다/하다	가아무 친다구두 하지
23106 묘	사~이오(+다), 사느르 가짐(+다), 모이라구 하지(+소)
23107 뗏자리	산·자리르
23107-1 광중	*
23108 구덩이	구더~이(+[kud̥äy])
23109 비탈	△, cf. 네리매기라구 하지
23110 가파르다	→강아다구두 하구
23111 언덕	언더기(+ "더기"보다 약간 높음), 더기(+언덕보다 낮음) cf. 등가리
23112 낭떠러지	양차~이(+[yaŋčʰäy])
23113 들(野)	뜨리라구두 하지
23113-0-1 -에	뜨레서 논다구
23114 별	별파이
23115 갈림길	가달찌르
23116 헤어지다	갈라져따구 하지
23117 바위	바이또리
23117-0-1 -을	바이또르 마사따구
23117-0-2 -에	바이또레
23118 돌(石)	돌, 도리지, 돌썰기
23118-0-1 -을	돌짜기더르
23118-0-2 -에	돌썰기에
23119 자갈	짜작또리라구두
23120 모래	모새
23120-0-1 -를	모새르
23121 진흙	중태, 중타~아(+대격형)
23121-1 찰흙	개질흙기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무르 먹찌, 무르 마시지
23202 거품	더푸미 나지
23203 개운하다	거뿌나다구 하지
23204 도랑	도라아(+대격형), 도랑무르, 도랑무리
23204-1 붓도랑	테시또래애지, 테시또라아(+대격형)
23205 둑	장드러꾸 이꾸
23206 잠기다	쟁개따
23207 개울	개인, 개이네{개울에}, 개이느르{개울로}
23208 내(川)	개인, 개이네{내에}
23209 미역 감다	모여한다, 모여간다(+[moyəganda]), 모역한다

23210 발가숭이	△
23211 목욕하다	모여한다, 모요기라지
23212 수채	△, cf. 자시무리
23213 개골창	*
23214 시궁창	웅더이(+[uŋdəy])
23215 웅덩이	웅더이(+[uŋdəy])
23216 수렁	수깨구더이(+[suk'egudəy])
23217 늪	느피
23217-0-1 -에	느페
23218 배(船)	차니
23219 나루터	△, cf. 찬·머리라 하겐는지, 찬재~이(+[čʰanjɛ̆y], 뱃사공)
23220 돛	도치, 도트(+대격형), 도츠(+대격형)
23220-0-1 -에	도체
23221 돛대	도때
23222 돛배	△
23223 돛 줄	→돋쭈리지
23224 닻줄	다트(+대격형)
23225 거루	차이라구
23226 상앗대	△
23227 개(蜃)	*
23228 물	*
23228-0-1 -으로	*
23229 밀물	*
23230 썰물	*
23231 가라앉다	까란찌무{가라앉지 뭐}, 까란즌{가라앉은}
23232 그물	그무리
23233 해녀	*

### 2.11.3. 시 후

23301 새벽	새바기
23302 새벽밥	→새박빠비
23303 아침	아츨
23304 아침밥	조마이, 조마느 마드라구
23305 점심	정슴
23306 저녁	지낙, 저낙
23307 설빏하다	△
23308 노을	너부리
23308-0-1 -을	너부르
23309 불그레하다	불그치그레:하다

23310	해거름	△
23311	땅거미	△
23312	봄	보미
23313	여름	여르미구
23314	더위	덜파, 더비 테다구, 더비
23315	추위	치비 업파
23316	가을	가으르(+대격형)
23316-0-1	-에	가으레 하지
23317	겨울	동사메느
23317-0-1	-에	동사메
23318	얼음	어르무 여어라
23319	오늘	오늘, 오느리
23320	내일	내일
23321	모레	모레
23322	글피	글페
23323	그글피	→그글페
23324	어제	어제
23325	그저께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그그저께
23327	훗날	후제
23328	하룻날	초하른날
23329	이튿날	이튿날
23330	사흘날	사흔날, 새미리지
23331	나흘날	나은나리지
23332	닷셋날	다썬나리지, 초다썬나리지
23333	엿셋날	여썬나리라구
23334	이렛날	이렌나리지
23335	여드렛날	야드렌나리
23336	아흐렛날	아으렌나리, 아으렌날 만나자
23337	열흘날	여를라리지
23338	하루	할라리, 할리, 하르똥안, 할랄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흘
23341	나흘	나흘
23342	닷새	다새
23343	엿새	여새
23344	이레	일레
23345	여드레	야드래
23346	아흐레	아흐레
23347	열흘	여를

23348	한나절	반나레
23348-1	반나절	*
23349	그믐	그믐, 그믐나리
23349-1	그믐께	그믐께
23350	지금	시전
23351	아직	안죽(+[anjik]), 안죽(+[anjik]), 안죽(+[anjuk]), 안죽(+[anjuk])
23352	이제	시장
23353	이미	발써
23354	요즈음	이제가네, 이썰
23355	금방	곰만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베티 cf. 비체, 비치
23401-0-1	-이	베티
23401-0-2	-을	베트
23402	따스하다	따따:사다
23403	아지랑이	△
23404	옹달	*
23405	양달	*
23406	비(雨)	비지(+제보자는 비를 굶기에 따라서 '소낙비', '바', '느개'로만 인식)
23407	가랑비	△ cf. 해뻘(+해가 비치면서 내리는 비)
23408	이슬비	△
23409	안개	양개 께따
23410	눈개	즌새
23411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서따
23412	소나기	소낙뻘이썸, 소낙뻘라 하지, 소내기 올매
23413	갑자기	불썰르, cf. 썸쓰개 비온다(4비랍도 불고 구름이 갑자기 몰려와 내리는 비)
23414	홍수	무리져따
23415	번개	병개
23416	천둥	소내기 운다
23417	벼락	베래기, 베래그
23418	무섭다	무서어바서
23419	함박눈	누이
23420	싸락눈	싸랑누이
23421	발자국	발짜기
23422	진눈깨비	능개뻘
23423	우박	박썰
23424	고드름	고조리
23425	햇무리	해머리르 예에따



23426 달무리	다리 머리르 예에따
23427 둥글다	또웅그라타
23428 은하수	* cf. 칠성베리{북두칠성}, 삼태장베리
23429 금성	새빠리
23430 가뭄	가무리
23431 마르다	말라들지, 마르지
23431-0-1 -어서	말라따
23432 위	우, 울(+대격형), 우우루{위로}, 우이(+자연 발화에서 채록)
23433 아래	아래짐{아래지 뭐}
23434 왼쪽	엔작
23435 오른쪽	오른작
23436 곁	저티
23436-0-1 -에	저테
23437 회오리바람	돌개바르미
23438 북풍	북쪽빠르미
23439 남풍	남쪽 바람
23440 동풍	동쪽빠르미
23441 서풍	서쪽빠르미

## 제3편 음운

### 3.1. 음운체계

####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31001-0-2 테(輪)-보다

31002-0-1 태(胎)-이/가

31002-0-2 태(胎)-보다

31003-0-1 떼(群)-이/가

31003-0-2 떼(群)-보다

31004-0-1 때(時)-이/가

31004-0-2 때(時)-보다

31005-0-1 틀(機)-이/가

31005-0-2 틀(機)-보다

31006-0-1 털(毛)-이/가

31006-0-2 털(毛)-보다

31007-0-1 글(文)-이/가

31007-0-2 글(文)-보다

31008-0-1 걸(옷)-이/가

31008-0-2 걸(옷)-보다

31009-0-1 기(旗)-이/가

31009-0-2 기(旗)-보다

31010-0-1 귀(耳)-이/가

31010-0-2 귀(耳)-보다

31011-0-1 시(生時)-이/가

31011-0-2 시(生時)-보다

31012-0-1 쉬(蠅卵)-이/가

31012-0-2 쉬(蠅卵)-보다

테(+이 지역은 선행 음절의 모음이 전설 모음인 경우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지 않음. 이형태 ‘-가’는 없음.)

테보구

태

태보구

떼라 하지 cf. 땀무리라구(+새 떼를 가리킬 때 씀)

새떼보구

살 때

그때부터, 때부터

배트리라 하지{베틀이라 하지}

배틀부터

터리(+[tʰɛ̞ɾi])

터리부터

그르(+대격형)

글부터

\*

\*

기라 하오, 기

기보구

기라 하오

기두, 기부터

두시에, 열뚜시에, 두세, 네세

한시부터

시를 쓸치, 시만타 하지

시파리라{쉬파리라}, 시부터

31013-0-1 쇠(鐵)-이/가	세
31013-0-2 쇠(鐵)-보다	세부터
31014-0-1 외:국(外國)-이/가	베구기(+[vegugi]), 베구구루{외국으로}, 웨구구루
31014-0-2 외:국(外國)-보다	베국뽀다, 베국보구, 베국싸르문{외국 사람들}
31015-0-1 왜국(倭國)-이/가	*
31015-0-2 왜국(倭國)-보다	*
[보충]	
31016 쉬:다(休)-더라	시구, 세에라
31017 쇠:다(설을~)-더라	센다구, 세에라
31018-0-1 베(布)-이/가	베르 짜지, 베애(+처격형)
31018-0-2 베(布)-보다	베부터
31019-0-1 배(船)-이/가	배지
31019-0-2 배(船)-보다	배부터
31020-0-1 배(腹)-이/가	배라하지, 배애(+처격형), 베르
31020-0-2 배(腹)-보다	배부터
31021-0-1 떡)메-이/가	땡멜르
31021-0-2 떡)메-보다	땡메부터
31022-0-1 매(鞭)-이/가	매르 친다 cf. 매르 따린다
31022-0-2 매(鞭)-보다	매부터
31023-0-1 메:다(擔)-더라	메엔다
31023-0-2 메:다(擔)-어서	메에야
31024-0-1 매:다(繫)-더라	맨다
31024-0-2 매:다(繫)-어서	매애라
31025-0-1 떼:다(分離)-더라	땡다
31025-0-2 떼:다(分離)-어서	떼라구
31026-0-1 때:다(炊)-더라	때앤다, 때지
31026-0-2 때:다(炊)-어서	때애라
31027-0-1 베:다(切斷)-더라	베에구, 베엔다
31027-0-2 베:다(切斷)-어서	베에라
31028-0-1 배:다(孕胎)-더라	선다(+사람에게 씌), 가제따(+짐승에게 씌)
31028-0-2 배:다(孕胎)-어서	배애따(+짐승에게만 씌)
31029-0-1 세:다(算)-더라	헤에보라구, 헤에지
31029-0-2 세:다(算)-어서	헤에라
31030-0-1 새:다(漏泄)-더라	샌다, 비샌다, 새애지
31030-0-2 새:다(漏泄)-어서	새애서
31031-0-1 뒤(後)-이/가	두이구
31031-0-2 뒤(後)-보다	두에 서라
31032-0-1 되(升)-이/가	테바기라 cf. 대지{(쌀을) 되지}, 대구{(쌀을) 되고}
31032-0-2 되(升)-보다	테박뚜 망쿠, 테배기라구
31033-0-1 게:(蟹)-이/가	게라하오, 게

31033-0-2 게:(蟹)-보다	△
31034-0-1 개:(犬)-이/가	개라하지
31034-0-2 개:(犬)-보다	△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여래애
31035-0-2 여럿(多)-보다	여래보구
31035-0-3 여럿(多)-을/를	여래르
31036-0-1 물결(波)-이/가	멀기친다
31036-0-2 물결(波)-보다	→물꺼리라
31036-0-3 물결(波)-을/를	△
31037-0-1 예:의(禮儀)-이/가	여이바르다
31037-0-2 예:의(禮儀)-보다	여이 자란다{예의 잘 안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
31038-0-1 계:획(計劃)-이/가	게으기, 게호기, 게허기
31038-0-2 계:획(計劃)-보다	△
31038-0-3 계:획(計劃)-을/를	게허그
31039-0-1 규칙(規則)-이/가	*
31039-0-2 규칙(規則)-보다	*
31039-0-3 규칙(規則)-을/를	*
31040-0-1 휴일(休日)-이/가	신다
31040-0-2 휴일(休日)-보다	△
31040-0-3 휴일(休日)-을/를	시이무 시인다
31041-0-1 교통(交通)-이/가	* cf. 게후르 간다, 게우르 간다{교회를 간다}
31041-0-2 교통(交通)-보다	* cf. 땡길 세에 조타구
31041-0-3 교통(交通)-을/를	*
31042-0-1 효:자(孝子)-이/가	효자라구
31042-0-2 효:자(孝子)-보다	효자보구
31042-0-3 효:자(孝子)-을/를	효자르
31043-0-1 웬일(何事)-이/가	△ cf. 웨 완능가?
31043-0-2 웬일(何事)-보다	△
31043-0-3 웬일(何事)-을/를	△
31044-0-1 켜:(烝)(櫃)-이/가	게짜기
31044-0-2 켜:(烝)(櫃)-보다	게보구, 게느
31044-0-3 켜:(烝)(櫃)-을/를	게르
31045-0-1 왜란(倭亂)-이/가	*
31045-0-2 왜란(倭亂)-보다	*
31045-0-3 왜란(倭亂)-을/를	*
31046-0-1 헛대(鷄架)-이/가	땡때 cf. 해때뽀이

31046-0-2	헛대(鷄架)-보다	△
31046-0-3	헛대(鷄架)-을/를	△
31047-0-1	원망(怨望)-이/가	* cf. 원썩르{원수름}
31047-0-2	원망(怨望)-보다	*
31047-0-3	원망(怨望)-을/를	*
31048-0-1	권:투(拳鬪)-이/가	△
31048-0-2	권:투(拳鬪)-보다	△
31048-0-3	권:투(拳鬪)-을/를	△
31049-0-1	의논(議論)-이/가	이노난다, 상노난다
31049-0-2	의논(議論)-보다	△
31049-0-3	의논(議論)-을/를	△
31050-0-1	무늬(紋)-이/가	*
31050-0-2	무늬(紋)-보다	*
31050-0-3	무늬(紋)-을/를	*
31051-0-1	왕(王)-이/가	와이라구
31051-0-2	왕(王)-보다	△
31051-0-3	왕(王)-을/를	△
31052-0-1	과자(菓子)-이/가	△ cf. 당게라구
31052-0-2	과자(菓子)-보다	△ cf. 가연{과연}, 께시리{과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

###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이'리라구
31053-0-2	일(一)-보다	일'보구
31054-0-1	일:(事)-이/가	이'리만타
31054-0-2	일:(事)-보다	일'보구
31055-0-1	매(鞭)-이/가	매'르
31055-0-2	매(鞭)-보다	매보구'
31056-0-1	매:(驚)-이/가	매'르
31056-0-2	매:(驚)-보다	매'보구
31057-0-1	밤(夜)-이/가	바'미지
31057-0-2	밤(夜)-보다	밤'보구
31058-0-1	밤:(栗)-이/가	바아무'
31058-0-2	밤:(栗)-보다	바아'미보구
31059-0-1	눈(眼)-이/가	누'이지
31059-0-2	눈(眼)-보다	눔보구'
31060-0-1	눈:(雪)-이/가	누'이구
31060-0-2	눈:(雪)-보다	눔보다, 눔보구'
31061-0-1	말(馬)-이/가	마리'

31061-0-2	말(馬)-보다	마리'보구
31062-0-1	말(斗)-이/가	*
31062-0-2	말(斗)-보다	*
31063-0-1	말:(言)-이/가	마'리지, 마'르
31063-0-2	말:(言)-보다	말'보구
31064-0-1	손(客)-이/가	나그'내
31064-0-2	손(客)-보다	△
31065-0-1	손(手)-이/가	소'이지, 소'이지
31065-0-2	손(手)-보다	숨'보구
31066-0-1	손:(孫)-이/가	송'군더리
31066-0-2	손:(孫)-보다	송군보구'
31067-0-1	배(梨)-이/가	배르', 배'르
31067-0-2	배(梨)-보다	배보구', 배'보구 cf. 배(腹)보구'
31068-0-1	배:(倍)-이/가	배'르
31068-0-2	배:(倍)-보다	배'보구
31069-0-1	벌(罰)-이/가	버'르 세운다
31069-0-2	벌(罰)-보다	버'리보구'
31070-0-1	벌:(蜂)-이/가	꿀'빠리, 버'리
31070-0-2	벌:(蜂)-보다	버리보구'
31071-0-1	솔(松)-이/가	소'리 적따, 소'르
31071-0-2	솔(松)-보다	솔'보구, 솔보구'
31072-0-1	솔:(刷)-이/가	△
31072-0-2	솔:(刷)-보다	△
31073-0-1	줄(鉉)-이/가	주'루
31073-0-2	줄(鉉)-보다	줄보구'
31074-0-1	줄:(연장)-이/가	△
31074-0-2	줄:(연장)-보다	△
31075-0-1	돌:(石)-이/가	도'리지, 부수또'리지
31075-0-2	돌:(石)-보다	돌'보구'
31076-0-1	담(牆)-이/가	토'담
31076-0-2	담(牆)-보다	담보구'
31077-0-1	담:(膽)-이/가	여'리지 cf. 쓰'거붕게{쓴 게}
31077-0-2	담:(膽)-보다	△ cf. 대재에 싣하다(+대담하다는 뜻)
31078-0-1	들(野)-이/가	뜨'르
31078-0-2	들(野)-보다	플'보구'
31079-0-1	달-(懸)-고	거러'라
31079-0-1	달-(懸)-더라	걸'지
31080-0-1	달-(甘)-더라	다다구, 달다'구
31080-0-1	달-(甘)-고	달메서리
31081-0-1	달:-(熱)-고	달가'따

31081-0-1	달:-(熱)-더라	달'구이파
31082-0-1	갈-(換)-더라	간'다
31082-0-1	갈-(換)-고	갈'구
31083-0-1	갈-(磨)-고	간'다
31083-0-1	갈-(磨)-더라	갈'구
31084-0-1	갈:-(耕)-더라	간'다, 골쓰뻔다
31084-0-1	갈:-(耕)-고	갈'구인는다
31085-0-1	걸-(收)-고	거더'썤, 거꾸'인는다
31085-0-1	걸-(收)-더라	거더'서
31086-0-1	걸:-(步)-더라	걸'떠라, 걸'른다
31086-0-1	걸:-(步)-고	걸'썤
31087-0-1	적-(書)-고	저꾸'인는다
31087-0-1	적-(書)-더라	저거'야
31088-0-1	적:-(小)-더라	△
31088-0-1	적:-(小)-고	자'꾸

## 3.2. 음운과정

###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막썤
32001-0-2	막-(防)[ㄱ]-고	마꾸
32001-0-3	막-(防)[ㄱ]-더라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그이
32001-0-5	막-(防)[ㄱ]-아/어(았/었다)	마가서
32002-0-1	흐르-(流)[ㅡ]-지	흐르지, 흐른다
32002-0-2	흐르-(流)[ㅡ]-고	흐르구
32002-0-3	흐르-(流)[ㅡ]-더라	흐르더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흐르이
32002-0-5	흐르-(流)[ㅡ]-아/어(았/었다)	흘러
32003-0-1	오-(來)[ㅗ]-지	오지, 온다
32003-0-2	오-(來)[ㅗ]-고	오구, 오라구
32003-0-3	오-(來)[ㅗ]-더라	오더라
32003-0-4	오-(來)[ㅗ]-으니까	오이 조타
32003-0-5	오-(來)[ㅗ]-아/어(았/었다)	와파, 오나라
32004-0-1	듣-(聞)[ㄷ뵌]-지	드썤
32004-0-2	듣-(聞)[ㄷ뵌]-고	들꾸
32004-0-3	듣-(聞)[ㄷ뵌]-더라	들른다지

32004-0-4	듣-(聞)[ㄷ뵌]-으니까	드르라구
32004-0-5	듣-(聞)[ㄷ뵌]-아/어(았/었다)	드러라
32005-0-1	많:-(多)[ㄴᄇ]-지	망꾸
32005-0-2	많:-(多)[ㄴᄇ]-고	마안타구
32005-0-3	많:-(多)[ㄴᄇ]-더라	마안터라
32005-0-4	많:-(多)[ㄴᄇ]-으니까	마나이
32005-0-5	많:-(多)[ㄴᄇ]-아/어(았/었다)	마나두, 마내서
32006-0-1	말-(任)[ㅌ]-지	마썤
32006-0-2	말-(任)[ㅌ]-고	△
32006-0-3	말-(任)[ㅌ]-더라	△
32006-0-4	말-(任)[ㅌ]-으니까	마트이, 마튼
32006-0-5	말-(任)[ㅌ]-아/어(았/었다)	마타가지구, 마타파
32007-0-1	알:-(知)[ㄹ]-지	안다, 아지
32007-0-2	알:-(知)[ㄹ]-고	알구
32007-0-3	알:-(知)[ㄹ]-더라	알더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아이·
32007-0-5	알:-(知)[ㄹ]-아/어(았/었다)	아라파
32008-0-1	감:-(閉眼)[ㅁ]-지	감썤 앙꾸
32008-0-2	감:-(閉眼)[ㅁ]-고	감꾸
32008-0-3	감:-(閉眼)[ㅁ]-더라	감떠라
32008-0-4	감:-(閉眼)[ㅁ]-으니까	가무이
32008-0-5	감:-(閉眼)[ㅁ]-아/어(았/었다)	가마라
32009-0-1	벗-(脫)[ㅅ]-지	빼썤
32009-0-2	벗-(脫)[ㅅ]-고	빼짜구
32009-0-3	벗-(脫)[ㅅ]-더라	빼썰이꾸
32009-0-4	벗-(脫)[ㅅ]-으니까	빼스이
32009-0-5	벗-(脫)[ㅅ]-아/어(았/었다)	빼서파
32010-0-1	옴-(可)[ㄹᄇ]-지	올채이타, 올타
32010-0-2	옴-(可)[ㄹᄇ]-고	올케
32010-0-3	옴-(可)[ㄹᄇ]-더라	올터라
32010-0-4	옴-(可)[ㄹᄇ]-으니까	오르이
32010-0-5	옴-(可)[ㄹᄇ]-아/어(았/었다)	오래서
32011-0-1	입-(着衣)[ㅂ]-지	입짜구
32011-0-2	입-(着衣)[ㅂ]-고	△
32011-0-3	입-(着衣)[ㅂ]-더라	입떠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이부라구, 이부이
32011-0-5	입-(着衣)[ㅂ]-아/어(았/었다)	이버라, 이버야
32012-0-1	바꾸-(換)[ㅌ]-지	바꾸지 말라
32012-0-2	바꾸-(換)[ㅌ]-고	바꾸자
32012-0-3	바꾸-(換)[ㅌ]-더라	바꾸더라

32012-0-4	바꾸-(換)[ㄸ]-으니까	바꾸이
32012-0-5	바꾸-(換)[ㄸ]-아/어(왔/었다)	바까라
32013-0-1	덮-(覆)[ㅍ]-지	덮찌
32013-0-2	덮-(覆)[ㅍ]-고	더꾸이따
32013-0-3	덮-(覆)[ㅍ]-더라	덮떠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더꾸이
32013-0-5	덮-(覆)[ㅍ]-아/어(왔/었다)	더퍼라
32014-0-1	묻:- (問)[ㄷ 변]-지	물찌
32014-0-2	묻:- (問)[ㄷ 변]-고	물꾸
32014-0-3	묻:- (問)[ㄷ 변]-더라	물떠라
32014-0-4	묻:- (問)[ㄷ 변]-으니까	물른다
32014-0-5	묻:- (問)[ㄷ 변]-아/어(왔/었다)	무리바라
32015-0-1	낫:- (癒)[ㅅ 변]-지	날찌
32015-0-2	낫:- (癒)[ㅅ 변]-고	나꾸
32015-0-3	낫:- (癒)[ㅅ 변]-더라	나떠라
32015-0-4	낫:- (癒)[ㅅ 변]-으니까	나스이
32015-0-5	낫:- (癒)[ㅅ 변]-아/어(왔/었다)	나사따
32016-0-1	닫-(閉)[ㄷ]-지	다찌마라
32016-0-2	닫-(閉)[ㄷ]-고	다꾸이따
32016-0-3	닫-(閉)[ㄷ]-더라	△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드이, 다드라구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다다라
32017-0-1	쫓-(追)[ㅈ]-지	쫓추지 cf. 풀구다(+이 말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함)
32017-0-2	쫓-(追)[ㅈ]-고	쫓추구
32017-0-3	쫓-(追)[ㅈ]-더라	△
32017-0-4	쫓-(追)[ㅈ]-으니까	쫓추이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쫓차라
32018-0-1	베:- (枕)[ㅂ]-지	베지, 베엔다, 벤다
32018-0-2	베:- (枕)[ㅂ]-고	베구
32018-0-3	베:- (枕)[ㅂ]-더라	베더라
32018-0-4	베:- (枕)[ㅂ]-으니까	베이
32018-0-5	베:- (枕)[ㅂ]-아/어(왔/었다)	베에라
32019-0-1	깨:- (破)[ㄱ]-지	깨지 마라라
32019-0-2	깨:- (破)[ㄱ]-고	깨구
32019-0-3	깨:- (破)[ㄱ]-더라	깨더라
32019-0-4	깨:- (破)[ㄱ]-으니까	깨이
32019-0-5	깨:- (破)[ㄱ]-아/어(왔/었다)	깨애평
32020-0-1	펴-(伸)[ㅍ]-지	△
32020-0-2	펴-(伸)[ㅍ]-고	페구
32020-0-3	펴-(伸)[ㅍ]-더라	페더라

32020-0-4	펴-(伸)[ㅍ]-으니까	페이
32020-0-5	펴-(伸)[ㅍ]-아/어(왔/었다)	페라구, 페따
32021-0-1	밝-(明)[ㅁ]-지	박찌
32021-0-2	밝-(明)[ㅁ]-고	바꾸
32021-0-3	밝-(明)[ㅁ]-더라	박떠라
32021-0-4	밝-(明)[ㅁ]-으니까	발그이
32021-0-5	밝-(明)[ㅁ]-아/어(왔/었다)	발가따
32022-0-1	삶:- (烹)[ㅍ]-지	삼찌
32022-0-2	삶:- (烹)[ㅍ]-고	삼꾸
32022-0-3	삶:- (烹)[ㅍ]-더라	삼떠라
32022-0-4	삶:- (烹)[ㅍ]-으니까	사무라구
32022-0-5	삶:- (烹)[ㅍ]-아/어(왔/었다)	삼마라
32023-0-1	읔-(吟)[ㅇ]-지	*
32023-0-2	읔-(吟)[ㅇ]-고	*
32023-0-3	읔-(吟)[ㅇ]-더라	*
32023-0-4	읔-(吟)[ㅇ]-으니까	*
32023-0-5	읔-(吟)[ㅇ]-아/어(왔/었다)	*
32024-0-1	밟:- (踏)[ㅍ]-지	봑찌
32024-0-2	밟:- (踏)[ㅍ]-고	봑꾸
32024-0-3	밟:- (踏)[ㅍ]-더라	△
32024-0-4	밟:- (踏)[ㅍ]-으니까	봑부이
32024-0-5	밟:- (踏)[ㅍ]-아/어(왔/었다)	봑바라
32025-0-1	하-(爲)[ㅏ 변]-지	하지
32025-0-2	하-(爲)[ㅏ 변]-고	하구
32025-0-3	하-(爲)[ㅏ 변]-더라	하더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하이 조타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해에라, 해애평
32026-0-1	맺:- (結)[ㅈ]-지	△
32026-0-2	맺:- (結)[ㅈ]-고	△
32026-0-3	맺:- (結)[ㅈ]-더라	△
32026-0-4	맺:- (結)[ㅈ]-으니까	△
32026-0-5	맺:- (結)[ㅈ]-아/어(왔/었다)	매체따, 매애평
32027-0-1	없:- (無)[ㅁ]-지	업찌, 업따
32027-0-2	없:- (無)[ㅁ]-고	어꾸
32027-0-3	없:- (無)[ㅁ]-더라	업떠라
32027-0-4	없:- (無)[ㅁ]-으니까	업쓰이
32027-0-5	없:- (無)[ㅁ]-아/어(왔/었다)	업써서
32028-0-1	앉-(坐)[ㄴ]-지	안찌
32028-0-2	앉-(坐)[ㄴ]-고	앙꾸
32028-0-3	앉-(坐)[ㄴ]-더라	안떠라

32028-0-4	앉-(坐)[ㅅ]-으니까	안즈이
32028-0-5	앉-(坐)[ㅅ]-아/어(앉/었다)	안자따
32029-0-1	비비-(刮)[ㅣ]-지	부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부비구
32029-0-3	비비-(刮)[ㅣ]-더라	부비더라구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부비이(+[pubii]), 부비이
32029-0-5	비비-(刮)[ㅣ]-아/어(앉/었다)	부베따
32030-0-1	끄-(消)[ㅡ]-지	끄지
32030-0-2	끄-(消)[ㅡ]-고	끄구
32030-0-3	끄-(消)[ㅡ]-더라	끄더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끄이
32030-0-5	끄-(消)[ㅡ]-아/어(앉/었다)	껴따
32031-0-1	꺾-(折)[ㄱ]-지	꺾꺾 말라
32031-0-2	꺾-(折)[ㄱ]-고	껴꾸, 꺾니구
32031-0-3	꺾-(折)[ㄱ]-더라	꺾떠라, 꺾니더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껴끄이
32031-0-5	꺾-(折)[ㄱ]-아/어(앉/었다)	껴껴따, 꺾네따
32032-0-1	신:-(履)[ㄴ]-지	신찌
32032-0-2	신:-(履)[ㄴ]-고	싱꾸
32032-0-3	신:-(履)[ㄴ]-더라	신평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시느이
32032-0-5	신:-(履)[ㄴ]-아/어(앉/었다)	시너라
32033-0-1	보-(視)[ㅇ]-지	보지
32033-0-2	보-(視)[ㅇ]-고	보구
32033-0-3	보-(視)[ㅇ]-더라	보더라
32033-0-4	보-(視)[ㅇ]-으니까	보이
32033-0-5	보-(視)[ㅇ]-아/어(앉/었다)	본다
32034-0-1	추-(舞)[ㅈ]-지	추지(+[chui])
32034-0-2	추-(舞)[ㅈ]-고	추구(+[chugu])
32034-0-3	추-(舞)[ㅈ]-더라	춘다(+[chunda])
32034-0-4	추-(舞)[ㅈ]-으니까	추이(+[chui])
32034-0-5	추-(舞)[ㅈ]-아/어(앉/었다)	쳐따(+[chət'a])
32035-0-1	피우-(吸煙)[ㅈ]-지	피우지
32035-0-2	피우-(吸煙)[ㅈ]-고	피우구
32035-0-3	피우-(吸煙)[ㅈ]-더라	피우더라
32035-0-4	피우-(吸煙)[ㅈ]-으니까	피우이
32035-0-5	피우-(吸煙)[ㅈ]-아/어(앉/었다)	피운다
32036-0-1	서-(立)[ㅅ]-지	서이찌
32036-0-2	서-(立)[ㅅ]-고	서구
32036-0-3	서-(立)[ㅅ]-더라	서더라

32036-0-4	서-(立)[ㅅ]-으니까	서이
32036-0-5	서-(立)[ㅅ]-아/어(앉/었다)	서따
32037-0-1	기-(匍腹)[ㅣ]-지	기지, 긴다
32037-0-2	기-(匍腹)[ㅣ]-고	기구
32037-0-3	기-(匍腹)[ㅣ]-더라	기더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기이
32037-0-5	기-(匍腹)[ㅣ]-아/어(앉/었다)	게에탱긴다, 게에서간다
32038-0-1	이-(戴)[ㅣ]-지	이지
32038-0-2	이-(戴)[ㅣ]-고	이구
32038-0-3	이-(戴)[ㅣ]-더라	인다
32038-0-4	이-(戴)[ㅣ]-으니까	이이
32038-0-5	이-(戴)[ㅣ]-아/어(앉/었다)	에에라(+다), 이에라, 예라, 예에라
32039-0-1	아니-(否)[ㅣ]-지	아이지
32039-0-2	아니-(否)[ㅣ]-고	아이구, 아이길래
32039-0-3	아니-(否)[ㅣ]-더라	아이더라구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아이이까
32039-0-5	아니-(否)[ㅣ]-아/어(앉/었다)	아에서
32040-0-1	되-(升)[ㅅ]-지	대지
32040-0-2	되-(升)[ㅅ]-고	대구
32040-0-3	되-(升)[ㅅ]-더라	대더라
32040-0-4	되-(升)[ㅅ]-으니까	대이까데
32040-0-5	되-(升)[ㅅ]-아/어(앉/었다)	대에서
32041-0-1	있-(有)[ㅅ]-지	이찌
32041-0-2	있-(有)[ㅅ]-고	이꾸
32041-0-3	있-(有)[ㅅ]-더라	이따구, 이떠라구
32041-0-4	있-(有)[ㅅ]-으니까	이스~이
32041-0-5	있-(有)[ㅅ]-아/어(앉/었다)	이서라
32042-0-1	놓-(放)[ㅎ]-지	노치
32042-0-2	놓-(放)[ㅎ]-고	노꾸
32042-0-3	놓-(放)[ㅎ]-더라	노더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노오이, 논는다
32042-0-5	놓-(放)[ㅎ]-아/어(앉/었다)	낙아따
32043-0-1	훑-(扱)[ㅍ]-지	훑찌(+[fulč'i])
32043-0-2	훑-(扱)[ㅍ]-고	훑꾸(+[fulk'u])
32043-0-3	훑-(扱)[ㅍ]-더라	훑떠라(+[fult'əra])
32043-0-4	훑-(扱)[ㅍ]-으니까	훑트이(+[fult'hi])
32043-0-5	훑-(扱)[ㅍ]-아/어(앉/었다)	훑터따(+[fult'ət'a])
32044-0-1	곱:-(麗)[ㅂ 변]-지	곱찌
32044-0-2	곱:-(麗)[ㅂ 변]-고	곱꾸
32044-0-3	곱:-(麗)[ㅂ 변]-더라	곱떠라

32044-0-4 곱:-<麗>[ㄴ뵐]-으니까 고부이까데  
32044-0-5 곱:-<麗>[ㄴ뵐]-아/어(왔/었다) 고바따  
32045-0-1 쥐:-<握>[ㄱ]-지 지지  
32045-0-2 쥐:-<握>[ㄱ]-고 지구  
32045-0-3 쥐:-<握>[ㄱ]-더라 지더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지이 아푸다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제에따  
32046-0-1 가:-<去>[ㅏ]-지 가지  
32046-0-2 가:-<去>[ㅏ]-고 가구  
32046-0-3 가:-<去>[ㅏ]-더라 가더라  
32046-0-4 가:-<去>[ㅏ]-으니까 가~이  
32046-0-5 가:-<去>[ㅏ]-아/어(왔/었다) 가야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명는다, 먹찌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거서, 머거라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뜨찌 마라라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더라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가트다, 가트지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태두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야따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타서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흐튼다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흐트러져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난다, 날구 이따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라간다, 나라서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지, 운다, 우제이오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러따  
32054-0-1 "일:-<淘>-지 -고 -더라" 일구  
32054-0-2 "일:-<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야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영게, 얼구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러따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넘찌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나지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품치웅진, 수무라구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품치와라, 수머라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혈쿠, 혈터라, 혈하무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허래서  
32059-0-1 "늪:-<臥>-지 -고 -더라" 늪찌 마라라  
32059-0-2 "늪:-<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버라  
32060-0-1 "깎:-<縫>-지 -고 -더라" 집찌 말구  
32060-0-2 "깎:-<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버 이버라

32061-0-1 "밋:-<憎>-지 -고 -더라" 밋따  
32061-0-2 "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버서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노푸다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파서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지꾸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어따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부꾸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서따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운는다, 우끼두, 우찌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서, 우서바라  
32066-0-1 "꺾:-<吹>-지 -고 -더라" 진는다, 지꾸  
32066-0-2 "꺾:-<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서라  
32067-0-1 "꽃:-<插>-지 -고 -더라" 꼬꾸 이따  
32067-0-2 "꽃:-<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바라  
32068-0-1 "낱:-<產>-지 -고 -더라" 나지, 나더라구서리  
32068-0-2 "낱:-<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아따  
32069-0-1 "땅:-<辮>-지 -고 -더라" 탄는다지, 따꾸  
32069-0-2 "땅:-<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아라  
32070-0-1 "꺾:-<切>-지 -고 -더라" 끄너지, 끄너지 마라라  
32070-0-2 "꺾:-<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네라, 끄네따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이럽따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이르라구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거라  
32073-0-1 "땀:-<澁>-지 -고 -더라" 땀찌  
32073-0-2 "땀:-<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땀버서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오르지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라따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뚫찌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뚫버야  
32076-0-1 "꿇:-<跪>-지 -고 -더라" 끌구  
32076-0-2 "꿇:-<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꺼라  
32077-0-1 "닿:-<抗 연필 심이>-지 -고 -더라" 무디지  
32077-0-2 "닿:-<抗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드러지지, 다스려져따, 다스려지구  
32078-0-1 "닿:-<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 cf. 골른다구두 하구 끄린다구두 하오  
32078-0-2 "닿:-<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짜다, 짜갑따, 짜다구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가바서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말구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라따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쓰라구, 쓰지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라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오르구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라간다, 올라가따구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다사하다, 바쁘다구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빠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고푸지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파서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싸구이따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따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끼는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께에따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다듬는다, 다듬찌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드마라  
 32089-0-1 "전디-(忍)-지 -고 -더라" 전딘다  
 32089-0-2 "전디-(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테서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마르지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가야 덴다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끼더라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께따, 께에따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마시지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세라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세다, 세더라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서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두드리구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두레라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케구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케라  
 32097-0-1 "췌-(바람을)-지 -고 -더라" 췌우구  
 32097-0-2 "췌-(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췌와라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새구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서, 새 찌  
 32099-0-1 "쉬-(體)-지 -고 -더라" 시구  
 32099-0-2 "쉬-(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에서, 췌에서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히다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헤에서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보꾸구 cf. 다까라(+이 지역에서 주로 씀)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까라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안찌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나라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무찌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더라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불구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라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빨구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라라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죽떠라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거따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걸른다, 걸찌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러라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무더라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러따따, 가무러따구두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자불구, 자분다, 자부렵따(+구술 발화에서 채록)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부러바서, 자부러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쓸구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러라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감찌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마라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굽찌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버라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무겁따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거바서, 무거바서(+[mugəβasə])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인는다, 이꾸이따, 이찌마라라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서노쿠, 이서따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빈는다, 비찌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서라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검따, 검꾸, 검꾸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아마타, 까아매서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연는다구, 여꾸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여어따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골른다, 골치, 골꾸이따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아라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영꾸이따, 언는다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언저 나아따



32121-0-1 "귀찮-(囧)-지 -고 -더라" 귀채이타  
 32121-0-2 "귀찮-(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채에서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바르구, 고르구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발가내라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마알가타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가서  
 32124-0-1 "끓-(騰)-지 -고 -더라" 공개따, 공꾸  
 32124-0-2 "끓-(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골마따  
 32125-0-1 "끓-(太)-지 -고 -더라" 굴따, 국꾸  
 32125-0-2 "끓-(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거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엽따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열버서  
 32127-0-1 "쉴-(春)-지 -고 -더라" 쓸른다  
 32127-0-2 "쉴-(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러서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일터라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따  
 32129-0-1 "핥-(舐)-지 -고 -더라" 할쿠인는다  
 32129-0-2 "핥-(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라서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짜르구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찰가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라더라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라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구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가라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모하개따, 모타더라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태따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른다, 모르더라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라서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푸다, 아푸더라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파서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지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커따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까구, 깁다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라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쭈구, 쭈구(+[s'ɰgu])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라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마춘다, 마추구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차라  
 32140-0-1 "테우-(梧)-지 -고 -더라" 테운다, 테우지  
 32140-0-2 "테우-(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테와라

32141-0-1 "이:-(蓋 지붕을)-지 -고 -더라" 옌다, 예지말라  
 32141-0-2 "이:-(蓋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예에라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갈기지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게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기달린다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다레따구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헨다, 헤구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헤라, 헤에무 헤라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지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애라  
 32146-0-1 "켜-(툼을)-지 -고 -더라" 케지, 켜다  
 32146-0-2 "켜-(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케라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데다구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데에서, 대에서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시구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쉼에따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허비구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허베에따  
 32150-0-1 "눌:-(燠)-지 -고 -더라" 누르구  
 32150-0-2 "눌:-(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르러따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깨다르지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라따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마렵따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라바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부끄럽따, 부끄럽떠라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끄러바서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가깝따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차바서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기푸다, 지푸길래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퍼서  
 32156-0-1 "긋:-(劃)-지 -고 -더라" 끄찌  
 32156-0-2 "긋:-(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꺼라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시찌 마라라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쳐라  
 32158-0-1 "찡-(搗)-지 -고 -더라" 찡는다, 찡꾸  
 32158-0-2 "찡-(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찡어라  
 32159-0-1 "값-(擡)-지 -고 -더라" △  
 32159-0-2 "값-(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가 나따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굶떠라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굶머따

32161-0-1 "닳:-(似)-지 -고 -더라" 담떠라  
32161-0-2 "닳:-(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담마따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실쏘, 슬쏘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스레하지  
32163-0-1 "끓:-(𩚑)-지 -고 -더라" 골터라  
32163-0-2 "끓:-(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라서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부께따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서라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구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타라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마른다구, 마르더라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라따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쓰겁따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거바서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섭찌, 씩따, 슬푸지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설버 울지, 슬퍼서  
32169-0-1 "기쁠-(喜)-지 -고 -더라" 방갑따  
32169-0-2 "기쁠-(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가바서, 방가와서  
32170-0-1 "쏘-(蜚 蜚이)-지 -고 -더라" 쏘더라, 싸구 이따구  
32170-0-2 "쏘-(蜚 蜚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따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주더라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줘따구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키운다, 재래운다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와라, 재래와두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지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다라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마순다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사야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농구지 말구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농가준다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얼리더라, 소기지 마라라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얼레따, 소게따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끼운다, 끼우더라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와따  
32178-0-1 "뛰-(跳)-지 -고 -더라" 띤다, 띤더라  
32178-0-2 "뛰-(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떼에따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개피더라  
32179-0-2 "괴:-(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폐따  
32180-0-1 "여위-(羶)-지 -고 -더라" 예비더라  
32180-0-2 "여위-(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예베따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맵찌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퍼서  
32182-0-1 "뀌:-(屁)-지 -고 -더라" 낀다, 끼구이따  
32182-0-2 "뀌:-(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께에따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고친다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채라  
32184-0-1 "싣:-(載)-지 -고 -더라" 싣쿠  
32184-0-2 "싣:-(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싣러라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더바라  
32186-0-1 "빻-(粉碎)-지 -고 -더라" 갈그넨다  
32186-0-2 "빻-(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그내애라  
32187-0-1 "파랗-(碧)-지 -고 -더라" 푸루다구, 파아라타  
32187-0-2 "파랗-(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푸루러, 파아래서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따다, 따게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서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푼다, 푸라구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 다마따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누다, 누구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따구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어즈라다, 데럽따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데러바서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거두지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더라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끌른다, 끌터라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러따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긴다, 이기더라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계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뿌신다(+‘그릇을 가신다’의 의미), 뿌시더라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세라(+‘그릇을 가신다’의 의미)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뿌러져따, 자빠지더라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져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일거세운다, 일군다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거세와라, 일귀라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자바깅긴다, 당기구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당게라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데지구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데제라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훔치구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체가따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이라구 하지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에라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 cf. 에운다, 에우구(+구구단을~)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 cf. 만나따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cf. 만나서  
 32204-0-1 "씩-(腐)-지 -고 -더라" 썩썩  
 32204-0-2 "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거서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즐구, 즐다(+‘땅이 질다’의 의미)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즈려서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부린다, 까부리구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부레서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무다, 드물구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무려서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줄구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쪼라따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시무지 말라구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싱거라, 심머따, 심거따, 시무라구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 cf. 어른만지구, 어른만제따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사무렵따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무려바서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해깅따구, 세깅따구(+자연 발화에서 채록)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해까바서  
 32213-0-1 "젓:-(撈)-지 -고 -더라" 저구  
 32213-0-2 "젓:-(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서라, 저스무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두껍따구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꺼바서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무르구 cf. 흥기와져따, 호제따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거따구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끄닌다, 끄니더라, 부찌른다구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러져따, 끄네떠라, 부절거따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배우지, 배운다 cf. 이른다, 일거따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와라  
 32218-0-1 "다리-(躐)-지 -고 -더라" 다리지, 다린다  
 32218-0-2 "다리-(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레라  
 32219-0-1 "후비-(空 귀를)-지 -고 -더라" 우빈다, 기채르 파낸다  
 32219-0-2 "후비-(空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베라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아리다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레서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그린다, 그리구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레따  
 32222-0-1 "저리-(癡)-지 -고 -더라" 저리지  
 32222-0-2 "저리-(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레서, 저리베  
 32223-0-1 "불리-(憎)-지 -고 -더라" 불군다, 퍼지운다  
 32223-0-2 "불리-(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거라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따따:사다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따:새서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끄리지 마라라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레라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옰다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예에라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꾸긴다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게따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빈, 비더라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베에따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시기라구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게서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맨다, 매구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애라구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매라구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애따, 매애쏘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뒸다(+이 지역에서 ‘뛰다(走)’는 ‘달다’형을 씀)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떼에따(+이 지역에서 ‘뛰다(走)’는 ‘달다’형을 씀), 노꼬 떼따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담떠라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마라  
 32234-0-1 "가렵-(癢)-지 -고 -더라" 가랍따, 가랍구  
 32234-0-2 "가렵-(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라바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때린다, 때리구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때레라  
 32236-0-1 "어둠-(暗)-지 -고 -더라" 어둍찌  
 32236-0-2 "어둠-(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드바서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구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파따, 제에따, 부짜파찌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찬다, 차구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따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모자라기두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자래서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부루구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러따, 부룬다능게오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찌운다, 찌우구 cf. 부서노쿠, 분는다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찌와따  
 32242-0-1 "조:- (啄)-지 -고 -더라" 쫓는다, 쫓꾸, 쫓떠라  
 32242-0-2 "조:- (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쫓사따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두구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도따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시킨다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게라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뿌린다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뿌레라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두지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모다따, 모다서  
 32248-0-1 "만지-(搦)-지 -고 -더라" 만지구  
 32248-0-2 "만지-(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만제따  
 32249-0-1 "찌:- (臍)-지 -고 -더라" 찌운다  
 32249-0-2 "찌:- (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찌와라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비탄다, 탄다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타라라  
 32251-0-1 "돕:- (助)-지 -고 -더라" 돕쎌인다  
 32251-0-2 "돕:- (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도바준다  
 32252-0-1 "쌌-(咀)-지 -고 -더라" 씹는다, 씹꾸  
 32252-0-2 "쌌-(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씨버라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끄럽따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미끄러바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대운다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대와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누른다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눌러따  
 32256-0-1 "주무르-(揉)-지 -고 -더라" 주무루구  
 32256-0-2 "주무르-(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물거라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메꾼다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메꺼라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고소:하지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고소:해서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네린다, 네리운다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네리와라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구불지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구부레라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만듭쏘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만드러라  
 32262-0-1 "늑:- (老)-지 -고 -더라" 늑뚜라  
 32262-0-2 "늑:- (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늑거서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알른다지, 알쿠인는다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라따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따른다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따라간다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싸구, 싸온다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싸라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운다, 치우구, 거둔다, 거두라구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치와라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32216 참고)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6 참고)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다치지 마라라(+‘건드리다’의 의미), 상하구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치와따(+‘건드리다’의 의미), 사해따, 빼서찌따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려지다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느려져따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메운다, 메우지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메와라  
 32271-0-1 "죄:- (締)-지 -고 -더라" 제따, 제운다  
 32271-0-2 "죄:- (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제에라, 제와라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판다, 팔구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파라라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는다, 뽑꾸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뽑바라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디빈다, 드빈다, 드비구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드베라, 드베야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절구구, 당구구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절거따, 당가따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후리구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후레따  
 32278-0-1 "줍:- (拾)-지 -고 -더라" 주꾸 이따, 지구 이따  
 32278-0-2 "줍:- (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어따, 주어라, 제에따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애끼우구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애끼와따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찌부렌능가, 찌불구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찌부레따, 찌부런나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깝찌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까바서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방갑찌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가바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다, 찌구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어라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노라채이치, 노오라타구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오래서, 노르러서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푸루지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푸루러, 푸루이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서거푸다, 서투렵따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투라바서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게그르다 cf. 베돌째(+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말함)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글거서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따:사다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따:새서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칩꾸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바서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딱따, 따갑찌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가바서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미지그러하다, 띠띠부레:항거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지그러하이, 미지그러해에서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갑찌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가서, 차가바서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불부다구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버서  
 32295-0-1 "얄밧-(憎)-지 -고 -더라" 요소하다, 미깡스렵따  
 32295-0-2 "얄밧-(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깡스러바서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가투:하다, 비스:타다, 비저:가다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저:개서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섭꾸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설버서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베롭따(+[veropt'a]), 웨롭따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베로바서(+[ʼerobasə])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땅따나다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땅따내서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느떠라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저따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지떠라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터따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지친다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체따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자뿌러지개 해파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뿌러지개 해에서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쭈굴때레따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굴때레서  
 32308-0-1 "전주-(比)-지 -고 -더라" 전저본다, 재`애본다  
 32308-0-2 "전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저바라, 재`에본다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ऐ운다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ऐ와라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지르구, 문지른다  
 32310-0-2 "문지르-(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질거라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가르친다, 가르치길래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체라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가르친다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체라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전준다, 전주구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저라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비기르뜬다, 비기르뜨구이따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기르떠라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기구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게라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보느 받는다  
 32316-0-2 "본받-(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본바다라, 보느 바다라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어줄구구, 어즈렵따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줄거따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달른다, 달치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라라  
 32319-0-1 "우기-(撓)-지 -고 -더라" 우게 쓴다, 우게르 쓰구이따  
 32319-0-2 "우기-(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게르 써서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두두버린다, 두두버리구, 주`얼거린다구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두버레두, 주`얼거레서

32321-0-1 "지결이-(驛)-지 -고 -더라" 지지버리지  
32321-0-2 "지결이-(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지버레스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다닌다, 땡긴다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땡게라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떨구지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떨거따, 떨거찌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지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애나찌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쿠지, 시쿠다, 시쿠구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쿠러서  
32326-0-1 "숯-(湧)-지 -고 -더라" 소스지, 손는다  
32326-0-2 "숯-(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사올라오지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조타하지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아해서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빨알가타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알개서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끄슨다, 끄그지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서따  
32330-0-1 "넓-(廣)-지 -고 -더라" 너르지  
32330-0-2 "넓-(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널거서, 너버서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히구, 히다구, 하아야타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헤에서, 하아에서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32332-0-2 국(羹)-을/를 구그  
32332-0-3 국(羹)-에(서) 구게  
32332-0-4 국(羹)-으로 구그느  
32332-0-5 국(羹)-도 국뚜  
32333-0-1 논(沓)-이/가 늠파이라구, 노이라구  
32333-0-2 논(沓)-을/를 늠빠트  
32333-0-3 논(沓)-에(서) 늠빠테서  
32333-0-4 논(沓)-으로 늠빠트르  
32333-0-5 논(沓)-도 늠빠뚜  
32334-0-1 쌀(米)-이/가 싸리  
32334-0-2 쌀(米)-을/를 싸르  
32334-0-3 쌀(米)-에(서) 싸레  
32334-0-4 쌀(米)-으로 싸를르, 쌀르  
32334-0-5 쌀(米)-도 쌀두

32335-0-1 봄(春)-이/가 보미  
32335-0-2 봄(春)-을/를 보무  
32335-0-3 봄(春)-에(서) 보메  
32335-0-4 봄(春)-으로 보물루  
32335-0-5 봄(春)-도 봄두  
32336-0-1 집(家)-이/가 지비라  
32336-0-2 집(家)-을/를 지부  
32336-0-3 집(家)-에(서) 지베서  
32336-0-4 집(家)-으로 지부루  
32336-0-5 집(家)-도 집뚜  
32337-0-1 옷(衣)-이/가 우티, 오시  
32337-0-2 옷(衣)-을/를 우티르  
32337-0-3 옷(衣)-에(서) 우티에  
32337-0-4 옷(衣)-으로 우틸르  
32337-0-5 옷(衣)-도 우티두  
32338-0-1 방(房)-이/가 바~이  
32338-0-2 방(房)-을/를 바아  
32338-0-3 방(房)-에(서) 바~에서  
32338-0-4 방(房)-으로 바~알~르  
32338-0-5 방(房)-도 방두  
32339-0-1 낮(晝)-이/가 나티라구  
32339-0-2 낮(晝)-을/를 나즈  
32339-0-3 낮(晝)-에(서) 나제  
32339-0-4 낮(晝)-으로 나줄르두  
32339-0-5 낮(晝)-도 나뚜  
32340-0-1 낮(顏)-이/가 나티라, 나치라구두  
32340-0-2 낮(顏)-을/를 나츠  
32340-0-3 낮(顏)-에(서) 나채  
32340-0-4 낮(顏)-으로 나트느  
32340-0-5 낮(顏)-도 나치두  
32341-0-1 부엌(廚)-이/가 부수깨라구  
32341-0-2 부엌(廚)-을/를 부어깨르, 부수깨르  
32341-0-3 부엌(廚)-에(서) 부수깨애다, 뵤어깨애다  
32341-0-4 부엌(廚)-으로 부수깨는  
32341-0-5 부엌(廚)-도 부수깨두  
32342-0-1 밭(田)-이/가 바티  
32342-0-2 밭(田)-을/를 바트  
32342-0-3 밭(田)-에(서) 바테  
32342-0-4 밭(田)-으로 바트르  
32342-0-5 밭(田)-도 바티두

32343-0-1	앞(前)-이/가	아피지
32343-0-2	앞(前)-을/를	아푸
32343-0-3	앞(前)-에(서)	아페
32343-0-4	앞(前)-으로	아푸루
32343-0-5	앞(前)-도	압두, 아푸두
32344-0-1	넋(魂)-이/가	*
32344-0-2	넋(魂)-을/를	*
32344-0-3	넋(魂)-에(서)	*
32344-0-4	넋(魂)-으로	*
32344-0-5	넋(魂)-도	*
32345-0-1	흙(土)-이/가	홀기
32345-0-2	흙(土)-을/를	홀그
32345-0-3	흙(土)-에(서)	홀게
32345-0-4	흙(土)-으로	홀글르
32345-0-5	흙(土)-도	혹뚜
32346-0-1	야덥(八)-이/가	야들비
32346-0-2	야덥(八)-을/를	야들부
32346-0-3	야덥(八)-에(서)	야들베서
32346-0-4	야덥(八)-으로	야들부느
32346-0-5	야덥(八)-도	야덥뚜
32347-0-1	돌(週歲)-이/가	돌씨
32347-0-2	돌(週歲)-을/를	돌쓰 센다
32347-0-3	돌(週歲)-에(서)	△
32347-0-4	돌(週歲)-으로	△
32347-0-5	돌(週歲)-도	△
32348-0-1	값(價)-이/가	갑씨
32348-0-2	값(價)-을/를	갑쓰
32348-0-3	값(價)-에(서)	△
32348-0-4	값(價)-으로	△
32348-0-5	값(價)-도	갑쓰부터
32349-0-1	속:(內)-이/가	소기
32349-0-2	속:(內)-을/를	소그
32349-0-3	속:(內)-에(서)	소개서두
32349-0-4	속:(內)-으로	소글르
32349-0-5	속:(內)-도	속뚜
32350-0-1	돈:(錢)-이/가	도이
32350-0-2	돈:(錢)-을/를	도느
32350-0-3	돈:(錢)-에(서)	도네서
32350-0-4	돈:(錢)-으로	도늘르
32350-0-5	돈:(錢)-도	돈두

32351-0-1	밭(足)-이/가	바리
32351-0-2	밭(足)-을/를	바르
32351-0-3	밭(足)-에(서)	바레서, 바레다
32351-0-4	밭(足)-으로	발르
32351-0-5	밭(足)-도	발두
32352-0-1	짐(荷物)-이/가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지무
32352-0-3	짐(荷物)-에(서)	지메서
32352-0-4	짐(荷物)-으로	지무느
32352-0-5	짐(荷物)-도	짐두
32353-0-1	입(口)-이/가	이비 너르다
32353-0-2	입(口)-을/를	이부
32353-0-3	입(口)-에(서)	이베서
32353-0-4	입(口)-으로	이불루
32353-0-5	입(口)-도	입뚜
32354-0-1	낫(鎌)-이/가	나디
32354-0-2	낫(鎌)-을/를	나드
32354-0-3	낫(鎌)-에(서)	나데
32354-0-4	낫(鎌)-으로	나들르
32354-0-5	낫(鎌)-도	나뚜
32355-0-1	강(江)-이/가	가~이 너르다
32355-0-2	강(江)-을/를	가~아
32355-0-3	강(江)-에(서)	가~에서
32355-0-4	강(江)-으로	가~을르, 가~으르
32355-0-5	강(江)-도	△
32356-0-1	젖(乳)-이/가	저지
32356-0-2	젖(乳)-을/를	저즈
32356-0-3	젖(乳)-에(서)	저제
32356-0-4	젖(乳)-으로	저줄르
32356-0-5	젖(乳)-도	저뚜
32357-0-1	꽃(花)-이/가	꼬지
32357-0-2	꽃(花)-을/를	꼬즈, 꼬츠
32357-0-3	꽃(花)-에(서)	꼬제 가서
32357-0-4	꽃(花)-으로	꼬줄르
32357-0-5	꽃(花)-도	꼬뚜
32358-0-1	팥(赤豆)-이/가	패끼
32358-0-2	팥(赤豆)-을/를	패끼르
32358-0-3	팥(赤豆)-에(서)	패끼에서
32358-0-4	팥(赤豆)-으로	패낄르
32358-0-5	팥(赤豆)-도	패끼두

32359-0-1 옆(側)-이/가	여피
32359-0-2 옆(側)-을/를	여푸
32359-0-3 옆(側)-에(서)	여페 서따
32359-0-4 옆(側)-으로	여폴루
32359-0-5 옆(側)-도	엿뚜
32360-0-1 샅(賃金)-이/가	싸기라구
32360-0-2 샅(賃金)-을/를	싸그
32360-0-3 샅(賃金)-에(서)	싸게서
32360-0-4 샅(賃金)-으로	싸글르
32360-0-5 샅(賃金)-도	싸뚜
32361-0-1 닭(鷄)-이/가	달기
32361-0-2 닭(鷄)-을/를	달그
32361-0-3 닭(鷄)-에(서)	달게서
32361-0-4 닭(鷄)-으로	달그느
32361-0-5 닭(鷄)-도	닥뚜
32362-0-1 밖(外)-이/가	바가티라구두 하구
32362-0-2 밖(外)-을/를	바가트 쓸라
32362-0-3 밖(外)-에(서)	바가테
32362-0-4 밖(外)-으로	바가트르
32362-0-5 밖(外)-도	바가티두

## 제4편 문 법

### 4.1. 대명사

#### 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내
40101 나	내라구
40101-0-1 내-가	내 머저따구
40101-0-2 내	내게라구{내 것이라고}
40101-0-3 나-를	나르 차자와따구
40101-0-4 나-에게	나르 다우{나를 다오}, 내게다 썬따{나에게다 썬다}, 내 게다 도따구{나에게다 났다고}
40101-0-5 나-와	내가 가치 가자{나와 같이 가자}
40101-0-6 나-는	나는 cf. 내마 안다{나만 안다}
40101-0-7 나-도	나두 안다구
40102 저/제-가	내(+이 방언에서 ‘저/제’는 이인칭 평대 대명사로 쓰임)
40102-0-1 저-가	*
40102-0-2 저-의	*
40102-0-3 저-을/를	*
40102-0-4 저-에게	*
40102-0-5 저-와/과	*
40102-0-6 저-는	*
40102-0-7 저-도	*
40103 우리	우리 아부집니다(+이 방언에는 ‘우리’의 낮춤말이 없음, ‘-디니다’의 사용은 표준어의 영향으로 보임)
40104 저희	우리 아부집니다(+이 방언에는 ‘우리’의 낮춤말이 없음, ‘-디니다’의 사용은 표준어의 영향으로 보임) cf. 내 아 부지이꾸마
40105 너	너느, 니
40105-0-1 -가	네 아푸야?(+이 방언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없음){너 아프냐?}
40105-0-2 -의	네 이미리 미시게야?(너의 이름이 무엇이나?), 니 이리 미 미시게야?(너의 이름이 무엇이나?), 니 채기다{너의



	책이다}
40105-0-3 -을/를	너르
40105-0-4 -에게	니게르{너에게로}
40105-0-5 -와/과	네가, 네가 가치 가개따구{너와 같이 가겠다고}
40105-0-6 -는	너는, 너느
40105-0-7 -도	너두 머거라{너도 먹어라}
40106 자네	*(+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cf. 너두 바부 머거라, 싸이 바부 머그라구
40107 당신	귀래라 하압떼(+원동에서 제보자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를 때 썼음, 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거래
40108 너희	너어 마마{너희 어머니}, 너어 아부지야?{너희 아버지냐?}
40109 개	가아, 가아라 하지
40109-1 애	야아, 야아는
40109-2 재	자아, 자아라구
40110 자기	제말마{자기 말만}
40111 당신	*(+"재비 빠~아네서"와 같이 주로 재귀사를 씀)

## 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와쑈?, 누구바쑈?(+[nuguvas'o]), 뉘기오?(+[n'wigio]), 니기오?
40112-0-1 누-가	누기
40112-0-2 누구-의	누גיע야?, 네에게~야?, 뉘기 마산냐?{누가 부렸냐?}
40112-0-3 누구-를	누기르 주자구{누구를 주자고}
40112-0-4 누구-에게	누גיע
40112-0-5 누구-와	누기가 가~야? cf. 누우 가치 가능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미시게~야?, 무어시야?, 무어시오?, 미시쨌두?
40113-0-1 무엇-이	무시쟁가, 미시쟁가구
40113-0-2 무슨	무순 일 하능가
40113-0-3 무엇-을	무스그, 무스거 먹쨌는가:구{무엇을 먹쨌는가 하고}
40113-0-4 무엇-과	므스거까(+[mʌsigək'a])

## 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어디메르{어디로}, 어디메를{어디를}, 어디르
40115 언제	언제 오겐냐?
40116 어느	→어느게 존냐?{어느 게 좋냐?}, 어떻게 싸겐냐?
40117 왜	니 어쨌 우야?
40118 얼마나	엠매나, 엠매
40119 어떻게	어떠키 해엔냐?, 어떠케

## 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게 무시게냐?
40121 그것	그게 미시쟁가구
40122 저것	저게라 하구
40123 여기	잉게라구두 하구, 여기르 오나라, 잉게르 오나라
40124 거기	경게라구두 하구
40125 저기	정게, 저기
40126 이리	잉게르 오오(+다), 여기르 오오(+다), 잉겔르 가라구(+다), 일루 가가라(+소, 한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라 함){이리로 가거라}
40127 그리	경겔르 가라구(+다), 그리르(+소){그리로}
40128 저리	정게르 가가라(+다), 절루 가가라(+소), 절리라는 말(+소)

## 4.2. 조사

### 1) 격조사

40201 -이/가	갑썬 세다{값이 비싸다}, 갑썬 이따구, 코이
40203 -을/를	기메테기르, 기르, 무르 준다
40205 -에게/게	저 사름게 쥬판 말시오
40206 -보고/더러	→누기한테, 누기라구, 누기르보구(+?조)
40208 -에	지부루 가지(+다, 질문지의 질문문으로는 처소격 "-에"가 나타나지 않음), 지베 간다(+소)
40209 -에	훈나레 만나자, 어느때애
40210 -에서	큰지베서(+[kʰənʃibesə])
40211 -에서	서우레서 만나자
40212 -에서	영게서
40213 -으로	참쌀르
40214 -으로	지폴루두
40215 -으로	새길르
40216 -으로	어드르 가오?, 어디를 가오?
40217 -와/과	수바까 차매르
40218 -와/과	내가 가치 가자
40219 -보다	형보구, 헤~이보구
40220 -처럼	대애지처름, 대애지처리
40221 -만큼	네마-이, 네처름
40222 -만큼	머글마:이
40223 -아/야	봉나마!

40224 -아/야	봉내미!
40225 -아/야	영수야!
40226 -아/야	누인니미!
40226-1 -예	*
40227 -아/야	아바이!
40227-1 -요	*
40228 -이랑	수우리랑 고기랑
40229 -커녕	뱅냐~아커야느

## 2) 보조사

40230 -은/는	담배는 아이 피운다, 수우르는 마세두 담배느 아이 피운다 →마딸마{만딸만}
40231 -만	키두 크구 잉기두 잘나따{키도 크고 낫도 잘났다}
40232 -도	날마당
40233 -마다	오늘부터
40234 -부터	내일까지(+질문에 대한 최초 발화와 구술 발화 및 자연 발화에서는 주로 "-꺼지"를 씀) , 내일꺼지두, 내일꺼지
40235 -까지	물두 업따구, →마실 물조차두 업따(+표준어의 영향으로 보임) →비꺼지 오는데
40236 -조차	→마리사
40236-1 -할라	소리르
40237 -이야/야	부재라 해·두·(+다), →부재래두(+소)
40238 -을랑	니빠께 업따구
40239 -이라도	싸가지구 간다지 cf. 보울르 매애가지구 간다해두
40240 -밖에	
40241 -가지고	

## 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오라구
40243 알았어-요	* cf. 머께쓰꾸마
40244 했지-요?	* cf. 잡싸쏘?, 누기 매애쏘?{누가 발을 댔소?}

## 4.3 종결어미

40301 -아라	안자라(+[anjara])
40302 -게	안자라 cf. 오~오 하오{응응 하오}
40303 -으오	안쏘
40304 -으십시오	안줍쏘 cf. 오웁쏘

40305 -세요	안줍쏘
40306 -자	가자
40307 -세	가기오(+다른 고려인들은 사위에게 하오체를 쓰기도 한다 함), 가자(+제보자는 주로 사위에게 해라체를 씀)
40308 -으오	가기입쏘(+다), 가기오(+소)
40309 -십시다	가깁쏘
40310 -세요	가깁쏘
40311 -니	오~야?, 오나?
40312 -나	오~야?(+제보자는 주로 사위에게 해라체를 씀), 오오?(+다른 고려인들은 사위에게 하오체를 쓰기도 한다 함) 오오?
40313 -오	오웁두?
40314 -습니까	오웁드?, 오오?(+사위가 장모와 친밀도가 높을 때 씀)
40315 -나요	가~야~?
40316 -니	가오?(+다른 고려인들은 사위에게 하오체를 쓰기도 한다 함), 가~야?(+제보자는 주로 사위에게 해라체를 씀)
40317 -나	가암드?(+[kaamdɐ])
40318 -시오	가암드?
40319 -십니까	가암드?, 가오?(+소, 사위가 장모와 친밀도가 높을 때 씀)
40320 -세요	멍는다
40321 -는다	멍는다
40322 -네	먹쏘
40323 -오	먹쓰꾸마
40324 -습니다	먹쓰꾸마
40325 -네요	작파
40326 -다	작파
40327 -네	작쏘
40328 -소	작쓰꾸마, 작쓰끄마(+[čaks'ik'uma])
40329 -으십니다	작쓰꾸마
40330 -으세요	* cf. 아푸야?, 아푸~야?, 알랴?
40331 -아	* cf. 베이 다 나산냐?
40332 -지	생지이다
40333 -이다	생지이~야?, 생지이야?
40334 -이니	생지이다
40335 -이네	생지이~야?, 생지이야?
40336 -인가	생지이오
40337 -이오	새이리오?
40338 -이오	생지이꾸마, 새이리꾸마
40339 -입니다.	생지임두?, 생지임드?
40340 -입니까	

40341	-이시지요	생진나리오
40342	-이시지요	생지이오?
40343	-이냐?	미시게야?
40344	-인가?	미시게~야?, 미시게야?
40345	-이오?	미시게오?, 미시기오?
40346	-입니까?	미시겜두?
40347	-인가요?	미시겜두?, 미시게오?(+소)
40348	-이야?	미시게오?
40349	-이어요?	미시게오?
40350	-습니다	만쓰끄마
40351	-습디다	만썸떠구마 cf. 만썸떼(+하오체)
40352	-는구나/구나	→멍는구나
40353	-는구먼/구먼	→멍능구만, →멍능구마는
40354	-일세	오람마니오
40355	-으마	주마
40356	-음세	주마
40357	-올라	*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바부 잡썸꼬(+[čaps'ok'o])
40402	-으면서	보메
40403	-어/-어서	치바서
40404	-으니 /-으니까	따따:사~이
40405	-관테	이릴래
40406	-다가	→오다가
40407	-거든	→만나거든
40408	-더라도	먹떠래두
40409	-으려고	먹짜구
40410	-도록	→죽뚜라 일한다
40411	-을수록	가두라{갈수록}, 배우두라{배울수록}, 할싸룩(+주 제보자 는 "-두라"를 쓰고, 보조 제보자1은 "-르사룩"을 씀){할수 룩}
40412	-듯이	물쭈두 한다구, 물쭈두 쓴다구
40413	-지	→먹찌

## 4.5 주체존대

40501	-셔	*(+이 지역에서는 주체 존대 "-시-"를 쓰지 않음)
40502	-췌소	*(+이 지역에서는 주체 존대 "-시-"를 쓰지 않음, "해애 췌?", "해애췌두?", "해애췌드?"만 씀)

## 4.6. 시제

40601	웃는다	운는다
40602	기어간다	게에간다구두 하구
40603	크다	크다구두
40604	생일이다	생지이다
40605	오고 있다	오구 이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머건냐?
40607	왔었다	와따(+다), →와서따(+소)
40608	먹더라	먹떠라
40609	먹더냐	먹떠~야?, 먹떠야?
40610	만나는 친구	만나는
40611	만난 친구	만난
40612	만났던 친구	만나편
40613	만날 친구	만날
40614	큰 아이	큰 아라구{큰 아이라고}
40615	크던 아이	크던 아라구
40616	컸던 아이	커편 아라구
40617	마시지 않겠다	아이 마시개따구, 양개따구
40618	비가 오겠다	오개따

##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아이 머거따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아이 조타, 조채이타구{좋지 않다고}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아이 깨끗자더라구, 아~이 깨끗자더라구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서바아 아이 가따{장가를 안 갔다}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몸만나바췌{못 만나 봤소}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만나 모빠따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뚜대이쿠 잔다구{먹지도 않고 잔다고}
40706-1	먹도 않고	먹뚜대이쿠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몸마신다구두, 아이 마시오
40708	맛잖소?/안 맞소?	마췌이오?, 아이 올췌?, 아이 올랴?

## 4.8 사동과 피동

###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가따, 살구구 이따
40802	놀리다	놀구구, 놀거따
40803	말리다1	말리운다지
40804	말리다2	말긴다구
40805	얼리다	얼구구 이따, 얼거따구
40806	눅이다	눅구구 이따지
40807	신기다	싱긴다
40808	보이다	베운다구
40809	알리다	알게따, 알기와따 하지, 알기구야
40810	입히다	이핀다구두
40811	얹히다	안체따구두 하구, 안치구
40812	벗기다	빼께다구두 하구
40813	웃기다	우깁다구
40814	씩히다	씩긴다지
40815	숨기다	폼치운다지, 폼치와 나야{숨겨 놔야}
40816	굴기다	궁기구 이따, 궁게라
40817	깨우다	깨와라, 깨운다구서리
40818	돌우다	도꾸구 이따구, 도까라

## 4.8.2. 피동

40819	잡히다	재피우구, 재피와따구두 하오 cf. 부똥기와따구
40820	깎이다	깨끼와다
40821	끼이다	끼마찌(+[k'ivač'i]), 끼와찌
40822	떼이다	애끼와찌(+다), 떼와따구(+소)
40823	채이다	세게 채와따
40824	닫히다	대께찌, 대끼구 이따구
40825	들리다	디깁다, 디끼구 이따, 아이 디끼지
40826	엮히다	어페따
40827	바뀌다	배끼와따구
40828	씹히다	씨피와따구
40829	엮히다	→언치와따라구두 cf. 걸키와따구두, 절리와져따구
40830	찍히다	찌깁다
40831	놀리다	놀리와따
40832	실리다	실게와따지
40833	끓기다	끄너저찌
40834	굽히다	오리와따 하오(+ "굽히다"는 잘 안 쓰임)

## 4.9. 보조용언

40901	싫다	시풍게{싫은 게}
40902	싫다	멍능가트더이(+다){먹는 것 같더니}, 십떠이(+소)
40903	보다	이버 보오{입어 보오}
40904	버리다	머거 치와라구두(+다), 머거 버레라(+소)
40905	대다	울기두 운다(+다), 우러 덴다(+소) cf. 울기만 운다구, 울기마 운다
40906	-나/는가 보다	올까따구 cf. 비 오겐는 모애이라구
40907	-나/는가 보다	자능갑따, 자능까트다, 자능까따
40908	-나/는가 보다	치봉까트다 cf. 치분 모애이라구, 차가분 모애~이다구

## 4.10. 부사

41001	실컷	슬:큰
41002	많이	마이, 마~이
41003	너무	지내, cf. 지제이 나지{주정 부리지}
41004	조금	조끔, 제끔
41005	자주	자주루 땡기지
41006	빨리	빨리 와꾸나
41007	얼른	얼릉(+다), 얼씨덩(+소), 데까당멍는단 말두(+소)
41008	기어코	기여:나
41009	가끔	가끔
41010	먼저	만저 가가라
41011	나중에	좀 이따가 달라구(+다), 차차(+다), →나주에(+소) cf. 죄외꿈(+[čöök'om])
41012	가득	꼴뚝 채와라
41013	몽땅	다아 가제오나라(+ "몽땅"은 쓰이지 않음)
41014	모조리	씩 베에따구(+다), 곡식이 널기무 모조리 썩 쓰러라, 모조리 쓰러라, 모조리 베에라(+소)
41015	혼자	혼자 이슬까?(+다), 하분자라구두 하오(+소)
41016	항상	늘쌍두 쓰오(+다), 항상(+소) cf. 한니르 이란다{한평생 을 일한다}
41017	똑똑히	똑뚝기 써라 cf. 꼬께 써라{곧게 써라}
41018	겨우	→제에구나
41019	늘	늘:
41020	저절로	절루, 재빌르, 제절루
41021	자꾸	자꾸
41022	설마	간대르사 cf. 간대르사 나르 열레쓰까?
41023	하마터면	재뻔, 해떠무
41024	함께	가치 가따(+다), 함께라구서르(+소)
41025	결핍하면	퍼뚱하무(+[pʰət'igʰamu])

41026 공연히	→고~여:이, 고여:이
41027 그냥	그양 빙게 와따 하오{그냥 빈 손으로 왔다 하오}
41028 매우	모지리
41029 곧장	고께
41030 벌써	발써
41031 가장	제:이리 박따
41032 가만히	가마:이
41033 미리	미루 아라따{미리 알았다}
41034 이따금	*

## 4.11. 관용적 표현

### 1) 관용어구

41101 여보	아바이(+이 지역에서는 주로 이름을 부름)
41102 여보세요	이보옵쑤
41103 들어가세요	페나이 이스라구
41104 수고하세요	잘이쑤, 잘가오, 잘이쑤쑤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오람마네 만나쑤, 오람마네 바쑤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주로 러시아 어로 인사함)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알령하심두?(+주로 러시아 어로 인사함) cf. 열러~이 가시오!
41108 여기 있습니다	어쑤!(+[əs'ŋ])
41109 예	예:
41110 아니	아~이오, 아~이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이럽따
41112 내버려 뒀	나아두라구, 나아두라서리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 cf. 잘 사나 구차하나 다아 마시나르 타구 뎡긴다{잘 사나 구차하나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 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깨애진 항새리에 물부뚜 한다구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도동니미 자라서 세 도동니미 뎡다능게
41116 아니 뎡 굴뚝에 연기 나랴	불때제인 구새서는 내구리 아이 난다구

<Abstract>

## 2009 Research on Regional Dialect of Overseas Collective Diaspora Korean

—on Bishkek in Kirgizstan

This report contains (1)narrative discourse(only four hours), (2)vocabulary, (3)phonology, (4)grammar research material which were surveyed from the Korean on Bishkek in Kirgizstan. This survey proceeded from July 2<sup>nd</sup> to July 17<sup>th</sup> in 2009, for about 59 hours. This materials may show the real state of the Korean language "*Koryeo-mal*" of the Koreans who were residents in Kirgizstan.

Kirgizstan are located in south-western area of Central Asia, with China to the east, Kazakhstan and Uzbekistan to the north. In Kirgizstan, there are 20 thousand Koreans who forced to emigrated from the Russian Far-East by Soviet Russian. They had lived in Uzbekistan or Kazakhstan at the beginning of diaspora.

The majority of the Koreans in Kirgizstan live on Bishkek, the capital city of Kirgizstan and in the neighbouring area to Bishkek. They call their mother country "*Koraŋ*"(Korea), call their mother tongue "*Koreo-mal*"(the Korean Language spoken in Central Asia), and call themselves as "*Koreo-saram*"(the Korean). The Koreans from seventy years up can speak Korean fluently, but sixty years down cannot speak Korean well. It is very difficult to speak Korean in their sixties. So they usually speak Russian. The elderly Korean usually speak Russian, and they speak Russian with the members of thir family, because their family members speak only Russian. But They mostly speak Korean with "*Koreo-saram*".

We interviewed six Koreans on Bishkek, and selected three of them as informants. An, Tashja, main informant, whose ancestors resided in Onseong-gun of Hambuk province which belongs to the Yukcin-dialect area. The other informant Pak, Ok-Sun, whose ancestors resided in Puryeong-gun of Hambuk located at the border of the Yukcin and the North-eastern dialect. Pak, Pjotr, whose ancestors resided in Kilju-gun of Hambuk which belongs to the North-eastern dialect. All three informants do not show the dialect of ancestors. They speak koine "*Koreo-mal*" which has developed gradually by the regional dialects of Hambuk-province in North Korea. The sentence endings are similar to the Yukcin-dialect, and Phonology is similar to the North-eastern dialect.

Key-words; Kirgizstan, Bishkek, diaspora, *Koryeo-mal*"(the Korean Language), "*Koreo-saram*"(the Korean), Yukcin dialect, North-eastern dialect.